



연기군의 지명유래

조치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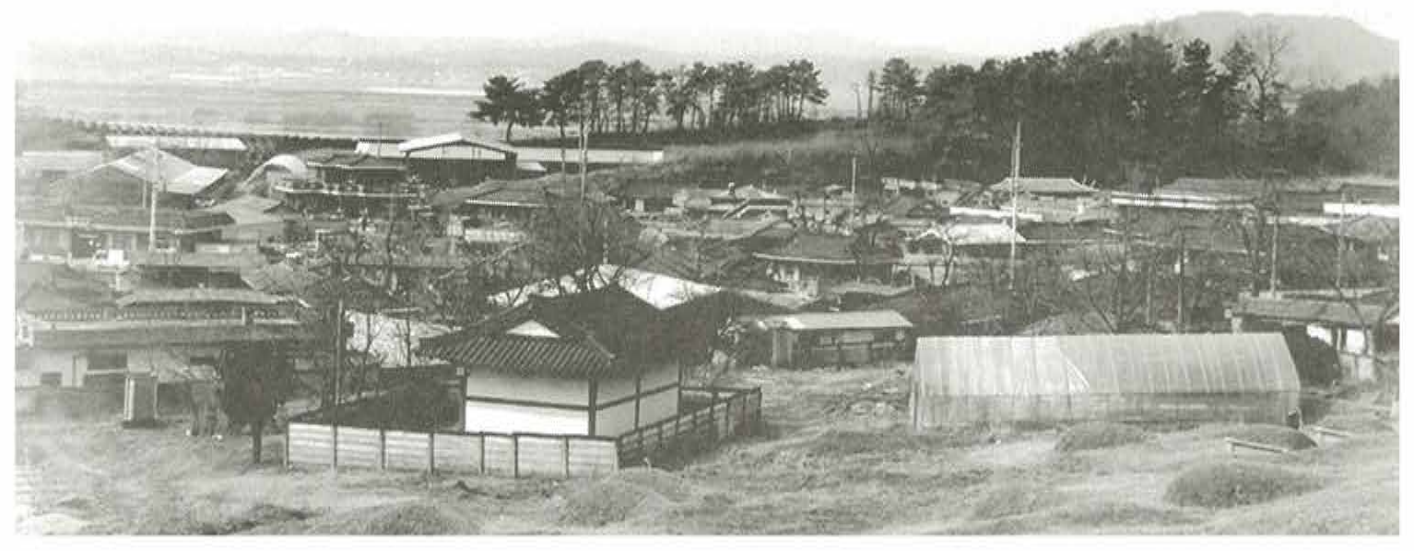
地名



연가군의 지명유래

조치원문화원

地
名





조치원 문화원장 **심영이**

연기군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연기군 남면과 금남·동면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책사업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지만 이곳의 마을은 이름과 유래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범위가 연기군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 뒤에 올 문화파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수 없다.

또하나 요즘 도시나 시골에서는 마실 이라는 아름다운 풍습이 사라졌다.

그래서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웃에서 들어서 구전되던 형식의 얘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가족의 대화는 TV 등 대중매체에 빼앗기고 보존되어질 아름다운 얘거나 역사성 있는 이야기는 문자형태 보존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아름다운 마을 이름과 유래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책자를 계획하였고 발간하게 되었다.

연기군의 아름다운 지명유래가 계속해서 살아 있기를 바란다.



燕岐郡



연기군의 지명유래



목 차

연기군

1. 조치원읍

평리	14
침산리	15
죽림리	16
정리	18
원리	20
신흥리	22
신안리	23
서창리	25
봉산리	26
번암리	28
상리	30
명리	32
남리	34
교리	35

2. 동면

합강리	44
응암리	49
예양리	52
송용리	54
문주리	57
명학리	60
용호리	64
노송리	72
내판리	77

3. 서면

청라리	83
월하리	88
용암리	94
와촌리	98
쌍전리	105
쌍류리	107
신대리	109

성제리	113
부동리	118
봉암리	121
기룡리	123
국촌리	130
고복리	132

4. 남면

수산리	139
진의리	143
종촌리	148
월산리	157
연기리	162
송원리	169
양화리	175
송담리	184
보통리	189
방축리	193
놀왕리	199
나성리	202
고정리	206
갈운리	211

5. 금남면

용포리	221
발산리	225
감성리	226
두만리	228
용담리	231
황용리	235
영대리	238
달전리	243
대박리	245
박산리	248
축산리	250
금천리	253
영치리	257
남곡리	260
부용리	263
석교리	267
봉기리	271
반곡리	278
석삼리	283
장재리	287
호탄리	290

신촌리	292
도암리	294
성덕리	296
영곡리	300

6. 전의면

읍내리	307
동교리	313
서정리	317
원성리	320
신흥리	322
유천리	324
관정리	331
신정리	340
노곡리	344
영당리	347
신방리	348
양곡리	352
달전리	357
다방리	359
금사리	364

7. 전동면

청송리	371
청람리	375
송정리	378
송성리	382
송곡리	390
석곡리	394
보덕리	396
미곡리	399
노장리	403
봉대리	408
심중리	408

8. 소정면

고등리	417
대곡리	424
운당리	431
소정리	432



燕岐郡



연기군(燕岐郡)

연기군을 크게 세 곳으로 나누면 북쪽을 전의(全義), 중심지가 연기(燕岐), 남쪽을 금남(錦南)으로 나눈다. 전의는 백제시대 대목악군(大木岳郡)의 구지현(仇知縣), 연기는 일모산군(一牟山郡)의 두잉지현(豆仍只縣), 금남은 웅진(熊津)의 소비포현(所比浦縣)이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의가 대륙군(大麓郡)의 속현인 금지(金池), 연기는 연산군에 속하여 연기(燕岐), 금남은 웅진의 적오현(赤烏縣)(757년 경덕왕)이었다.

고려시대에는 전의는 청주의 전의현, 연기는 청주의 연기현으로 명종2년(1172년) 감무를 두었다가 뒤에 목주 감무로 겸임케 하였다. 금남은 공주이다. 조선시대 전의는 태조4년(1395년)에 감무를 두었다. 연기는 태종6년(1406년)에 감무를 두었다. 태종14년(1414년) 연기현과 전의현을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 하고, 태종16년(1416년)에 각각 연기와 전의로 환원 숙종6년(1680년) 문외에 속하였으나, 1685년에 복구, 고종32년(1895년)에 연기현을 연기군(燕岐郡), 전의현을 전의군(全義郡)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게되어 군청을 연기는 연기에, 전의는 전의에 두었다. 1911년 연기군청을 연기리에서 조치원으로 이전하였다. 금남은 공주에 속하여 1895년 현을 군이라 칭하고 군수를 두었을 때 양야리면, 명탄면, 반포면(현 용담리, 성덕리, 영곡리, 도암리)으로 분류하였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전의군의 동면, 남면, 소서면, 대서면, 북면, 덕평면, 군내면을 연기군과 통합하였고, 연기는 삼기면의 일부와 충북 청원군 서강의 일하면 일부를 폐합하였다.

금남은 공주군 명탄면, 양야리면, 반포면(일부), 구죽면(일부)을 연기군에 통합한 후 연기금강의 남쪽에 있다하여 금남면이라 불렀다.

1931년 4월 면제 개정에 따라 조치원읍을 신설하고 1읍, 6면, 101동리를 관할하게 되었고 1939년 서면의 신동, 내창, 번암, 동리의 4개리를 조치원읍으로 편입시켰다.

해방 후 금남면은 1946년 6월 대홍수로 인해 대평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유실되자 용포리로 이주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1일 소정면을 신설(운당, 소정, 대곡, 고동리)하고, 1995년 3월 1일 청원군 강외면 심중 1, 2리를 전동면에 편입시키고, 동면 갈산 1, 2리를 청원군 부용면에 편입시켰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조치원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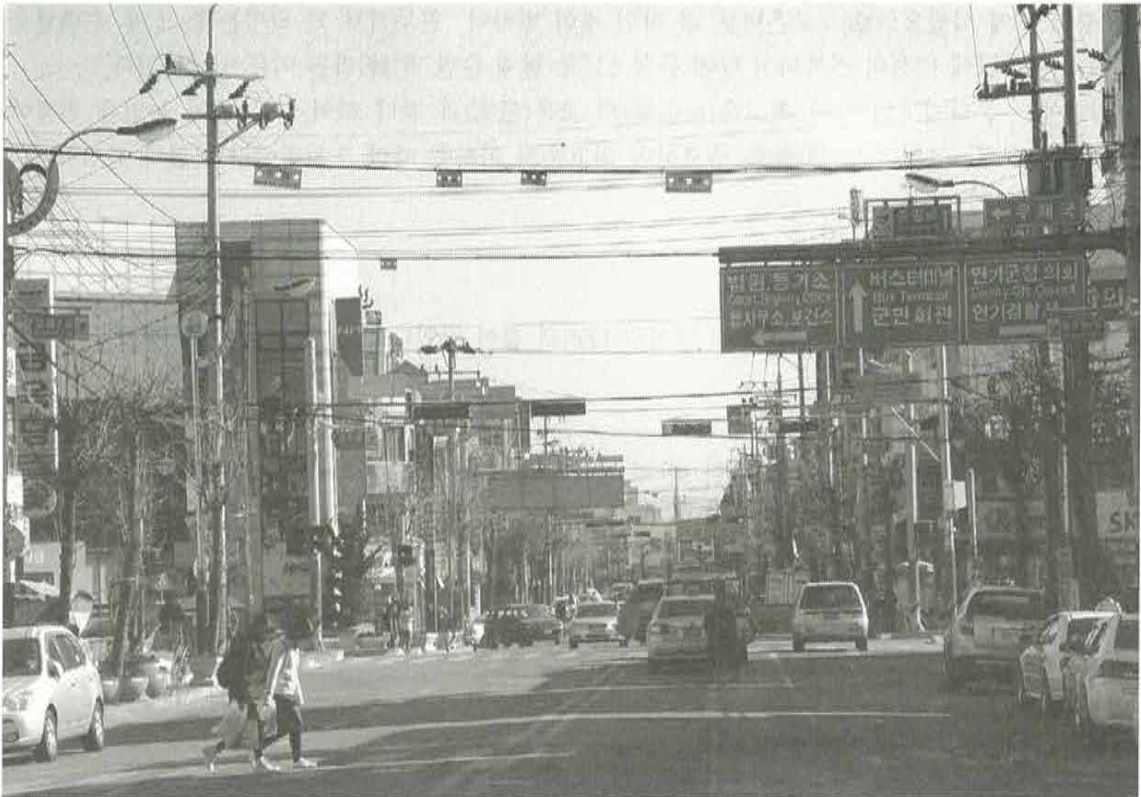
1. 조치원읍(鳥致院邑)

백제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던 별판이었다. 공주(公州)와 청주(淸州)에 큰 마을이 형성되면서 스쳐가는 지점이었고 작은 마을로 전의(全義)와 연기(燕岐) 사이에 있는 들이었다.

신라통일후 연기(燕岐)라 하고 '연산군(燕山郡)(연산—문의 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현종때는 청주(淸州)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때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조선말엽 연기군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이었다. 조치원이 읍으로서의 비약적 발전은 일제초기에 철로가 시설되어 역(驛)으로서의 면모가 커짐에 따라 교통의 요지로 등장하면서 부터다.

북일면으로서 10개리(個里)를 개편 관할하다가 1917년 10월에 근처의 9개리를 서면(西面)에 넘겨주고 그 나머지를 조치원리로서 조치원면을 신설하여 지정면(指定面)이 되고, 1931년 4월 1일에 읍제설정(邑制設定)에 의하여 조치원읍으로 승격되고 1931년 12월에 서면외(西面外) 5개리를 편입하고 1940년에 '리(里)'를 '정(町)'으로 고쳤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동(洞)으로 고쳐서 14개동을 관할하는 읍(邑)이 되었다. 연기군 1읍7면(一邑七面)의 하나로 군(郡) 소재지이다.



조치원 시가지

㉞ 평리(平里)

백제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연산—문의 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태종(太宗)때 연기현에 속했다가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 다시 연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엔 충북(忠北) 청주군(淸州郡) 서강외(西江外) 일하면(一下面)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그래서 '별말' 또는 '평리'라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연기군 북면에 편입되어 조치원리가 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1940년에 '소화정'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평동(平洞)으로 고쳐, 조치원을 평리(平里)가 되었다.

■ 곤두기보

조치원을 앞들에 있는 보를 '곤두기보'라고 부른다. 일명 '보은덕보'라고도 부르는데 이 보는 조선초에 허만석(許萬石)이 연기현감이 되어 큰 내에 독을 막고 보를 내어 전답(田畓) 천여(千餘)마지기에 물을 대게 하는데 그때 독을 쌓을 때 그 보가 청주땅에 있다하여 청주 사람들이 수천명 몰려들어 허만석 현감이 친히 감독하는 걸상을 부수므로 허만석 현감이 크게 노하여 활을 당기어 쏘려고 하니, 청주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감히 범하지 못하므로 그 보를 완성하여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허만석 현감의 은덕(恩德)을 갚겠다는 뜻으로 보은덕비(報恩德碑)를 평리 앞에 세웠으므로, '보은덕보'라 하던 것이 변하여 '곤두기보'가 되었는데 그 후 수백년을 내려오는 동안에 비석이 전복되어 땅에 묻혔으므로 현재 묻힌 비(碑)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일설에는 곤두기보의 음이 최고운(崔孤雲)의 고운(孤雲)과 같다 하여, 최고운이 농민을 위하여 보를 냈으므로, 그의 은덕(恩德)을 추모하여 최고운의 이름을 따라 조치원이라 하였다 하나, 이는 터무니 없는 말이다.

■ 방아다리

'별말' 앞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이 방아의 다리와 같이 되었다해서 '방아다리'라 부른다.

■ 묻힌 비(碑)

'방아다리'에 묻혀 있는 비를 '묻힌 비'라 한다. 조치원의 사적을 적은 비(碑)인데, 이 비(碑)가 나오면 조치원이 망한다는 설(說)이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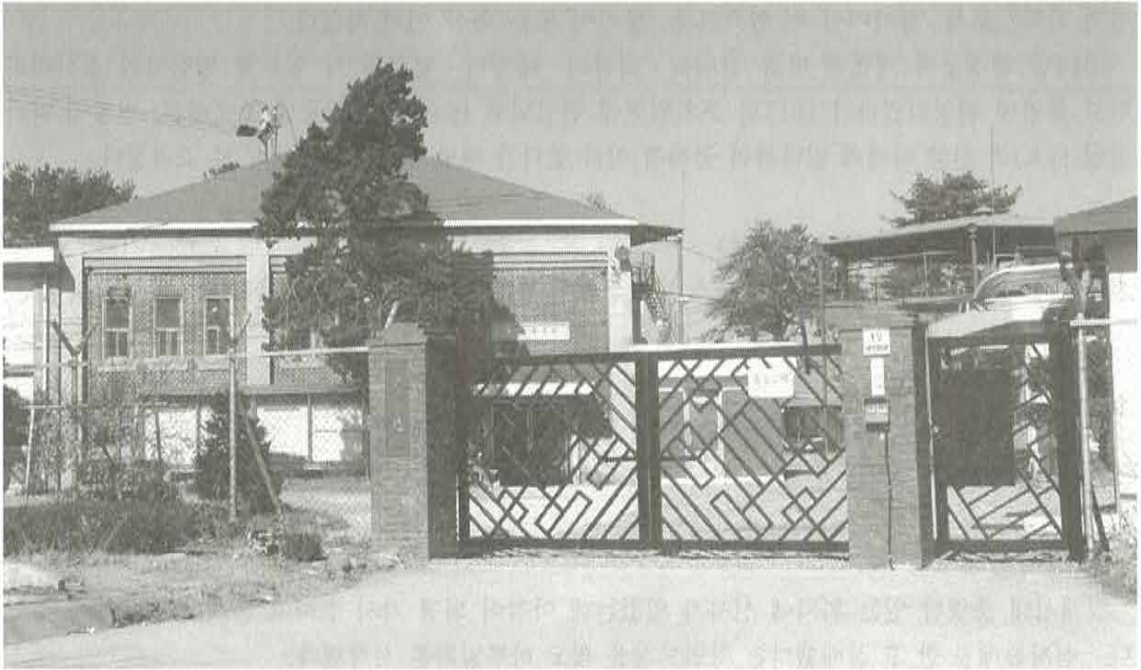
■ 장터(구장터, 장대리)

평리에 있는 옛 장터마을을 지칭한다.

■ 조치원수원지(鳥致院水源池)

평리에 있는 조치원읍 상수도의 수원지로서 1935년에 시설되었다.

예전에는 주변이 커다란 나무가 있고 늪지대였는데 지금은 흙을 메워 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치원수원지

■ 애장골

수원지가 예전에는 뽕나무밭이었다. 연기도서관 뒤쪽으로 애장골이 있어, 병으로 죽은 아이들을 나무에 걸쳐놓았다고 해 무서워서 이곳을 지나기를 꺼려하였다.

■ 연기도서관

1990년도에 수원지 옆에 건립하였다.

■ 서낭당

평리 맨 위에(수원지 부근) 집처럼 조그맣게 있었으며 돌탑도 있었다. 이곳에서 굿도 하고 고사도 지냈으나, 현재는 없다.

■ 공동빨래터

1950~60년대에는 조천에 나무로 만들어 놓은 빨래터가 있어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빨래를 하였다.

㉞ 침산리(砧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연기현 이라 하고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었다.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

면의 지역으로서 '방아미산' 이 있으므로 '방아미' 또는 '침산' 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신대리·백관리·내창리·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침산리라 하고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1940년 왜식동명(倭式洞名) 변경에 따라 일인(日人)의 신궁 아래에 있다하여 궁하정 이라 했다가 해방 후 다시 '침산리' 로 고쳐졌다.

■ 조치원배수지(鳥致院配水池)

방아미 서쪽에 있는 조치원읍의 상수도 저수지로서 1917년에 설치했다.

■ 일야통곡지지

최치원이라는 분이 침산리 뒷산이 일야통곡지지라고 했는데 침산리의 강둑이 터져서 하룻밤만에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신사참배

일제시대 총령탑 있는 위치에 신사가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가서 절하고 손뼉치며 참배를 하였다. 신사참배를 한 후 참배했다는 확인도장을 찍고 하루일과를 시작했다.

■ 공동묘지

마을뒤쪽 예술회관 있는 근방이 공동묘지였다.

일인(日人)공동묘지, 한인 공동묘지, 한인 화장터, 일인 화장터도 있었는데 한인들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일본인들은 대부분 화장했다.

■ 철길울타리

철길에 울타리가 없었을 때, 사고사가 많아서 울타리를 설치했다.

기차승객에게 복숭아나 김밥 등을 파는 이들이 많았는데 기차 안에 들어가서 팔고, 출발하면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장사하다 경찰에 쫓기다 숨진 사람도 있었으며 열차 사이를 건너다 빠진 사람도 있었다.

울타리를 설치한 이후로 사고는 거의 사라졌다.

㉟ 죽림리(竹林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연기현에 속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太宗)때는 연기현이었다가 연기와 전의현이 합한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음은 갈라져서 연기현에 속했다. 조선말엽엔 연기군 동일면(東一面)의 지역으로서 '조천' 뚝 안쪽에 있으므로 '죽안' 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죽안' 또는 '죽내' 가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죽내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죽림정(竹林町)’이라 하다가 1947년에 해방과 더불어 「죽림리」라 하였다.

■ 적석총(積石塚)

‘분퇴머리’에 있는 옛 무덤이다. 그 무덤 속에서 무늬 없는 토기와 동띠 모양의 청동띠 갈구리가 나왔다.

■ 술전거리

‘분퇴머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술 공장이 있었다 하여 ‘술전거리’라 부른다.

■ 산막(山幕)

‘술전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산기슭에다 막을 짓고 살다가, 마을이 되었다. 옛날에 이곳에 산막이 많았다 하여 ‘산막’이라 부른다.

■ 분퇴(墳堆)머리

죽내 동쪽에 있는 마을로서, 옛 무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장말, 원마루 라고도 한다.

■ 황새울

죽림리 서쪽 끝 부분으로 황새가 많아서 황새울이라 불렀다. 예전에 그곳에 주막이 있었다.

■ 윗뜸

황새울 밑에 위치하며, 안동네 바로 위에 있다 하여 윗뜸이라고 한다.

■ 음지자(짹)

안동네 남쪽마을로 별이 들지 않고 음지이므로 음지짹이라 불렀다. 겨울에는 다른 곳보다 유난히 추운 곳이다.

■ 산막

안동네 동쪽마을로 현재 군청 앞의 사거리 밑을 말하며, 새뜸이라고도 한다. 산이 많았었고, 산막 옆쪽으로 화순최씨 종산이 있으며, 현 신동아 아파트 부근을 말한다.

■ 병막

장길부사(장티푸스) 수용소가 있었다. 지금은 삼거리라고 칭하는 부분을 말하며, 안동네 동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 새동네

새로 생긴 마을을 칭한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이전해 온 마을이다. 안동네와 음지짜 가운데에 위치한다.

■ 송신중학교

기독교학교로서 죽림리 병막에 위치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며, 일제시대 창고를 이용하여 운영을 했다. 이 학교 선생님들은 봉급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 6·25사변이후 생겼다가 20여년 만인 1970년대에 사라졌다.

주변에 좋은 학교도 많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활형편이 점점 좋아지면서, 더 이상 학교가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농구선수 조인원 씨가 다니다가 조치원중학교로 전학 갔다.

■ 죽림리의 특별한 줄다리기

봄에 동네에 홍역이 도는데, 홍역이 특히 심한 해가 있고 보통이거나 약한 해가 있다. 심한 해에는 남자, 여자가 밧줄을 매고 마을의 언덕진 곳으로 간다. 여자는 밑에, 남자는 위에서 줄다리를 해서 여자가 잡아당기면 남자가 끌려온다.

이런 식으로 저 멀리 솔청거리나 병막까지 간 다음에 동네 밖으로 가서 밧줄을 불태웠다.

이는 병을 동네 밖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줄다리가 마지막으로 행해진 것은 1943년쯤이라고 한다. 6·25사변 이후부터는 의학이 발전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줄다리를 하지 않았다.

■ 안동네 큰 샘과 칠석잔치

안동네에는 직경이 5미터에 이르는 큰 샘이 있다. 이 샘은 물이 철철 넘쳐서 빨래도 하고, 물지게로 길러다가 먹기도 하였다. 7월 6일 날에는 마을 남자들이 물을 품었으며, 7일 날에는 고사를 지냈다. 고사를 지낼 때에는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리는 등, 정갈함을 중시하였으며 돼지머리와 떡, 과일 등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었다. 샘 고사는 동네잔치와 겹해서 행해졌으며 백중에는 머슴에게 새경도 쳐주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즐겁게 하루 놀았다.

㉞ 정리(貞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연기현이라 하고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에 속했다가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연기현의 지역이었다.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조치원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에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역이 생기면서부터 이 지방(地方)이 번창해지자 1940년 왜식 이름으로 '영정' 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정리(貞里)' 로 고쳤다.

■ 영정

일제시대 때 정리를 영정이라 불렀는데 다른 곳보다 변화하였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 싸전거리

지금의 고추전서는 곳이 예전에 싸전거리라 하였다. 이곳에서 쌀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사람이 많았다.

■ 마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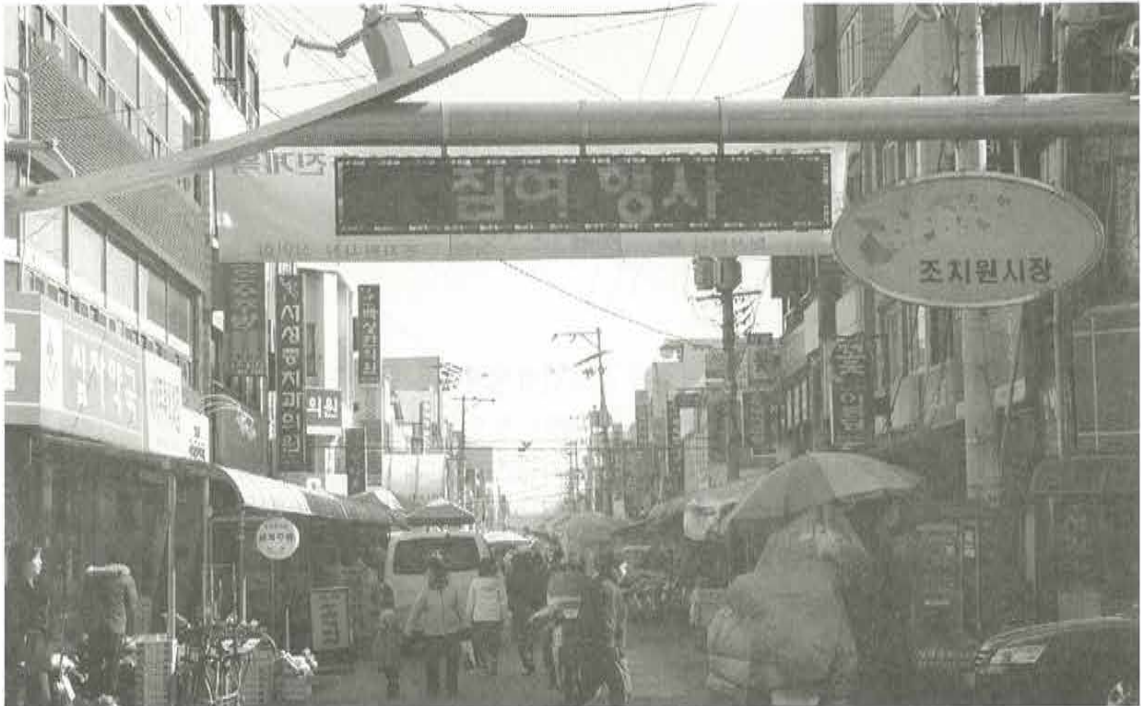
지금 서는 마늘전 있는 곳이 예전부터 마늘을 사고파는 마늘전 이었다.

■ 유기전 골목

시장농협 뒷골목으로 유기그릇도 만들고 낫쇠그릇을 팔던 골목이다.

■ 포목정 거리

축협 있는 곳에서 가구거리 쪽의 골목을 말하며 그 골목에 예전에 포목점들이 있었다.



조치원시장

■ 채소전

지금의 순대골목이 예전에는 채소전 이었다.

■ 국옥

지금의 시장농협 자리가 일제시대 때 국옥(기꾸노야)이라는 일본사람이 운영했던 큰 술집이었다. 해방이 된 후, 우리나라 사람이 인수하여 상춘관이라는 술집을 하다가, 6·25이후에는 경찰서, 천주교회였다가, 농협으로 바뀐 것이다.

■ 중국학교

마늘전에 중국학교가 있다가 현 남리(영락교회 자리)로 이전한 후, 중국인들을 가르치던 중국인이 운영하는 학교였다. 그리고 이곳에 소 서방이라는 사람이 약방을 하였고 중국영사였다.

■ 금융조합

금융조합이 있어서 가마니를 사 주고 은행업무를 하였다.

■ 어물전

원리와 정리사이의 길로 건어물, 수산물 등 어물가게가 많아 어물전이라고 하며 1960년경 대운상회가 이곳에서 크게 어물장사를 해 돈을 많이 벌었다. 처음 주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이 운영한다.

■ 동인병원

마늘전과 명리 사이로 일제시대 때 동인병원이 생겼으며 한국인 김씨가 병원장이었다. 후에 김종대라는 사람이 운영을 했으며 2002년 병원 문을 닫았다.

㉨ 원리(元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인 연기현 이었으며,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의 지역이었다.

조선 태종 때 연기현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에 속했다. 별관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조치원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갑자기 번창하여짐에 따라 1940년에 왜인들이 많이 살게 됨으로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 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원리(元里)로 고쳤다.

■ 오구미 둥빙

장터에 있는 둥빙을 오구미둥빙 이라고 부른다. 둥빙의 면적이 3,000여 평이나 되었는데 둥빙

가운데 중교 다리가 있었으며 남시터로도 유명한 돛병이었다.

■ 조치원역(鳥致院驛)

원리에 있는 경부선 기차의 정거장으로서 충북선의 시발역이 된다. 1904년 개통되었으며 이때부터 조치원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치원역

■ 주렁꺾보

곤디기보 밑에 있는 보를 지칭한다. 교리, 남리 일대의 눈에 물 대기를 위한 보이다.

■ 중교(中橋)다리

오구미돛병 가운데에 놓은 다리로서 조치원에서 청주시로 통하는 길이다.

■ 청과상회 골목

제일상회와 오창상회가 가장 오래된 상회이다.

제일상회는 신동식 씨가, 오창상회는 오영희 씨가 1960년대에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조치원에서 복숭아를 많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청과상회 골목의 주력상품은 복숭아와 참외였다.

청과상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지역은 별판에 역이 있고, 역 주변에 식당만 몇 곳 있었다. 이곳

에 상가들이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모인 것은 1960년대 이후이다.

■ 중앙시장

5일장이다. 매달 4일과 5일이 장날이며, 장이 서기 시작한 것은 오래전부터이다.

1950년대쯤에 가게가 하나 둘 씩 모이기 시작 한 것이 본격적인 상설시장을 이루었으며, 중앙시장이라는 간판을 붙인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예전에는 상리 주변으로 해서 장이 섰는데, 현재는 원리를 중심으로 장이 서고 있으며, 이 장에는 육전, 채소전, 생선전, 쌀전, 고추전등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큰 장이다.

㉟ 신흥리(新興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는 연기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 때에 연기현에 속하였다가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 되었고 다시 연기현에 속하게 되었다.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조치원리라 하여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이 지방이 역의 신설에 따라 갑자기 변성해지자 1940년 신흥정(新興町)이라 하고 1947년엔 해방과 더불어 신흥리가 되면서 연기군 조치원읍에 편입되었다.

■ 새터

신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처음에는 외딴 곳이다 새터를 잡았는데 지금은 큰 마을이 되었다. 새로 이룩된 마을이라 해서 '새터'라 부른다. 또한 '큰말·외딴말·신대(新垔)'라고도 부른다.

■ 백관(百官)

새터 서남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옛날에 벼슬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해서 '백관'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지금의 아홉거리 남쪽이다.

■ 외딴말

새터 아래쪽 마을로 집이 1가구 있어 외딴 말이라 하였다.

■ 상촌

백관 위쪽의 동네를 말한다.

■ 안산

지금 군청이 있는 곳으로 마을 앞의 산이라 하여 안산이라 하였다.

■ 큰샘

안산 밑에 있던 샘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샘이다. 칠월 칠석에 샘 청소도 하고 풍장을 치며 고사도 지냈다. 이 샘은 물의 양도 많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서 유명한 샘이다.

■ 동구나무

새터에 있는 나무로 몇 백년 정도 된 것이라 추정하며 단오날 그네도 뛰었다.

■ 신흥사

새터에 있는 절로 충령탑에 일제시대 일본 신사가 있었는데 일본 신사에 대응하면서 개인이 절을 하다가 그 절이 지금의 신흥사가 된 것이다.

■ 시루바탕

백관의 어린이집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있는 곳으로 서낭당이 있었는데 1950년쯤 없어졌고 지금은 배나무 밭이다.

■ 시개골

체육관 옆으로 내려가면 있는 골로 이곳에 풍년이 들면 다른 곳도 풍년이 들어 물가 시세를 알 수 있는 골이라 하여 시개골이라 한다.

■ 아홉 거리

아홉 개의 길이 났다고 하여 아홉 거리라 불렀고 그 길은 각각 봉산리, 내칭이, 승적골, 백관, 상촌, 새터, 창고개, 청거리, 뜰옥골 등으로 나 있다.

■ 잔등이길

체육관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길을 말한다.

㉞ 신안리(新案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인 연기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때 연기현(燕岐縣), 다음은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시 연기현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이었다. 숲이 무성하므로 '쇳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석골' 또는 '신동'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충북 청원군 서강외 일하면의 옥동·정중리·장대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신동리'라 하고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함에 따라 조치원면이 되었다가 1931년 읍으로 편입되어 '신동'과 '안터'의 이름을 따서 '신안정'이라 하였다가 해방 후 현재까지 신안리라 부른다.

■ 섭골(薪洞)

숲이 무성한 그 안에 마을이 있는데, 옛날에는 여기 마을 사람들이 숲을 구우러 산 속에 들어가곤 하였다 하여 숲을 싸놓은 마을이라 해서 섭골(薪洞)이라 불렀다. 섭골, 석골 이라고도 부른다.

■ 안골

섭골 북서쪽 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내가 흐르고 그 냇물 안으로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여 안골 또는 안대(安垓)라 부른다.

■ 은덕산(恩德山)

신안리 앞산에 높이 300여m의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산을 은덕산 이라 부른다. 산에 올라가면 집채 만한 바위가 덩그렇게 솟아 있는데 이 바위를 '은덕바위'라 부른다. 매년 정월 보름날이나, 사월 초파일 또는 팔월 보름 때 마을 아낙들이 제가끔 떡시루를 이고 와서, 이 바위 위에 놓고 충원을 하면 반드시 은혜가 온다고 하여 지금도 명절날이면 아낙네들이 모여들곤 하는 산이다.

■ 머지미

마지산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말을 탄 군사가 이곳을 지나다가 여기서 쉬어 갔다 하며 마을 뒷산 모양이 말굽과 같다 해서 머지미, 마정리(馬廷里)라 부른다.

■ 모시올다리

머지미 북서쪽에 있는 다리로 전동면 모시올 앞이 있다. 조치원에서 전의로 통한다.

■ 톱골

머지미 동남 편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높아서 옛날에 적이 쳐들어 올 때 적을 많이 무찌른 곳으로 '톱골' 또는 '토옥동(土玉洞)·옥동'이라 부른다. 또한 여기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된다 해서 '톱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노적봉(露積峯)

톱골 뒤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300m로 그 모양이 노적가리 같다.

■ 구랑말

'쇳골' 서북쪽 구렁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주위가 둥글고 고랑에 있다 해서 '구랑말'이라 부르며, 구력말, 향촌이라고도 한다.

■ 고무래봉(고무래봉)

은석산 맞은편(길 건너)에 있는 산으로 제일 높다. 꼭성이씨의 종산이다.

■ 깊은 안골

저수지 있는 곳의 골로 골이 깊어 깊은 안골이라 했다.

■ 정문거리

현 마을회관에서 마을로 가로질러 가는 길로 국도로 연결되었다. 그곳에 고성이씨 정문이 있었으며 정문이 있었다 해서 정문거리라고 한다. 현재는 집들이 생겼고 언제 없어졌는지는 모른다.

■ 동구나무

마을회관 앞에 1920년대에 심어진 플라타너스나무가 있다.

옛날 동구나무 밑에 돌이 있었다. 장마 때 나무가 떠나려가려고 해서 붙들어 매어놓아 살아있다.

■ 갓골

홍대 연수원 뒤에 있는 골짜기로 끝에 있어 갓골 이라 한다.

■ 배섬바위

노적봉에 있던 바위인데 벗섬처럼 생겨서 배섬 바위라 불렀다. 갈라져 있는 바위를 뱀꾼이 뱀을 잡으려고 바위를 부수어서 1980년도쯤 없어졌다.

■ 부엉이굴 바위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고 부엉이 둥지처럼 생겼다 하여 부엉이굴 바위라 하며 안 터에 있다.

㉨ 서창리(瑞倉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인 연기현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연기현, 다음은 전기현(全岐縣) 그리고 다시 연기현의 구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사창(社倉)이 있었으므로 '내창'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서곡리·낙은리 일부와 충북 청원군 서강외 일하면리 '장대리' 평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내창리라 하고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을 신설할 때 서면(西面)에 편입되고 1936년 조치원읍 확정에 의하여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서곡'과 '내창'의 이름을 따서 '서창정(西倉町)'이라 하였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왜식(倭式) 동명(洞名) 변경에 따라 서창리(瑞倉里)가 되었다.

■ 장춘 바위

서창리 261, 즉 돌마리 뒷산 기슭에 있는 바위를 '장춘바위'라 부른다. 좁은 바위 면에다 '장춘장(藏春場)'이라고 석자를 새겼는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의 글씨이며 숙종(肅宗)때의 경성판

윤(鏡城判尹) 최훤(崔煊)의 집터자리이다.

■ 빙고개

‘모가나무골’에서 봉산동을 가다가 봉산 영당 사이에 새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면 산기슭에 빙고(氷庫)가 옛날에 있었다 하여 ‘빙고개’라 부른다.

■ 새주막거리

‘내창리’ 남동쪽 큰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주막이 생겨서 길가는 행인들이 쉬어가는 곳이라 하여 ‘새주막거리’라 부른다. 마을 앞에 큰 고목(古木)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옛날엔 허수룩한 주막이 하나 있었다. 이것이 주막의 처음이었고 몇 년 후 그 주막을 헐고 다시 크게 주막을 지었다.

■ 원마루

‘내창’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시대 때 행인의 편리를 도와주는 ‘원(院)’이 있었다 하여 ‘원마루’라 부른다. ‘원(院)’이란 원주(院主)를 두어 관원(官員)의 왕래(往來)에 편리를 도와주는 곳이다.

■ 옥터골

‘돌마루’ 옆 동북쪽에 있는 옛 옥(獄)터를 ‘옥터골’이라 부른다. 토흥부곡(土興部曲)의 옥(獄)이 있었다 하며, 또는 숙종때 경성판윤(京城判尹) 최훤(崔煊)이 돌마루에 살면서 근처의 죄인을 가두던 터라고도 한다.

■ 모과나뭇골

‘내창’ 서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모과나무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모과나뭇골’이라 부르며 서곡(瑞谷)이라고도 한다.

■ 가마바위

고대 올라가는 쪽에 있으며 가마같이 생겨서 가마바위라 부른다. 이곳은 아낙들이 치성을 드리고, 남자들이 산제를 지내던 곳이다.

㉘ 봉산리(鳳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다가 고려 때에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 때엔 전기현(全岐縣)에서 다시 연기현에 속했고 본래(本來)가 토흥부곡(土興部曲)의 소재지였다. 이 곳은 ‘둥이’ ‘둥리’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저촌리 ‘낙원리’은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동리(東里)'라 하고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 1917년 조치원면 신설에 따라 서면(西面)에 편입되고, 1931년 조치원읍 확정됨에 따라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오봉산(五鳳山)의 이름을 따서 봉산정(鳳山町)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봉산동으로 고쳤다.

■ 오봉산(五峰山)

조치원읍 '서면' 전동면에 있는 산이다. 산의 높이는 262m인데 산이 다섯 봉우리로 되어 있어서 오봉산이라 했으며, 산봉(山峯)에 기우제단(祈雨祭壇)과 산제당(山祭堂)이 있어서 영험한 산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불일선원이 있으며 강화최씨 송모단이 있다.

■ 참새골(찬샘골)

'동이' 뒤에 있는 골짜기를 '참새골'이라 부른다. 찬샘이 있어 '천곡(泉谷)'이라 부르고 또 숙종 때 효자(孝子) 최진원(崔進源)의 묘소가 이곳에 있다.

■ 희밭

봉산동 빙고개 밑 낮은 위치에 고랑으로 이룩된 밭이 있는데 이 밭을 희밭이라고 부른다. 옛날 여기에서 희를 구웠었고 최송경(崔松景) 묘비(墓碑)가 있는 산모퉁이가 또한 희밭이었다 한다.

■ 띠재골

'동이' 북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띠가 많은 재에 있는 마을이란 뜻에서 「띠재골」이라 불렀다 한다. '저촌(苧村)'이라고도 불렀다.

■ 도장고개

'동이'에서 서창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도장고개'라 한다. 토향부곡시대(土鄕部曲時代)에 도장을 열었던 곳이다.

■ 구렁말

'동이' 동쪽 구렁에 있는 마을을 구렁말이라 한다. 구렁말은 구렁에 있다 해서 그리 부른다.

■ 건너말

'구렁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명종때 효자(孝子) 최중용(崔重龍)이 살았으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효자(孝子) 최진원(崔進源)이 의병(義兵)을 일으키고 호(號)는 동리(東里)라 하였다. '건너말'이라 부르고 효(孝)가 숨어있는 마을로 알려진 마을이다.

■ 회개(호개)

호랑이호(虎)와 시내개(介)를 사용하며 전동으로 넘어가는 마을이다.

■ 방축골

서면 쪽에 있는 마을로 소 먹이던 땅에 마을이 생겨 방축골 이라 부른다.

■ 돌마루

돌아가는 곳이라 하여 돌마루라 하였는데 이곳에 바위가 있다. 발자국이 있다. 그 발자국이 장군터에서 장군이 한걸음에 뛰어왔다는 발자국이라 한다.

■ 장군터

건너말과 승주골 사이로 이곳에서 장군이 나서 장군터라 불리며, 장군이 폴짝 뛰었는데 현재 돌마루에 바위가 있는 이곳까지 뛰었다고 한다.

■ 자교암

호계에 있는 바위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공부하지 않을 때 이곳 바위에 올라가게 하여 종아리를 때리며 가르쳤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승주골

부망골과 참새골 사이에 있는 골로 이곳에서 성인이 나왔다 하여 승주골 이라 부른다.

■ 봉산향나무

천연기념물로 조선 명종 때 최중용이 심었다.

이 나무의 가지부분은 용머리,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 가지가 커다란 우산을 펼쳐놓은 것과 같다. 이 옆에 있는 집이 이 나무를 심으신 분집이었다.

■ 효자마을

효자와 열녀가 많다고 한다. 최씨 집안에서 10효, 9열이라고 하여 4대에 걸쳐서 효자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㉞ 번암리(礮岩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 때 연기현,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다시 연기현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이었다. 뒷산에 반석이 있으므로 번암(礮岩)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번암리라 하여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 신설에 따라 서면(西面)에 편입되고 1939년 12월에 조치원읍에 편입되어 번암정 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번암동이 되었고, 현재는 번암리(礮岩里)라 부른다.

■ 상정말

'변암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상절'이란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양뜸

'변암리'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 시대 양(羊)을 많이 기르던 마을이라 해서 '양뜸'이라 부른다.

■ 뒷골

'변암리'에 있는 마을이다. 길에서 뒤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을이 있다하여 '뒷골'이라 부른다.

■ 주막거리

'산정말'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한양(漢陽)을 오고 갈 때 행인들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여기에 주막이 있어서 쉬어 가곤 하였다. '주막'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주막거리'라 부른다.

■ 안말

'변암'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말'이라 부른다. 마을이 길에서 아늑하게 들어간 마을이라 해서 '안동네'라고 하며, '안터'라고 부르기도 한다.

■ 산직(山直)말

변암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산지기 집이 있었다 하여 '산직말'이라 부르는데 '산정말' '산정촌(山頂村)'이라고도 부른다.

■ 변암(礮岩)

변암 뒷산에 있는 바위가 변암이라 부르는 바위다. 큰 바위가 판판하여 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변암이라 부른다.

■ 장군(將軍)터

옛날 봉산리에 장사(將師)가 있었는데 동쪽의 40리나 떨어져 있는 팔봉산(八峰山)을 두 발짝으로 뛰어갔다 하여 장군터라 불렀다.

■ 손자(孫子)뱀이

봉산리에 방축골이라 부르는 자연부락이 있다. 그 곳에 한섬 지기 큰 논이 있는데 여름철에 맞은 편 뚝 우물에서 노사가 우물물을 길어 왔는데 같이 동행한 손자(孫子)가 없어져 찾아보니 우물에 빠져 죽었다 하여 손자뱀이라 불렀다.

■ 고갈고개

조치원 번암에서 서면 넘어가는 고개로 고개를 넘는다 해서 고갈고개라고 부른다.

■ 둥구나무와 삼태기 터

현재 마을입구 복숭아밭 있는 곳에 큰 폭방이 있었다.

그 곳에서 수 백년 된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이 아름드리 느티나무 때문에 동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 둥구나무 밭은 개인소유였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장구를 만든다고 해서 나무를 다 베어 버렸다. 얼마 후에 할아버지는 병으로 사망했으며 자손들이 정신병자, 물에 빠져죽고, 약 먹고 자살하며 자손 대대로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며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도 소진돼 버렸다. 마을이 삼태기형이라서 재물이 들어 왔을 때에 둥구나무가 나가는 것을 막아서 부자가 많고 살기 좋은 동네였는데 둥구나무를 벤 뒤로는 마을이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죽고 해서 지금은 다 떠나 없고, 토박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샘고사

7월6일날 동네사람들이 다같이 물을 품고 7일날 샘고사를 지냈다. 물을 풀 때는 여자는 못 들어왔으며, 고사 제물로는 떡, 돼지머리, 과일 등이 있었다. 마을 제일 어르신인 축문을 읽고 잔을 올렸으며, 마을 사람 전체가 소지를 올렸다. 샘고사가 끝난 뒤 풍물을 치면서 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을 걷었다.

㉘ 상리(上里)

백제 때는 두양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다가 고려 때에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었다.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이었다. 별판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조치원리라 하여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읍에 편입되고 1940년 해방과 더불어 위쪽에 있다 해서 상리(上里)가 되었다.

■ 뗏집거리

상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시대에 이 지대가 별판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이 뗏집으로 움막같이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뗏집거리' 라 부른다.

■ 조천교(鳥川橋)

조천에 놓은 다리로서 조치원에서 충북으로 통하는 다리이다.

■ 상리

지대가 높다하여 윗마을이란 뜻으로 상동으로 하였다가 상리로 바뀌었다

■ 나무전 거리

상리를 포함하는 사거리에 나무전이 있었다.

이곳에는 나무를 쌓은 지게들이 쪽 나열되어 있었는데, 나무 한 지게를 팔면 쌀 한 되도 못 샀다.

■ 시외버스터미널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자리에 옛날에는 미호 소주공장이 있었다.

이 소주공장은 1970년대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생기면서 없어졌다.

이 소주공장의 병은, 간혹 가다가 골동품으로 나온다.

미호 소주공장이 있기 전에 이 자리에는 강원연탄공장이 있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마을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활기찼으나 지금은 엉망이 되어서 상권도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 상리 화재사건

조치원 최대의 화재사건이다.

1979년 조치원 상리의 한 솜 가게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주위 27채의 상점들을 태우고서야 진압되었으며, 이 솜 가게 주인여자는 불을 냈다 하여 대전교도소로 수감되었다.

이때 조치원읍민들이 상점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았는데, 총 17만원이 모였다고 한다.

이 돈으로 가게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주었으며, 이 천막 위에 간판을 달고 장사를 했다.

이때에 가게를 잃은 사람들은 2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법원에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하여, 불을 낸 사람의 화재보험 보상금으로 50~70만원 정도를 보상했다.

하지만 불을 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불은 조치원 역사상 가장 큰불로 기억되고 있으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었다. 이 불로 인하여 상리의 상가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이때부터 상리의 상권이 죽었다.

■ 명동초등학교

행정구역상으로는 상리에 절반이 있는 학교인데, 명칭은 아직도 명동초등학교라 불리고 있다. 이 학교는 1940년 4월 10일 소화국민학교로 서창리(여중 건너편)에 문을 열었다.

해방 후, 송탄유 공장 자리와 자전거 경기장인 현 위치로 이전하여 제 2국민학교로 개칭하였고 다시 현 명동초등학교로 개칭되었다.

상리 사람들은 이 학교의 이름을 상동초등학교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의문을 품고 있다



명동초등학교

■ 통금과 다리

상리의 조천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경계이다. 6·25 후 예전에 통금이 있던 시절, 통금이 있는 충청남도와 통금이 없는 충청북도의 사이에 있었기에, 충북에서 통금시간이 넘어서까지 지체하 다가는 옷을 벗고 물을 건너서 몰래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다리 쪽에 파출소가 있었으며, 새벽까지 경찰들이 엄하게 잡았기 때문에 다리를 통해서는 돌아 올 수가 없었다.

제사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일절 봐주는 것이 없이 유치장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모두들 통금시간은 정확하게 지켰다. (그러나, 뺨 있는 사람은 예외였다고 한다.)

이곳의 통금은 밤11시30분에 예비 사이렌이 울리고, 12시부터 통금이 시작되었다.

밤늦게도 방범대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아서,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집은 화장실도 자유롭게 드 나들지 못했다.

충봉리 다리 건너 충북은 통금이 없었으므로 통금시간이 되면 충북으로 넘어가서 놀기도 했다.

㉓ 명리(明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 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다가 고려 때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 때에 전기현(金岐縣)에 속했다가 그 후 연기현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으로서 별판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조치원리가 되어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고 철도 개설에 따라 역(驛)이 생기면서부터 갑자기 번창하자 왜식(倭式)으로 바뀌어 옥정(旭町)이라고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명리(明里)라 하였는데, 여기에 빛을 주는 발전소가 있으므로 '명리(明里)'라 부르게 되었다.

■ 새뜸

'명리' 동쪽에 새로 된 마을을 '새뜸'이라 한다. '신촌(新村)'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 마을이다.

■ 가구거리

일제시대 때 부터 있던 거리이고 유진수 라는 분이 어물가게였던 것을 사서 가구점을 하였는데 그것이 점점 번창하여 그 주변에 가구점들이 들어서면서 가구거리가 되었다.

■ 소전

처음에 가구거리 있는 곳 쪽의 길을 말한다. 이곳에서 소를 팔고 사고하였으며 이 소전이 남리로 이전하였다.

■ 닭전

개, 토끼, 닭 등 짐승을 팔던 곳을 닭전이라 하였으며 예전에는 이곳이 나무전 골목이었다.

■ 변전소

현 명동초등학교 남쪽 제방 밑으로 일제시대 때 변전소가 생겼고, 이 변전소가 생기면서 전기가 들어왔다. 6·25이후에 이 변전소가 서면으로 옮겨갔다.

■ 박 판사네

일제시대에 큰 부잣집이었다. 동네의 빈곤한 사람들에게 쌀을 몇 말씩 나눠주는 등 선행을 베풀었다.

■ 송탄류 공장

지금의 명동초등학교 현 강당자리에 송탄류 공장이 일제시대 때 있었고 일본사람들이 운영하던 곳이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진을 가져다주어야 했는데 학교가 들어오면서 없어졌다.

■ 간이학교

현 명동초등학교 자리에 4급 학교라 하여 일제시대 때 있던 학교로 학교를 못 간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으며 청년학교(영창학원)라 불렀다.

■ 싸이클 경기장

현 명동초등학교 자리가 일제시대 때 자전거운동장(싸이클 경기장)이었다가 해방 후 명동초등학교가 되었다.

이 경기장은 많은 경기가 열렸던 곳으로 일본, 평양 등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다.

자전거 선수 중 조치원사람으로 장기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본에 가서도 경기를 하여 우승도 하였으며 우승기가 한 아름 될 정도로 많았다.

■ 복지회관

명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옛날 군수 관사 자리였으며 군청이 신흥리로 옮기면서 관사도 이전하여 2000년에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생겼으며 현재 새 건물로 다시 지었다.

■ 연광

싸전에서 변전소 앞까지 도로(길) 남쪽을 연광이라 한다. 이 연광에는 여름철에는 연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철 장마때는 시내물 담수 역할을 하여 가옥침수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 (현 명동아파트 주변 일대)

㉞ 남리(南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고 신라통일 후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다가 고려 때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때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그 후 연기현에 속하고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였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조치원리가 되어 북면에 편입되었다가 갑자기 변창하여 1917년 면이 되었고 왜식(倭式)으로 적송정(赤松町)이라 하다가 1947년 해방과 더불어 조치원 남쪽에 위치함으로 '남리(南里)' 라 부르게 되었다.

■ 스물네강다리

조치원읍에 남리 남동쪽에 있는 경부선 철로의 다리를 '스물네강다리' 라 부른다. 미호천 하류에 있는데 다리가 스물 네개가 있다 하여 '스물네강다리' 라 부른다.

■ 네강다리

남리 남쪽에 조천을 건너는 경부선 철도다리이며, 교각이 네 개가 있어 네강다리라고 한다.

■ 우시장

명리(군수관사 옆)에 우시장이 성시를 이루었는데 주택이 들어서며 남리 사거리 근방으로 이전

하였다가 구획 정리 후 없어졌다.

■ 대홍수

1946년에 비가 많이 왔다.

조천독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마을사람들을 높은 건물로 대피시켰다. 그러나 다행히도 대평리의 독이 터져서 조치원은 무사했다.

조치원 사람들은 홍수피해를 입은 대평리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모금하여 전달했다.

㉘ 교리(校里)

백제 때는 두양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다가 고려 때에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다. 조선 태종때 전기현(全岐縣)이었다가 그 후 연기현이 되고 조선말엽에 연기군 북일면의 지역으로서 별판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조치원리가 되어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

1917년 조치원면에 편입되어 갑자기 번창하여짐에 따라 1940년에 조치원을 잘라서 '길야정'이라 하였다가 1947년 학교의 중심지이므로 '교리(校里)'라 부르게 되었다.

■ 길야동

일제시대 때 불리던 이름으로 길야학교가 있어 길야동으로 불렸다.

현 교동초등학교를 전에는 일인(日人)만 교육하는 길야국민학교라 불렸다.

■ 교동초등학교

길야보통학교였다가 교동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곳은 일본학교여서 일본사람들만 다니던 학교였다. 지금 교동초등학교 강당 자리에 고등과라고 국민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학교로 2년제 학교가 있었다.

■ 조치원여자중학교

일제시대부터 있었던 학교로 여자 중고등학교였다가 지금의 여자중학교가 되었다.

■ 연좌극장

지금의 군민회관 가는 코너 쪽에 있었다.

이곳은 일본사람이 운영하던 극장으로 다다미방이었다.

해방 후 우리나라 사람이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이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앉아서 보았으며 추운 겨울이면 극장 앞에서 화로를 팔아 이 화로를 사서 앞에 두고 앉아 보았다. 상영물들은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이었다.

그런데, 6·25때 이 극장이 폭격을 맞아 없어지고 그후 왕성극장을 지었다.

■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일제시대 때는 이곳이 목화공장이었다.

일본사람들이 운영하던 공장으로 해방되고 1945~1946년까지 이곳은 임시학교였다. 그 후, 이곳에는 삼보연탄공장이 생겼으나, 이 공장이 없어지고 현대아파트가 들어섰다.

■ 탐비툼병

연못과 늪지대였는데 도깨비툼병이라고도 불렀다.

눈으로 보면 물고기가 많은데 잡으려면 없어서 도깨비가 잡아갔다 하여 그렇게 불렀다.

■ 왕성극장

조치원 최초의 극장으로 일제시대 때 생겼으며 건물을 일본사람이 지었다. 처음 극장은 길모퉁이 쪽에 있었으며 조치원극장이라고도 했으며 6·25때 그 건물이 폭탄 맞고 근처에 암자였던 자리를 사서 현재위치로 옮겨졌다. 그 후로 그 자리에 있었다가 5~6년 전에 관객이 없어 문을 닫았다. 옛날 왕성극장 앞은 1차선으로 농로가 있었다. 이 극장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는 그 시절 모든 극장이 그랬겠지만 이곳에서도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에 조그만 화로를 극장 입구에서 구입을 해 화로를 쬐면서 영화 관람을 했다. 또 영화 선전을 하기 위해 조치원거리에서는 신파라고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이 영화 팸말을 들고 돌아 다녔다.

■ 46년 물난리

옛날에 조천이 흘렀고 마을과 높이가 비슷했다. 후에 조금씩 흠을 쌓고 조천을 파서 조천과 마을 높이 차가 생겼으며, 일제시대 때 조천과 마을사이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 물난리가 나고 제방을 3번 다시 쌓았다. 1946년 비가 매우 많이 와서 조치원읍내에 물도 차고 조천으로 물이 많이 불어나 독방이 범람하기 일보직전인 적이 있었다. 그때 조치원 주민들은 비상사태였고 피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일부는 충북 쪽 독을 터트려서 조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충북 쪽에서는 독을 못 터뜨리게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48시간을 대기 상태로 있으면서 대평리 쪽에 독이 터지면서 조치원은 물난리를 피했다. 대평리에 물난리가 나서 조치원에서는 대평리 주민들을 위해 쌀과 돈 등을 걷어 돕기 운동을 했다.

■ 조치원문화원

계룡아파트 자리에 있었다가 현 자리로 이전했다. 이곳 건물을 군민회관이라 부르며 건축비 일부를 여성단체에서 부담하였기에 처음에는 여성단체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다.



조치원문화원

■ 우체국

일제시대 때 지어졌다.

■ 경찰서

일제시대 때 생겨나서 일본인이 운영했으며 순사가 요즘 경찰이었다. 또 촉탁이라고 한국인이 일본앞잡이로 몇 명 있었다.

그곳에는 고등계 형사반(사상계)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붙잡혀 가면 수많은 고문과 학대를 받았으며 그 시절 학생들이 많이 붙잡혀 갔다.

■ 보건소

처음 명리에 있었는데 현 군민회관 자리로 이전했다가 1980년경 읍사무소가 생기고 현재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 계룡아파트

계룡아파트 자리는 일제시대 때 영당방앗간으로(국영정미소), 정부미나 군미 방아만 짚는 곳이었으며 방아 짚는 물량이 없어지면서 1970년경에 폐쇄되었다. 후에 건물만 방치되다가 계룡아파트가 들어섰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동면



2. 동면(東面)

동면은 일찍부터 마을이 형성된 곳이다. 금강 중류에 해당하는 이곳은 문명이 강을 끼고 일어나듯 금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특히 공주 석장리(公州 石莊里)의 구석기(舊石器) 유적과 충북 청원군(淸原郡) 두루봉 동굴, 미호천의 발원지인 제천군 송학면 점말동굴의 구석기 유적이 이곳과 가까운 곳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동면지역은 송용리에 지석묘(支石墓)를 비롯해 신석기 유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곳이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경덕왕(景德王)때부터 연기현에 속하였으며 연기현은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팔봉산(八峰山)을 사이에 하고 지금은 충북(忠北)과 경계를 이루며 금강(錦江)을 경계로 한 이 지역은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부락형성(部落形成)이 늦어졌던 곳이다. 고려(高麗) 현종 9년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 14년엔 전기현(全岐縣)에 속하였고 그 후 연기현에 속했었다. 임진왜란 때 심한 재해를 당하기도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효자(孝子) 효부(孝婦)가 많이 나오며 독립투사가 많이 묻혔으며 선진적인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말엽엔 연기군 동이면(東二面)이었는데 동일면(東一面)을 편입, 연기군 동쪽에 위치하므로 동면(東面)이라 칭(稱)하였다.

동쪽은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과 부용면, 남쪽은 금남면, 서쪽은 서면과 남면, 북쪽은 조치원읍과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과 강외면에 닿는다.



동면수박축제



동면수박축제



동면수박축제



동면수박축제



동면수박축제

㉞ 합강리(合江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엔 연기현(燕岐縣)으로 고쳐서 연산(燕山)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연기현(燕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엔 연기군(燕岐郡) 동일면(東一面)의 지역이었다.

오강(五江) '금강·백강·합강 등'의 지류가 이곳에서 합(合)하여지는 지대라 해서 합강(合江)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併合)하여 합강리(合江里)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동면(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합강(合江)

'쇠줄'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부근에서 다섯 개의 금강(錦江)의 지류(支流)가 합(合)하는 곳에 마을이 있다 해서 합강(合江)이라 부른다.

■ 쇠줄

'거름뜸' 동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쇠줄'이라 부른다. '소지울' '소지'라고도 부르는데 농사 짓는데 필요한 소를 키우기가 으뜸인 마을이라 해서 '소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쇠줄' '소지울'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소지(沼地)가 있는데 연꽃이 만발한 소지였다 한다.

■ 합호서원(合湖書院)

'거랑뜸'에 있는 서원이다. 주자학을 들여온 '회현' 안유(安裕)선생의 서원이다.



합호서원



합호서원



안항영정



순홍안씨세장비

■ 양달말

'거렁뜸'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말 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항시 양지바르다 하여 '양달말' 이라 부른다.

■ 잿절

'보습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부근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황룡사(黃龍寺)라는 유명한 절이 있는 골짜기 부근의 마을이라 해서 없어진 절 부근에 마을이 있다 해서 '잿절' 이라고 한다.

■ 거림뜸

'합강(合江)' 의 원마을이다. 합호서원(合湖書院)이 있는 마을로 옛 부터 글 잘 읽고 출세(出世)하는 문객(文客)이 배출된 지역이다.

■ 보습골

생지울 앞 너머에 있는 골짜기로서 모양이 보습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생지울

소지울 앞산 너머의 마을이다. 생(生)지초가 많이 나는 마을이라 하여 생지울이라 했다.

■ 출동산

소지울 북쪽에 있는 산으로 용호리에서 봤을 때 동쪽에서 동이 튼다하여 출동산이라 하였다.

■ 솔고개

내판에서 합강 1리로 넘어오는 고개로, 소나무가 아주 많아서 솔고개라 했다.

■ 장고개

소지울에서 부강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부강으로 소지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간다하여 장고개라 하였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길이 좋지 않고 돌아가야 하므로 많이 다니지 않는다.

■ 서낭당

장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원을 빌면서 돌을 쌓아 올렸다.

이곳에 소나무도 한 그루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 내무부장관 김현옥이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사라졌다. 그리고 서낭당은 소원을 들어주는 것 이외에 아주 옛날 전쟁을 대비하는 의미가 있었다. 쌓아놓은 돌을 전쟁에 사용했던 것이다.

■ 지신제



안순근씨집

동구나무에서 지낸 후 다시 마을회관에서 지냈다.

마을대표가 지냈고 이 제를 지낸 후 마을잔치를 열었으며 정월 14일에 지냈다.

■ 보수골

붕이 날아든다 하여 봉서동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해서 보수골이 되었다.

■ 황산

마을 앞의 산을 황산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황소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주 명당자리를 찾아 소를 찾아다니니까 소가 황룡사로 옮겨갔다고 한다.

■ 병풍바위

안산 끝자락에 암벽처럼 평평하게 있는 바위라 하여 병풍바위라 부른다.

이곳은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 죽은 아이들을 묻었던 곳이다. 애장터였던 곳이어서 그런지 도깨비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무서워했던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애장터라 부정탄다하여 나무를 하지 않았다.

■ 재골 이야기

재절을 재골 이라고도 했다. 재골에는 일제시대 때 채서방이라는 쌀을 700석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 부자는 운이 좋게도 살림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 부자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큰아들이 돈을 팔아서 친구와 사업한다고 나갔는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가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 아들은 그 이후에 미쳐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

■ 물당골

보수골에 있는 샘 이름으로 정월 14일(음력 1월 14일)에 제를 지냈다.

떡과 삼색실과와 돼지머리를 놓고 남자들이 지냈다. 동네 부락민 모두가 제에 참석했다. 오전에 제를 지내고 오후에는 동네잔치를 한다. 이 마을에는 딸이 귀하다. 황우산의 축복을 받은 샘물을 먹어서 아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삼성전기가 들어오면서 샘을 매워 지금은 상수도를 이용해 물을 먹는다.

■ 채씨 효행비

채관형과 그의 부인의 효행을 기린 비석으로 잿절에 있다.

채관형은 5세 때 부친을 여의고 모친이 노병으로 늙자, 지성으로 간호하였고 한겨울 엄동설한에 강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보양했다. 그리고 모친이 병으로 계속 누워있어 머리에 이가 많아 자기 머리에 참기름을 발라 모친 옆에 누워서 자기 머리로 이를 옮기게 하여 모친의 고통을 덜어 드렸다. 이런 효행을 기려 비(碑)를 세웠다.

㉟ 응암리(鷹岩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에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가 고려 때는 청주에 속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연기현(燕岐縣)이었고 조선 말엽엔 연기군 동일면(東一面)의 지역이었다.

매바위가 있고 매가 많이 서식하는가 하면 큰바위가 많이 있으므로 매바위, 응암(鷹岩)이라 부르던 지역으로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응암리'라 하고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응암리는 4개의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리는 가마골, 2리는 노곡, 3리는 매바위, 4리는 고정으로 불린다. 응암리는 옛날에 넓은 들판이었고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매가 많이 왔었는데 매가 바위에 앉아 있다해서 응암리라 불리운다.

■ 매바위

'높은정' 남쪽에 있는 마을을 '매바위'라 부른다. 마을 뒷산에 바위가 많고 매바위도 있는가 하면 매 형국(形局)의 지형(地形)에 매가 많이 서식하는 마을이라 해서 '매바위'라 부른다. '응암'이라고도 부른다.

■ 노곡(老谷)

'성동'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을 '노곡'이라 부른다. 노씨(盧氏)의 산소가 있다 하여 '노산소(盧山所)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엔 노목(老木)이 많았던 곳으로 노목이 많이 있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노곡(老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 고정(高亭)

'매바위' 북쪽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이라 고정(高亭) 또는 '높은정'이라 부른다. 예전엔 노목(老木)이 울창하게 있어서 노수정(老樹亭)이라 하였다가 노목이 모두 없어지자 '고정(高亭)'이라 부르게 되었다.

■ 부동, 가마골

동네가 가마솥처럼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해 가마골 또는 부동이라 불린다. 또 경치가 좋다는 뜻에서 산수리(山水里)라고도 불린다.

이곳은 경주김씨 송예공파의 '사패지'이다. (산 위에서 사방으로 보이는 땅을 하사 받은것)

■ 김경여 신도비

응암리 298번지에 있으며 숙종 원년(1675)에 세워졌다.

경주인으로서 호는 송애이다. 찬성의 종적을 받은 김광위의 아들이며 인조 임신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삼사(三司)를 역임하고, 후에 충청도 감사를 지내고 이어 부제학에 올랐지만 사양하였다.

묘는 가마골에 있고 신도비는 우암 송시열이 지었다.

■ 여침지골

마을에 골목이 크게 3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골목마다 이름이 있다. 옛날에 이 골목에 여침지가 살아 여침지골이라 한다.

■ 임침지골

임침지가 살아 임침지골이라 한다.

■ 상봉

마을 서쪽에 위치한 산으로 3·1운동 때 봉화를 올렸던 곳으로 높은 곳에 봉화를 올렸다고 상봉이라 한다.

■ 광산김씨 열녀문

고종14년(1877) 명을 내렸고 1952년 건립되었다. 광산김씨 열녀문으로 마을동쪽에 위치한다. 이야기는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남편에게 먹여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감찰사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나라에 보고하여 종가집 대문에 명정현판이 만들어졌고 후에 종가 사랑채 들마루에 계관하여 보존하다가 1944년 돌무더기로 했다가 1952년 정문을 세웠고 1965년 청기와로 단장하여 1980년대에 새로 지어졌다.

■ 절골

마을 남쪽 오장군묘 방면으로 나 있는 골짜기인데, 옛날에 절이 있어 절골이라 불리우고 현재는 절이 없다.

■ 무당골

북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무당의 묘가 많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웠다.

■ 한내다리

마을앞 개울을 건너는 다리로 부강을 지나가는 곳이라 한다.

■ 큰들봉(뒷산)

마을 뒤쪽 북쪽에 있는 산으로 큰 봉우리란 뜻으로 큰들봉이라 불리고 옛날 산꼭대기에 정자가 있었는데 정자 주춧돌에서 기름을 짜다고 한다.

꼭대기의 정자각은 1920년 이전에 없어졌다.

■ 작은 두루봉

큰 두루봉에서 뺀어 나온 산등성이라 두루봉이며 큰 두루봉보다 작기 때문에 작은 두루봉이라 불린다.

■ 안산

앞쪽(남쪽)에 있는 산으로 앞에 있다해서 안산이라 부른다.

■ 잉어마루

서쪽에 있는 산으로 기다랗게 잉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 화전동

옛날에 꽃이 많이 핀 밭이라는 뜻으로 화전동이라 한다. 또는 꽃밭골이라 불리기도 한다. 현재는 꽃이 많이 안 핀다.

■ 10리 고개

조치원으로 나 있는 고개로 고개가 멀어 10리 같이 느껴져서 부르는 것 같다. 또는 짐말라고개라고도 하는데 짐을 지고 그 고개를 넘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불린다.

■ 기와지골(기와젓골)

서쪽으로 난 골짜기로 옛날에 기와집이 많이 있어서 기와지골이라 불린다.

■ 큰샘

마을중심에 오래된 샘이 1개 있다. 물이 바위사이에서 나와 차갑고 맛이 좋다. 타지에서 물을 길어다 쓸 정도였고 또 한양까지 소문날 정도였다.

■ 주요 샘과 용왕치기

큰샘이 있었다. 이 샘은 물이 좋다고 한양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물맛이 유난히 차고 좋았다. 바위 사이에서 나는 물이며 물이 마른 적도 없었다.

정원 14일 되면 동네에서 돈, 쌀 등을 수렴해서 제를 지냈다.

부인들 중 제일 정갈한 사람 한분을 뽑는데 이때 생기복덕과 부정한 행동의 여부를 따져 뽑는다.

금줄을 치지는 않았지만 샘 들어가는 입구에 황토도 뿌리고 그 전날 주관자는 목욕제계를 했다. 제물로 떡, 과실, 명태, 미역국 등을 준비했다.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는 점과 물에 들어가면 짝 퍼지는 그 특성 때문에 제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물속에서 짝 퍼지는 모습이 용왕이 소원을 들어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한다.

제물을 올리고 나서 절을 하는데 절은 각자 마음껏 한다고 하며, 마지막으로 소지는 용왕소지 올리고, 마을소지 올리고, 개인소지를 올린다.

용왕치기를 잘못하면 해롭다는 믿음이 전해오고 있었다.

㉘ 예양리(禮養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엔 연기현(燕岐縣)이라 하고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했으며 조선 태조(太祖)때엔 충청우도(忠淸右道) 연기현(燕岐縣)이었고 조선말엽엔 연기군 동이면(東二面)의 지역이었다. 옛부터 충신(忠臣)이 많이 배출되고 오부자(五父子)가 충신이었던 박천봉(朴天鵬)과 그 아들들의 충신문(忠臣門)이 있어 예(禮)를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예양리(禮養里)라 하였다 한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인근의 마을과 청원군(淸原郡)의 일부(一部)를 병합하여 예양리라 하고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하였다.

■ 산속골

‘양골’ 북쪽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다. 아늑한 곳에 자리한 마을로 예전엔 출세를 등진 사람들이 많이 은거했던 마을이다.

마을 뒤편에 해평윤씨의 오래된 산소가 있어 일명 산소골, 산소동이라 부른다.

■ 양골(養谷)

예양리의 중심 마을이다. 덕(德)을 기르고 배우는 곳이라 하여 ‘양곡(養谷)’ ‘인동(仁洞)’ ‘양골’ ‘예양’ 이라고도 부른다. 하루종일 별이 든다하여 양동(陽洞)이라 했는데 변하여 양인동(養仁洞)이라고도 했다. 선조(宣祖)때의 충신 박천봉(朴天鵬)과 그 아들들의 거룩한 가(家)를 모신 곳이기도 하다.

■ 미꾸지

예양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로 오충신각이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매호지(埋湖地)라 하여 호수를 메꾼곳이라고도 하는데 실제 미호천의 제방이 없을 때에는 물줄기가 양골 앞으로 흘러갔다.

그러던 것이 이곳을 메꾸고 제방을 쌓아 물줄기가 돌아가게 했으며 예양리의 가장 끝 부분이기도 하지만 팔봉산의 줄기인 아미산 끝 부분으로 뾰족이 내민 땅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밑곳이”라는 말이 변해서 미꾸지가 되었으며 “밑”은 아래요 “곳이”는 뾰족이 내민 것을 지칭한다. 밀양박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마을 뒷산에는 문관석이 서 있는 커다란 묘가 있다.

예전에 큰 벼슬을 하였으나 자손이 끊기어 찾아오는 이가 없자 동네 사람들이 매년 벌초만 해 준다고 한다. 예전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지고 비석 좌대만 남아 있다.

■ 진도(津渡)

미호진 재 예양리전(美湖津 在 禮養里前) 이것이 미꾸지 나무로서 예양리의 미꾸지 앞에서 미호

천을 건너 조치원으로 가던 나루이다. 미꾸지는 “밑곳이” 즉 “하중(下中)”의 뜻일 것이다. “곳이”는 삐죽이 돌출한 땅이다.

■ 강촌(江村)

‘미꾸리내’ 옆에 있는 마을이다. 8.15 해방과 더불어 생긴 마을로 만주에 이주 갔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이룩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동진평야(東津平野)를 끼고 뒤에는 미호천(美湖川) 금강(錦江) 줄기가 흐르고 있어 강(江) 옆에 위치한 부락이라 하여 강촌(江村)이라 부른다.

■ 가재골

양골에서 아미산 쪽의 깊은 곳을 지칭한다. 이곳의 논에 벼를 심으면 가재눈처럼 잘 영근다하여 붙여진 가재가 많은 곳이다.

■ 뱀사골

양골과 산속골 중간의 골 이름을 뱀사골이라 한다. 예전부터 뱀이 많았으며 뱀과 꿩이 싸우는 것을 본 후 뱀사골이라 불렀다.

■ 방아달 고개

양골에서 절골 가는 고개이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으며 고개를 넘으면 절터가 있고 그곳이 절골이다. 예전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를 방아다리라 부르면서 연유하여 방아달 고개라 한다.

■ 물미

예양리에서 송용리 가는 커브지역을 지칭한다. 들판이 낮은 지역이라 비만 오면 물이 흥건하게 고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늪꾸래

일명 누꾸래, 수꾸래늪, 도깨비못 이라고도 하였다. 진설미 아래의 논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이 연못이었는데 일제시대 제방을 쌓을 때 늪지대를 메꾸고 농토로 만들었다.

이곳에 경부선 철로 개설시 일곱칸 다리가 있었는데 메워서 다리도 없어지고 독으로 변하였다. 이곳이 연못였을 때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으며 경부선 철도가 단선으로 부설될 때 이 연못 가운데 7개의 교각을 세워서 철교를 놓았기 때문에 일컬어 일곱칸 강다리라 부르다가 복선이 될 때 철교 대신 독을 쌓아서 철도를 놓았다.

■ 당목샘

양골 마을 입구에 있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샘이었으며 마을 전체가 이용하였었다. 새마을운동이 전개된 후 차츰 먹지 않다가 1980년대부터는 먹는 것을 중단했으며 후에 메꾸었다. 산속골로 통하는 당목길에 있다하여 당목샘이라 불렀다.

■ 윗말샘

미꾸지마을 위에 있으며 현재 예천암 옆에 큰 바위 아랫니다.
이 샘은 현재에도 여러 집이 이용하고 있다.

■ 아랫말샘

미꾸지 마을 중간에 있다. 현재 절집 입구로 1996년까지 먹다가 상수도가 생기면서 폐쇄하여 묻었다.

■ 메방아

양골에는 메방아가 3군데 있었다. 한군데는 양골 입구 김재찬 씨 소유의 방아로 2개를 가지고 있었다. 일제시대에 이곳 마을뿐 아니라 동면에서도 두 번째 부자일 정도로 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해방되면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또 한군데는 장완진 씨 소유의 메방아로 동네 중앙에 가운데 샘 있는 곳에 있었다. 장완진 씨는 20여마지기의 농사를 지었다.

마지막 한군데는 동네 끝 부분 장옥순 씨 소유의 메방아가 있었다. 장옥순 씨는 20여마지기의 농사를 지었다.

■ 미꾸지메방아

미꾸지 마을 한 가운데 박노근 씨 소유의 메방아가 있었다. 박노근 씨는 20여마지기의 농사를 지었다.

■ 디딜방아

양골 윤인구 씨 집 앞에 설치되었었다. 해방 후에 5년 정도 쫓다 없어졌다.

■ 물미방앗간

장경진 씨가 설립하였다. 해방 전부터 설치하여 대를 이어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장인순 씨가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은 송용리이다.

■ 영화당 한약방

양골에 있었다. 1965년에 오석균 한의사가 설립하였다. 1985년까지 운영하다가 이곳에서 운영이 곤란하자 대전으로 이사했는데 병고에 시달리다 10년 전에 작고하였다. 현재는 한약방 하였던 집에 이질조카인 윤상구 씨가 살고 있다.

㉞ 송용리(松龍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엔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여 연산군(燕山)

郡)에 속하기도 했다. 고려 때는 청주에 속했으며 조선 태조(太祖)때는 충청우도(忠淸右道) 연기현(燕岐縣)이었고 조선말엽엔 연기군 동이면(東二面)의 지역이었다. 지금의 미호천(美湖川)이 강줄기를 돌리기 전에 이 지역 앞을 흐르는 강(江)줄기가 ‘갈’ 자(字)로 흐르고 있어 많은 늪과 연못을 형성(形成)하고 있어서 이곳에서 많은 이무기가 서식하며 승천(昇天)했다 하여 용에 대한 신앙(信仰)이 두터운 지역이며 뒷산에 많은 노송(老松)이 있어 그 인연(因緣)을 따서 송용리(松龍里)라 하였다. 1914년에 행정개혁 때 이웃마을 송산리와 용곡리를 병합하여 송용리로서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송산(松山)

송용리(松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솔이 무성하다 하여 송용(松龍)이라 불렀다 한다. 옛날 여기엔 이랑칭이란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큰 부자로서 1년에 소작료(小作料)만 받는 쌀이 천석(千石)이 넘었고 그 집 하인(下人)이 남녀(男女) 합하여 30명이 넘었다 한다. 그 부자집 앞에 넓고 풀이 많아서 그 부자는 여기에서 소도 키웠는데 소를 키우는 곳이라 ‘소들’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도룡골

‘송산’ 옆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도룡과 같이 생겼다 하여 ‘도룡골’ 이라 부른다. 결성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나븐마을

‘도룡골’ 옆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오래된 석불(石佛)이 있어서 ‘석가동(石加洞)’ 이라고 불렀다 한다. 마을 지형(地形)이 꼭 나비가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나비마을’ 이라 부르다가 ‘나븐마을’ 이 되었다 한다.

‘나동(羅洞)’ 이라고도 부른다.

■ 석불(石佛)

동면 송용리(松龍里)에 있는 석불이다. 석불의 높이는 190cm, 폭은 110cm로서 고려 때의 석불이다. 원래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옮겨왔다.

예전에 이 석불은 온전했었는데 어느 날 구렁이가 머리 있는 곳까지 오르자 번개가 쳐서 구렁이를 죽이고 조금 깨졌다.

■ 육영재

결성장씨의 서당이다. 장훈(張訓) 3형제가 약 300년 전에 건립한 것이라며 처음의 건립지는 서당말의 서당자리(송용리 254-1)였다고 한다. 1876년에 지금의 장소로 이견하여 그 동안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였는데 장씨 일문에서만도 6진사를 배출하였다. 1921년에 기성학교(期成學校)를 개설하여 초중교의 과정을 교육하다 1926년에 연동 공립보통학교가 창립되면서 학생들을 인도하고

폐교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결성장씨 문중에서 서당계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약간의 전답과 건물이 남아있다.

소장서적으로 시전, 서전, 주역, 강목, 한서, 춘추, 좌전, 홍사, 세설, 휘어, 통감, 경원다실 등이 있다.

■ 열녀(烈女) 김씨정문(金氏旌門)

송용리(松龍里) 산102번지 내판리의 내판역 서북쪽에 있는 장응헌(張應軒)의 아내 열녀 金氏의 정문(旌門)이다. 병자호란때 불행히도 청나라 군사(軍士)에게 붙들려 가게 되었을 때 진목탄(眞木灘)에서 빠져 죽은 열녀 김씨의 거룩한 정신을 높이기 위해 세운 정문(旌門)이다.

■ 옷뜸샘

마을위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샘이 컸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이 샘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이 마을에 이랑청 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중이 시주하러 왔는데 시주하지 않고 막 대하여 중이 일부러 이곳에 샘을 파면 좋다고 하여 샘을 팠는데 이것이 옷뜸샘이다. 그런데 이 샘을 파고 난 후 집안이 망하였다.

■ 고속골

마을 동쪽에 응암리 가는 고개를 말한다.

■ 장수바위

재뻑이 꼭대기에 있었는데 고개를 낮추고 도로포장을 해서 80년 전쯤 없어졌다.

송용과 노송 사이의 재뻑이 고개 꼭대기에 있었는데 20여년 전 고개를 낮추고 도로를 내면서 없어졌다.

■ 산제

1주일간 세 사람이 제관이 되어 정성 들여 제를 지냈다. 산제 지내는 기간 동안 순행을 하였고 장씨네 산에서 지냈다.

■ 구루마판

일제시대 때 철도공사를 하는데 이곳에서 구루마를 이용하여 흙을 파 갔다고 하여 이름지어졌고 현재 연동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내판과 경계지역이다.

■ 쾩말

구루마판 뒤쪽으로 10여 가구가 산다.

■ 도룽골

이곳을 돌아 나간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것이다. 송용 1리와 2리의 경계이다.

■ 쟁말샘

원래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생기면서 산 쪽으로 옮겼다. 지금은 없어졌다.

■ 빨래터

도롱골 앞에 땅을 파서 돌을 쌓아올려 빨래터를 만들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빨래를 했다.

■ 연봉재

마을동쪽에 있는 산이다. 이곳은 야산이 많아 산 이름이 전해진 것은 없다.

■ 장육진 생가

장육진 화백은 5년 전에 타계하셨다. 이 생가에는 현판이 없는데 몇 년 전에는 있었다. 군에서 현판을 설치한 후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나, 없애 버렸다.

이곳에는 현재 화백의 큰어머니가 사시고 있다.

■ 송덕비

마을에 장기황 이라는 큰 부자가 살았는데 매우 후덕하여 학교 부지를 기증하여 지금의 연동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면사무소 입구와 학교 내에 송덕비가 세워졌다.

장부자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마름이 소작지를 둘러보려 5~6명이 집을 나서면 두달 동안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땅 부자였다.

■ 신촌

송용 3리로 40여년 전 송용 2리였다가 분리되었다.

새로 생겨난 마을이라 하여 신촌이라 하고 일제시대때 제방을 만들면서 1~2가구씩 모여 살았다. 일본사람들이 제방을 만들기 전 이곳은 미호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제방을 만들어 마을이 형성되었다.

㉨ 문주리(文舟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고려 때는 연기현이 되어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연기현의 지역이었고 조선말엽엔 연기군(燕岐郡) 동이면(東二面)에 속했었다. 내판(內板)들의 모든 물이 이 지역 앞을 지나가고 이곳의 산이 문설주처럼 되어 있다 해서 '문주(文舟)'라 하였고, 미호천(美湖川)이 마을 앞을 청초하게 흐름으로 마치 문관(文官)이 배를 타고 떠나듯 많은 인물이 배출된다 하여 문주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문주리(文舟里)로서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건녕

'갈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산다 하여 널리 알려졌던 마을로 한양에 가면 '건녕골' 하고 말하면 '선비구만' 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선비들이 많이 모였던 마을이다. '갈미' 건너에 있다해서 '건녕골' 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지금은 '건녕골' 이라 부른다.

■ 골말

곡촌(谷村)이라고도 부른다. '갈말'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깊은 골에 마을이 위치한다 해서 '골말' '곡촌(谷村)' 이라 부른다.

■ 당산(堂山)

갈말 뒤에 있는 산이다. 이곳엔 산제당(山祭堂)이 있다해서 당산(堂山)이라 부른다.

■ 용머리

'갈말' 서쪽 강가에 있는 산부리를 '용머리' 라 부른다. 산부리가 용의 머리 또는 누에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머리' 또는 '누에머리' 라 부르는데 이곳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머리로서 마을의 어려움을 막아주는 산부리로 통하는 곳이다.

■ 치마바위

'갈말' 뒤에 있는 당산 중허리에 있는 바위를 치마바위라 부른다. 모양이 치마를 두른 것 같은 형태인데 이곳에 와서 홀아비가 백일(百日)동안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홀아비를 면한다 한다.

■ 갈말

문주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예전엔 갈대가 앞에 많아서 '갈말' 이라 불렀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산주(山柱)' 라고도 부르는데 앞에 안산이 있고 뒤에 당산(堂山)이 있어 마치 산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과 같다는 뜻에서 그리 부른다 한다. 이곳엔 처음 채씨(蔡氏)들이 정착했었으나 지금은 아성이씨(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곳말(곡말)

1반으로, 마을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마을이 골짜기 안에 있어 곡선으로 되어 있다해서 곡촌이라 부른다.

■ 간말

2반으로 마을가운데 있으며 가운데 위치한다고 해서 가운데라는 말이 변해서 간말이 되었다.

■ 뒷서당

간말 마을 뒤 동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해서 뒷서당이라 한다.

■ 산제당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옛날에 산제를 지내던 산이라, 산제당이라 불리운다.

10월초 이튿날 산제를 지냈다고 한다. 산제는 산제를 지내기 2~3일전에 정해진 제사장이 산제당으로 올라가 목욕재계를 하면서 나쁜 것들을 씻어내고 몸을 깨끗이 한다.

당일날 저녁에 동네사람들과 고사시루, 삼색실과, 돼지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고 아침 첫닭이 울기 전에 내려온다고 한다.

또 아침에 각 집마다 장독에 떡을 놓고 마중시루라고 외치고 오후에 떡과 고기를 놓고 마을잔치를 했다. 이 산제는 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인 것이다.

이 산제당은 6·25이후 사라지고 산제당은 1980년 소실되었다.

■ 샘고사

문주리에는 각 반마다 샘이 있었는데 샘이 옛날에는 매우 소중했으므로 반별로 정월 보름에 미역국, 쌀밥, 삼색실과를 놓고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나이든 여자가 제사를 지냈다. 샘고사를 용왕치기라고도 하는데 바다의 신인 용왕을 위하여 했기 때문이다.

또 샘 주변에는 부정을 없애려고 황토를 뿌렸다.

이 샘고사는 6·25 이후 사라졌다.

■ 안산

마을 앞쪽에 위치한 산으로 앞이라는 말이 변해 안산이 되었다고 한다.

안산(안산고개) : 마을회관 서쪽에 위치한 산과 고개이다.

간말에서 앞쪽에 있다고 해서 안산, 안산고개라 지칭된다.

■ 치마바위

산제당 밑에 위치하며, 넓적하니 치마 같은 모양을 지니며, 5~6명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크다.

■ 동진

건너골 돌아서 위치한 지역 이름으로 옛날에는 동진나루터가 있었다.

■ 양석골

동진 가기 전에 위치한 곳으로 햇별이 잘 들어 양지바르다는 뜻으로 양석골이라 한다. 현재 이곳에는 묘지가 많다.

■ 원터

승작골 근처 푹방 밑의 부분으로 옛날에 원님이 지나가다 쉬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원토내판으로 가는 쪽인데 승적골과의 거리가 큰 차이가 안 난다.

조선시대에 '원'이 살아서 원토라 불리며, 지금도 기와편 같은 유리조각이 많이 나온다.

㉟ 명학리(鳴鶴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연기현이라 하고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내려와선 연기현(燕岐縣)에 속하였고 여기엔 연기의 태산(太山)이 있는데 태산서원(太山書院)이 있는가 하면 선비들의 상징(象徵)인 학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形局)이며 학이 많이 서식하며 알을 낳는 지대라 하여 '명학(鳴鶴)'이라 불렀다 한다. 본래(本來)는 조선말엽엔 연기군 동일면(東一面)의 지역이나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신촌리·내대리를 병합하여 명학리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동면(東面)에 편입되었다.

■ 용당(龍塘)

집동바위 아래에 있는 소(沼)를 '용당'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금강(錦江)물이 질러서 흘러 여기에 소(沼)가 생겼는데 소(沼)의 깊이가 수 십길이나 되어 이무기가 승천(昇天)하는 소(沼)로 불려졌다. 지금은 모래가 점점 밀려들어 소(沼)가 없어졌다.

■ 집동바위

'용암' 위에 있는 바위다. 큰 바위가 집채처럼 생겼다 하여 '집동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에서 그 해 비가 오지 않고 가물 때는 이 곳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곳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 원모정(遠暮亭)

'용당(龍塘)'과 '집동바위' 근방에 세워진 정자(亭子)이다. 지금은 철거해서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많은 시인묵객(詩人墨客)들이 모여서 글을 짓고 그 글을 현판(縣板)에 새겨서 보관하기도 하였다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6, 7년 전에 모두 없애버렸다. 원모정(遠暮亭)은 부강(芙蓉)에 사는 부자(富者) 김학현이 세운 정자인데 황우치(黃牛峙)를 와우형(臥牛形)의 명당(名堂)으로 정자를 황소의 머리부분에 세웠기 때문에 가운(家運)이 기울었다 하여 정자를 철거하였는데 여기에서 철거한 목재(木材)는 절을 짓는데 희사하였다.

■ 황우치(黃牛峙)

황우산(黃牛山)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황우산이 와우형(臥牛形)과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명당이 있어 만대향(萬代香) 화문지(火文地)로 풍수(風水)풀이를 하는 명당이 있어 장수황씨(長水黃氏)의 중손인 황집이 부강(芙蓉)에서 이사와서 처음 살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지금까지 600년 가까이 자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황우산 아래에 있다해서 마을을 황우치(黃牛峙)로 부른다.

■ 성황제

명학리 황우치 고개에 성황당이 있고 이 성황당에선 매년 성황제를 지냈다. 성황당의 구조는 돌

로 쌓아올린 돌담에 사람들은 자기의 숙원이 이루어지도록 여기를 찾아오면 돌을 쌓으며 형겅이나 실을 매달아 놓고 빌기도 하는데 마을 전체의 슬픔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성황제를 수시로 지낸다.

■ 외태(外泰)

‘황우치’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연기의 태산(泰山) 바깥쪽에 위치한다 해서 외태(外泰)라 부르는데 장수황씨(黃氏)들이 살고 있다.

■ 출동산

명당이 있는 산이라 한다. 앞으로 출동산에선 큰 마을이 생길 것이며 이 마을이 크게 될 것이라 하여 마을이 생긴 산이라 해서 ‘출동산’이라 부른다.

■ 진고개

‘소정’에서 ‘부암’으로 가는 낮은 고개를 ‘진고개’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이 고개 안쪽에 마을이 있었다가 없어졌다 하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우리나라 군사들이 왜병(倭兵)과 싸우다가 싸움에 진 곳이라 하여 ‘진고개’라 부르게 되었다.

‘이현(梨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소정이

‘백수봉’ 밑에 있는 마을을 ‘소정이’라고 부른다. 소나무 정자가 있다 해서 ‘송정이’라고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한 이 마을에선 소를 끌고 들에 들어가면 그 소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눈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서 사람이 떠매고 나오거나 또는 흙이 소를 죽이기까지 했다 하여 ‘소정이’라고 부른다 한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산다.

■ 서당말

‘황우제’ 맨 위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예전에 서당이 있었고 글 읽는 소리가 황우제를 흔들었다 하는데 좋은 명당자리에 서원(書院)이 있어, 이 서원에선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서당이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서당말’이라 부른다.

■ 거문들

‘명학’ 남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태산(泰山)의 남쪽에 위치(位置)한다 하여 ‘남촌(南村)’이라고 부르며 또한 ‘신촌’이라고도 부른다. 여기는 들의 흙이 검고 비옥한 곳인데, 들의 흙이 검다 하여 ‘거문들’이라 부른다.

■ 백천철교(白川鐵橋)

원당골 앞 백천에 놓은 경부선 기차의 다리를 지칭한다.

■ 명학리

원명학, 알봉골이라 불리었으며 그 이름은 학의 터라 하여 학이 앉아있는 형상이라 한다. 그리고 마을뒷산에 바위가 있었는데 학이 알을 품다가 울면서 날아갔다고 한다.

또 다른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학이 날아가고 있는 형상인데 마을뒷산이 머리이고, 양쪽 산이 날개라 한다.

이 마을에는 비석을 쓰지 않는데 그 이유인 즉, 학이 날고 있는데 돌로 누르면 학이 날지 못하여 좋지 않다고 하여 그렇다고 한다.

■ 거리제

옛날 정월에 행하던 제로, 음력 1월 1일 이후 10일 안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거리제를 지냈다. 거리제는 마을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마을입구에서 지냈는데 그 이유는 마을 모든 사람들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이다. 제를 지낼 때에는 삼색실과와 시루떡, 그리고 마른 명태를 길 가운데에 놓았다.

거리제는 자유의사로 참여할 수 있었으며 거리제 이후에는 지푸라기로 불을 냈다.

이 마을 거리제는 1992년 정도에 사라졌다.

■ 원당골

명학 1리이며 원명학에서 능고개를 넘으면 나오는 마을로 5호가 살고 있다.

이곳에 원님의 묘가 있어 원당골이라 부른다. 이곳을 지나갈 때에는 말을 타고 지나가던 사람도 원님의 묘가 있어 걸어서 지나갔다.

■ 장덕골

골이 깊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원당골에서 합강리로 가는 골이다.

■ 왕촌

원래는 황우재라고 불리는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사는 분들이 잘 되어서 부자도 많이 나고 권력자도 많이 나와서 왕촌이라 했다.

■ 아랫말

황룡사 아래에 있는 마을로 황우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어서 아랫말이라 했다.

■ 태산

이 마을을 태산이라고도 하며 외태, 내태로 나뉘어진다.

■ 외태

황우재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로 바깥쪽에 위치했다 해서 외태라고 한다.

■ 내태

황우재를 말한다. 명학 2리 전체를 황우재라 한다.

■ 집등바위

집채처럼 큰 바위라 해서 집등바위라 했다.

집등바위에서 4~5km되는 명주 실타래를 풀어도 땅에 닿지 않을 만큼 크다고 하며 이 바위 밑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곳에서 1950년대까지 기우제를 지냈다.

■ 소뿔바위

용당 황우산 머리부분에 있는 바위로 마치 소뿔처럼 생겼다 하여 소뿔바위라 한다.

■ 황우산

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풍수지리상 와우형으로 소가 누워있는 형상이라 하여 황우산이라고 한다.

■ 산신제

황우산 산제당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 산신제는 정월 15일이나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지냈는데 제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지냈다.

초헌관은 고을대표로 원님이나 지금의 군수급이고, 아헌관은 동네어른이고, 종헌관은 손님으로 하였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순으로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후 축문을 읽었다.

■ 검은들

땅이 검고 비옥하다 하여 검은들이라 한다.

검은들은 서촌과 남촌이 합쳐진 이름이며 또한 마을에서 보이는 황우산을 내려온 산이 거미(개미)모습을 하고있는 산 앞에 들이 있는 동네라 하여 검은들 이라고 한다.

■ 서촌샘

검은들 서촌에 있는 샘으로 주로 빨래나 목욕을 했던 샘이라 한다.

■ 남촌샘

검은들 남촌에 있는 샘으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이를 고맙게 여겨 제를 지냈는데 정월보름에 돼지머리, 시루떡, 삼색실과를 놓고 제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지냈다.

마을 최고령자가 주관이 되었으며 대표자가 술을 올리고 정갈한 사람만이 제배를 했다. 그리고 마을마다 1명씩 뽑아서 제 지내기 전날 줄을 타고 내려가 샘을 청소하였다.

■ 백천교

충북과 충남을 연결해 주는 다리이다. 즉, 연기군과 청원군을 연결해 주는 다리를 말한다.

■ 원당골

명학 2리에서 합강 넘어가는 골로 고을 원의 묘지가 있다하여 원당골이라 했다. 말을 타고 달려가던 사람들도 원당골을 지날 때면 타던 말에서 내려갔다고 한다.

㉞ 용호리(龍湖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에는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인 연기현에 속했다가 고려 때는 연기현이 청주에 속하기도 했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연기현(燕岐縣)이었고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동일면(東一面)에 속했었다. 마을을 끼고 있는 산세(山勢)가 호수 속에서 용이 노는 형상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용호리라 하고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용호리

마을뒷산의 형국이 용(龍)과 같이 생겼고 그 용산(龍山)을 미호천이 감싸고 있어 호수호(湖)자를 넣어 용호(龍湖)라 하였다.

■ 낚은터

구대라고도 한다. 용호리에서 가장 먼저 마을이 형성되었다가 사람들이 떠나자 예전에 큰 마을이었는데 현재는 비어있다 라는 뜻이다.

■ 양지마을

낚은터를 양지마을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남향으로 되어있어 별이 잘 들어 양지바른 곳이란 뜻이다.

■ 벼락산

낚은터 뒷산을 벼락산, 벼락골이라 부른다.

■ 언고개

낚은터에서 문주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언고개라 한다.

■ 백수봉

벼락산 건너 동쪽의 산을 백수봉이라 한다. 백수산발형(하얀 머리를 풀어헤친 형국)의 명당이라 한다.

■ 출동산(칠동산)

마을동쪽 합강리 쪽의 산을 지칭한다.

■ 노적산의 덕(德)

시조의 가사이다.

“노적산에서 배를 타고 강촌(들 가운데)에서 고기를 낚고 출동산을 찾아가는데 백수봉에서 술잔을 드니 노적산 덕이 아닌가.”

■ 큰서낭당

용호리에서 부강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그 곳에 예전에 큰 나무가 있고 지나가는 이들이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소원을 빌던 돌무지가 있는데 이를 서낭당이라 했다.

이곳은 큰 서낭당이고 그 아래 부래미(용호 3리)로 넘어가는 곳에 작은 서낭당이 있었다.

이 서낭당이 없어진 것은 1983년도 마을길을 포장하면서 사라졌다.

■ 물봉재

하룡 마을 남쪽 산 중턱을 가리킨다. 이곳에는 하룡 마을 산제당이 있으며 산제당 아래에 샘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이다. 산제 지낼 때 이곳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목욕재계를 하는 곳이다.

■ 하룡산제

예전에는 소를 잡아서 제물로 쓰다가 돼지(교미하지 않은 검은 수돼지)로 바꿔 지내다가 요즘에는 소머리를 쓴다.

■ 꼭대기샘

날은터에서 문주리 쪽으로 절집이 있는데 그 옆에 있다.

벼락산 밑으로 지금도 우물이 있다.

■ 중간샘

날은터 마을 중간에 있는 샘이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 왕도논샘

날은터 앞의 샘이다.

논 가운데에 있는 샘인데 이곳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온다.

예전에 마을 아낙 한 명이 물을 푸고 있는데 웬 낫선 남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물 한바가지를 청했다. 그러자 그 아낙은 우물 옆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하나 따서 물에 띄워 남자에게 주었다. 남자는 그 잎을 후후 불며 물을 마시고는 그 이유를 물으니, 아낙은 보아하니 급히 물을 찾기에 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했다고 하였다.

그 후 알아보니 그 남자는 나라의 임금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마셨던 물이라 하여 왕도논, 왕도샘이라 불렀다.

■ 산양골

출동산 하고 백수봉 사이를 산양골이라 한다.

■ 채바위

'다락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를 '채바위' 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미호천(美湖川)이 이 바위 앞으로 흘러서 물이 이 바위를 치받고 돌면서 흘러가서 매년 사람이 죽을 정도로 위험하였다. 바위 생김새가 채와 같이 생겼다 하여 채바위라 부른다.

■ 출동산(出洞山)

'부암' 앞에 있는 산이다. 장군영병출동형(將軍領兵出洞形)의 명당이 있다. 칠동산이라고도 하며 마을 동쪽에 백수봉 옆에 있다.

■ 출동산고개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당고개라고도 한다.

서낭당은 마을 동쪽에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소원성취를 빌면서 돌을 쌓아 놓았다고 한다. 1980년경 신작로가 나면서 사라졌다.

■ 서낭당고개

마을동쪽, 마을입구에 위치하여 옛날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고개라고 한다.

마을에서 부강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는 서낭당나무 앞에 돌을 쌓으며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지금은 신작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 상용(上龍)

용호(龍湖)의 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호리(龍湖里)는 지형(地形)이 하나의 용형(龍形)이라 하는데 실제로 용(龍)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용의 머리 부분에 마을이 있다 하여 '상용(上龍)'이라 부른다. 진주강씨(姜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물봉재

중용(中龍)뒤에 있는 산을 '물봉재'라 부른다. 이 재는 모양이 꼭 용과 같다 해서 '미리재' '미리峯'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금은 '물봉재'라 부른다.

■ 산제

몇 백년 된 풍습의 하나로 말 그대로 산에 지내는 제사로서, 마을 주민들의 무병장수와 마을 안녕 등 축문을 쓰고 산제를 올리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서 생긴 풍습이다.

■ 벼락산

남근터를 중심으로 뒷산을 벼락산, 벼락골이라고 한다. 남근터에서 문주리로 넘어가는 고개의 산을 말한다.

■ 다락바위

노적산(露積山) 서남쪽 중턱에 있는 바위를 다락바위라 부른다. 바위가 다락같이 생겼다 하여 다락바위라 부르는데 비가 오면 20여명이 비를 피할 수 있는 큰 바위이다.

■ 남근터

'중용(中龍)'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폐허가 되었던 옛터에 마을이 새로 생긴 곳이다. '남근터'엔 처음 구씨(具氏)가 살았던 곳이라 하여 '구태'라고도 부른다. 한자(漢字)로는 구대(舊垜)라고 쓰지만 예전엔 구대(具垜)라 하던 것이 그리 변하여 쓴다 한다.

용호리는 3개의 부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중 용호 1리는 남근터와 하룡으로 이루어졌다. 남근터라는 것은 옛날터라는 뜻으로 제일먼저 생겨났다고 한다.

■ 노적산(露積山)

'상용(上龍)'과 불암(佛岩)뒤에 있는 산을 노적산이라 부른다. 산의 모양이 꼭 노적가리처럼 생겼다 하여 노적산(露積山)이라 부른다. 팔봉산맥(八峰山脈)의 봉오리 아래 강(江)이 흐르고 노적산이 우뚝 솟아 경치(景致)좋은 산(山)으로 손꼽는다.

벚단이 쌓여 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산으로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며 출동산 옆에 있다. 이 노적산의 덕에 관한 시조가 있는데 이것은 "문주에서 배를 타고 강촌에서 고기를 낚고 출동산을 찾아가는데 백수봉에서 술잔을 드니 노적산의 덕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 불암(佛岩)

노적산(露積山)동쪽에 있는 마을을 불암(佛岩)이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부안임씨(扶安林氏) 입장군의 8대손(代孫)인 한 사람이 이 곳 노적산 아래에 적산(積山) 산봉(山峰)에 있고 여기를 불암(佛岩)이라 부른다 한다. 그 아래 마을이라 해서 '불암(佛岩)'이라 부른다. '부래

미' 라고도 부르며 진주강씨(姜氏), 부안임씨(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동나루

용호(龍湖) 서쪽에 있는 나루를 동진(東津)나루라 부른다. 연기 동쪽에 있는데, 조선시대 때는 동진원(東津院)을 두어서 행인(行人)의 편의를 도왔다 한다. 미호천(美湖川)과 조천(鳥川)과 합(合)하고 월하천(月河川)과 합(合)한 합강(合江)까지의 거리를 동진(東津)이라 부르는데 이곳엔 많은 어류(魚類)가 밤에 많이 잡혀서 매일 밤 고기 잡느라고 쳐드는 햇불은 정경(情景)을 이루어 연기팔경(燕岐八景)의 한 경(景)으로 손꼽는다. 동진(東津)의 동(東)편은 습한 지역(地域)으로 동변(東便)이 문주(文舟), 용호리(龍湖里) 양리(兩里) 별관이 위치하는데 이 곳을 동진평(東津坪)이라고도 부르며 동진평은 임진왜란 때 전략지(戰略地)로 알려져 있다.

■ 소정이 (송정(松亭))

백수봉 밑에 있는 마을로서 소나무 정자가 있어 송정이라 부른다.

■ 이현(泥峴)

진고개라고도 하며 소정에서 부암으로 가는 낮은 고개로서 전에는 이 고개 안쪽에 마을이 있다가 없어졌다.

■ 양성골

증석골에서 서쪽으로 미호천 가는 골로 양성골에 원님이 이곳에 와서 살았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기왓장이 발견된다.

■ 공회당

일제시대 공회당이 중용에 있었다. 그때는 용호 1, 2, 3리가 하나의 용호리로 이장 또한 한명이었고 지금의 마을회관이 공회당이다. 이때는 소인(이장이 부리는 심부름꾼)을 두고 업무를 보았으며 분구가 되면서 공회당이 없어지고 부락마다 마을회관을 지었다.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

■ 상용, 중용 산제

산제당은 노적봉 중턱에 있다. 산제는 노적봉 정상에서 지내는데 제당은 그 아래에 있어 이곳에서 산제를 잘 지내게끔 준비를 하고 또 떡과 뽕(밥)을 짓는다.

1993년부터 산제 지내던 것을 중단하였으며 그 이유는 산제 지내려면 제관을 엄하게 뽑는데 제관 뽑기가 갈수록 힘들고 또 젊은이들이 지내려고 하지 않아 중단했다.

이 곳 산제는 3제관(축관, 제관, 숙설(공양주))을 뽑는다.

산제는 음력 10월 2일에 지내며 산제 지내기 열흘 전에 제관을 선출한다. 제관은 생기와 복덕에 닿는 사람으로 1년 동안 초상집이나 부정한 곳에 가지 않고 그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거나, 동물이

새끼 낳지 않은 신성한 집으로 선택하여 뽑힌 제관은 우선 대문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린 다음 마을입구에도 금줄을 쳐서 외부인을 못 들어오게 한다.

제관은 밤이 되면 제당아래 우물에서 목욕재계하고, 제물로 쓸 것은 예전에는 소를 잡았는데 돼지를 잡아 지내다 중단되었다.

돼지는 교미를 하지 않은 검은 수돼지를 택하였다.

산제는 자시(子時 : 11시~1시까지)에 지내는데 제관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산제당에 올라가 준비를 한다.

우선 떡과 뽕(밥)을 짓고 제단에 진설한 다음 마중시루를 한다. 마중시루는 동네를 향하여 큰 소리로 마중시루, 마중시루, 마중시루 세 번을 외치면 동네아낙은 떡을 장독이나 마당에 옮겨 솥불을 켜고 산제의 제사에 맞춰 소원을 기원한다.

산제는 잔을 올리고 (단잔), 두 번 절을 하고 축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마을소지를 올리고 이어 제관이 각자 소지를 올린 다음 산제 지낸 음식을 챙겨 산제당에 있다가 첫닭이 우는 시간에 산에서 내려온다.

아침을 먹고 점심때쯤 마을회관이나 제관 집에서(공양주) 제물로 썼던 돼지 반 마리는 마을잔치를 하면서 계를 하고 반은 팔아서 마을경비로 쓴다.

만약 그 해 동네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산제를 잘못 지내서 그렇다고 꾸념을 한다

■ 덕고개

용호초등학교에서 삼성전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 이곳에 덕대(돌림병이나 어린아이가 죽으면 묻는 풍습)하던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용호초등학교

1970년대 설립되어 진행하다 1996년에 폐교되었다.

■ 찬두봉

학교 앞의 논을 찬두봉이라 한다.

■ 진고개

용호초등학교에서 부래미(용호 3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진고개라 한다.

■ 다락바위

노적산 너머 정상 아래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지칭한다.

예전에 나무하러 갔다가 비를 만나면 그곳으로 피신하는데 대여섯 명이 피할 수 있는 크기의 바위가 활 모양으로 되어있다.

■ 채바위

노적산 너머 미호천 변에 채갈이 생긴 바위가 있는데 이곳을 채바위라고 한다.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위험한 곳으로 바위 밑에서는 물이 깊어서 소용돌이친다. 작은 산 너머에 있다.

■ 효자 임양조와 임양문

임양조는 큰형이고, 임양문은 그의 동생이다. 그들은 부모가 돌아가시자 3년간 시묘살이를 하였고, 부모 이기에 6년간 시묘살이에 묘에서 집까지 길이 되었으며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 하늘에 기도하며 산삼을 캐어 봉양했으며 잉어가 먹고 싶다고 하자 한겨울 금강변에 가서 기도를 하니 잉어가 얼음을 깨고 튀어 올라 그것으로 봉양하기도 했다.

형인 임양조는 아들이 없고 동생 임양문은 6형제를 두어 큰아들을 형에게 양자 보냈으며, 임양문은 효자정려를 받아 중용 마을회관 옆에 효자각을 세웠다.



열녀비



임양문 효자정문

■ 부래미

이곳을 부암이라고도 부른다. 부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란 뜻이다.

■ 노적봉

부래미 북서쪽 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 출동산

마을동쪽의 높은 산으로 일명 칠동산이라고도 부른다.

■ 작은서낭

용호초등학교에서 부래미 마을로 넘어오는 고개이다.

예전에 이곳에 아릅드리 소나무가 있고 그 아래 돌무지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정월보름날과 설달그믐날에 서낭 치기를 했다.

서낭 치기는 떡, 명태, 과일 등을 떼어 그곳에 놓고 잘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비는 의식으로 약간의 돈도 그곳에 놓는다.

다음 날 이곳을 지나는 행인이나 장사꾼이 음식과 돈을 가져가기도 한다.

1993년 이곳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서낭당이 없어졌다.

■ 죽미고개

마을입구 현재 축사 있는 곳을 지칭한다. 마을로 들어오는 원길이라 한다.

■ 살구재

부래미의 중심마을로 큰부암 옆 마을이다. 10여호가 살고 있으며 예전에는 밭으로 되어 있었다. 이곳으로 젊은이들이 살림을 내서 살자, 큰 마을이 된 것이다.

■ 작은 부래미

부래미 남서쪽의 끝 마을이다. 8호가 살고있는 작은 마을이다.

■ 꽃재

마을회관 동쪽의 논을 지칭한다. 좋은 논을 지칭할 때는 고래실논이라 하는데 꽃재도 좋은 논을 지칭한다.

■ 재공골

마을회관 꽃재 너머의 골을 지칭한다. 이곳에 부안임씨 중시조인 임난수의 묘가 있고 그 아래 재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 덕대굴명

출동산 아래 덕고개가 있는 곳이다. 덕대란 돌림병으로 죽은 시체와 어린아이들의 시신을 묻는 곳으로 새가 쪼아먹으라고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밤에 몰래 묻기도 하는데 종종 여우가 파먹었다고 한다.

■ 부래미 산제

출동산 중턱에 산제당이 있었다. 매년 음력 12월 3일에 지냈다.

그러나 제관 뽑기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하지 않으려고 해 1998년부터 산제를 중단하였다.

그러므로 산제 지내고 하였던 산제계는 마을동계로 흡수되었다.

부래미 산제는 부정이 없는 사람, 즉 생기, 복덕인 2인을 선출하여 유사(제를 주관하는 사람)와 공원(심부름하는 사람) 2명을 뽑으면 대문에 금줄과 황토 흙을 뿌리고 약 4일간 목욕재계를 한다. 목욕은 음땀 샘에서 하였는데 그 샘은 출동산아래 논가에 있었다.

10여년 전 경지 정리할 때 없어졌다. 예전에는 소를 잡았지만 돼지를 잡아 지내다 소머리, 돼지머리를 사서 썼다.

1주일 전에 생기 복덕을 가려 유사와 공원을 선출하면 출타를 금지하고 금줄과 황토 흙을 뿌리고 외부인은 금줄을 보고 출입을 삼가 하도록 유도한다.

산제는 제당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제물을 진설한 다음 산제를 지낸다.

산제는 자시(子時 : 11시~1시)에 지내며 제물을 진설한 다음 집불(헛불)을 원을 그리듯 흔들어 신호를 보내면 동네사람들은 집에서 준비한 시루를 마당에 놓고 촛불을 켜 산제에 맞춰 소원을 기원한다.

산제는 술잔을 붓고 축은 유사가 읽고 소지를 올리는데 소지는 산신소지, 부락소지, 개인소지 순으로 올린다. 산제가 끝나고 내려오면 소지가 잘 올라갔느냐고 묻는 이가 많다.

■ 작은 서낭당

용호초등학교에서 부래미로 넘어오는 고개를 작은 서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삼성전기 쪽에 있는 서낭당은 큰 서낭당이라고 한다.

작은 서낭당은 1990여년경 사라졌다. 작은 서낭당은 정월보름이나 설달그믐날에 서낭치기를 한다. 돈, 시루떡, 명태, 과일 등을 놓고 절하며 제를 지낸다.

지나가던 장사꾼들이 제 올린 음식을 재수 있다고 하여 떡을 조금 떼어 가거나 바친 돈 등을 가져갔다.

㉘ 노송리(老松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던 연기현(燕岐縣)의 지역이다. 예전부터 노송(老松)이 많아서 조선시대에는 '놀뫼'로 부르기도 하였다가 일제 때에 '노산(老山)'이라 고쳐 부르기도 한 지역이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동이면(東二面)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시 노산리·상송리·웅동·송담리·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노송리(老松里)라 하여 동면(東面)에 편입하였다.

■ 진구렁

‘민마루’ 들 남쪽에 있는 들이다. 들에 물이 많아서 비가 오면 진구렁이 된다 하여 ‘진구렁’이라 부른다. 임진왜란때 왜병(倭兵)들이 이 곳에서 몰사하였다는 곳이다.

■ 움골

조선초엽 이곳에 마을이 없을 때 사람들이 여기로 옮겨와서 처음 움막을 짓고 살았다 그 후 마을이 형성(形成)되었다.

처음 사람들이 움막을 짓고 살았다 하여 움골 또는 웅동(雄洞)이라 부른다.

■ 노리미

마근터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산’ ‘노루미’ ‘노산리(老山里)’라고도 부르는데 노산(老山) 앞에 있으며 마을 뒷산의 모양이 노루와 같다하여 노루미, 당산이라 부른다.

노루미가 변해서 ‘노리미’라 부른다.

■ 피난골

마을동쪽 옷샘 위골을 지칭한다. 임진왜란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피난 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궁가마골

웅동의 옷샘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이곳의 샘물이 널리 알려졌을 때 가마를 타고 와서 마시고 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첫고개

영골고개 옆에 있는 고개로 웅동에서 사곡리 넘어가는 고개이다.

■ 터골고개

웅동에서 당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 모종자리

예전에 선비들이 글을 읽던 곳으로 정자를 지어놓고 여름에만 운영하는 서당이다. 현재는 터만 전한다.

■ 뚝병샘

옷말에 있는 샘으로 마을이 예전에 모두 이 샘을 이용했다고 한다. 지금은 먹지 않고 서 너집이 허드렛물로 사용한다.

■ 물경재

아미산 중턱 높은 곳을 지칭한다.

장마지면 미호천의 물 구경을 이곳에서 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마을 앞 남쪽으로 큰길가를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 나무장승이 양쪽에 세워져 있었다.

6·25사변과 1960년대까지 세워져 있었는데 장승제를 중단하면서 세우지 않았다. 장승제는 정월보름과 칠월칠석날 부락민 모두를 동원하여 지냈다. 장승은 보름날 깎아 세웠고 장승 깎는 일은 배철환(1979년 75세작고), 배의환(1996년 86세작고), 장찬옥(1996년 75세작고)의 목수가 주로 깎았다. 이들은 마을에서 이름난 목수로 김창호 씨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 삼거리

노리미에서 충북의 당곡리 경계지역 삼거리를 지칭한다. 충북 청주쪽, 연기 노송리쪽, 부강쪽으로 가는 삼거리 길이다. 이곳에 주막이 70여년 전까지 있어서 길손들이 쉬어갔다고 한다.

■ 남근석

아미산 서쪽 노리미 마을 가운데 있다. 원래 있던 곳은 현재 세워진 곳에서 동쪽으로 15m지점에 있었는데 진씨 집을 지을 때 버려진 것을 마을이장(배기석 씨)가 잘 보존해야 한다고 하여 현 위치에 세워 놓았다. 남근석은 마을 아낙 중에 아이를 못 낳거나 남자아이를 원할 때 이곳에 정성을 다해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어떤 이는 조금 떼어가 갈아 마시면 효험이 있다고 하여 떼어 가는 바람에 현재는 윗부분이 많이 망가졌다. 마을건너 마근터(노송 2리)마을에서 이것이 보이면 마을 아낙들이 미친다고 하여 마근터에서 보이지 않게 세워 났으며 보이면 마근터 사람들이 나무를 심거나 옮겨 났다고 한다.

■ 노리미 산제당

노리미 뒷산 아미산 서쪽의 중턱에 위치한다. 1970년대까지 산제를 지내왔다. 산제 지내는 날은 음력 11월말로 좋은 날을 받아서 지냈다. 주로 산제당과 장승제가 사라진 것은 마을에 천주교나 개신교가 들어와 이를 믿는 신도수가 늘어나고 차츰 참여가 저조하자 제를 지내지 않았다. 제당 아래 우물이 하나 있는데 산제 지낼 때에는 이곳의 우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관들이 매일 목욕을 하여 청결하게 했으며 현재는 배춘진 씨가 가정 우물로 사용하고 있다. 매년 산제를 지낼 때 정성을 다하면 마을이 평화로웠다. 특히 전염병이 다른 동네는 들어와도 이곳은 들어오지 않았고 정성이 부족하면 화근이 생겼다 한다. 제관은 그 해 부정이 없이 깨끗한 집을 골라 돌려가며 지냈으며 산제당이 초가집이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짚단을 걸어서 초가를 입혔고 쌀 또한 집집마다 걸어서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했다. 현재는 그 터만이 전하는데 얼마 전까지 김기팔 씨가 이곳에서 닭을 키우기도 하였다.

■ 느티나무

예전에 노송 1리 마을에 괴목 느티나무가 8그루 있었다. 현재는 상정말에 한 그루만 남아 있으나 예전엔 느티나무가 북두칠성처럼 마을 곳곳에 있었다.

이들 느티나무의 수령은 비슷하였는데,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나무가 울거나 소리내면 흉년이 들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며 나무를 베었을 때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큰 화를 입는다고 서로 가지고 가지 않았는데 종교인들(천주교, 개신교)이 가져다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느티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영험한 면이 많았다고 한다.

동네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나무가 울었고 단오날에는 가지에 그네를 매어 그네뛰기도 했고 나뭇가지가 중간에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어졌고 또 중간에서 합쳐진 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 아미산(峨嵋山)

동면 노송리와 예양리 뒷산, 충북 청원군 강내면 사곡리와 당곡리 뒷산을 아미산(峨嵋山)이라 한다. 아미산은 높이가 140m로 그리 높지 않은 평범하고 정겨운 산이다.

문명이 강을 끼고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아미산 남쪽으로 흐르는 금강과 북서쪽으로 흐르는 미호천은 선사문화의 발상지임을 말해 준다.

특히 가까이에 공주의 석장리 구석기유적과 청원군 비루봉 동굴의 구석기유적은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이 아득히 먼 옛날로 아미산에서 가장 가까운 송용리의 지석묘(고인돌)로 보아 신석기시대부터 살아온 것을 알 수 있다.

■ 아미산(峨嵋山)봉수(烽燧)

노송리(노리미) 뒷산인 아미산의 정상에 대규모의 봉수대 유적이 남아있다. 이 봉수대는 아미산의 정상에 인적으로 돌과 흙을 쌓아 올려서 높은 대(台)를 만들고 그 대(台) 뒤에 봉수대를 설치한 것으로 불을 땀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 봉수대는 과거의 모든 기록에서 누락되어 전하는 것이 없다.

■ 강당(講堂)

‘노루미’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서당(書堂)이 있어 ‘강당(講堂)’이라 부르는 마을이다. 여기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근처 약수터 부근에 사는 과부들이 옛날 남편과 살던 지난날을 생각하며, 슬픈 세월을 뼈아프게 생각한다 하여 강당을 아주 없애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다.

■ 가는개

‘창곶들’ 아래에 있는 들이다. 예전부터 가느다란 내가 흐르고 있는데 가느다란 냇물이 흐른다 하여 ‘가는개’라 부른다.

■ 마근터

노송리 마을 앞에 연못을 파고 소나무를 심어서 마을 밖에서 불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은 곳이다. 현재는 소나무가 모두 베어져 없지만 예전에는 소나무가 많았었다. 일설에는 마씨(馬氏)들이 처음 살기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마대(馬埭)라고 부른다고 하나 마을에 나쁜 기운을 못 들어오게 하고 좋은 기운을 못 나가게 막아 놓은 숲을 조성하였다 하여 불려지게 되었다. 예전에 장승이 세워져 있어 장승백이라고도 불렀다.

■ 약샘골

강당에서 아미산 쪽 도솔사 뒤편 골짜기에 있는 샘이다.
예전에 피부병 환자가 이곳에 와서 목욕을 하면 나았다고 한다.
마을북쪽 고개 너머에 예전의 절터가 있는데 그곳에 장효진 씨 밭이 있다. 그곳에서 몇 해전에 기와편과 벼루 깨진 것, 술 깨진 것이 나왔다고 한다.

■ 새터부리

강당에서 노리미 가는 곳으로 현재는 도솔사 돌 간판이 세워져 있다. 새로이 사람들이 한 둘 터를 잡고 집을 짓는다고 해서 붙여졌다.

■ 장판고개

큰 강당에서 작은 강당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이 고개를 통해 조치원 장터로 간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에는 마을회관이 있다. 강당우물 마을 중앙인 우종수 씨 집 앞 도솔사 가는 곳에 우물이 있었다. 동네사람 모두가 먹었는데 각 가정에 우물을 파면서 먹지 않기 시작했고 현재는 아미산 중턱에 설치한 상수도를 먹느라 우물은 폐쇄했다.

■ 강당 산제당

산제당은 현재 도솔사 서북쪽의 언덕 위에 있었다.
언제부터 지내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970년도까지 산제를 지냈다. 도솔사에 산신당을 짓고 산신께 제사를 지내게 되어 산제 마지막 제사 때에 그러한 이유를 축문에 넣어 써서 불지른 다음 제를 지내지 않았다. 그 후 산제당은 그대로 그곳에 서 있었다. 지붕은 기와이고 벽은 흙벽돌로 지어 자연스럽게 쓰러지도록 내버려두어 1995년에 쓰러졌다.
산제는 매년 음력 10월중 날을 받아 지냈으며 제관은 마을에서 그 해 생기 복덕에 닿는 사람 중 3명을 뽑았다. 제주, 축관, 공양주를 선출하면 선출된 제관은 집에 금줄을 치고 황토 흙을 대문 앞에 여섯 군데 부어 놓고 비린 음식을 먹지 않고 말을 삼가며 제관 셋이 방을 하나 정하여 제사 지낼 때까지 한 곳에서 잠을 잤다. 또한 제관은 찬물로 매일 목욕재계하고 부부관계를 금한다. 외 부사람이 제 준비하는 기간에 동네에 들어오면 제가 끝나는 날까지 방을 내주어 숙식을 해결해 주고 제가 끝나는 날 나가도록 했다. 제관이 목욕하는 곳은 모시고개(도솔사에서 사곡리 넘어가는 곳)의 툼병에서 물을 맑게 하고 목욕을 했다.

이곳의 고개를 산제 모신다고 하여 모시고개라 불렀다. 산제 비용은 동네 돈으로 충당했다.

■ 안구레

물미 옆에 있는 들을 지칭한다.

■ 짐치구레

진구령 남쪽에 있는 들로서 수침이 잘 된다.

■ 청둥

짐치구레 남쪽에 있는 들을 지칭한다.

㉘ 내판리(內板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연기현에 속했다가 연기현이 고려 때
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했었다.

‘너더리’ 안쪽이 되므로 ‘안너더리’ 또는 나무로 만든 다리가 있는 곳이라 하여 판교(板橋), 내판
(內板) 이라 불렀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의 상판리·외판리·외송리 일부를 병합하여
‘내판리(內板里)’라 하였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동이면(東二面)의 지역이었으나 ‘내판리’가 되
면서부터 연기군 동면(東面)에 편입(編入)하게 되었다.

■ 연못골

‘새말’ 동쪽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연못이 있었다 하여 ‘연못골’이라 부른다.

미호천(美湖川)이 부락 앞으로 흘러 많은 늪과 연못을 형성하였는데, 연못골 앞에 유달리 연꽃이
많이 피어서 ‘연못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연지동(蓮池洞)’이라고도 부른다.

■ 황새미골

내판리 상판(上板)에 있는 동산이다. 예전에 이곳은 큰 부자(富者)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약 300
평 건평(建坪)에 남향집을 짓고 살았다 한다. 지금으로부터 70년전만 해도 흑색(黑色)황새가 수 백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집 망하고 동산의 노송(老松)이 베어지자 어디론가 흑색 황새들은
날아갔다. 황새 놀던 동산이라 하여 ‘황새미골’이라 부른다.

내판 1리

내판 1리는 가장골, 다복골, 연못골 세 골이 합쳐져서 내판 1리를 이룬다.

흔히들 연못골이라고 불렀다.

일제시대 때 학교, 면사무소, 지서등 동면의 주요기관이 생기면서 중심지가 되었다.

■ 샘

특별한 이름은 없고 지금의 어린이집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거기에 제를 지냈었는데 지금은 그만 두었다. 그런데 제를 그만 지낸 이후로 연못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고 한다.

■ 연동초등학교

78년 된 학교인데 2년 후면 80주년이 된다.

심상소학교가 연동국민학교로 바뀌고 연동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다.

교조(校鳥)는 제비이고, 교목(校木)은 소나무이고, 교화(校花)는 개나리이다.

학교 내에 송암 장기황 선생의 교육공로비가 있다. 송암 선생은 송용 2리 사람으로서 장 부자로 통했는데, 학교 부지의 터 제공과 사회사업을 실천하였던 분이라고 한다.

내판 2리

내판은 넓다는 의미로 너더리라 한다. 2리는 아래뜸이라 하며 3리는 윗뜸, 중뜸이라 하고 4리는 새말이라 하며 5리는 상판이라고 했다. 1리는 연못골이라고 한다.

■ 방앗간

일제시대 때 생겼는데 하나는 폐쇄되고 하나만 남았다.

사라진 건 하리정미소이고 남아 있는 것은 통통방앗간이다.

■ 옷골

윗뜸에서 별도로 떨어졌다고 해서 옷골이라 한다.

■ 승적골

내판과 용호리 경계를 말한다. 서낭당이 있었으며 지나는 사람들이 서낭당에 돌을 하나씩 올려 놓고 지나갔다.

■ 연못골

예전에 연못이 있다고 하여 연못골이라 한다.

■ 차돌배기

차돌이 많이 있어서 차돌배기라 한다.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다.

여기는 예전에 아이들이 돌림병이 돌아 죽으면 묻는 애장터였다. 지금은 농공단지와 대한교과서가 있다.

■ 공회당

2리 회관은 예전 공회당이 있던 자리로서 공회당은 마을회관을 의미한다.

면사무소가 이전하면서 면사무소 자리가 공회당이 된 것이다.

■ 천수답

내판 2리는 대부분이 천수답이다. 이는 비에 의존해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한다.

■ 쟁말

내판 3리를 지칭하는 말로 구라당을 없애고 쟁말을 만들었다.

구라당은 산이나 밭을 지칭한다.

■ 효자문

김백열의 효자문이다.

1816년에 출생했고 공의 나이 5세 때 부친이 득병하여 매일같이 어린 몸으로 아버지의 병환을 간호하고 있던 중 효심이 지극해 하루는 꿈에 꽃감이 아버지 병에 특효약이라 하여 꽃감을 구해다가 드리니 수일만에 병이 완쾌되었다. 이 소식이 조정에 알려져 출전지효라 고종경년인 1890년에 중동몽교관 조봉대부를 중직하시고 영정을 내리시어 정문을 건립하고 후에 본보기로 삼았다.

내판 3리

내판 3리를 쟁말이라고 하였는데 쟁말은 밭고랑(구라당)에 집을 지어 마을을 만들어서 쟁말이라고 했다.

■ 모살미

마을회관 뒤편에 보이는 산을 말한다. 예전에 탈곡할 때 벃단으로 만들어 묶어 털었는데 그때 나락을 모아서 쌓아 놓은 모습이 묘 같다 하여 묘살미 또는 모살미라고 불렀다.

■ 수청골

물이 많이 나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골이라서 수청골이라 했다. 삼성전기와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공업용수로 쓰여서 건천이 되어 지금은 동네에 물이 내려오지 않는다.

■ 갈골

갈대가 많아서 갈골이라 한다.

■ 모시할미

마을에서 남쪽의 산으로 모시에다 숨을 담은 형상이라 해서 모시할미이다.

■ 잭별재

회관 서쪽고개를 말하며 이 고개는 옛날 전쟁터라고 알려져 있다.

■ 고랏

고자울, 고리알이라고도 부른다. 동네에서 가까운 논을 지칭한다.

■ 중심샘

마을회관 앞에 있는 샘으로, 우물 옆에는 향나무가 있었다.

■ 샘고사

여기는 신성시하며 상여는 지나갈 수 없었다.

제 지낼 때 삼색실과를 올린다고 하며 지신밟기를 하여 자금을 모았다.

생기복덕을 가렸고 부정한 사람은 제를 지내는데 참석을 못하였다. 제 지내는 비용은 마을경비로 지냈다. 예전의 향나무는 베어내서 사라졌다. 그 후 작은 것으로 심어났다.

■ 허드렛샘

마을회관 왼쪽에 있는 샘으로 목욕과 빨래 등을 했다. 할머니들은 보리를 까불고 난 뒤 목욕하러 자주 가셨다.

내판 4리

내판 4리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새말이라 불렀다.

■ 구부녀 바위

예쁜 여자가 살았다. 여자의 기가 세었는지 불행히도 남편과 계속 사별하고 또 사별해서 9번씩이나 시집을 갔다 한다.

죽은 남편은 손 빌릴 것 없이 스스로 집 주위에다 무덤 9개를 만들어서 썼는데 그 가운데에 있던 바위를 구부녀 바위라 한다.

이는 빈대처럼 납작하다 하여 빈대바위라고도 한다.

내판 5리

내판 5리는 지대가 높다고 하여 상판이라고 한다.

■ 샘고사

1년에 한번씩 음력 1월 15일 정월보름에 돼지머리, 떡, 과일을 놓고 지낸다.

제사는 부락경비로 했으며 샘은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 사용한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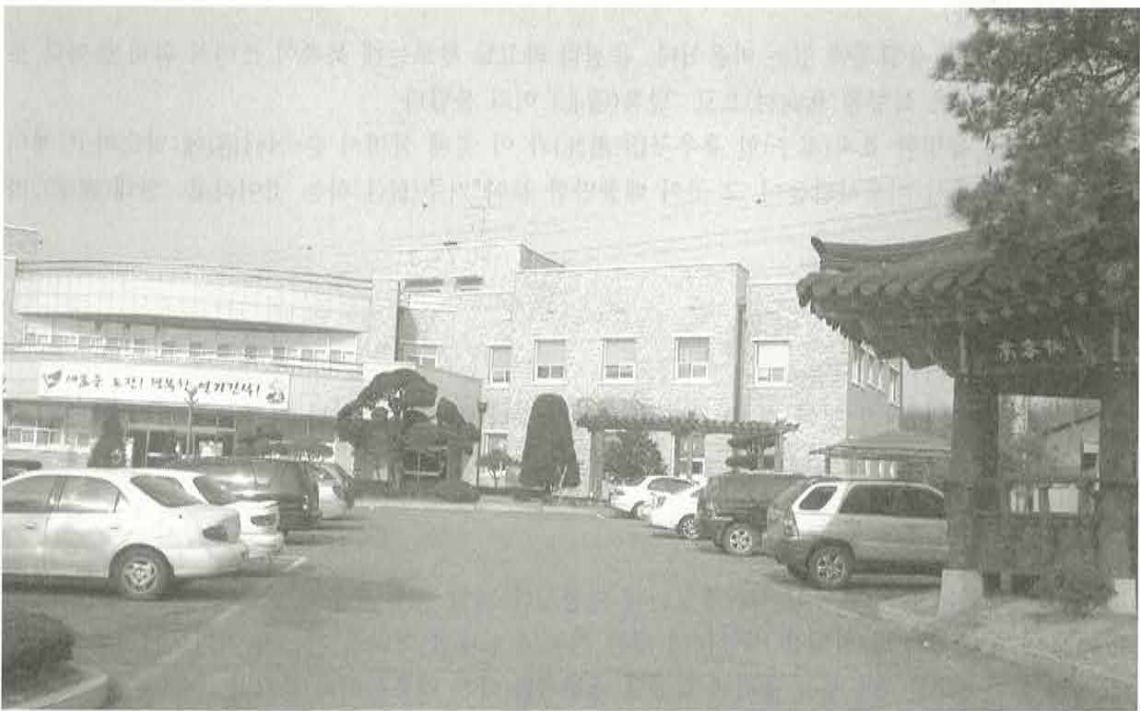


3. 서면(西面)

백제때 서면의 일부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북부(北部)의 일부(一部)는 구지현(仇知縣)에 속했었다.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과 대록군(大麓郡, 대록—목천 大麓—木川)의 영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으로서 연기군(燕岐郡)에 속하게 되었다.

관불산(冠佛山) 아래서 펼쳐진 이 지역은 신라때 정읍현(井邑縣)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당시의 고적(古蹟)이 잔존(殘存)하고 있으며 고려때부터 명당지(名堂地)가 많아서 각 씨족(氏族)들이 자리를 정하면서 정착(定着)하여 씨족촌(氏族村)같은 구성으로 마을이 이룩되기도 한 곳이다.

1917년 조치원면(鳥致院面)이 신설(新設)됨에 따라 북면(北面)의 9개 리(里)를 편입하여 18개 리를 관할하다가 1939년 2월에 5개 리를 조치원읍(鳥致院邑)에 넘겨주고 13개 리를 관할하며 연기군(燕岐郡) 1읍7면(一邑七面)중 서면(西面)이 되었다.



서면사무소

청라리(靑羅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는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燕岐郡) 서면(西面)의 지역이었다.

이 곳은 지형(地形)이 나발 같다 하여 '나발터' 또는 '청라(靑羅)' 라 부르게 되었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청라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 나발터(羅發堡)

예전에 나주나씨(羅州羅氏)의 거주지로 처음에는 나발지(羅發址)라 불리웠다. 또한 지형(地形)이 '나발' 같다 해서 나발터, 청라(靑羅)라고 부른다. 예전에 이 곳에 살던 나씨(羅氏)들이 떠난 마을이란 뜻에서 '나발(羅發)터' 라 불렀다.

■ 양대(良垔)

'나발터' 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은행(銀杏)나무가 크게 서 있는 마을이다. '양진(良津)터' '행정(杏亭)' 이라고도 부르는데 좋은 밭과 기름진 옥답(玉沓)이 많아 양지바른 곳에서 살기가 좋은 곳이라 '양대(良垔)' 라 부른다. 전의이씨(全義李氏)들의 거주지로 알려져 있다.

■ 현대(憲垔)

양진터 맞은 편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음진터 라고도 부르는데 북쪽이 트여서 환히 들여다 보인다. 원 마을명은 북향촌(北向村)으로 '망북(望北)' 이라 불렀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효자(孝子)인 홍우구(洪禹九)가 이 곳에 살면서 촌속(村俗)에 익숙하고 예의(禮義)가 뚜렷해서 이웃사람들이 그 곳이 배울만한 분이 거주(居住)하는 곳이라고 '현대(憲垔)' 라고 불렀다.

청라 1리

■ 청라(나발터)

청자를 구웠던 가마가 있어 청(靑)자가 쓰였고 나주라(羅)씨들이 살다 나가서 청자와 라자를 합하여 청라리라 부른다.

■ 매봉산

마을 뒤로 있는 산을 매봉산이라 부르는데 매봉산에 제일 높은 봉우리를 매봉제라고 부른다. 이유는 옛날 이곳에서 매 사냥을 하였는데 매를 하늘로 보내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기위해 매봉제로 올라가 관측해서 매봉제라 불리게 되었고 매봉제를 따서 매봉산이라 불렀다.

■ 관불산

나발터에서 맞은편으로 보이는 산이다. 공주와 경계지역이고 주변의 모든 산이 관불산의 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 봉황산

나발터 우측에 있는 산으로 봉황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봉황산이라 한다.

■ 절터골

매봉산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던 자리라 해서 절터골이라 했다.
절터골에는 옛날 절에서 썼던 도자기편과 기와편이 나온다.

■ 피화골

마을 뒤 매봉산 좌측으로 난 골짜기인데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을 와 숨어 있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화를 피하는 골짜기라 하여)

■ 구내농골

마을 좌측에 있으며 이곳에는 옛날 장수가 공기를 하다버린 바위가 있다.

■ 서당골

피화골 밑 골짜기로 서쪽 골짜기에 집이 있다고 해서 서당골이라고 한다.

■ 개골

매봉산 너머의 골짜기를 말한다.

■ 장골

마을 앞의 좌측으로 난 골짜기이다.

■ 뒷골

마을 뒷쪽의 골이라고 하여 뒷골이라 하였다.

■ 산가마골

장골 우측으로 나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 가난골

장골 갈라지는 맞은편 골짜기를 말한다.

■ 도둑골

상가 밖 옆쪽의 골이며 골이 깊어 도둑들이 많았다 하여 도둑골이라고 한다.

■ 궁골고개

나발터에서 공주 의당의 궁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뒤뚜거리

마을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난 밭으로 원래는 신작로 이름이었는데 밭 이름으로 바뀌었다.

■ 마당배미

공주고개 너머의 논으로 마당 같은 논이라 하여 마당배미라 하고, 땅은 공주지만 청라리 사람들 소유의 논이다.

■ 궁둥뱀이(궁둥배미)

공주고개 너머 나오는 논으로 여자 궁둥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졌다.

■ 기은정(岐隱亭)

마을입구에 있는 정자로 연기에서 숨어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약 450년 전(1550)에 생겼으며 둘레에 총 8그루의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현재는 5그루만 살아있다. 이곳은 나무가 둘러싸여 있어 항상 그늘이 지고 지대가 높아 바람이 불어 항상 시원하다. 또 한전이라고도 불리는데 땀이 안 나는 정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부채 없는 정자라고도 하며, 둥구나무 중 오래된 나무는 400~500년 정도 되었다.

■ 팔고이정

기은정 주위의 느티나무가 8개라서 팔고이정이라 하였다.

450여년 전쯤 8그루를 심었는데 지금은 하나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시 심은 나무이다.

■ 효자문

마을입구에 위치한 강릉김씨 김련의 효자문이다.

홀로 계신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백방으로 약을 구해 다 써보았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먹이기도 하는 극진한 정성을 보였다.

이처럼 극진한 간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묘소에 막을 짓고 3년간 시묘 살이를 하는 등 효행이 널리 퍼져 유럽에서 조정에 알려 1838년(헌종4년)에 정문을 세웠다.

■ 서당

나발터 마을입구에 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

지금도 집은 있지만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으며 1970년대 말부터 글을 가르치지 않았다.

■ 뒷골 말랭이

뒷산 꼭대기에 큰 바위가 있으며 그 바위에 글자가 쓰여 있는데 세월이 흘러서 돌이 닳아 잘 보

이지 않는다.

■ 백중놀이

1년에 한번, 음력 7월 보름날에 이 마을은 양반마을이라 종이 많았는데 종들 쉬라고 놀려주는 날이 있었다.

■ 장수바위

천근바위, 궁천바위라고도 불리며 이 바위는 옛날에 장수가 힘이 세서 이 바위 5개로 공기를 하다 집어던져 마을에 5개가 흩어졌다고 한다. 그 중 1개는 절터골에 있고 또 하나는 동막골에 있으며, 이 바위는 집채만하다.

청라 2리

햇별이 잘 들어 양지바르다는 뜻으로 양대라고 불리우며, 예전에는 행정이라고도 불렀다. 2002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되었다.

■ 양대

양진터, 양짓말이라고도 불리며 해가 제일 먼저 뜨고 양지바르다 하여 양대라 한다.

■ 왕재

마을 뒤 우측 연기향토박물관 뒤에 있는 산으로 왕이 나올 곳이라 하여 왕재라 하는 말이 있고 이 산에는 전의이씨 묘가 많이 있다.

이곳에서 왕이 나올 곳이기 때문에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심술로, 산줄기를 끊으면 동네가 잘 될 거라고 해서 땅을 파서 줄기를 끊었는데, 마을 산의 정기가 끊어져 좋지 않다고 해서 후에 1950년대쯤 다시 흙을 채워 이어 놓았다.

■ 병목안

마을에서 청라 1리 나발터 가는 곳을 지칭한다. 병의 목처럼 생겨서 병목안이라 부른다.

■ 백토산

헌터 위, 뒤주골에 있는 산으로 흙이 하얗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 아래에서 조선시대 백자를 구웠기에 도자기 깨진 것이 많이 출토된다.

■ 헌터

음진터라 하고 양대 맞은편의 마을이다. 해가 늦게 뜬다고 하여 음진터라고 한다.

■ 뒤주골

헌터 뒤쪽에 있는 골이다.

■ **피난골**

마을 뒤로 나 있는 골짜기로 피난을 이곳으로 와서 피난골이라 한다.

■ **거북골**

나발터 쪽의 골짜기로 옛날 북바위 라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를 굴러 둥굴렀다고 한다.

■ **검은골**

청라 1리 가는 쪽의 고랑이다.

■ **물방골**

왕재에서 서쪽으로 깊은 골짜기를 지칭한다.

■ **북바위**

검은골에 있는 바위로 산 정상에 있던 것을 둥굴러 놓으니 마을에 해(害)가 있었다.

■ **샘고사**

정월보름 안에 샘에 미역국, 밥, 삼색실과와 대접에 물을 떠놓고 마을에서 제일 연세 드신 여자 분이 밤 9시 넘어서 사람이 없을 때 지낸다.

■ **향토박물관**

1995년도에 들어왔다.

연기군내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한 곳으로 이곳은 조선시대 분청사기를 구웠던 가마터에다 민가가 내려오던 것을 임영수씨가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1996년 8월 14일 문화부에 박물관 제 85호로 등록되었다.

■ **은행나무**

마을 들어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수 백년 되었다고 하며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㉘ **월하리(月河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고 조선 태조(太祖)때는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 말엽엔 연기군 북이면(北二面)의 지역이었다.

예전에 월하방이 있었으므로 '가례리' 또는 '월하' '월동' 이라 하였다.

■ 월동(月洞)

조선말엽에 정치에 환멸을 느낀 민씨(閔氏)중의 한 세도가(勢道家)인 민후건(閔候騫)이 한양을 버리고 초야(草野)에 묻히기 위해 이 곳에 내려와 마을을 만들고 풍류(風流)를 벗삼아 살았다 하여 세월 좋은 마을이란 뜻에서 '월동(月洞)' 이라 부르게 되었다. 민후건의 호가 월하(月河)이다.

■ 효자정문(孝子旌門)

월하리에 있는 인조(仁祖)때의 효자 민후건(閔後騫)의 정문(旌門)이다.

■ 전동(典洞)

창고개 위쪽에 있는 마을을 '전동(典洞)' 이라 부른다. 조선 인조(仁祖)때 인조가 이괄의 난(亂)을 피하여 공주(公州)로 피난할 때에 난을 피해 피난 온다는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공주 금강(錦江)까지 가서 왕(王)을 영접(迎接)하였었다.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하여 주는 것에 놀란 인조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예전(禮典)에 바른 사람들이라 하여 그들의 마을을 '전동(典洞)' 이라 부를 수 있게 하사하셨다.

'작은 창고개' '새터말' 이라고도 부른다.

■ 월계(月溪)

'월하' 아랫편을 월계라 부른다. 마을 앞에 시냇물이 흐르고 예전에 서원(書院)이 있었던 마을이다.

예전에는 장이 서는 청거리 시장이었는데 조치원 시장이 번성함에 따라 자연 여기 시장은 없어졌다. 예전에 서원이 있었던 마을이라 해서 '구서원' 이라고도 부른다.

창녕조씨(昌寧曹氏)의 집거지(集居地)이기도 하다.

■ 부곡(富谷)

월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부곡사(富谷寺)라는 절이 있었다해서 부곡(富谷) 또는 부처곡이라고 부른다.

근 200년간 한양조씨(漢陽趙氏)가 많이 사는 마을이다.

■ 베루뱅이

'월계(月溪)' 동쪽 냇가에 있는 모퉁이를 베루뱅이 라 부른다. 물이 뱅뱅 돌아 소용돌이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여 익사자가 많았다. 벼랑이 지고 물이 깊어서 낚시터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뜰옥골

전동 서쪽에 떨어진 마을이다. 고대시(古代時) 오씨(吳氏)가 정착한 부락으로 오씨문중(吳氏門中)에 대학자(大學者)의 호(號)가 두옥(斗玉)이라는 설(說)이 있고 두옥동(斗玉洞) 중앙지점에 정안

이씨(延安李氏) 원조묘(遠祖墓)가 있는데 기자손(基子孫)들이 묘 아래에 마을을 이루면 부자로 살 수 있다는 뜻에서 옥(玉)이 말(斗)로 담을 만큼 부유해진다는 두옥동(斗玉洞)이라 했다.

오늘날에는 신리파(新里派) 홍씨(洪氏)들의 집거지(集居地)로 임(林), 이(李), 노(盧)등 많은 성이 거주하고 있다.

■ 묘막

월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한 효자가 이 곳 산 속에 부친의 묘를 쓰고 3년간 시묘를 하였다 해서 '묘막'이라 부른다.

그 후 이곳엔 효자가 많이 나왔으며 '묘막' 하면 효자효부(孝子孝婦)의 마을로 통하게 되었다.

■ 월하교(月下橋)

청거리 앞에 있는 다리로서 월하리에서 봉암리로 가는 다리이다.

■ 청거리(靑巨里)시장

조선말까지는 충남도인의 시장으로 후에 만들어진 충북인의 시장인 조치원시장과 큰 시장이었고 음력 4일, 9일에 장이 섰으며 조치원시장의 번성으로 차츰 쇠퇴하여 없어졌다.

철로가 나기 전에는 조치원 보다 큰 시장이었다. 그 전에는 물건이나 소금 등을 실은 돛단배가 부강과 청거리(베루벵이)까지 들어왔다.

■ 구서원(舊書院)

문정공(文貞公) 송제(松齊) 한충(韓忠)의 서원(書院)으로 서원을 봉암으로 이전하면서 구서원이라고 했다.

■ 연화사

연화산에 있는 절로, 절을 세운 홍씨 할머니께서 조선말기에 선물을 했는데 당시 절터골(지금은 쌍류리) 밭둑에 버려진 불상을 모셔서 절을 세웠다. 그 불상을 석불비상이라 하는데 처음에는 국보로 지정되었다가 보물로 지정하였다.

절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 손주며느리의 빚으로 그 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 연안이씨의 물명당

마을 동북쪽에 있는 산에 연안이씨 시조를 모셨다.

이씨들이 이 곳에 시제를 지내러 산소를 왔다 가면, 제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프고 죽는 일이 있어서 한동안 시제도 못 지내고 산지기에게 위임하는 일이 있었다.

100여년 전부터는 다시 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이런 명당을 물명당(산소를 다녀가면 자손이 죽는 명당)이라고 한다.

■ 서낭당

마을서쪽 변전소 앞에 있었는데 서낭치기를 했었다.

제는 특별히 지내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소원을 빌었으며, 오래된 참나무도 한 그루 있었으나, 1970년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확장을 하며 사라졌다.

■ 오충신 정려

밀양박씨 박천봉의 오충신 정문으로 1900년도에 자손들이 이곳에서 살다 동면 예양리로 이전하여 살면서 이곳의 정려를 예양리로 이전했다.

■ 부곡

월동 남쪽의 정좌산 바로 옆의 마을로 부곡사가 있던 절터에 마을이 생겼다 해서 부곡이라 부른다.

■ 작은창 고개

고려시대 몽고와의 항전시 식량창고를 월하 2리에 조그맣게 지었다.

이곳에서 군수물품을 보급했다. (일제시대 때 군수물품 보급창고를 지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 곳은 작은창 고개, 쌍전리를 큰창 고개라 부른다.

■ 정좌산

월동 남쪽에 있는 산으로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터였다.

연기대첩 장소중의 하나이다.

지금은 전부 개간을 해서 낮아졌지만 예전에는 지형이 높고 계곡에는 올라가기 힘들어서 전쟁을 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 광불암

안자산 안에 있는 절로 1970년대에 생겼다.

■ 안자산

새털말 작은창고개 동쪽에 있는 산으로 1970년대 광불암이라는 절이 들어섰다.

■ 매봉재

매봉재는 월하 3리와 4리 사이에 있으며 산의 모양이 매처럼 우뚝 솟아있다 하여 매봉재라고 한다.

■ 번암고개

조치원에서 번암 넘어가는 고개로 번암 간다 하여 번암고개라고 한다.

■ 가리터

가리란, 병아리를 가두어 놓는 싸릿대로 엮어서 만든 것인데 월하 3리의 모양이 가리와 비슷하고 뒤의 매봉산이 있으므로 매가 채가지 못하게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리를 친 형상이다.

발음을 편안하게 하다보니, 「가래터」라 부르기도 하며, 「닭계」자를 써서 월계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 월하농원

1970년대에 생겼으며 복숭아 묘목, 신품종 개량 등을 한다.

■ 향나무

마을남쪽 큰 샘 근처에 향나무 3그루가 있다.

몇 백년 된 나무인데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도 남아있다.

■ 벼루봉

군부대와 항공학교 뒤쪽에 있다.

벼루에 물을 붓듯이 한해는 물이 있고, 한해는 물이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창뜰

조씨 종산 너머 들판을 말한다. 군인들이 창을 많이 들고 있던 들이라 하여 창들이라 부른다. (군인들이 창을 쭉 세워놓고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

■ 한양조씨 종산

마을 건너편 보이는 산으로 한양조씨 무덤이 많다.

여기에서 조씨 시제를 지낸다.

■ 동네남쪽 샘

동네남쪽에 샘이 있는데 마을사람 전체가 사용하였던 샘이다.

지하수 개발을 해서 조지원식품과 쌍신전자가 용수로 사용하여 샘의 물이 점점 말라서 현재는 샘물이 말랐다.

■ 음팡골

월하 2리의 애장터이며, 창뜰 못 미쳐서 조씨네 종산 뒤쪽 근처에 전염병으로 죽은 이들을 매달아 놓은 곳이다. 매달아 놓는 것은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인데, 나무에 매달아 새가 쪼아먹게 함으로써 또 새가 날아감으로써 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곳은 2개의 산이 만나는 지점이며, 어른들은 자신들의 종산에 묻었다.

■ 월하고

청거리 앞의 다리로 옛날부터 있었는데 6·25이후 부서진 다리를 다시 만들었다 하며, 밑으로 미호천과 합쳐지는 내가 흐른다.

■ 제방

월하 3리는 해마다 홍수가 났었다.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났는데 일제시대 때 제방을 쌓으면서 침수피해는 없었다.

제방은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합강이 있는 곳에 있다.

(월하 4리 동쪽에 있으며 뚝방 끝에 배수장이 있다)

■ 서낭당

마을북쪽 매봉산 너머에 있었다. 수 백년된 참나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곳에서 서낭치기를 하였지만 현재는 제를 지내지 않는다.

■ 한들

월하 4리에 있는 논으로, 비행장 부지를 포함해서 모두 논이었는데 이를 한들이라 부른다.

■ 창들(뜰)

월하 4리에서 쌍전리 앞의 들을 말한다.

■ 물명당

마을북쪽에 홍가네 산(홍산)이 있는데, 이 산 뒤편에 묘가 3개 있다.

그런데 산소를 다녀가면 제사를 지내고 간 자손 중 누가 한명씩 죽었다.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묘를 가꾸지 못하고 있다.

■ 월하제방

마을동쪽에 제방이 있는데 이를 월하제방이라고 한다.

이 제방으로 인해 농사짓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군부대

1967년도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항공학교가 들어왔다.

그 후 1980년대 말에 항공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하고 공공기상 파견대(헬기 이착륙장)가 들어왔다. 이곳은 헬기가 많아서 마을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 서낭당

벼루봉 넘어가는 산중턱에 있었다. 이곳에서 서낭치기를 하고 귀한 음식을 가져다 놓았다. 이 서낭당은 해방이후 사라졌다.

㉞ 용암리(龍岩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전기현(全岐縣)의 구역이었고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서면(西面)의 지역이었다.

금당산(金唐山)에 용거(龍居)하는 설산(雪山)이 있고 용바위가 있으므로 용암(龍岩)이라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용암리(龍岩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속하게 되었다.

■ 용암동(龍岩洞)

위양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곳 금당산(金唐山)에 설산(雪山)이 있고 마을 뒤 우측으로 용암(龍岩) '용바위'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용암(龍岩)'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한양(漢陽)에서 호남(湖南)에 이르는 역촌(驛村)이었고 처음 김씨(金氏)들이 정착(定着)한 마을이다.

■ 용굴

위양골 서쪽에 있는 굴이다. 바위에 굴이 뚫렸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옛날에 용(龍)이 여기에서 승천(昇天)하였다 하여 큰 가뭄이 있으면 여기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한다. 용(龍)이 나온 굴이라 하여 '용굴'이라 부른다.

■ 위양(渭陽)골

용암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위양역(渭陽驛)'이 있었던 곳으로 역졸(驛卒)들의 왕래가 많았던 곳이다. 그래서 '역말'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이 남향촌으로 되어 있어서 위양동(渭陽洞)이라 했다는데 위양동(渭池)와 위양(渭陽)을 합해서 약 1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위지울(渭池洞)

위양골 위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와우형(臥牛形)'이라 한다. 월하천(月河川)상류는 본래 위수하류(渭水下流)에 위줄(渭茁)이라고도 부르는데 서북쪽에 위치한 부락이나 남향촌(南向村)이어서 항상 따뜻한 마을이라 한다.

■ 검단(黔丹)

용암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의 마을이름은 금당(琴堂)이었다 한다.

서민층의 거주지라 해서 검단(黔丹) 혹은 검단(儉丹)이라 부르게 되었다. 원예농가가 많다.

■ 안산

새로 생긴 용암 쪽에서 봤을 때 산 안쪽이라 하여 안산이라 하며, 안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산이라 한다.

■ 강다리

강다리는 집집마다 짚단을 세단씩 걷어서 모아놓고 마을사람들이 모여 동아줄을 꼬았다. 동아줄을 길게 해서 강다리(줄다리기)를 했다. 여자가 이겨야지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여자편이다)

일제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여 강다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동네 젊은이들이 죽어 나가서 일본 헌병대에 동네사람들이 몰려가 시위하자 강다리를 하게 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었다. 강다리를 다시 시작하자 더 이상 젊은이들이 죽지 않았다.

강다리는 음력 정월 16일 저녁에 달이 올라오면 강다리를 시작했다.

다른 동네사람들이 강다리 줄을 만지면 운수대통하고 건강해진다 하여 줄을 만지려 했다.

■ 목신제

수령이 400년 된 동구나무(느티나무)에서 남자들이 지내는 제로 시루떡, 삼색실과, 돼지머리를 놓고 제를 지낸다. 제관, 축관, 헌관이 있다. 제관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말하고, 축관은 축을 읽는 사람을 말하고, 헌관은 잔을 드리는 사람을 말한다.

■ 고복 저수지

예전에는 저수지 가운데에 마을이 있었는데 위양골이다.

저수지가 생기면서 주위에 마을이 생겼다. 1983년에 생긴 저수지로 용암저수지라고도 한다.

용암리 마을사람들은 떠나지 않으려고 저수지에 반대하며 집단으로 당시의 양후석 군수에게 찾아가서 항의를 하자 군수는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몰래 추진하여 저수지가 만들어졌으며 토지보상금이 적게 나와서 더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멀리 떠났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저수지 근처에 정착했다.

■ 사격장

1970년대에 사격장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다.

군부 독재시대여서 반대하면 군용지이므로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 하여 그냥 받아들였다. 사격장이 생기자마자 중학생들이 사격장 근처에서 놀다 불발탄이 폭발해서 두 사람은 죽었고 두 사람은 눈이 멀었다.

■ 생천(生天)

임진왜란 때 이곳으로 피난 온 1000명이 살았다하여 생천이라 한다.



고복저수지



연기대첩비



연기대첩 공원

■ 용굴

위양골 서남쪽에 바위가 2개 있었는데 용이 나와 승천했다 하여 용굴이라고 한다.

용굴에서 불을 때면 공주군 의당면 용암리에서 연기가 나왔다.

가물면 용굴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여자는 키로 물을 까부르고 남자들은 주과포(酒果脯) 즉 술, 과일, 명태포를 차려놓고 제를 지냈다.

■ 치부채산

위양골 북쪽에 있는 산을 말한다.

그 곳에 가면 바위가 있다. 바위 밑에서 물이 난다. 동네 사람들이 정월대보름에 그 바위에 가서 치성을 들였다. 어떤 이가 거기에서 소변을 봤는데 샘 지킴이인 뿔 달린 구렁이가 쫓아와서 혼쫓이 났다. 어른들도 그곳에서는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오목이샘

위양골 북쪽 치부채바위 가까이에 있다. 물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고 한다. 치부채 밑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는데 부자집 며느리가 손님접대를 많이 하다보니 짓물러 터졌다. 통증에 시달리던 며느리는 어느 날 오목이샘에서 손을 닦고 있는데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하라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는 손 좀 낮게 해 달라고 얘기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스님은 선반

뜰에서 내려온 산과 치부채에서 내려온 산 증앙을 끊으면 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머느리는 정 말로 그 사이를 끊었는데 그 후 집이 망해서 손님집대를 안해서 손이 나왔다고 한다. 아직도 그 머느리집터에는 기와, 토기, 자기도 많이 나온다.

■ 위양큰샘

저수지 가장자리 위양골 가까이에 있는 샘으로 저수지가 만들어지면서 사라졌다. 물도 많이 나고 관리도 잘 되었다.

■ 비나무골

치부채산 동쪽 골로 북나무가 많다고 해서 비나무골이라고 한다.

■ 안골

위양골 서쪽 골을 아늑하다 해서 안골이라고 한다.

■ 배나무골

우줄 동쪽마을로 조그마한 토종 배인 아그배나무 발이 있었다하여 배나무골이라고 한다.

㉞ 와촌리(瓦村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이라 했고 연산군(燕山郡)(연산—문의)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 태종(太宗)때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서면(西面)에 속했었다. 이 지역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기와집이 많은 곳으로 와촌(瓦村)이라 불렀다 하는데 또한 기와를 굽던 곳이기도 하다.

1914년 행정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와촌리(瓦村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西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연와재(燕瓦齋)

창녕성씨 재실이 있다.

■ 대실

와촌 1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대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400여년 전 창녕성씨 가문의 정착지로서 성씨의 종가(宗家)이며 부자로 살았다해서 대실(大室)이라 부르고 서계(西溪)라는 학자가 살았다.

■ 새뜸

대실 동쪽의 마을로 와촌 1리 1반이다. 마을이 새로 형성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 장판

옛날 젊은이들이 장을 치던 곳으로 지금의 성씨 재실 뒤쪽이다.

장치기란, 소나무 공이를 둥글게 다듬어 두 패로 갈라 한 패는 아래서 위로, 한 패는 위에서 아래로 장채로 쳐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이다.

■ 중뜸

대실 중심 마을로 와촌 1리 2반이다.

■ 아랫말

대실에서 서쪽 가장 아래에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와촌 1리 3반이다.

■ 문앞

대실 들어서기 전인 큰길가에 작은 마을을 지칭한다.

식당과 정미소가 있으며 와촌 1리 4반이다.

■ 옷밥골

대실 뒷산 너머 오목한 골짜기를 지칭한다. 예전에는 민가가 3채 있었고 우물도 있었다. 일제시대 포강(소류 저수지)을 만들었다. 이곳은 부자로 옷과 밥이 넉넉하여 옷과 밥을 지칭하는 옷밥골이라 했다.

■ 장수바위

대실 뒷산 서쪽에 있는 바위를 지칭한다.

바위에 장군 발자국이 남아있다.

■ 변암터

와촌 1리 5반이며 대실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장수바위가 마을 북쪽 저수지위에 있다해서 변암터(礮岩堡)라 부른다. 조선 초에는 흥덕장씨(興德張氏)들이 살기 시작하여 지금은 장씨촌(張氏村)으로 되었다.

■ 영금터

영금이라는 여인이 주막을 차려서 주막이 영금주막이고, 이곳을 영금터라 한다.

변암터와 대실 중간에 있었다.

■ 매봉재

변암터 뒷산을 지칭한다. 이 근방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다.

■ 여수배(바위)

대실 내 건너 장씨 종산 밑을 지칭한다. 이곳에 있는 바위를 여수바위라 하며 변하여 여수배라 했다.

■ 장고개

대실에서 조치원으로 장을 보러 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갔다.

■ 턱거리 바위

금하방직 들어가기 오른쪽 끝에 있는 바위로 풍수로 이곳은 오룡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형국으로 이 바위가 여의주에 속한다. (오룡장끼 — 다섯 마리의 용이 장끼(뺨)을 가지고 노는 형국)

■ 변암터 저수지

1973년도에 농수용으로 개설하였다. 그러다 1993년도에 마을 앞 경리정리를 하면서 물을 가두지 않아 저수지가 폐쇄되었다.

■ 변암터 장부자

조선말기에 변암터에는 장백현 이란 부자가 살았다. 일제 때 헌병 보조원으로 있으면서 치부를 하였다.

마을 근동은 물론 멀리까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아서 한해 농사지으려고 뿌리는 씨앗이 백 석 이요, 농사 후 걷어들이는 도지 값이 천 석이라 했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장 부자로 불렀는데 해방 후 토지 개혁으로 땅이 모두 소작인들에게 분배되어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였다. 1960년도에 떠나게 되었는데 현재 그 집은 장용기 씨가 살고 있다.

■ 변암터 느티나무

변암터 마을 가운데 느티나무가 있다.

수령이 480년 됐고 나무둘레가 4.6m, 높이가 30m이다.

1972년 7월 3일 군 나무로 지정되어 장면기 씨가 관리하고 있다. 나무의 잎이 선명하게 피면 풍년이 들고 잎이 작거나 색이 좋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

또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 기와말

와촌 2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에 대실(大室)의 부자집과 함께 기와집이 많았던 마을이라 해서 기와말 이라 불렀다 한다. 기와말이 변해서 지와말 이라고도 부른다.

세조 때 화를 입은 충신 성삼문(忠臣 成三門)의 창녕성씨들이 숨어살기 위해 이곳에 정착하였다. 지금은 16대에 이른다. 와촌 2리를 원와촌이라 불렀다.

■ 위뜸

기와말에서 북쪽 광불사 가는 동네를 지칭한다.

■ 중뜸

기와말 중심 마을을 지칭한다.

■ 아래뜸

기와말 동쪽 와촌초등학교가 있는 곳을 지칭한다.

■ 울촌(栗村)

대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밤나무가 많다해서 밤나무골이라 부르고 진원박씨(辰原朴氏)들이 5대에 걸쳐 거주하고 있다.

■ 황새바위

진실령 정상 아래에 큰 바위가 있는데 황새가 앉은 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모습이 많이 변했다.

■ 부처골

토성산 밑 구렁고개 너머 번암터와 원와촌(지와말) 중간, 현 천주교 공원 묘원 있는 곳을 부처골이라 부른다.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전에는 돌부처가 있었고 기와조각이 많이 나온다.

■ 너르베

일명 광암 이라 부른다.

위뜸 앞 냇가 위에 있는 바위로 여러 명이 앉아서 놀 수 있게 넓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콩콩모랭이

너르베 위를 지칭한다.

나무나 풀을 베어 가지고 울 적, 갈 적 쉬어 가는 장소이며 작대기로 땅을 찍으면 땅속에서 콩콩 울리는 소리가 들려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구먹

마을 큰 길 건너 둥구나무 앞에 있는 작은 못을 지칭한다.
주먹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속에서 물이 솟구치는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근처의 논에 물을 대어 농사를 짓는다.

■ 지울구레

학교 앞 들판을 지칭한다.
사계절 쉬지 않고 땅속에서 솟는 물의 양도 많아서 들판에 충분히 물을 대고 남아 봉암 국도 입구까지 흘러 흐르는 물을 지울 수가 없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오륙골

일명 오리골이라 한다.
마을 앞 큰 길 건너에 오리가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하여 오리골, 오륙골이라 부른다.

■ 장승베기

와촌초등학교 왼쪽 담을 지칭한다.
예전에는 이곳에 주막이 있던 곳이다.
날의 모습이 백장이 칼을 내미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가 켜서 집을 짓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자 그 나쁜 기를 막고자 칼끝에 돌장승을 세워 차단시키고 마을의 무사안일을 위해 장승제를 보름날 지냈는데 현재는 그 바위가 반쯤 문혀서 학교 담에 붙어 있다.
그곳을 위협하던 집안은 성현경, 성희경, 성기수씨로 학교가 들어서고 위하는 것을 중단했다.

■ 토성산

마을 서쪽 산을 토성산이라 하는데 흙으로 쌓은 산성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강당

예전에 강당이 있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중땀에서 성이복 효자각 너머를 지칭한다

■ 부처골

토성산 밑에 있는 절터이다.
현재에도 기와 깨진 것이 많이 나온다.
구렁고개 너머에 있다. 예전 이곳에 돌부처가 있었다.

■ 오류골

기와말 입구에서 남쪽의 산 고랑을 지칭한다.

■ 서당골

위뜸에서 서쪽 고랑으로 1.5km 올라가면 예전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이곳을 서당골이라 부른다. 예전에 이곳에서 글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다.

■ 두레말

기와말에서 서쪽으로 효방 가기 전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 주막이 있었으며 넓은 공터가 있어 새끼꼬기 대회나 가마니 치기 등 주민이 모여 공동작업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두레말이라 한다.

■ 버드나무 목신제

마을 입구 큰길가에 아름답리 버드나무가 세 그루 있다.

이곳에서는 보름전날 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떡과 과일을 차려놓고 목신제를 지내는데 수 십년이 이어져 오고 있다.

목신제의 유래는 성기욱씨의 증조할아버지(성준영)가 개울건너에 전답이 있어 일을 하러 다녔는데 어느 여름날 일하러 갔다가 갑자기 내린 비에 개울이 불어나서 그곳을 건너오다 그만 물에 떠내려 오고 있는데 느티나무의 가지가 갑자기 개울 쪽으로 늘어져 나뭇가지를 잡고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기욱씨 가족이 고맙다는 뜻에서 보름전날 나무에 고사를 지내왔는데 50여년간 지내오다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제를 지내게 되었고 올해로 10여년 되었다.

제 비용은 마을 집집마다 조금씩 내는 찬조로 이루어진다.

■ 와촌 대성정미소

1953년도에 성낙중씨가 설립하였다.

처음에는 발동기로 마을 가운데에서 방아를 찧었는데 1971년에 현재의 자리인 마을 입구로 옮겨 방아를 찧었다.

성낙중씨 아들인 성한경씨에게 물려주어 방아를 찧다가 1994년에 서면 쌍전리 합동정미소와 합병하여 이곳은 폐쇄하였고 현재는 방아를 찧지 않는다.

■ 와촌 보건진료소

1981년 11월 27일에 마을 가운데에 설치되었다.

1997년 7월 23일에 현재의 건물이 완성되어 옮겨왔으며 그 전 건물은 성기욱씨 집 앞에 있었다.

■ 은암(隱岩)

와촌 3리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숨은 바위가 있다해서 숨은 바위라고 부른다.

마을 뒤에 험준한 산이 있고 또한 계곡(溪谷)이 있는데 바위의 한 부분이 불쑥 불쑥 튀어나와 있

어 바위가 전체를 숨기고 있는 형국(形局)이라 하여 은암이라 부르는데 그 아래에 마을이 있다.

■ 미끄네 고개

은암 큰길가 남쪽에 있는 고개로 이곳을 넘으면 남면 수산리가 나온다.
옛날 어느 풍수가가 이곳 지형이 도읍이 앉을 자리인데 앞산이 가로막혀 도읍으로 결정 못한다고 하여 도읍 될 뻔 했다는 표현을 미끄러졌다고 불러 이름이 되었다.

■ 갈미봉(갓모봉)

갓모 같이 생겼으며 은암 뒤 북쪽의 산을 지칭한다.

■ 꼬부랑 산

기룡리로 넘어가는 은암 동쪽 산을 지칭한다.
산길이 꼬불꼬불 나서 꼬부랑 산이라 한다.

■ 얽은 바위

돌고개에 있는 바위이다.
일제시대 사방공사시 일인이 이 바위를 깨려고 할 때 동네사람 모두가 결사 반대하여 유지하게 되었고 이 바위가 없어지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한다.

■ 궁바골

와촌 3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이 마을 뒷산에 큰 굴이 있었고 그 굴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호랑이가 밤이나 낮이나 마을을 바라보고 울었다 하는데 호랑이가 궁해서 우는 고을이라 하여 마을을 궁바골이라 불렀으며 현재는 금바골이라고도 부른다.

■ 중말

궁바골에서 서쪽으로 외딴 곳에 세 가구가 살고 있는 곳을 지칭한다.
은암과 궁바골 중간에 있다하여 중말이라 부른다.

■ 효방동(孝坊洞)

기와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웃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부터 순흥안씨(順興安氏)들이 정착한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효자효부(孝子孝婦)가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 한다.
안택인 아버지 안형구가 괴종(다리복상씨가 썩는 병)에 걸려 약을 못쓰고 있을 때 개를 삶아 먹으면 낫는다하여 아들 안택인은 마을에서 기르는 개를 잡아 매일 드시게 했다.

차도가 조금씩 낡아 졌지만 동네 개는 모두 잡아먹고 아직 다 낡지 않아 계속 개를 잡아 드시게 하여 효자로 소문이 났다.

현재 그들의 후손이 이곳에서 사는데 안택인은 6대, 안형규는 7대이다.

효방동이라 부르기 이전에는 은암은 상은, 궁바골은 중은, 효방동은 하은이라 불렀다.

■ 도시락골

마을 남쪽 큰길 건너를 지칭한다.

골을 넘으면 남면 수산리 태천이다.

■ 평평바위

동네 안쪽 산에 넓은 바위가 깔려 있는데 그곳에 돌을 던지면 속이 빈 것처럼 평평소리가 나서 평평바위라 한다.

㉘ 쌍전리(雙錢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 연기현이 되어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北二面)의 지역이었다.

이 곳은 산세(山勢)가 수려(秀麗)해서 마치 중국(中國)에서 경치(景致)가 으뜸인 전당(錢唐)과 흡사하다 하여 '전당(錢唐)'이라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쌍괴리·전당리를 병합하여 쌍전리(雙錢里)라 하고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서면에 편입되었다.

■ 전당골

전성말 서쪽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을 '전당골'이라 부른다.

마을 뒤에 있는 정좌산(正左山)에서 고려와 원나라 장수가 몽고족 합단을 무찔러 섬멸하였다 하여 이곳을 진선동(鎭善洞)이라 불렀었다. 그 후 서기 1400년경 남양홍씨(南陽洪氏)와 강(康)유(俞)씨가 이 곳에 정착(定着)하여 산명(山明)이 수려(水麗)한 것이 중국의 전당(錢唐)과 흡사하다 하여 마을을 '전당(錢唐)'이라 부르고 '전당(錢唐)' '전당골'로 불리운다.

■ 쌍괴(雙槐)

전당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을 '쌍괴'라 부른다. 마을에 아름드리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창(倉)고개' '창현(倉峴)'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 고려 때 합단군을 무찌르는 군기창고가 있었다 하여 '창고개'가 원 명칭(名稱)이다.

근(近) 200년간 전주이씨(全州李氏)들이 살고 있다.

■ 못터

통미 옆에 있는 연못터를 '못터'라 부른다. 예전에는 큰 연못이 있었는데 큰 장마로 연못은 없어

지고 못터만 남아있다.

■ **군량골(軍糧洞)**

창고개와 전당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상고(上古)때 군량을 쌓아 두었었다 한다.

■ **통미산**

전당골 앞 들 가운데 있던 작은 산으로 논을 정리하느라고 없었다.

■ **연기대첩**

우리나라 역사 중 7대 대첩(살수대첩, 안시성대첩, 귀주대첩, 연기대첩, 한산도대첩, 행주대첩, 진주대첩)중 하나이다. 고려 말 몽고 합단적이 쳐들어 왔을 때 이들을 연기 정좌산과 원수산에서 물리침으로써 풍전등화 같았던 나라를 구한 역사적 전투이다. 합단적의 침입과정에서 가장 큰 싸움 중 하나로, 최종적으로 적을 붕괴시킨 싸움이다.

원주와 충주에서 패한 합단적 부대는 정좌산에 도착, 인근 일대를 점령하고 주둔했다.

고려군의 기습공격으로 방어선이 흔들린 합단군은 금강까지 죽은 시체가 널려있을 정도로 참패를 당하였다.

■ **옹달샘**

쌍괴 마을 꼭대기에 있는 샘으로 바위사이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여 예전에 동네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이 샘은 유량변동이 심하고 오염되어 지금은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다.

■ **서낭당**

정좌산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교회가 들어섰다.

서낭치기도 했으며 정월보름에 지신밟기도 했다.

■ **원당골**

둥그란 골짜기에 집을 지은 동네라 하여 원당골이라고 한다.

원당골은 전당골에 속한 마을중 하나이다.

■ **증석말**

대동여지도에 증석말이 나와있다 하여 증석말이라 한다.

■ **두루봉**

전당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둥그렇다 하여 두루봉이라 한다.

한문으로는 둥글원(圓)자를 써서 원봉(圓峰)이라고도 한다.

■ 요맛고개

원당골에서 월하리를 거쳐 조치원 넘어가는 고개를 요맛고개라고 한다.

■ 큰샘

동구나무 뒤편에 있는 샘으로 전당골 전체사람들이 사용하던 샘이었는데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1970년대 후반에 사라졌다.

음력 7월 7일날 풍악을 울리고 샘물을 퍼 올리며 샘 고사를 지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사라졌다. 음력 7월 7일 날이면 어른들이 모여 아직도 샘에 대한 옛이야기를 한다.

㉨ 쌍류리(雙流里)

백제 때는 구지현(仇知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 연기현이라 하여 대록군(大鹿郡)의 영현(領縣)에 속하기도 하였다. 고려 때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으며,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과 전의현이 합하는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서면의 지역이 되었다.

초당산(草堂山)을 중간에 두고 양계곡(兩溪谷)에서 흘러오는 냇물이 마을 아래서 합하므로 쌍류(雙流)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쌍류리(雙流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속하게 되었다.

■ 일곱길 바위

권터골 뒷산에 있는 바위를 '일곱길바위' 라고 부른다. 일명 장수바위라고도 부르는데, 바위길이 일곱길 이나 된다고 해서 그리 부른다.

■ 솔티(송현 松峴)

쌍류리에서 전동면 송정리로 넘어 가는 고개를 '솔티' 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라 부른다.

솔티 고개는 소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솔티 마을엔 예전에는 송현원(松峴院)을 두어서 행인의 편의를 도와주는 마을이었다.

■ 월정(月亭)

별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는 원래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재실(齋室)이 있는 곳이라 '송재실(宋齋室)' 이라 불렀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전판서(前判書) 이승순(李承純)이 이 마을로 낙향(落鄉)한 후 부터는 그의 호(號) 월정(月亭)을 따서 그대로 '월정' 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월정(月亭)이란 정자가 있었다.

■ 성당(聖堂)절터

권터골 뒤에 있는 골짜기를 성당(聖堂)절터라 부른다. 예전에 성당사(聖堂寺)란 절이 있었다 하

여 '성당(聖堂)절터' 라 부른다.

■ 생천

별말 북쪽 큰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다. 큰 길가이면서도 피난처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이 곳에 천명이 피난하여 무사했다 한다. 그래서 천명의 목숨이 살아났다 하여 '생천(生千)' 이라 부른다. 주거 성씨(姓氏)는 이(李), 서(徐)씨이다.

■ 별말

쌍류리 앞 별판에 있는 마을을 별말이라 부른다. 들에 마을이 있다해서 '별말' 이라 부른다. 이 부근에서 강물이 서로 합치는가 하면 지형(地形)이 또한 행주형(行舟形)이란 명당(名堂)자리라 하는데 근 300년을 두고 강릉김씨(江陵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권터골(송암 松岩)

쌍류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에는 소나무와 바위가 많고 선길바위 (50문암文岩)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한 사람이 권씨(權氏)라 해서 이 마을을 '권터골' 이라 부른다.

■ 큰 솔티고개

솔티에서 전동면 솔티로 넘어가는 큰 고개를 이야기한다.

■ 평촌(坪村)

평평한 땅에 있는 동네라서 평촌이라 한다.

행정리, 별말이라고도 했는데 별말은 들판이 있다하여 별말이라 했다.

■ 삼싱이고개

평촌 동남쪽 고개를 삼싱이고개라고 하며 평촌에서 생천, 솔티 가는 고개를 말한다.

■ 물탕골

한치마봉 밑에 있으며 먹을 감는 큰 연못이 있다하여 물탕골이라고 한다.

■ 일곱질 바위

바위가 일곱질이나 된다하여 일곱질 바위라고 한다.

■ 점바위

권터골 뒤에 있는 바위로 점쟁이가 점을 치면서 바위를 문지르면 돌이 바위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바위라고 한다.

■ 붕어명당

평촌 동쪽 산 너머에서 묘를 봤는데 그 곳에서 붕어가 살아 놀고 있었다하여 붕어명당이라고 한다.

■ 쌍류초등학교

1920년대 초에 생겼는데 처음에는 2년제 간이학교였다가 쌍류초등학교로 바뀌었다.

■ 효자정려

권터골에 있는 효자 김한정의 정려이다.

김한정은 19세에 양친이 병이 들었는데 부인 정씨와 함께 약을 구해 열심히 봉양하였다.

여러 번의 실험으로 부친의 병에는 생지가, 모친에게는 생어가 특효임을 알고 집 뒷산에 지초를 심어 약재로 삼고 문밖 영천에 생어를 길러 양친 봉양하기를 20년을 하루같이 섬겨 부모가 70장수를 누리 부근에 칭송이 자자했다. 한겨울에 잉어를 구할 수 없어 하늘에 기도하자 기도하던 자리가 녹아 그 구멍에서 잉어가 나왔다고 한다.

㉞ 신대리(新垔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이라고 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에는 청주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엔 연기군 서면(西面)의 지역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80여년 전에 가선홍씨(嘉善洪氏)가 여기에 정착(定着)하면서 새터를 잡아 홍씨(洪氏)들 40여호(戶)가 마을을 이루면서 새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1914년 행정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행정구역상 신대리(新垔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속하게 되었다.

■ 강골

불당골 서쪽 큰 골짜기 입구에 있는 마을을 '강골' 또는 강동리(江東里)라 부른다. 마을이 강의 동쪽에 위치한다 해서 그리 부른다.

■ 송적골

신대리 막바지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뒤편으로 경기, 호남간의 국로(國路)가 개통될 때 작은 솔티고개가 잘라지면서 소송(小松) '송적골'로 부르게 되었다.

■ 송정(松亭)

신대리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300년간이나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의 집거지(集居地)였고 또한 그 후 거유(巨儒)박당 정용몽 등이 학자들을 영입(迎入)하여 송정(松亭)을 설립하고 유(俞)홍

(洪) 양대성(兩大姓)의 젊은이들을 훈도(訓導)했던 유서 깊은 마을이다.

마을 앞에 소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송정(松亭)이라 부른다.

■ 살구정이

새터말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살구나무가 많아서 '살구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살구나무에서 풍기는 향기가 그윽하여 마을을 '향화(香花)'라고도 부른다.

조선중엽에 경기호남간 큰 도로가 마을 앞을 통과하였다. 그래서 동구(洞口)밖에는 길손을 기다리는 주점(酒店)이 있었다해서 안 동네를 행정(杏亭)이라 불렀다.

■ 신대(新垔)

살구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남양홍씨(南陽洪氏)인 홍표의 시점지(始占地)로 여기에서 대박산(大朴山)의 수구(水口)까지 옥야(沃野) 10리(里)가 개간되고 40여호의 홍씨(洪氏)들이 집거(集居)하여 살던 부유촌(富裕村)으로 새롭게 이룩한 마을이라 하여 '새터말' 또는 '신대(新垔)'라 부른다.

■ 불당골

새터말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큰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빈대가 들끓기 시작하더니 결국 사찰에 불을 질러 절터만이 전하여 불당골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홍씨(洪氏)와 김씨(金氏)가 의종계 살았다 해서 마을을 '우덕(友德)'이라고도 부른다.

■ 숙골(숫골)

새터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1400년대에 연서홍씨(燕西洪氏)의 정착지(定着地)이기도 하다. 그 예전에는 숫을 굽던 곳이라 하여 '숙골'이라 불렀다.

'숫골'이 변해서 '숙골'이 되었고 홍씨(洪氏)들이 살면서부터는 화동(禾洞)이라고 많이 부른다.

■ 의넘어(義洞)

원래는 성주현씨(星州玄氏)의 묘지기가 살던 곳으로 동전평야(洞前平野)를 '이넘어'로 부른 것은 주민들이 능선(稜線) 넘어있는 이 마을을 부지중(不知中)에 '이넘어말'로 호칭하기에 비롯됐다 한다. 그 후 3·1운동 당시에 항일투사로 알려진 의사 홍일섭(義士 洪日燮)의 만세자리라 해서 의동(義洞)으로 개칭(改稱)하였다.

■ 새터말(새타말)

기룡리 가기 전 나오는 마을로 원신대라고도 부르며 마을이 컸기 때문에 으뜸이 된다는 뜻의 원신대이며, 새터말은 이 마을이 가장 늦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새터말이라 한다.

■ 송정

중학교 밑에 있는 마을로 몇 가구 살고있지 않지만 송정이라는 명칭은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라는 왜군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수가 소나무가 있는 마을은 쳐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마을명을 송정으로 했다.

■ 전주봉

갈울 뒤의 산을 지칭한다. 전씨네 산이라서 전주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말도 있고 옛날에 전주보라는 장사가 있었는데 이 산을 두 걸음만에 뛰어 올라갔다고 하여 전주봉이라고 불리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 덕고개

중학교 근처에 있는 고개로 성제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이곳은 옛날에 죽은 사람을 묻는 덕대가 있어서 덕고개로 불린다.

■ 갈울

초등학교 뒤 지역을 갈울이라고 한다.

■ 한섬지기

원신대 앞 부분 논과 밭을 한섬지기라고 하는데 땅이 넓다는 의미의 한섬이다.

■ 산수골

원신대 쪽에서 와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는 도로포장이 되어있다.

■ 풍수골

새릿말과 효교동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효교비가 있는 곳이다.

■ 주막거리

중학교 뒤쪽으로 옛날에 주막이 있었기 때문에 주막거리라고 한다.
중학교가 생기면서 1969년도쯤에 없어졌다.

■ 버드나무

새타말에 있는 버드나무로 100 ~ 200년 가량 된 것으로 보인다.

■ 밧고지

계이트볼장 뒤 지역을 밧고지라 한다.

■ 남양홍씨 제실

새타말에 있으며 사당이었는데 1993년도쯤 새로 지었다.
가을에 제향을 하며 합제를 지낸다.

■ 사당

살구정 동네 끝에 있다. 동네를 위해서 위패를 모시고 음력 10월에 제를 지낸다.

■ 솟골

솟가마가 있었던 곳이어서 솟골이라고도 불리었다. 또 중말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아랫말과 윗말 사이에 있는 가운데마을이어서 그렇게 불리었다.

■ 초막골

불당골 뒤에 있는 마을로 6호 정도 사는 마을이다.

■ 안성주골

성적골 가기 전의 마을이다.

■ 안성적골 고개

강골에서 성적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성적골

신대리에서 용암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 밑의 마을이다.
한자로 하면 송적골이라고 한다. 연자방앗간이 2개 있었는데 팔았다

■ 재공골

버덕골 안골로 남양홍씨 15대 할아버지가 홍일섭 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재공골이라 이름지어졌다.

■ 버덕골

지금 홍일섭 묘가 있는 곳을 버덕골이라 한다.

■ 함자골

성적골 맞은편의 신작로 너머의 골이다. 지금 우림유비라는 공장이 있는 곳이다.

■ 황새바위

학림사 뒷산을 황새바위라 한다.

■ 개구리 명당

학림사에서 1km 안쪽을 개구리 명당이라 한다.

황새와 뱀과 개구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땅이라 하는데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으려 해도 황새가 위에서 지켜보고 있어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지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정지된 상태로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뱀이 개구리를 못 잡아 먹는 형상의 명당이다.

■ 관창골

개구리 명당 안쪽(좌측)으로 난 골짜기이다.

■ 의념어

관창골과 마주보는 곳의 동네이다.

■ 작은 솔티고개

성적골에서 용암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소나무가 많다고 하여 작은 솔티고개라 불리었다.

■ 옷샘

관창골의 논 앞에 옷샘이라고 있었는데 옷이 오르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물이 차가운 옷샘에서 몸을 씻었다고 해서 옷샘이라 한다.

■ 초막골샘

겨울에는 물이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가웠다고 하며 1980년도쯤 메웠다.

■ 학림사

1970년도쯤 생긴 절로 안양사라 하였다가 뒷산이 황새바위라 하여 학림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㉟ 성제리(性齊里)

백제 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으로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조(太祖)때에는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이면(北二面)의 지역이었다.

뒷산이 성(城)처럼 되어 있으므로 '성재' 또는 '성작골' 그리고 '도맥(道脈)' 이라고도 불려왔는데 남양홍씨(南陽洪氏)의 학자가 당호(堂號)를 성제(性劑)라 한 이가 있어 '성재'로 많이 불려 왔었다.

1914년 행정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성제리(性劑里)라 하고 북면(北面)에 편입되었다가 1917년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연기군 서면(西面)에 편입되었다.

■ 서당(書堂)골

과성 앞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효종(孝宗)때 공판(工判) 홍우표(洪禹杓) 부자(父子)와 세문당(歲

文堂) 홍우채(洪禹采)가 서당을 짓고 서생(書生)을 가르친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부른다.

■ 두루봉

두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비룡산 문맥(文脈)이 이 마을 뒤로부터 우측(右側)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둥근 박과 같다하여 '두루봉' 또는 '원봉(圓峰)'이라 부른다.

■ 원성제(原性齊)

성제리에 있는 마을이다. 명거(名巨) 홍이경(洪履慶)의 손자(孫子)인 홍우(洪禹)가 그 당시 명유(名儒)로서 호(號)가 성제(性齊)였으므로 그가 있던 이 마을을 원성제(原性齊)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도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괴동(槐洞)

두루봉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동우리재'라고도 부르는데 마을이 작은 동우리같이 생긴 지형(地形)이어서 그렇게 부른다. 일제시대에 마을 입구에 괴목(槐木)이 큰 것이 있다해서 괴동(槐洞)이라 불렀다.

■ 과성(城)

'동우리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새의 동우리처럼 되어 있는데 '동우리재'와 혼동을 피하여 한자로 과성(城), 새말 또는 '봉촌리'라 부른다.

■ 새말(소성 巢城)

성뜸에서 지서로 통한 지형이 대형계소형(大型鷄巢形)으로 되어서 소성(巢城)이라 칭하나 원 이름은 봉촌, 혹은 신리(新里)로 불려왔다.

성제 1리

승제리, 승작골이라고도 하였다. 승작골은 연기대첩에서 승리한 곳이라 하여 이름지어졌다.

고려 충렬왕 16년(1290년)에 원의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던 합단군이 동북 국경을 침입해 왔는데 합단군이 계속 싸우며 내려오다 현재 성제리 부근에서 전쟁을 치루었으며 여기서 합단군은 패하였고 이를 연기대첩이라 한다.

승제리는 연기대첩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승제리라 불리게 되었다.

또 옛날에 도승지(조선시대 승정원의 6승지중 수석승지)가 나와서 승제리라 불린다는 설도 있다.

성제 1리는 4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며 1반(서당골), 2반(새말), 3, 4반(동그리제)으로 불리운다.

■ 1반(서당골)

마을회관 앞에 있는 마을로 옛날 서당처럼 가르치는 곳이 있어 서당골이라 불리운다. 일제시대에 없어졌다고 하며 서당골에는 기계유씨 집안의 제실이 있으며 이곳에서 인물이 많이 배출되었다.



성제리



성제리

■ 2반(새말)

새로 생긴 마을이란 뜻으로 새말이다.

■ 3반(둥그리재)

마을회관 뒷길로 들어가면 마을이 나오는데 마을주변이 둥그스레하게 생겨 붙여졌다. 또 께동이
라 불리우기도 한다.

■ 성품

면사무소 뒤에 있는 마을로 서낭당이 있던 곳이었다 하여 성품이라 불렀다.

서낭당에는 나무하고 돌을 쌓아놓고 무녀들이 제를 지냈다고 하며 근처에 삼나무도 있었다. 예
전에 길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 전지봉

마을회관에서 서쪽에 있는 산으로 전씨성이 많이 살아서 전지봉이라고 하였다. 전씨들이 만석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고려시대 합단적이 쳐들어 왔을 때 선봉에서 싸운 전득현이 바로 이곳
출신이라 한다.

■ 서낭당 고개

성품에서 조치원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다고 해서 서낭당고개라고 한다.

■ 둥구나무

마을회관 뒤로 2개의 커다란 둥구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크고 넓게 뻗어있어 그늘을 만든다. 수
령은 대략 100~200년 가량 되었다.

성제 2리

원성제라고도 불리우며, 4개의 자연부락으로 나뉘며 1반(안뜸), 2반(재뜸), 3반(도라뜸), 4반(두
루뜸)으로 각각 불리 운다.

■ 1반(안뜸)

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 쪽까지의 동네로 안쪽에 있다 하여 안뜸이라고 불리었다.
남양홍씨가 많이 산다.

■ 2반(재뜸)

일제시대부터 재뜸이라 불리웠으며 문화유씨가 많이 살고 있다.

■ 3반(도라뜸)

제실이라고도 불리우며 이곳에 남양홍씨의 제실이 있었다.

■ 4반(두루봉)

서면 농협이 맞은편에 있는 마을로 두루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은 9호가 살고 있지만 예전에 70~80호가 사는 큰 마을이었다.

원봉이라고도 하는데 100년전 쯤에 이곳은 연기군 북면 원봉리에 속했다가 물난리가 나서 모두 없어져 지금은 서면으로 되었다.

누에의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 누에의 머리부분이 산사태로 쓸고 내려가 마을이 사라지고 현재의 마을이 되었다. 옛날 이 산에는 사당이 있었는데 돌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다. 또 재 넘어가는 고개라고도 불리우며 사당은 일제시대 때 관리 소홀로 사라졌다.

■ 토막산

2반에 있는 산으로 이 토막산 밑으로 집들이 모여 있는데 모든 집들이 이 토막산을 머리 방향으로 누워 베개처럼 베고 잤다고 해서 토막산이라 불려진다.

베개의 모양이 나무토막처럼 생겨 그런 것 같다. 우봉산이라고도 불려진다.

■ 알미산

마을 북서쪽에 위치한 산이며 앞쪽에 있어 알미산이라고 한다.

■ 전주봉

마을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전씨들이 살았다 하여 이렇게 불리며, 안착봉이라고도 한다.

■ 작대골

3반에 위치한 골짜기로 알미산과 토막산 사이의 골짜기인데 작대기의 Y형태로 길게 뻗어있어 작대골이라 한다.

■ 채봉골

사람이 죽으면 이곳에서 시체를 채봉한다고 하여 채봉골이라고 이름지었다. 여기서 채봉이라 함은 비나 눈이 안 맞게 막을 지어놓고 그곳에 시체를 넣어 물이 빠진 후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 이 골은 토막산의 첫 고랑이다.

■ 만석골

옛날에 이곳에 만석지기가 살았다고 하여 만석골이라 한다.

이곳은 물이 아직도 나오는데 물이 좋고 마르지 않아 이 물로 만석골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도둑이 많아서 없어지게 되었다.

■ 과부편돈

작대골로 700~800m 들어가면 좌측으로 나오는 산 밑을 가리키는 말로 옛날 이곳에는 사람이 살았는데 과부가 많이 나왔다.

이곳 전설은 옛날 이곳에 어떤 스님이 시주를 하러 왔는데 고약한 사람이 소똥을 망태기로 스님에게 주었다. 이에 화가 난 스님은 시주 받은 댓가로 마을 오기 전 알미산과 토막산 사이에 바위가 있는데 맞은편에 바위를 고인다면 동네가 부흥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토막산 맞은편에 바위를 고였는데, 그 후 마을에 남자들이 죽어나가 9홉의 과부가 나왔다. 이 바위의 형상은 마치 양쪽에서 곡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현재 알미산의 바위는 일제시대 때 산림을 정리하며 깨어 사용해서 없어졌다.

■ 소로 저수지

마을 작대골로 가면 과부편돈 가기 바로 전 나오는 웅덩이인데, 작은 저수지란 의미로 소로 저수지라 한다.

■ 두루봉내

두루봉 마을 앞에 흐르는 내로 금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두루봉의 내라고 해서 두루봉내라 불리 운다.

■ 둥구나무

현재 농협 맞은편 길에 둥구나무가 있다. 이곳 옆에 농막(정자)이 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생겼다.

■ 사당

두루봉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10월 초순에 선조들의 제를 지냈다.

■ 샘고사

풍장꾼이 있을 때 풍악을 울리고 굿을 하였다고 하는데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 동네기금으로 하여고 지신밧기도 했다.

㉘ 부동리(釜洞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때에는 청주(淸州)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군내면(郡內面)의 지역이었다.

예전에 기와를 구웠던 자리가 있다하여 '가마골' '부동(釜洞)'으로 불려지던 곳으로 1914년에 행정개혁 때 치암리와 서면의 오룡리, 산숯골, 방죽안, 홍축골을 병합하여 '부동리'라 하고 서면(西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치암(稚岩)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썩처럼 생긴 썩바위가 있다 해서 마을을 '치암' 또는 '썩바위'라 부른다.

■ 가마골(釜洞)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32사단 옆에 위치하며 고려 충렬왕 17년에 쌍전리(雙錢里) 정좌산(正左山) 전투에서 고려와 원나라에 반기를 들은 합단을 무찌르기 위해 큰 가마를 설치하고 군병(軍兵)에게 식사(食事)를 먹였다 하는데 그 때 큰 가마를 설치(設置)했던 마을이라 하여 '가마골' '부동(釜洞)'이라 부른다. 눈이 내리면 이곳이 제일 먼저 녹는다고 한다.

■ 오룡동(五龍洞)

썩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부근에 오룡주형(五龍珠形)의 명당(名堂)이 있고 지형(地形)이 오룡(五龍)처럼 되어 있다하여 '오룡동' 또는 '오룡골'이라 부른다.

■ 홍축(紅燭)골

가마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 처음 정착(定着)한 사람이 그날 밤 꿈에 정착한 집 부근의 땅이 어찌도 밝은지 어둠에서도 땅에서 광채(光彩)가 환한 대낮 같았다 하여 '홍축(紅燭)골'이라 부르게 하였다.

지금은 마을 부근의 산 흙이 모두 붉은 황토(黃土)라 한다.

■ 방죽안(防築)

부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마을 앞에 큰 방죽이 있어서 약(約)10정보(町步)나 되어 가물 때에는 전답에 물을 대었다.

큰 방죽 안에 마을이 있다 해서 '방죽안' 또는 '방축동(防築洞)'이라 부른다.

■ 산수동(山水洞)

오룡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면(西面) 북쪽에 관불산(冠佛山)이 있고 봉산(峰山)이 우뚝 솟아 있는가 하면 미호천(美湖川) 동강(桐江)이 유유히 흐르고 산수(山水)가 수려(秀麗)한 환경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동네라 하여 산수동(山水洞)이라 부른다. 옛 산소(山所)가 있다하여 산숯골, 산덕(山德)이라고도 부르며 200여년 전부터 기계유씨들이 거주하던 터전이다.

■ 부동리(釜洞里)

32사단 밑에 있는 동네이다.

부동은 연기대첩 때 수만명이 먹을 술을 걸어 놓았던 곳이라 하여 부동(釜洞)이라 한다.

■ 산수골

물이 아주 좋고 산세가 수려하여 산수골이라고 하였다.

■ 오룡동

마을터 중에 오룡장비라는 명당이 있는 마을이라 오룡동이라 한다.

■ 홍축골

땅이 옥토에 붉은색이고, 땅이 아주 좋아서 홍축골이라고 한다.

■ 용축골

홍축골과 오룡동을 합쳐 부르는 마을이다.

■ 뒷골

웃터골 옆을 말하며 가마골 뒤라 하여 뒷골이라 한다.

■ 갠골

32사단 들어가는 곳을 말하는데 객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아서 갠골이라고 한다.

■ 장안동(將安洞)

산 이름을 말하는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오룡동 남쪽을 말한다. 장군이 날 만한 아주 잘 쓴 묘가 있다하여 장안동이라 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노루장자를 써서 노루가 평안하게 있을 수 있는 마을이라 하여 장안동이라 했다.

■ 시루봉

가마골 동네 뒷산을 말한다. 술에 시루를 얹은 것 같다하여 시루봉이라고 했다.

지금은 사단본부가 시루봉에 위치해 있다.

■ 함박산

가마골 너머 동북쪽 산을 말하는데 동그랗게 함박같이 생겼다 하여 함박산이라 한다.

■ 진동날

가마골 북쪽 산을 말한다. 비가 오면 산이 진동을 한다하여 진동날이라 하였으며 비가 오면 산 근처에 가지 않았다.

■ 벼락정

진동날 너머 산을 말한다. 예전에 벼락이 많이 치는 산이라서 벼락정이라고 한다.

■ 재빼미너머

고개를 말한다. 오룡동 북쪽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물레방앗간에서 쌀을 짚어다 먹었는데 쌀을 짚어서 들고 가려면 무겁고 그걸 들고 가니 고개가 너무 급하게 보인다 해서 재빼미 고개라고 한다.

물방아 거리라고도 하며 지금은 쓰레기 폐기장이 되어 자취가 없어졌다.

■ 홍촉(紅燭)골 고개

오룡동에서 홍촉골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서낭당

홍촉골에서 신촌 가는 곳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길이 나면서 사라졌다.

서낭치기도 했으며 남면과 서면경계에 있었다.

■ 오이보는

오룡동 동쪽 공장 입구의 우측으로 논 16마지기 크기의 물 대는 보가 있는 논 한배미가 있는데 논 주인이 자기혼자서만 물을 댔다하여 혼자만의 보가 있는 논이라 하여 오이보논이라고 한다.

■ 시뜰

가마골 부근의 논을 말하는데 수령이 많은 들판에 있다하여 시뜰이라고 한다.

시는 수령을 의미하고 뜰은 들판을 말한다.

■ 쌍수명거리

지금은 오거리라고 불리 운다. 새로운 길이 다섯 개가 나 오거리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예전에는 쌍수명거리라고 하였다.

와촌에서 내려오는 물이 봉암 연바다로 나가는 수명이 두개가 있다하여 쌍수명거리라 했다.

㊸ 봉암리(鳳岩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삼국통일 후에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으며 고려 때에는 청주(淸州)에 속하였고 조선초엽에는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엔 연기군 북이면(北二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 봉(鳳)바위가 있어서 '봉(鳳)바위' '부영바위' '봉암(鳳岩)' 이라 불렀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군내면의 봉암리 일부를 병합하여 다시 봉암리라 하여 연기군 서면에 편입되었다.

이곳에서 상고시대의 구리칼(銅劍), 구리창(銅戈)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우 번창하여 전에는 “연기는 봉암으로 꾸러간다”는 말이 있었다.

■ 봉황산(鳳凰山)

봉암 동쪽에 있는 산이다. 봉바위가 있다해서 봉황산(鳳凰山)이라 부른다.

여기서 상고시대(上古時代)의 동검(銅劍)·동시(銅矢)·동창이 나왔으며 마을이 매우 유복하게 번성하는 이유를 봉황산 때문이라고 한다.

■ 봉암(鳳岩)

주막거리 앞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봉황산(鳳凰山)이란 산이 있고, 그 산에 봉바위란 바위가 있다해서 마을을 봉바위라 부른다.

또한 ‘봉암’ 이라고도 부른다.

■ 주막거리

‘봉암’ 뒤 큰 길거리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부터 여기에는 주막과 가게가 많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얼큰하여 서성거리는 거리라 하여 ‘주막거리’라 부른다.

■ 봉바위

봉황산 동쪽에 있는 바위를 ‘봉바위’라 부른다. 이 바위는 꼭 봉황처럼 주둥이가 창고개를 향하고 있었는데, 창고개에 사는 사람들이 그 봉황이 창고개를 파먹고 똥을 봉암에다 눔으로 봉암은 잘되고, 창고개는 가난하게 된다 하여 그 바위를 몰래 떨어 뜨려 버렸다.

■ 기양학교(岐陽學校)

서면 봉암리에 기양학교 라는 사립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농촌의 청소년을 깨우쳐 민족의 이념을 배워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겠다는 청소년들이 위대한 꿈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설립을 본 학교로서 서면 봉암리 이락당(二樂堂)에 있었다.

설립(設立)은 1904년 4월이었고 설립자는 민족애가 뚜렷한 윤준식(尹浚植)과 한일동(韓日東) 두 사람이 있고 초대교장은 윤준식이었다. 몇 년만에 폐교(廢校)했지만 많은 인재(人材)를 배출하였다.

■ 두명산

함박산과 봉황산 사이에 있는 산으로 산이 가장 낮아서 두명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봉암교

봉암에서 연기리로 건너가는 연기천에 놓은 다리로 1962년 9월에 완성되었다.

■ 장판고개

봉암 뒤에 있는 고개이다.

■ 정жат골

주막거리 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어두한 봉암인

봉암에는 큰 부자들이 많았는데 부모님 몰래 쌀을 팔아서 술값을 마련하려고 울타리 밑에 숨겨 놨는데 지나가던 거지가 그 쌀을 가지고 갔다.

가져간 줄도 모를 정도로 어리숙하다 하여 어두한 봉암이라는 말이 나왔으며 그 정도로 인심이 후하다 하여 어두한 봉암이라고 했다.

㉞ 기룡리(起龍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하였고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에는 청주(淸州)의 관할이었고 조선초엽에는 연기현(燕岐縣)에 속했고,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서면(西面)의 지역이었다. 지형(地形)이 용(龍)이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形局)이라 하여 그 뜻을 따서 기룡(起龍)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기룡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西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요화리(堯化里)

'동막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요화방(堯化坊)' 이었다 하여 요화리라 부른다.

■ 시묘동(侍墓洞)

'망골' 앞에 있는 골짜기를 시묘동(侍墓洞)이라 부른다. 효자(孝子) 홍우구(洪禹九)가 그 부모상을 당하여 이 곳에서 시묘하는데 범이 와서 호위하고 우물이 솟아 오르다가 시묘가 끝나자 범도 가고 우물도 끊어졌다.

효자(孝子)가 효도(孝道)하는 골짜기로 '효묘동(孝墓洞)' 또는 '시묘골' 이라 부른다.

■ 망골

기룡리(起龍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예전에는 이 마을 앞을 지나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이 있었는데 도둑이 많아서 그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가게되어 '막은골' 이라 하던 것이 변하여 '망골' 이 되었다.

이 곳에는 홍씨가내(洪氏家內)에 일곱 효자가 났으므로 영조(英祖)가 마을 이름을 '효교' 라 고쳐 주기도 하여 '효교' 라고 부르기도 한다.



효교비



효교정



효교비

■ 원기룡(元起龍)

'평전(坪田)' 동쪽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선지(仙地)로서 기룡의 원마을이라 하여 '원기룡'이라 부른다. '건너말'이라고도 부른다.

■ 봉강(鳳崗)

'망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 참의(參議)를 지낸 홍연경(洪延慶)의 제 3자(第三子)인 정량공(廷亮公)이 처음 정착(定着)한 마을로 마을의 형태(形態)가 문경조령(門慶鳥嶺)과 같다해서 봉강(鳳崗)이라 부른다.

산이 사방으로 둘러싸였으며 예전에는 그릇점이 있었던 마을이다.

남양홍씨(南陽洪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동막(東幕)골

'망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금의 평전부락(坪田部落) 남쪽에 자리잡은 홍씨(洪氏)가 예전에 어렵게 살 때 임씨(林氏)들의 가문(家門)이 번창하면서 임씨(林氏)들이 동쪽의 막이라 붙여준 이름이다. 동막(東幕)이라고도 부른다.

■ 은골(隱洞)

‘망골’ 북쪽 산에 쑥 들어가 있는 마을이다. ‘동산(東山)’ 부락 동북편에 작은 언덕을 이룩한 지대에 가호(家戶)가 적재되어 있는 마을인데 산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이 이룩되었다 하여 은동(隱洞) 또는 은골 이라 부른다.

■ 평전(坪田)

‘망골’ 남서쪽 평탄한 들에 새로 생긴 마을을 평전(坪田)이라 부른다.

임씨(林氏)들이 이룩한 마을로 평탄한 들에 마을을 이룩하였다 하여 그리 부른다.

■ 동산(東山)

신림(新林)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원동명(元洞名)은 사기점(沙器店)이 있었다 해서 ‘사기점골’인데 임씨(林氏)들이 신림(新林)에 자리잡다가 가계(家系)가 번창해짐으로 동쪽으로 와서 한 자리를 잡아 산 아래에 부락을 형성(形成)하였다 해서 동산(東山)이라 부른다.

■ 신림(新林)

예전 평택임씨(平澤林氏)의 일가(一家)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낸 임순우(林舜宇)란 사람이 공주(公州)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정착(定着)하면서부터 임씨(林氏)들이 이룩한 마을인데 그 당시 새로 임씨(林氏)들이 이룩하는 마을이란 뜻에서 신림(新林)이라 부르게 되었다.

■ 진상동

분청사기를 구웠던 골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서 도자기를 구워 나라에 진상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무남골

토성재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자라탕골

다랑이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서 자라처럼 생긴 물탕이 있었다.

■ 토성(土城)재

원기룡 앞에 있는 산으로 옛 성터가 있다.

■ 병풍바위

동산 뒷산에 있는 바위로서 모양이 병풍과 같다.

■ 황새바위

신대(新垔)리 서쪽 산에 있는 바위로서 모양이 황새와 같다.

■ 동산(사기점골)

옛날 마을 안쪽으로 그릇 만들던 곳이 있어 사기점골이라 부른다.

■ 재룡

은동 지나 산골짜기로 더 들어가면 나오는데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다해서 재룡이라 부른다.

■ 신림

현재 버스종점이 있는 마을이다. 임씨들이 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개등혈

건너말 뒤에 있는 산으로 등잔을 올려놓은 것(개혈)처럼 생겼다해서 개등혈이라 한다.

■ 노적봉

기와집뚝에 있는 산으로 노적가리(뱃집을 쌓아놓은 형태)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적봉이라 한다.

■ 고무레봉

건너말 앞산으로 고무레 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무레봉이다.

■ 매봉재

망골 가기 전 좌측에 있는 산으로 매와 관련이 있는 산이다. 현재 산아래 암자가 있다.

■ 지혈명당

매봉재 맞은편에 쥐의 모양이라 하여 지혈명당이라고 한다.

■ 증골고개

망골에서 증골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스무낭골

효교동과 건너말 사이 좌측 양계장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주막이 있었는데 이곳을 오가면서 쉬었다고 해서 스무낭골이라 한다. 1930년대 정도에 주막은 사라졌다. 이곳의 고개는 번암터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한다.

■ 진배미

건너 마을 둥구나무 지나서의 긴 논이 진배미인데 논이 길다하여 진배미라 불렀다.

■ 한섬지기

마을입구 쪽 산 아래에 있는 밭으로 땅이 한 섬처럼 컸다 해서 한섬지기라고 불렀다.

■ 현고개

띠실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짚은골

골이 길다 하여 짚은골 이라고 불렀으며 지금 은혜기도원 있는 고랑이다.

■ 효교비

1567년~1608년 동안 남양홍씨 집안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 유형문화재 제 108호이다.

홍연경이 효성이 지극하였고, 그의 아들 정설, 손자 우적·우평·우구 형제들, 증손 만, 현손 득일 등도 효행이 높아 5대에 걸쳐 7명의 효자들이 나왔다.

영조 때는 연경의 현손 득후가 상직을 양자로 들었는데 그는 대사간에 있으면서 종종 입궐하지 않았다. 왕이 이를 이상히 여겨 도승지 이석상에게 물어보니, 고향의 선영에 성묘하느라 입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영조가 감동하여 마룡동을 효행동이라 고치라고 하였다. 높은 산에 있던 것이 1987년 8월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 미력들

미력 앞의 들이라 하여 미력들이라 한다. 동산에서 신림 가는 길 사이에 있다.

■ 송봉

동산에 있는 산으로 동쪽 산꼭대기 봉우리를 지칭한다.

■ 진봉

송봉 옆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산이 길어서 진봉이라 한다.

■ 생천골목

신림 옆에 나 있는 골짜기로 깊은 골이라는 뜻이다.

■ 한터

터에 한 집이 있어 한터라 하였는데 이 집은 주막이었다. 1960년대쯤 주막이 없어졌고 마을이 형성되었다.

■ **흔고개**

한티골 골짜기를 지나 넘어가는 고개로 떠실 방면으로 가는 고개이다.

■ **변암터 고개**

스므낭골에 있으며 변암터로 가는 고개이다.

■ **감나무골**

진배미 쪽의 골로 감나무가 많이 있어 감이 잘 된다 하여 감나무골 이라고 하였다.

■ **좁은골**

감나무골 안으로 더 들어가서 좌측 골짜기로 좁다 해서 좁은골 이라고 하며, 가운데 골짜기는 북당골이며 우측으로는 생채냉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 **다랑이골**

매봉재 밑에 있는 골로 논이 조그맣게 12다랑이 있다 하여 다랑이골 이라고 불렀다. 이 골은 골이 좁게 있어 소가 갈지 못하고 손으로 해야 했다.

■ **서당골**

신림 맞은편 산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다.

■ **사당**

김씨들 종산에 경주김씨 제실이 있다. 1940년대쯤 만들었고 합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쯤이다.

■ **북모골**

서당골 근처에 있는 골짜기로, 서당골과 북모골을 묶어서 저건너라고도 한다. (마을 앞 논 건너에 있기 때문)

■ **저건너**

서당골, 북모골이라 하는데 절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다. 논에서 돌부처가 나와 절이 있었다고 추정을 한다.

■ **가맛집**

사당처럼 지어놓고 명절 때마다 제를 지냈는데 후손들의 관리 부실로 제를 지내지 않게 되고 1970년대쯤 가마보관소로 쓰다 1990년대쯤 부수었다.

㉞ 국촌리(菊村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이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연기현이 되어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에는 청주(淸州)의 관할이기도 했었고 조선 태종(太宗)때부터 전기현(全岐縣)의 지역이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서면(西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국화(菊花)가 많이 퍼서 국화향기의 마을로 널리 알려진 곳인데 그래서 국촌이라 불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 개혁 때 이웃의 독동리?대박리?후덕리를 병합하여 국촌리라 하고 연기군 서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후덕동(厚德洞)

마을 뒤에 기계유씨(俞氏) 묘(墓)가 있는데 그는 천성(天性)이 착실하여 어느 날 우연히 큰 고을에 갔다가 고아(孤兒)가 된 정동(鄭童)을 주워 다 키웠다. 그는 머리가 좋고 글도 잘 읽고 해서 10여 년을 공부한 끝에 크게 성공(成功)하여 전라도(全羅道)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다. 헌데 세월이 흘러서 자기를 키우고 크게 성공시킨 유씨(俞氏)가 죽자 그는 전라도에서 여기를 찾아와 은덕에 보답하는 뜻에서 묘지(墓地)를 정해서 유씨(俞氏)를 안장하고 유씨(俞氏)가 살던 이 마을을 후한 인덕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후덕동(厚德洞)이라 부르게 하였다. 후덕골 이라고도 부르며, 기계유씨(俞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가느실

이 부락은 지형(地形)이 가늘고 긴 협곡(峽谷)으로 되어 있어서 마을을 가느실 또는 세곡(細谷)이라 부른다. 기계유씨(俞氏)가 많이 살고 있다.

■ 독골

‘국말’ 동쪽에 있는 마을을 ‘독골’이라 한다. 옛날 어느 총각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자리를 정했다 해서 독골, 독동이라 부른다. 기계유씨(俞氏)가 많이 살고 있다.

■ 대박(大朴)

‘독골’ 아래에 있는 마을을 ‘대박(大朴)’이라 부른다. 대박동(大朴洞) 후산(後山)은 비룡산(飛龍山) 줄기 장장(長長) 20리를 잔잔하게 산세(山勢)가 뾰뚱하다 말단(末端)에 와서 함박모양으로 생겼다 하여 대박(大朴) 즉, 큰 박이라 해서 대박(大朴)이라 부른다.

‘함박산’ 이라고도 부르는데 기계유씨(俞氏)가 많이 살고 있다.

■ 국말

'독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가을이면 국화꽃이 만발하는 마을이라 해서 '국말' 또는 국촌(菊村)이라 부른다. 또한 여기 마을 산형(山形)도 만발한 국화 같다고 한다.

■ 정жат골

'독골' 백호 쪽에 있는 골짜기를 '정жат골'이라 부른다. 여기에는 느티나무 정자가 있다해서 '정жат골'이라 부르는데, 예전에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쉬어가던 마을이다.

■ 섬들

'독골' 앞 북쪽 넓은 들에 있는 작은 들을 '섬들'이라 부른다. 여기 섬들은 마치 큰 바다속의 섬처럼 생겼다 해서 '섬들'이라 부른다.

■ 벼락정이

'정жат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벼락정이'라고 부른다. 벼락정이란 여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 부서졌다 해서 벼락에 맞아 부서진 바위가 있는 골짜기라 하여 '벼락정이'라 부른다.

옛날 여기 바위에는 큰 지네가 살고 있었다. 그 지네는 가끔 바위에서 나와 지나는 행인을 괴롭히곤 했는데 하루는 여기를 신혼행렬(新婚行列)이 지나갈 때 그 지네가 나타나서 신부(新婦)가 타고 있는 가마 속으로 기어 들어가려 하자 별안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그 지네만 죽게 했다는데 그때 벼락이 지네가 살고 있던 바위도 부수었다.

그래서 '벼락정이' 또는 '전암(電岩)'이라고 부른다.

국촌리

8개 반으로 나뉘어 있으며 20~30년전(1970년)에는 1리, 2리 2개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재는 국촌리로 통합되었다. 각 자연부락명은 1~3반이 독골, 4반 벼락정이, 5반 함박산, 6반 궁말, 7반 가느실, 8반 후덕골이다.

■ 함박산

큰 도로건너 우측에 국촌리 첫 마을이다. 그 마을 산이 함박만하다고 해서 함박산이라 불리며 함박산 아래의 동네라 하여 함박산이라고 부른다. 대박이라고도 불리운다.

■ 뒷골

마을회관 뒤의 골짜기로 뒤에 있다고 해서 뒷골이라 부른다.

■ 안산

1리 마을회관 뒤에 있는 산으로 수능안씨(문의현령 안창(安昌)의 묘가 있기에 안씨네 산이라 하여 안산이라고도 한다.

■ 섬뜩

국촌리 마을 앞 교회 있는 쪽 들이 냇가가 흐르는데 앞 냇가와 또 그 뒤로 흐르는 냇가 사이에 있는 땅을 섬처럼 물로 갈라놓았기 때문에 섬뜩이라 한다.

■ 구능고개

후덕골에서 부동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는 집과 논이 들어서 고개는 없지만 그곳을 지칭한다. 옛날에 이 고개에 능(왕의 무덤)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 셋뿔뿌리

후덕골에서 가느실로 가는 도로 부근을 가리킨다.

■ 주막거리

교회 위쪽으로 냇가 부근에 옛날에 주막이 있어 주막거리라 부른다.

■ 덕대골

구능고개의 골짜기로 예전에 돌림병에 걸려 죽은 아이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 하여 덕대골이라 한다.

■ 대장간

가느실과 궁말 사이 도로에 옛날에 대장간이 있었다.

■ 정잣골

마을회관 근처에 정자가 있는데 정자가 지어진 것은 몇 해전(1990년쯤)이며 그 옆에 있는 느티나무는 200~300년 정도 되었다.

또 그 부근을 아랫말 모퉁이라고 하는데 마을입구에서 밑으로 나 있어 아랫말 모퉁이라고 한다. 또 밑으로 샘이 하나 있는데 아랫말 샘이라 부르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

■ 후덕골 샘

후덕골 중간에 위치한 샘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시루떡과 쌀을 놓고 샘고사도 지냈다. 샘 근처에는 연자방앗간이 있었다. (1950년경 소실)

㉨ 고복리(高福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연기현이라 하고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에 속했었다. 고려 때는 청주(淸州)에 속하기도 하였고 조선시대 때에는 전기현(全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북일면(北一面)의 지역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창녕성씨들이 많이 살았으며, 그 후 결성장씨들이 살면서 '봉서재'라는 서당을 개설하였다.

마을 뒷산을 고산(高山)이라 불렀으며, 이곳에 고산사(高山寺)란 절이 있었다.

지금은 산을 '비룡산'이라 부르고, 고산사는 절터만이 그 흔적을 알아 볼 수 있으며, 또한 아래 부분에 마을이 생기면서부터 이 곳은 '복골'이라 불렀는데 서기 1914년 행정개혁시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고복리(高福里)라 하고 연기군 서면(西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하복(下福)

'아래복골'이라고도 부른다. '고복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골' 아래편에 마을이 있다 해서 하복(下福), 아래복골이라 부른다.

■ 서복(西福)

'서복동'이라고도 부른다. '위복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복골 서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서복(西福)이라 부른다.

■ 상복(上福)

'고복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처음은 '복(福)골'이라 불렀으나 복골 위쪽에 위치한다 하여 '상복(上福)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사방말

'상복'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1960년에 사방사업이 최초로 시작되었을 때, 이 곳에 사방관리소(砂防管理所)가 있었다 하여 '사방말'이라 부른다.

■ 비룡산 절터

비룡산 정상 부분에 예전에 큰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폐사가 되었다.

절터 아래에는 우물이 한 곳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 서고(西高)

'위복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복(高福)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서고(西高)라 부른다. 결성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곳에 결성장씨가 터를 잡은 것은 300여년 전 봉옹(鳳翁) 장원주(張元?)가 동면 노송리(마근터)에서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결성장씨의 집성촌이 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창녕성씨가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장원주의 외가가 창녕성씨이다.

■ 서당골

마을 북쪽 골을 지칭한다. 현재 있는 봉서재가 북쪽 골짜기에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왔기에 옛 서당자리를 구서당이라 부르며, 그 골짜기를 서당골이라 부른다.

■ 동고(東高)

'고산골'에서 동쪽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다. 고복(高福)골의 동쪽에 마을이 있다해서 '동고(東高)'라 부른다. 동쪽에 복(福)이 깃 든 마을이란 뜻이다.

결성장씨(結城張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산현시대(高山縣時代) 향교촌(鄕校村)으로 지금도 부근 계곡 전답 등지에서 옛 기와조각이 보인다.

■ 고산골(高山谷)

동고와 서고를 통털어 '고산골'이라 부른다.

조선초엽 성씨(成氏)가 처음 여기에 살면서 높은 산밑에 마을이 위치(位置)하였다 하여 '고산(高山)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뒷산을 복이 깃 든 높은 산이라 하여 고복산(高福山)이라 부른다.

■ 산양골

동고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안선사(安禪寺)

오봉산에 있는 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 초기 이전에 창건되었다.

■ 정강골

상북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흥천사(興泉寺)

오봉산에 있는 절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조선 초기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유물인 기와편과 고려시대 석불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 고산

높은 산밑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고복 1리 전체를 고산이라고 부르며, 고복저수지 못 미쳐서 나오는 마을로 6개 반이 있다. 1반(산양동), 2반(동고), 3, 4반(솔딕골), 5, 6반(서고, 큰말)으로 나뉘어진다.

■ 산양동, 산양골

동쪽 산밑의 마을을 가리킨다. 청주한씨 사당과 한충의 묘소가 있다.

■ 고병사 묘

동고 뒷산에는 고병사의 묘가 있는데 옛날 고씨 성을 가진 병사의 무덤을 지칭하는 말로 비석도

있었으나 8·15 해방 후 병사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부정 탄다고 해서 비석을 없앴으며, 현재는 묘만 남아 있다.

■ 몽촌

고북 1리 가기 전 골짜기로 옛날 맹정승이 살 때 문지기가 살던 골짜기라고 한다.

■ 비룡산의 전설

옛날 이 산에는 용이 안된 이무기가 살았는데 산에다 산삼을 심고 산삼이 자라면 먹고 용이 되어 승천하려고 했지만 사람이 산삼을 캐 먹어 승천하지 못해 산삼 먹는 사람을 찾아 죽이려 했지만 그 사람이 살려주면 산삼을 심어서 드린다고 해, 죽음을 면했다고 한다. 후에 이무기는 착한 일을 해 용이 되어서 승천했다고 하는 전설이다.

■ 구서당

봉서재 너머의 골짜기로 봉서재를 설립할 때 처음 이곳에 터를 잡았다하여 구서당이라 한다.

■ 서낭당

서고에서 신대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서낭당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산양동에 사는 흥씨가 이것을 베고 죽었다.

이 서낭당은 신대리로 길이 나면서 없어졌다.

■ 고생골

이곳에 학자들이 많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 타동네 사람들이 고생골이라 불렀다.

■ 까치골

산의 형세가 매봉재로부터 턱 위에서 매가 까치를 쫓는 형상이라 하여 이 골이 까치모양이어서 까치골 이라고 한다.

■ 옷골

까치고랑 가기전 고랑(골짜기)을 지칭한다. 옷골로 가면 신대리 우덕쪽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었는데 서낭당이 있었다고 한다. 누군가 서낭당의 나무를 베고 죽었다는 이야기다 전해진다. 1960-70년대에 사라졌다.

■ 절골

절이 있었다고 해서 절골이라 불리운다.

■ 양학골

양학을 가르쳤다고 해서 양학골이라 한다.

■ 서복골

저수지 건너 있는 마을로 서쪽에 있는 골짜기라 한다.

■ 터골

상복 뒤로 나 있는 골짜기를 가리킨다.

■ 정강골

북서쪽에 있는 골로 거북이 비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없는데 그 비석이 우리나라 해방 때 일본으로 팔려갔다.

■ 사치장골

마을 안쪽에서 전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이다. 새타골 막바지골이다.

■ 새타골

도로 따라 안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골이 크고 길어서 새타골 이라 불렀다.

■ 까뜰봉

비룡산에 있는 봉우리로 까투리가 앉았기 때문에 까뜰봉 이라 한다.

이 마을에서 정승이 많이 나왔는데 중이 지나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심술로 묘 자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그래서 묘 자리를 옮기려고 묘를 파니 그곳에서 까투리가 날아가 비룡산 봉우리에 앉아 그 봉우리를 까뜰봉 이라 한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남면



4. 남면(南面)

금강변(錦江邊)에 자리하여 원수산(元師山)·전월산(轉月山)이 위치한 곳으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후반(後半)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에 인간이 벌써 정착(定着)한 곳이기도 하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에는 연기현의 중심지이며, 일부는 웅주(熊州)에 속했다. 그리고景德왕(景德王)때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현종(顯宗)9년(1018년)에는 청주(淸州)에 속했으며, 명종(明宗)2년에 감무(監務)를 둔 고을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조선 태종(太宗)6년(1406년)에 연기현에 속했다가 14년에 전의(全義)를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갈라서 연기현이라 불렀다.

조선시대 때에는 오랫동안 연기현(燕岐縣)의 고을이 지금의 남면 연기리에 있었으므로 조선문화(朝鮮文化)를 급속히 받아들인 고장이기도 하다.

조선말 고종(高宗)32년(1895년)에는 연기군으로 행정구역을 바꿨으며, 연기군청이 연기리에 있었다. 서기 1911년에 연기군청이 조치원(鳥致院)으로 들어가고 연기군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면(南面)이라 하여 2개리(個里)를 편입(編入)하여 14개리(個里)를 관할하는 면(面)이 되었다.

☞ 수산리(水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 때에는 청주(淸州)에 붙였다가 원래부터 연기현(燕岐縣)에 속했던 곳이다. 본래는 조선말엽부터 연기군 남면(南面)의 지역으로서 여기에 있는 금병산(金瓶山)이 수려(秀麗)하므로 수산(秀山)이라 부르다가 수산(水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국사리·대천리를 병합하여 수산리(水山里)라 부르게 되었다.

■ 태천(苔川)

‘수산’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태천(臺川)이라고도 한다. 강진이씨(李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산에서 흐르는 물이 맑고 깨끗하여 단단한 토지 위에 튼튼한 인물(人物)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 태천이라 부른다.

조선 단종 때 우의정을 지낸 정 본이 참화를 당하자(정 본은 조선 태종 5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단종을 보필함) 계유정란에 연루되어 이곳에 은거하였다가 전라도 광양으로 귀양을 가서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다.

진주정씨 세거지인 이 마을은 500여년 전에 형성된 마을로 본다.

정 본은 동혈사에도 은거하였고 계룡산 동화사를 건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수산리 263번지에 정 본, 정지산(鄭之産, 정 본의 양자(養子))을 모신 사당이 있었으나 후에 공주시 사곡면 호계리로 이전하였다.

■ 둔더기

‘수산’ 동남쪽 둔덕에 있는 마을이다. 국사봉(國士峰) 아래가 되는데 순흥안씨(順興安氏)들이 많

이 살고 있다. 둔덕(屯德)에 마을이 위치하고 있다하여 둔더기라 부르며 '둔덕' '국사봉' '국사리(國土里)' 라고도 한다.

■ 떡갈나무

수산리 큰 마을 서편 산 속에 있는 노목(老木)이다. 전해오는 말로는 한산(韓山) 이판서(李判書) 분묘(墳墓)앞에 있는 나무의 높이가 10여 척이나 되고 나무의 주위가 약 3아름이나 되는 고목으로 수령도, 여기에 처음 나무를 심은 사람도 알 길이 없으나 고목이 늙어서 한편 시들시들 하나 등갈에서는 고엽(枯葉)이 항상 파릇파릇한데 백세(百歲)가 된 노인이 말하기를 자기가 젊었을 때에도 똑같았다 하는데 수령이 500년 넘은 것으로 짐작을 한다.

한데 이상스러운 것은 풍년이 드는 해는 잎이 무성하고 흉년일 때는 잎이 시들시들하다 하며 또 한 나뭇잎을 만지면 마을 사람들에게 해가 돌아온다 하여 마을에서는 신단처럼 모시는 고목(古木)이다.

■ 이판서봉

앞에 이판서의 산소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큰 말랭이봉

남서쪽에 위치한 봉우리로 아래 서낭당이 저수지가 있는데 해방 전에 만들었다.

■ 서당골

수산리 앞산, 석현리 뒷산이다. 동남쪽에 위치하며 서당이 있었던 곳이라 서당골이라 부른다.

■ 통고뿔

동쪽에 위치하며, 옆에 강진이씨 산소가 있으며, 전에는 몇 가구의 농가가 있었으나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다.

■ 부덕골

통고뿔 아랫마을로, 민가가 3가구 살고 있다.

■ 석현(石玄)마을

서낭당이 가는 길에 위치하며, 민가가 5가구 있다.

■ 승적골(성적골)

서낭당이 가는 길에 위치하며, 소먹이는 꼴을 베러 다녔던 곳이다.

■ 원수산 부락(큰말)

15호(이씨(李氏) 12, 정씨(鄭氏) 1, 황씨(黃氏) 2)가 살고 있다.

■ 덕미골

마을 앞에 덕미배미(논)가 있으며, 2가구가 살고 있다.

■ 살구징이

돌마루 밑에 있는 논을 지칭한다.

■ 돌방차

돌로 제방을 쌓아 붙여진 이름이다.

■ 깃고사

정월 열나흘 저녁(6시)에 마을의 새뜨락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제를 지낸다.

전에는 집집마다 소원을 빌며 사람 수대로 소지를 올렸으나 최근에는 마타사(최광명)스님이 대표로 소지를 올려 준다.

깃발은 정월 초하룻날 세웠다가 제가 끝난 후, 걷어 보관해 둔다.

풍물을 치고 제물은 명태, 떡, 과일 등 타지와 비슷하다.

■ 조뱅이(조방이)

개울 옆에 닳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에는 집에서 종이를 만들어 썼다.

■ 아랫말

7호가 살고 있다.

■ 중뜸

지금 버스정류장이 있는 부락으로, 국사봉 북쪽에 있으며 중간마을이란 뜻이다.

40호가 거주하고 있다.

■ 장골(긴 마을)

국사봉 아래 마을로, 이 마을에 약수터가 있는데 한여름 가물 때에도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에는 추석이 되면 주민이 모여 제를 지냈다고 한다. 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도작골

저수지 위쪽으로 고려 말의 한희유 정승 묘가 있었는데 지금은 찾지 못한다고 한다.

조선 말기 유림에 의해 훼손되었다고도 하며, 주민의 말에 의하면 한씨 비석이 도랑 건너는 다리로 쓰여졌다고도 한다.

■ 돈방차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여기서 주말 장사한 사람은 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여 돈방차라고 전한다.

■ 장골

맹금산 부근 마을로, 1가구가 거주한다.

■ 둔덕골

새길 가는 쪽으로 3가구가 거주한다.

■ 맹금산

장골과 둔덕골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망아지 만한 금이 나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국사봉에는 산삼이 나왔다고도 전해지며, 장곡 저수지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잉어가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주민의 얘기로는 산삼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반대편 수산리 서낭당이 저수지에는 잉어가 살고 있다.

■ 목신제

오래 전부터 정월 14일 저녁 7시, 목신제를 지낸다.

몇 백년 전, 마을에 재앙이 닥쳤을 때 어느 도인이 목신제를 지내면 마을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여 오늘날까지 목신제를 지내오고 있다.

한집도 빼지 않고 사람 수대로 소지를 올려준다.

■ 무너미 고개

동네 중간에 있는 고개로, 훗날 마을 한쪽에 저수지가 생겼다.

주민들은 '물이 넘는 고개'란 뜻의 이 고개가 나중에 저수지가 생긴걸 보고 지명에 대해 신기하게 여겼다.

이 무너미 고개는 전설이 있다.

마을에 백씨 성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이 찾아와 부인의 손이 마를 날이 없이 짓무를 지경이었다.

어느 날, 중이 지나가는데 손 병을 낳게 해 달라고 하자, 무너미 고개를 끊으면 낳는다고 하였다. 부인은 병 고칠 생각에 무너미 고개를 끊어 버렸다.

그러자, 집에 손님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가세는 기울어 백씨 부부는 마을을 떠났다.

주민들은 이 집을 헐어 버렸는데 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거나 산소를 써도 오래 가지를 못했다고 한다. 지금도 백씨 산소가 많이 있다.

■ 도토막이

터져서 도로 막는 바람에 얻어진 이름으로 큰길 우측에 있다.

■ 치국채

입구에 선돌이 있고 정월 보름 장승제를 지냈다.

㉸ 진의리(眞儀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백제 멸망 후에는 웅진(熊津)에 오래 속해 있었다.

조선 태종(太宗) 때에는 공주(公州)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삼기면의 지역이었다. 이 지대 앞을 흐르는 '금강의 여울이 길다' 해서 '긴여울' '진탄(眞灘)' '진의(眞儀)' 라 불려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창동(倉洞)' '덕성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 와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 '복룡리' 를 병합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어 진의리(眞儀里)가 되었다.

■ 진의리

한말 공주군 삼기면(三岐面)이 지역으로 마을 앞의 금강이 여울져서 여울이 길다하여 '긴여울' '진탄' '진의' 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창동' '덕성동' '가정리' '성전리' '송현리' 와 연기군 남면 '복룡리' 를 병합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어 진의리가 되었다.

■ 원수산

고려충렬왕때 몽고항단적이 쳐들어 왔을 때 고려의 감장군인 한희유장군이 무찔러 대첩을 이룬 곳이다. 높은 장수가 지휘했다하여 원수산이라 부른다.



진의리에서 바라본 원수산

■ 진여울

구리(舊里)에 있는 장군봉(將軍峰)이 마치 장군들이 대좌하고 원수가 출진(出陣)하는 형상이라 해서 진탄이라 하였다. 진탄(陣灘)이 곧 '진여울'과 통하는데 '진여울'이란 여울이 길다는 뜻에서 금강변(錦江邊)의 진여울이라 부른다.

성전(星田)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30호가 거주한다.

솔고개에서 현 연세초등학교 (양화 3리)까지 금강의 긴여울이 있어서 진의리라 부른다.

이곳에는 강이 세 줄기가 흘렀는데 진의리 앞으로 흐르는 여울이 제일 길다.

■ 창말

진여울 옆에 있는 마을이다. 창동(倉洞), 모창골 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창고가 있었던 마을이라 하여 '창말'이라 부른다.

■ 흰여울

진여울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백동(白洞)또는, 백야동(白也洞)이라고도 부르는데 '희여울'이란데서 연유한 지명(地名)이며, 지금은 변해서 '흰여울'이라 부른다.

산에 몇 기의 묘가 있으며, 입씨가 터 잡기 전부터 있었던 백씨(白氏)들의 묘라고 전한다.

■ 찬샘골

약수터로 통하는 찬샘이 하나 있으며, 그 샘물이 피부병과 속병에 효력이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이 샘물에 찾아온다.

일제시대 때 파이프로 성전에 있는 수리조합으로 물을 빼냈다고 한다.

찬샘이 있던 마을이라 해서 '찬샘골' '한천(寒泉)'이라 부른다. 5호가 거주한다.

■ 와가리(瓦家里)

조선시대 여기만 기와집이 많았고 모두 유복하게 살았다.

기와집의 마을이라 하여 '와가리(瓦家里)'라 부른다.

지금은 기와집이 남아있지 않다. 그 전에는 덕암이라 불렀고, 24호가 거주하고 있다.

■ 서당(書堂)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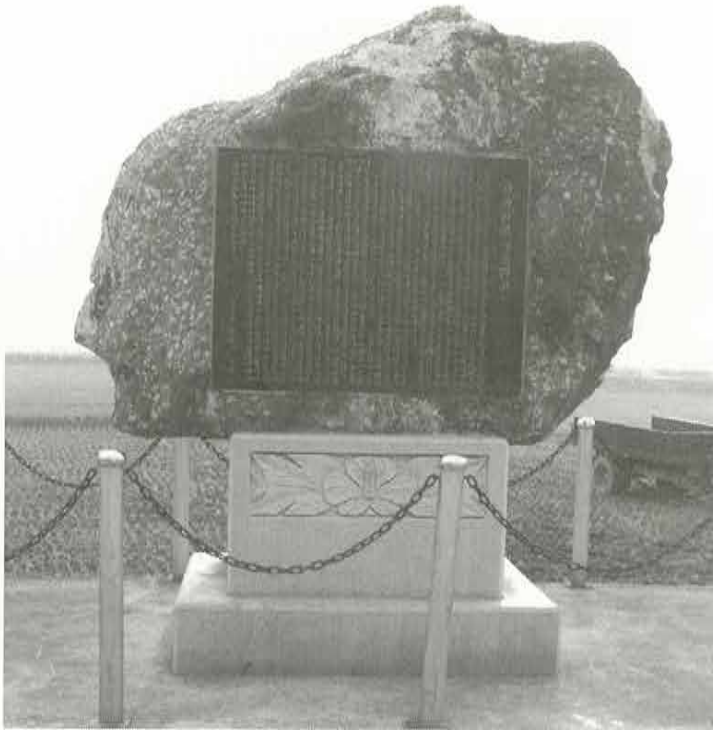
옛날에 글을 못 배우는 농촌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 집을 짓고 글을 가르치던 곳이라 하여 서당골이라 부른다. 9호가 거주한다.

■ 지름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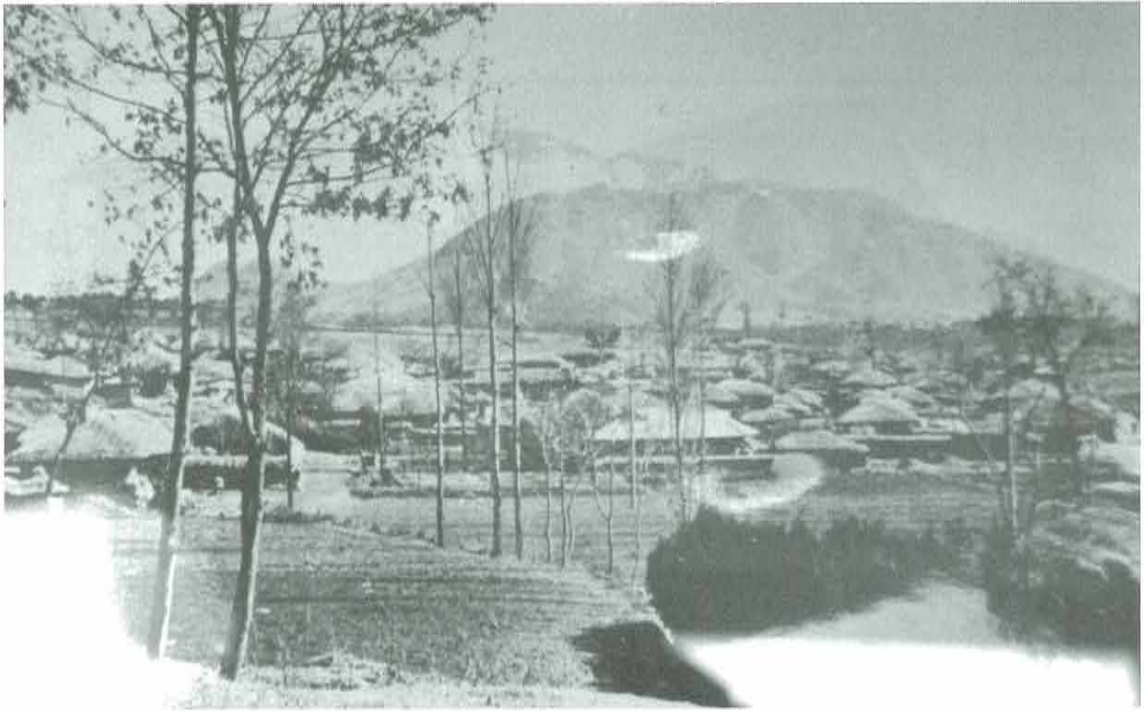
'성재' 남쪽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기름을 칠한 것처럼 미끄럽다 하여 '기름바위'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름바위'라 부른다.



성전정미소



진익리 마을유래비



전의리 옛모습



진의리

■ 솔고개

'진여울'에서 '종촌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솔이 많이 있었다 하여 '솔고개'라 부르고 그 고개 아래에 마을을 '솔고개' '송현(松峴)'이라 부른다.

■ 덕암(德岩)

여기에선 덕망 높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다 하여 '덕암'이라 부른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성전(星田)

'진여울' 동쪽에 있는 마을로 철종(哲宗)때의 학자 전재(全齊) 임헌회(任憲晦)가 꿈을 꾸는데 꿈에 갈매기떼가 별 밭에 서있는 것을 보고 이 마을을 성전이라고 지었다 한다. 지금까지 그대로 부르고 있다.

■ 다락바위

황새바위 뒤에 있는 바위로서 가운데에 굴이 있어 다락과 같이 되었다.

■ 소바위

다락바위 위쪽에 있는 바위로서 모양이 소가 누운 것 같다.

■ 황새바위

고려 충렬왕 몽고난 때 한희유 장군이 이 바위에서 항복을 받아냈다. '항서(降書)바위'가 변하여 '황새바위'로 되었다고도 한다.

■ 성재산

길이 1.2km의 성(城)이 있다. 산에 우물이 있는데 전쟁시 병사와 말이 마셨다. 표주박처럼 생겼다.

■ 장군바위

부하를 통솔하는 형상의 바위로 고려 충렬왕 때 연기대첩시 장군이 이곳에 올라 지휘했다고 한다.

■ 덕암사

황새바위 아래에 있다.

■ 화통고개

솔고개(松峴)와 창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복룡날

용이 옆드려 있는 날능선을 말한다.

■ 모창골

가재울 넘어가는 고개로 일본인들이 혈(穴)을 뚫었다.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영너머

현여울에서 와가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장군바위

서당골 뒤에 있으며 큰 비석(8자)이 있는데 일본인(飯田)의 묘라고 한다.
20여년 전, 복룡날 상반부 일본인의 비석 옆에서 옹관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옹기는 운반 도중 깨졌다.

㉞ 종촌리(宗村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해 있으면서 일찍부터 장터로 발달한 마을이다.
신라통일 후(新羅統一後)는 백제 유민(流民)들이 자리하여 뿌리를 내린 곳이기도 하여 고려때에도 큰 장터였었다.

조선 태종(太宗)때에는 공주(公州)로 합쳐지기도 했었으며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삼기면의 지역이었던. 지대가 낮은 산등성이에 있으므로 일찍부터 개화(開化)한 지역이다.

낮은 산등성이에 있다 해서 '밀마루' '종촌(宗村)'이라 부르다가 '장터'로 통칭하기도 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종촌리(宗村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었다. '밀마루'가 종촌(宗村)이라 부름은 종(宗)은 '밀종', 촌(村)은 '마루촌'이란 이치에서 그리된 것이라 한다. '장대(場臺)'라고도 부른다.

전에는 '도리미'라 불렀다.

종촌 1리

■ 도산

'밀마루'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외딴 산에 있는데 이 곳에 도학군자(道學君子)의 묘지(墓地)가 있고, 선비가 많이 배출되는 마을이다 하여 '도산(道山)' '도림(道林)' 또는 '도리미'라 부른다. '도리미'란 편안한 마을의 속칭인데 방우간도림(放牛干桃林)의 평화촌(平和村)이란 뜻도 된다.

■ 도리미

종촌 1리 1반으로, 24호가 거주한다.

도리미(道林이 있는 마을)는 임씨가 돌림병이 돌아 도망갔다는 설과 원래 황씨 세거지였으므로



중촌리



중촌리



중촌리



중촌시장



중촌시장



중촌리

타성(他姓)이 못살고 도로 나가 '도리미'라 부른다는 설이 있다. 황씨 세거는 14대조 약 420년 전으로 추측한다. 지금도 '도리미'라고 부른다. '도(道)'자를 쓰고 나면서 길이 생겼다.

■ 원산

자손을 많이 낳아 원산(原産)이라 한다. 3반 주민(임재선 시할아버지)이 원산으로 가서 자식을 낳아 가지고 갔다. 뒷산을 종산이라 한다.

■ 증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즉, 죽도 못 끓여 먹는 동네였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다르다.

■ 서당골

서당이 있었는데 일제 때 소실되었다.
주민 홍재남 시아버지가 훈장이었다. 절도 있었다.

■ 옥정(玉井)

옛날 조선시대에 태자(太子)를 가르친 이초례(이초려·李草廬) 옷담을 먹고 옷이 움아 고통을 겪다가 옷병을 치료하기 위해 여기를 지나다가 잠깐 쉬게 되어 마침 곁에 있는 샘물을 떠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더니 마침내 병(病)이 완쾌(完快)되어 갑자기 여기 샘이 유명하게 되었다. 옷병을 고친 우물이 있다해서 옥정(玉井)이라 부르게 되었다.

원산과 증뜸 사이에 있으며 바위 틈새로 찬물이 나온다.
눈병, 옷, 땀띠 등을 치료했다.

■ 서낭당이

원산 뒤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10년 전 도로가 나면서 소실되었다.

■ 상지말

2반으로 38가구가 거주한다.

조선 중기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의 자손들 산소가 있으며 그 산소를 지키는 산지기가 살던 마을이다. 현재 3개의 산소가 있다. 마을이 뱀 형국(巳穴)이라 한다.

■ 도잠(도장)

등짐장수가 쉬어 가는 곳이었다.
'한 조랭이' 밖에 안 되는 곳, 즉 부자가 안 되는 곳이다.

■ 함지(함정)고개

산이 깊어 범이 살아서 함정을 파 잡으려 했다하여 신도로가 나면서 혈(穴)이 끊어졌다. 옛날 도로는 함지고개와 도잠을 넘어 다녔다.

■ 큰말

3반으로, 22호가 거주한다.

동네가 커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 마을회관이 있다.

■ 사당(祠堂)

황씨가 관리했었으며 6·25 때 헐렸다. 여기서 나온 재목은 모정 증창할 때 갖다 썼다.

■ 사당제(祠堂祭)

종촌리에서 지내는 사당제다. 조선말엽에 이곳을 지나던 황씨(黃氏) 한 사람이 아주 이 곳에 자리를 잡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다가 그 후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황씨(黃氏)들의 제자들이 스승의 거룩한 넋을 추모하는 뜻에서 사당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내던 것이 이 곳 사당제(祠堂祭)의 처음이라 하는데 이 곳에 재물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리면 복(福)을 받는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당제를 지낼 때 모여든다.

사당제는 일제 말에 소멸되었다.

■ 모정산

모정(茅亭)을 세웠다. 선비가 풍월을 읊었다. 즉 공부를 하던 곳이다. 모정현판(茅亭記)가 소실되었다. 근래 시멘트 2층으로 증수했으며 현판은 전 이장(황노익)과 전 면장(한종률)이 다시 제작하였다.

■ 황용정

조선 선조 때 수사공 벼슬을 했다. 중이 이곳을 지나다가 당대발복지(當代發福地)와 만대영화지(萬代榮華地)라고 했다 한다. 황씨가 가세가 빈곤하였는데 중의 말대로 '당대발복지'를 택했고, '만대영화지'는 조(趙)씨가 묘를 썼다고 한다. 창원황씨 선조 묘는 공주 청벽 금벽정 부근에서 원산으로 모셔 왔다.

종촌 2리

'문마루'로 불렀다가 문평(文坪)에서 '민마루'로, 다시 '밀마루'로 변형된 것으로 보여진다.

■ 문화현

예전 조선말엽에 한양에 과거를 보러 올라가던 문인(文人) 한 사람이 이 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말하기를 이 마을은 문화현(文化峴)이라 부르면 장차 큰 마을이 될 것이라 하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 하는데 그 후 이 곳엔 그 선비의 말대로 차츰 번창해 간다 하여 문화현(文化峴)이라 부른다.

■ 1반

현 대영주유소(종촌 70번지)에서 뚝방 까지를 가리키며 우체국이 있다. 25호가 거주한다.

■ 2, 3, 4반

시장통 모두를 합친 곳으로 해방 2년 후부터 개설했다. 1945년에 전기가 들어왔고 시장은 1970년부터 쇠퇴하기 시작, 화재가 나서 시장은 폐쇄됐고 5년 후에 주차장이 들어섰다.

1반 21호 거주, 2반 13호 거주, 3반 31호 거주한다.

■ 5반

45호 거주가 거주한다.

■ 한섬지기

한 배미에서 한섬을 추수해서 그리 불렀다 한다.

■ 상여집, 도살장

1960년대까지 있었으나 현재 소실되었다.

■ 6반

현 면사무소에서 농협까지를 가리킨다. 파출소가 있다. 25호 거주한다.

■ 7반

파출소에서 수창물산까지이다. 24호 거주한다.

■ 8반

연양학교 후문에서 현 차차차 카센터까지이다. 일제시대 때 용기공장이 있었는데 같은 2리와 3리 사이에 있는 느티나무를 갖다 댄 뒤로 용기점은 망했다. 22호 거주한다.

■ 9반

현 금하연립 자리를 말한다. 예전에는 미나리깡터였다. 22호 거주한다.

■ 반쪽산

1반에 있으며 반달처럼 생겼다. 도로가 나면서 밭으로 변경되었다.

■ 피눈배미

5반 상여집 근처에 있는 논이다.

■ 종촌 3리

종촌 3리를 통틀어 화옥동(禾玉洞) 또는 옥동(玉洞)이라고 한다. 일제 때 행정지역상 부락이 합치면서 종촌리라고 불렀다.

■ 이사막골

황량하고 무서운 곳으로, 현재 성남중·고등학교 부근이다.

■ 셋골

'뽕나무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토지가 비옥해서 논 한 마지기에 벼가 석 섬씩 난다 하는데 삼대군수가 나온 마을이라 해서 '셋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해서 '셋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화옥동(禾玉洞)' '옥동(玉洞)' '잇골'이라고도 부른다.

■ 모듬내(合川)다리

물이 합쳐지는 곳으로, 제천천, 종촌천이 합쳐지는 곳이다.

■ 방죽

수령으로 물에 빠지는 논이다. 소 쟁기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쇠스랑으로 농사를 지었다.

■ 찰방이

미질(米質)이 차지다는 뜻에서 나온 말로, 논을 메워 농지 개량하여 농지로 사용한 곳이다.

일제시대말 기미년(己未年)에 다시 논을 파서 저수지를 만들었다.

이 부근에서 유일한 저수지이다.

■ 2반

30호 거주한다.

■ 옥동구례

1, 2, 3반을 합쳐서 '옥동구례'라 불렀다.

■ 큰뽕나무고개

뽕나무가 많아서 또는 동네 호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밀마루

3반으로 45호가 거주한다.

'도산'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낮은 산등성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종촌(宗村)' '밀마루'라 불렸으며, 밀종(宗)자와 마을 촌(村)자로 '종촌(宗村)' '밀마루'로 뜻을 같이하는 지명(地名)이다. 또한 장이 서므로 장터, 장대라고도 부른다.

■ 뽕나무골

'송담리' 옆에 있는 마을이다. 뽕나무가 무성하게 많이 있다해서 이 마을을 '뽕나무골' 또는

‘상현(桑峴)’이라 부른다.

■ 백호(百戶)나리

이곳을 기점으로 종촌 2, 3리가 생겼다.

풍수지리학자가 이곳은 큰 동네(百戶)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다.

현 영명학교 뒷날을 가리킨다.

■ 뽕나무골

송담리 옆에 위치한 마을로 뽕나무가 무성해서 뽕나무골 또는 상현(桑峴)이라 부른다.

■ 셋골윗산

이 산에 3기의 묘가 있다.

임기상(林崎相) : 조선 철종 壬午年 연일(延日) 현감(縣監).

임병호(林炳鎬) : 조선 선조 壬辰年 가산(嘉山) 군수(郡守).

임성철(林成喆) : 조선 고종 己未年 기린도 칠방.

■ 솔고개

소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활터

국궁장 연습장으로 나무가 없고 넓은 들이다.

■ 짐촌고개

용기점으로 가는 고개이다.

■ 임예철 공적비

임성철의 사촌으로 임병호 조카이다.

새마을운동 선봉자로 전기와 전화를 마을에 끌어들이는 공을 세워 문화생활에 힘썼다.

■ 노인합창단

종촌 3리 노인합창단(단장 오순창)은 1992년 3월에 설립됐다.

1993년 9월 마을노래 ‘원수산’ 노래를 시작으로 합창단을 설립, 종촌 3리 노인들이 농사일을 즐겁게 하며 7천평 농사를 지어 수익금 80%를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장학금, 마을잔치, 효자·효부 등에 쓰고 있다.

KBS 6시 내 고향 등 2003년까지 70여회 방송출연으로 이웃마을에 귀감이 되고 있다.

㉞ 월산리(月山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연기라 고친 그 안에 속했었다.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기도 했었다.

조선 태종(太宗)때 전의(全義)와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이었을 때 그 곳에 속했고 그 후 연기현(燕岐縣)에 속하게 되었다.

전월산(轉月山)이 이 지역(地域)에 있다 해서 '월산(月山)'이라 불렀다 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월산리(月山里)라 하여 그대로 남면(南面)에 속하게 되었다.

■ 꽃재

'갯골'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에 꽃나무가 많이 있다.

안씨(安氏)들의 선조산(先祖山)이 뒷산인데, 산형(山形)이 호화형(芦花形)이라 한다.

꽃나무가 많은 뒷산이 있다 해서 이 마을을 '꽃재' 또는 '화현(花峴)'이라 부른다.

■ 황골

마을 뒷산에 큰 계곡(溪谷)이 있는데 한(恨)이 맺힌 사람들이 이 곳에 산다해서 '한골'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후 변하여 '황골'이라 부른다.

또한 대동(大洞)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부터 금강으로 지나는 배들이 이 곳 마을을 큰 마을이라 하여 대동(大洞)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삼국시대(三國時代)에도 이 곳은 큰 마을이었었다.

황우도강형(黃牛渡江形)의 명당(名堂)이 있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해방 시에는 80호가 넘었는데 그 후 점차 줄었다.

주민들은 한씨가 사는 마을이라 '한골'이었는데, 변해서 '황골'이라 부른다 한다.

강경에서 부강까지 소금배가 다녔다. 황골에서 조치원까지 30리, 대평리까지 10리, 부강까지 10리, 연기까지 10리, 종촌까지 10리인 거리다.

황골에는 '아랫서당터'와 '윗서당터'가 있다.

■ 개동(介洞)

전월산(轉月山)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개자(介字) 모양이라 하는데 옛날, 이 곳을 한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어 이 곳에 유하게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지명(地名)을 지어달라 함으로, 그 선비가 말하기를 산형(山形)이 마치 개자(介字)와 같다 하니, '개동(介洞)'이 좋겠다 하여 그 후부터는 개동(介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갯골'이라고도 부르고 '제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동'이라 부르는 것은 효종(孝宗)때 황(黃)선비란 학자가 여기에 살고 있었을 때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 이곳에 왔다가 그 후 '제동(霽洞)'이라 부르게 하였다.

미호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범람하여 뻘이 쌓여서 '갯골'이라고 한다. 또, 비 개인 고랑이라고 해서, 또는 배같이 생겨서 갯골이라고 부른다 한다.

개동에는 사방(四方)으로 나가는 고개가 있는데 양화 2리로 가는 '가래기고개', 암천으로 가는

‘연기고개’, 월산 1리로 가는 ‘서당고개’, 같은 2리로 가는 ‘짐새고개’가 있다.

갯골 마을은 97~98년에 월산 공단 매립으로 마을 전 주민이 이주했다.

현재 공장이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다.

■ 느티나무

호군(護軍) 임경수공(林景秀公)이 심은 느티나무로 전해 내려온다. 임경수공(林景秀公)이 향리(鄉里)인 여기에 내려와서 월산리(月山里) 대동(大洞)에 은거하면서 심은 나무인데, 수명이 400여 년 되는 나무다.

금강 하류의 역수사(逆水砂)로 심은 나무로 수명이 길다.

■ 합강(合江)

월산 1리에 있는 마을이다. 금강이 ‘황골’ 마을 앞을 흘러서 미호천(美湖川)과 합치는 곳에 위치한다 하여 강물이 합친다는 뜻에서 ‘합강’이라 부른다.

여기를 합강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예전에는 여기에 지명(地名)이 없었는데, 하루는 한양(漢陽)으로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금강(錦江)을 건너다가 이 곳 지형(地形)을 보고 ‘합강(合江)’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하는데 그 후 여기를 ‘합강(合江)’이라 부르게 되었다.

■ 독정(獨亭)이

황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안골

황골 안에 있는 동네이다.

■ 개골

황골에 있던 동네였으나 지금은 공단이 들어섰다.

■ 승터골

모종 너머에 있었으며 애가 죽으면 갖다 묻었으므로 ‘애장골’이라고도 한다.

■ 정감사막골

‘정감사골’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정감사가 아픈데 중이 와서 시주를 하지 않았다. 정감사가 죽은 후 중이 호구(戶口)터에 모 터를 잡아주어 묘를 썼는데 벼락을 맞아 비석이 산산조각 났다. 후손들이 묘를 보수하러 왔다가 우연히 다 죽었다고 한다.

■ 향교터

고려 때 향교가 있던 자리로 연기향교, 전의향교 보다 먼저 생겼으며 연기군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향교였다.

■ 효자문

고려 때부터 고을 소재지였다. 현 SK가 들어선 자리다. SK 건물을 지을 때 기왓장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곳에 관가가 있었다.

■ 제산정

효자문의 아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로 조선말에 승지벼슬을 했다. 100년전에 지었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제산정이라 하였다.

■ 매봉재

높은 곳에 위치하여 '매봉재'라 한다. 매의 먹이인 부엉이가 많이 있으며 새끼를 데리고 있는 부엉이굴(둥지)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개골편던

매봉재 산에 있는 편던을 지칭한다.

■ 병목안굴

매봉재산에 있는 큰 굴로, 병자호란 때 주민들의 피신처였다.

■ 화등재

'하(河)등재' 또는 '하등기'라고도 한다. 또는 일제 때 하(河)씨 군수의 산소가 있어 그리 불렀다고도 한다.

■ 팽나무

수령이 200여 년 되었다.

■ 정문거리

효자문 앞에 있는 길을 말한다.

■ 말등거리

양수장(일제시대 때 지음)앞의 길을 말한다.

말등거리 지나 절이 있었는데 뒷산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데 꼭 먹을 만큼만 나왔다.

스님이 욕심을 부려서 쌀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부지깽이로 후비니까 빈대가 튀어나왔다. 주지가 못 살고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말 타고 둥그러 넘어져서 '말등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

■ 꽃나루

부강에서 미호천으로 가려면 꽃나루로 가야 한다. 부강장(芙蓉場)을 보려면 주민들은 선주에게 보리 1말과 벼 1말을 주어 강을 건너 다녔다. 1977년도까지 배를 타고 다녔다.

월산 2리

■ 벽할미

혈(穴)이 금비녀가 벽에 걸린 것 같다 하여 '벽할미' 라고 부른다.

■ 양말

항상 양지가 드는 동네이다.

■ 음말

항상 음지가 드는 동네이다.

■ 아랫말

마을 아래쪽에 있는 동네이다.

■ 등치락골

'등곡' 이라고도 한다. 등에다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곳에 있다 하여 그리 부른다.

■ 서당골

절이 두 군데 있었는데 한문을 가리켰다고 한다.

■ 오약고개

제곡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 모록묘기

음혈(陰穴)인데 용혈이나 장군봉을 보고 묘를 써야 좋다고 한다.

■ 고제기

모록묘지에서 고제기를 보고 묘를 쓰면 자손이 없다고 한다.

■ 삼태미 밭골

산태미와 같이 생긴 밭고랑을 말한다.



효자정문



제산정



술밭과 월산리

■ 함박골

함박같이 생긴 밭고랑을 말한다.

■ 안골명

큰 묘터가 있다고 한다. 봉우리가 황새봉이라고 했는데 황소봉(黃牛峰)이라고도 한다.

■ 등지미

등에 짐을 져야 넘어갈 수 있는 고개이다.

■ 새터말

소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지형으로 새터말이라 부른다.

■ 질마봉

소질마 형 뒤에는 꼬리가 있다 하여 그리 불렀으며 뒤에는 ??뒫골??이 있다.

⊗ 연기리(燕岐里)

옛날 연기현(燕岐縣)의 읍터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 연기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었다.

조선 태종(太宗)때는 전의(全義)와 합쳐서 전기현(全岐縣)이었었고, 그 후 연기현이 되었고, 조선 말엽에는 연기군 읍터로서 군내면(郡內面)이 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옛 고을의 이름을 따서 연기리(燕岐里)라 하여 연기군 남면(南面) 연기리가 되었다.

■ 화석소(花碩沼)

남면 연기리에서 월산리(月山里)를 돌아 합호서원(合湖書院)을 가다 보면, 산기슭 약(約) 5리(里) 정도에 연(連)한 곳을 화석소(花碩沼)라 부른다. 봄에는 꽃을 보고,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설송(雪松)이 가경(佳景)을 이루는 여기는 더구나 한암(恨岩)에 부딪히는 파도소리가 일품(一品)이라는 풍류인들의 말이다.

시객(詩客)들이 작시(作詩)하는데 벼룻물이 마를 새가 없다해서 화석소(花碩沼)라 부른다.

■ 위사터

연기리 서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옛날 조선 때에 이 곳에서 벼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헌터가 있는 마을이므로 '위사터'라 부른다. 연기현(燕岐縣)의 청사도 여기에 있었다. '아사터' '신촌(新村)'이라고도 부른다.

■ 바위내

'향교말' 앞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바위가 많고, 앞에는 내가 흐르고 있다. 바위와 냇물 사이에 마을이 있다 하여 '바위내'라 부른다. 암천(岩川)이라고도 부른다. 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서부(西部)

연기리 일부에 위치한 마을이다. 예전부터 고을원이 여기에 있을 때 관청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서부(西部)라 부른다.

옛날에는 웃말이라 부르다, 서부에서 다시 연기로 불린다. 이 마을에는 400여년이 된 느티나무 2그루가 있다.

■ 교촌(校村)

연기리(燕岐里) 동부(東部)에 위치(位置)한 마을이다.

이 곳으로 향교(鄉校)가 옮겨졌기에 '교촌', 즉 향교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교촌'이라 부른다. 향교말이라고도 하며, 당산 아래에 있는 마을로 연기향교가 있으며, 55가구가 거주한다.

■ 환재(換財)골

연기리(燕岐里)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 고려 때에는 보통리(湫通里)에 읍(邑)이 있었으나, 조선초엽에 읍(邑)을 연기에 환도하여 연기현(燕岐縣)이라 하였으며, '환재골'은 그 당시 나라의 환재 창

고가 있다하여 '환재골' 이라 하였다.

환재(換財)란 옛날 춘궁기에 나라의 양곡을 백성이 빌려서 봄의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가 가을 추수기에 상환하는 제도를 '환재(換財)' 라고 말한다.

3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구향교골

연기 1리 서부(西部)에 위치한 마을이다. 지금은 교촌(校村)으로 향교가 이주하였지만 예전에는 향교가 있었다 하여 '구향교말' 이라 부른다.

조선중엽(朝鮮中葉)에 이 곳의 현감(縣監) 박현감(朴縣監)이 자기(自己)의 선영(先塋)을 여기에 묘(墓)로 모시기 위해 향교를 다른 곳으로 이사시켰다.

■ 사창(社倉)고개

연기리 북쪽에 있는 고개다. 조선 때에는 병기창고(兵器倉庫)가 있었던 곳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간직했던 고개다.

병기(兵器)가 저장되어 있었던 터라 하여 '사창(社倉)고개' 라 부른다.

■ 객사(客舍)터

연기리에 있는 연기현 객사가 있었던 곳이다.

■ 동헌(東軒)터

연기리 서쪽에 있는 연기현 동헌의 터로 현재 느티나무가 무성하게 서 있어서 옛 자취를 보여주고 있다.

■ 연기향교(燕岐鄉校)

향교말에 있는 연기 향교로서 태종 16년(1416)에 창건하였는데 공자상을 모셨다.

■ 옥(獄)거리

아사터 서쪽에 있는 길로 옥(獄)이 있어서 붙여졌지만 지금은 없다.

■ 옥(獄)터

옥거리에 있는 연기현의 옥 터로 현재는 논이 되었다.

■ 저자거리(장터)

일제시대 때까지 장이 섰으나, 1950년대 없어졌다. 1908년에 개교한 연남초등학교가 있으며, 50가구가 거주한다.

■ **움말**

저자거리와 움말을 합쳐 저자거리(장터)라고도 부르며, 150가구가 거주한다.

■ **무대미**

지형이 낮아 물이 넘치는 논이 있던 마을이다. 3가구가 거주한다.

■ **고작골**

장군이 살았던 곳이라 전해지며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다. 지금도 기왓장이 나온다.

■ **병마골**

돌림병이 돌면 환자를 격리시켰던 곳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 **큰목골**

암천 앞에 있는 마을이다.

■ **당산(唐山)**

성(城)터, 즉 토성(土城)과 석성(石城)이 남아 있다. 이 성은 나·당(羅·唐)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백제군이 쌓았다고 전한다.

또 고려 때 연기대첩 싸움터도 이곳에서였다. 연기리의 수호산으로 가뭄이 올 때 70년대까지 기우제를 지냈던 곳이다.

■ **호멸산**

조치원 3공단이 들어서고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졌다.

■ **장승배기**

현 소방서와 복지회관 앞 고개를 말한다. 옛날 돌림병인 손님(마마)이 마을에 찾아오면 디딜방아를 갖다가 장승을 세워 빌었다.

■ **구녕고개**

현 소방서가 있는 고개이다.

구룡고개가 변이 된 듯 하다. 놀왕리 사람들이 장에 다니던 고개이다.

이성계가 혈(穴)을 자르자, 피가 흘렀다고 전한다. 그 뒤로 연기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 **구(舊)청사자리**

현청 터 뒤로 후에 면사무소가 들어섰다. 버드나무가 많아 사람이 죽으면 그 나무에 매달았다고 한다. 일제시대 때 왜군들이 쳐들어오자, 주민들이 버드나무에 매달려 죽은 척하고 있다가 왜병을

물리쳐 왜병들이 많이 죽었다. 후에 왜병들이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다.

■ 빙(氷)고개

옥거리가 있던 곳으로 조선시대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었다.

■ 박(朴)답(畓)- 박 과부답

오래 전 박씨 성을 가진 과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자, 논(8마지기, 1600평)과 밭(730평)을 마을에 희사하고 죽었다. 그 후, 주민들은 박 과부를 위해 해마다 한식 때 제사를 지내 주었고 (면 지서장 주관), 논과 밭은 면에서 관리를 했다.

등기는 '교촌리'로 나 있었다. 3, 4년 전에 명의변경이 되어 군으로 등기가 나면서 군 재산이 되었다.

현재 이 논밭을 농사짓는 사람은 이병수(연기 3리)씨로, 조부(이한순)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 아버지(이복남)를 거쳐 3대에 걸쳐 농사를 짓고 있다.

박 과부 산소 앞에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고밀양박씨화춘지묘 배우인김해김씨부좌' '故密陽朴氏化春之墓 配孺人金海金氏?左' 라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을 안내한 이장 박노식 씨는 집안 선조를 찾았다며 기뻐했다.

■ 마부(마고)배미

마부가 말을 키우면서 농사짓고 살던 곳이다.

■ 관등전

등(燈)을 켜주고 밭(田)을 부쳐먹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밭풀답(田)

관가의 서류에 풀을 붙여 준 밭이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객사

연남초등학교 터에 있었다.

■ 당산 기우제

마을에서 기우제를 지낸 산이다. 이 산이 명당이어서 사람들이 산소를 썼다.

그러나 산소를 쓰면 가물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소를 파헤쳐 고발당해 벌금을 물기도 했었다. (1962년도) 산소를 아래로 이전하면 바로 비가 왔다고 한다. 기우제는 4개리 주민(연기리, 보통리, 놀왕리, 수산리)들이 합쳐 지냈다.

■ 향교말

연기 2리를 통털어 교촌리(校村里)라고 부른다. 전에는 '향골'이라고 불렀다.

연기 1리부터 3리까지 행정구역이 나누어진 것은 30여년 전부터다.

■ 향교

원래 연기 1리에 있던 것을 일제시대 때 이곳으로 옮겼다.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원 향교터(1리)가 명당이므로 원님이 그곳에 묘를 쓸려고 2리로 옮겼다는 설과,

당산(堂山)이 명산이므로 유림들이 2리로 옮겼다는 설이 전한다.

향교를 옮길 당시 이장들이 집집마다 추렴을 다녔으며 강희천 씨는 집터를 향교에 희사하기도 했다. 향교 앞에 홍살문이 있다.

■ 비석거리

비석이 많이 있어 그리 불렀다. 현재는 향교에 비석을 옮겨다 놓았다.

■ 옥(獄)거리

감옥이 있던 곳으로 현재 버드나무가 있는 곳이다.

■ 당산(堂山)

산 정상에 옷샘이 있으며 고려장을 지냈다는 얘기가 전한다. 여기 돌을 갖다 구들장이나 빨래터 등에 쓴 사람은 집에 우환이 생겼다. 이곳에 묘를 쓰면 부자가 된다하여 묘를 썼으나 비가 오지 않아 마을에서 묘를 파헤쳤다.

■ 빙구들에

빙고(氷庫, 얼음창고)가 있던 곳으로 옥거리에서 돌아가서 환자골(3리)로 가는 들을 말한다.

■ 무더미들

내(川)가 높고 들(野)은 낮아서 장마가 지면 모래가 쌓였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 옷샘

빙구들 가기 전에 있었다. 피부병, 옷, 땀띠 등에 특효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소실되었다. 이 샘 부근에 한 쌍의 석장승이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땅에 파묻었다고 한다.

■ 기우제

당산에 묘를 많이 쓰면 가물었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냈다. 주민들은 산 너머 샘에서 물을 떠다가 '키'를 까붙면서 제를 지내면 비가 왔다고 한다.

연기3리

■ 암천(岩川)

연기 3리를 통털어 암천(岩川)이라 부르는데 바위가 많고 산 앞에 내(川)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30호가 거주하고 있다.

■ 용추골

앞에 있는 산이 용틀임 하는 형상이 있는 마을이다.

■ 등지미

'둔지미'에서 변형된 마을이름이며 지금은 공장이 들어섰다. 등허리에 지고 넘어가야 할 만큼 깊은 산골이라 등지미라고 불렀다 한다.

■ 행여바위

'행여'처럼 생긴 바위, 또는 행여 지붕처럼 생긴 바위이다. 도로가 나면서 지금은 소실되었다.

■ 감투바위

'감투(사모관대)'처럼 생겼다. 지금은 소실되었다.

■ 부처당골

절(부처)이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현재 주춧돌은 남아 있으며 현 바우내식당 뒤에 있었다.

■ 큰목골산

골이 큰산으로, 부처당이 있었다.

■ 개골고개

고개 너머 개골(월산리)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낭당 또는 공동지고개라고도 부른다. 이 고개는 1998년 공단이 들어서면서 서낭당과 공동묘지는 없어졌다.

■ 서낭당

큰 나무가 있어 주민들이 오가며 돌을 쌓고 소원을 빌었다. 도로가 나면서 소실되었다.

■ 매봉재

월산, 갈운, 연기의 경계인 산 정상으로 큰목골 산 전체를 가리킨다.

■ 천렵편

천렵을 하였던 곳이다.(물이 아주 맑았다)

■ 치마바위

'너시력바위' 라고도 한다. 멀리서 보면 치마를 펼쳐놓은 것 같다고 '치마바위' 라고 불렀으며 한 편 바위가 넓어서 '너시력바위' 라고도 불렀다.

■ 본암천(本岩川)

연기 3리 2반으로, 2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읍내고개

3리에서 읍내로 가는 고개로, '네집메고개' 라고도 불렀다.

■ 옥거리

감옥(監獄)이 있던 곳이다.

■ 백이집터골

백석(百石)꾼 두 집이 있어서 이렇게 불렀다.

■ 양목골

약샘이 있던 곳으로, 병을 가진 사람이 목욕 후 부정을 타서 물이 더러워졌다고 한다. 현재도 남아 있다.

■ 환자골

병막이골이라고도 한다. 집이 두 채 있었다.

㊦ 송원리(松院里)

백제 때는 웅주(熊州)에 속했으며, 고려 성종2년(983년)부터는 공주목(公州牧)의 관할에 있었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장원면(長元面)의 지역으로서 원래 여기에는 산과 계곡(溪谷)에 소나무가 많았고 서원(書院)이 즐비하게 많아서 송원리(松院里)라 하였다.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공주군 장기면에 편입(編入)되었다가 서기 1973년 7월 1일에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되었다.

본래 공주군 장척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행리, 신촌, 원촌, 죽동, 송계리, 만자리, 원호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송계와 원촌의 이름을 따서 송원리라 하여 장기면에 편입되

었다가, 1973년 7월 1일 연기군 남면에 편입됨.

■ 송계동(松溪洞)

송원 1리 1반으로, 30호가 거주한다.

‘원촌’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큰 소나무가 많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송계동(松溪洞), 송계(松溪)라 부른다.

■ 곡촌(谷村)

송원 1리 2반으로, 24호가 거주한다.

골말이라고도 하며, 송계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느티나무, 정려가 있는 곳이다.

이 느티나무의 수령은 약 500년으로 나무 속은 텅 비었다. 고사(枯死)직전 주민들이 흙을 넣고 옆에 샘을 파서 살렸다. 예전에는 목신제(木神祭)를 지냈으나 끊긴 것을 2001년부터 부활시켰다.

■ 원터

송원 1리 3반으로, 20호가 거주한다. 효(孝)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머래’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금호서원(錦湖書院)의 터가 있다 하여 ‘원터’라 부르며 ‘새터’ ‘원촌(院村)’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조선시대 때 전라도 사람들이 한양(漢陽)가는 길에 여기를 지나다가 서원(書院)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한양이나고 물을 정도로 서원이 많이 있다 하여 ‘원촌(院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 열녀비(烈女碑)

‘원터’ 앞에 있는 열녀비(烈女碑) 열녀(烈女) 일개(一介)의 열녀비(烈女碑)다. 도로를 내면서 연기향토박물관으로 이전하였다.

■ 금호서원(錦湖書院)

‘원터’에 있는 향현사(鄉賢社)인 금호서원(錦湖書院)의 터다. 죽당(竹堂) 유진동(柳辰叟), 충경공(忠景公) 유형(柳珩), 금사(錦沙) 유충걸(柳忠傑)을 배양하였던 곳이다. 고종 5년(1868)에 철폐되었다.

■ 충신정문(忠臣旌門)

원터에 있는 광해군 때 명나라를 위하여 출전하였다가 전사한 유지걸(柳智傑)의 충신정문이다. 후에 공주시 의당면 송학리로 옮겼다.

■ 대소골(대숲골)

송원 1리 4반으로, 10호가 거주하고 있다.

‘송대’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대나무가 많이 있다해서 ‘대소골’이라 부른다. 대나무로

한 마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죽동(竹洞)' 이라고 부른다.
또 소쿠리 안처럼 생겼다 해서 대소골이라고도 한다.

■ 용미(龍尾, 앵밀티)

용꼬리처럼 생긴 능선을 말한다.

■ 만자골

송원 1리 5반으로, 25호가 거주하고 있다.

'대소골' 북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이 곳엔 암자(庵子)가 있었다.

여기 있는 암자(庵子)에서 불공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마을이다. 많은 자식을 얻어 나가는 '암자(庵子)' 가 있다 해서 '만자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 '만자골' '만자동(滿子洞)' 이라고도 부른다.

■ 삼세정문(三世旌門)

만자골 앞에 있는 정문(旌門)으로, 평사(評事) 이목(李穆)의 삼세(三世)의 효자정문(孝子旌門)이다.

■ 홍두깨골

돌이 홍두깨처럼 곧고 길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웅달이

웅달샘이 있는 마을이다.

■ 돌쇠부리

나성, 송덕의 경계에 있는 돌 절벽으로 물이 돈다해서 돌쇠부리라고 불렀다.

■ 밤고개(방고개)

새터와 공주의 경계에 있다. 잉어골에 있었으며 도로가 나면서 유실되었다.

■ 망적봉(望積峰)

송원리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전란(戰亂)시에는 망을 보던 곳이다.

산 정상에 주민들이 돌을 쌓았다. (150m)

■ 새뜸

옛날엔 집이 없었고 후에 새로 집을 지은 동네라 새뜸이라 불렀다.

호구혈(戶口穴)의 명당이라 하며 무덤이 있다. 산줄기를 돌로 파묻어 놓았다.

산소 임자가 묘지기를 두었는데 산소 임자가 오지 않자, 묘지기가 땅을 팔고 도망갔다고 한다.

■ 동천모랭이(모룽고지)

마을로 갈 때 새터로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사장들

강 옆에 백사장을 들판으로 만든 곳을 지칭한다.

■ 서낭당이

나성에서 송원으로 넘어가는 곳으로 요골 산 정상에 있었다.
도로가 나면서 산이 깎였다.

■ 반고개

공주시 장기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서원터

서원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주춧돌이 남아 있다.

■ 원호(遠湖)

송원 2리의 1반으로, 18호가 거주하고 있다.

옛날에는 머레라고 부르다가 후에 원호(遠湖)라 불렀다. 다시 일제시대 때 송원리라 불렀다.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로 강변에 위치하여 장사꾼이 많았다. 물이 마을까지 들어와서 후에 원호(遠湖)라고 불렀다.

송원리(松院里)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수원박씨(水原朴氏)와 유씨(柳氏)가 많이 살고 있다.

‘원터’에서 멀리 떨어져 금강(錦江)가에 있는 마을인데, 마을이 마치 먼 곳에 보이는 호수(湖水)가의 마을이라 해서 원호(遠湖)라 부르며, ‘머레’라고도 부른다.

■ 상호자정문(雙孝子旌門)

‘머레’ 앞에 있는 임자의(林自儀), 임태의(林太儀) 형제의 그윽한 효성을 기념하는 효자정문이다. 임 형제는 아버지가 죽자, 묘 앞에서 3년 간 시묘살이를 하였다.

이때 호랑이가 같이 놀면서 잠도 같이 잤다. 어느 날, 형제의 꿈에 호랑이가 나타나 살려 달라고 해서 가 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졌다. 형제는 호랑이를 구해 안고 강을 따라 내려오니, 도덕골에서는 야단법석이 났다고 한다.

형제가 왕에게 올린 상소문은 후손 임흔태, 임정수 부자(父子)가 간직하고 있으며 정문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쌍효자문



머레(원효)

■ 한림정(翰林亭)나무

머레 남쪽에 있는 금강의 나무이다. 공주시 반포면 원봉리 한림정으로 건너간다.

■ 구레

송원 1리에서 돌아오는 데 있으므로 구레라고 불려진다.

■ 산적말

날랭이 마을로 산에 소나무가 많이 있다. 수령이 약 150년 된 정자나무가 있는데 이 정자나무의 잎이 아래서부터 피면 흉년이 들고 위에서부터 피면 풍년이 든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사람이 아프면 이 나무 앞에서 '경(經)'을 읽었으며 죽은 나뭇가지(삭정이 가지)를 갖다 불을 때면 동토가 난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에 보름제를 지냈으나 1970년경 이후 소멸되었다. 송원 1리(대소골)에서 옮겨 왔다고 한다. 길가는 나그네가 쉬어 가던 곳이다.

■ 개사귀

원래 밭이었다가 후에 논으로 바뀐 논을 말한다.

■ 작은 벽장골, 큰 벽장골

골이 쭉 들어가 벽장처럼 생긴 골을 말한다.

입구는 좁고 들어가면 넓어지는 골이다.

■ 참샘골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옷, 피부병 등과 특히 미친 사람이 이 샘물을 먹고 나았다고 한다.

■ 터골

지금도 깨진 기왓장이 나오고 있다.

■ 체봉골

체봉(가묘, 假墓)하던 곳이다.

■ 글방

서원이 있던 곳으로, 6·25 사변 때 없어졌다.

■ 매봉재

벽장골 옆 큰산이다. 매 사냥을 할 때 산 정상에서 매를 날려보냈다고 한다.

밑에 샘이 있었으나, 2년 전 도로가 나면서 없어졌다.

■ 기와배미

기와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네모배미

네모처럼 반듯하게 생긴 논을 지칭한다.

■ 밭티

논을 밭으로 갈던 논이다.

■ 배터

한림나루터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강경에서 온 소금, 새우젓, 굴비 등을 실은 배가 이곳까지 왔던 곳이다. 머레에서 공주로 밀, 보리방아를 찧기 위해 이 나루로 다녔다.

☞ 양화리(陽化里)

옛날 상고시대(上古時代)에는 청류부곡(淸流部曲)과 양화부곡(良化部曲)이 있었던 서민지대(庶民地帶)였었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地域)이었으며, 고려 현종때 청주(淸州)에 속했다가 조선 말엽에는 연기현(燕岐縣)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남면(南面)의 원암리(元岩里)·학천리·월룡리·내산리·평촌리와 그리고 공주군(公州郡)의 이웃마을의 일부(一部)를 병합하여 양화부곡(良化部曲)의 이름을 따서 양화리(陽化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양화리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연기군 남면의 원암리(元岩里), 학천리, 월룡리, 내산리, 평촌리와 공주군의 이웃 마을 일부를 병합하여 양화리(陽化里)라 하여 연기군 남면에 편입되었다. 현재 양화리는 1리, 2리, 3리로 나누어져 있는데 1리는 세거리가 중심마을이고 7반까지 나누어져 있다. 2리는 가학이 중심마을로 6반까지 있으며 3리는 평촌이 중심마을로 7반까지 나누어져 있다.

■ 앵청이 나루

양화리에 있는 나루터다. 조치원 부강쪽에서 흐르는 물이 합치는 곳을 '합강(合江)'이라 하고, 그 합강에서 1km쯤 공주(公州)쪽으로 금강변(錦江邊)을 타고 내려오면 낚시터가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나루터다.

예전 이곳에 '앵청이'라는 아가씨가 주막을 하고 있었는데, 못 사내들이 이 곳에서 쉬어가곤 하다가 나루터 이름도 그 아가씨 이름을 따서 '앵청이나루'라고 부르게 되었다.

앵청이 나루는 강 건너 반곡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설에 의하면 앵청이라는 처녀가 우연히 알게 된 새우젓 장사 총각과 만나 백년가약을 약속하였는데 그 총각이 새우젓을 가지러 배를 타고 서해안으로 갔다가 약속된 날짜에 돌아오지 않자 그곳에 주막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매일같이 기다렸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여인은 남자를 기다리다 못 사내의 유혹을 모두 물리치고 처녀로 늙어죽었다고 전해진다.

■ 안세거리

전월산(轉月山)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안세거리' 라고 부른다. 세거리 안쪽에 위치한 마을인데,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이 곳에 양화부곡(良化部曲)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지대다.
내삼동(內三洞)이라고도 한다.

■ 세거리

양화리와 진의리를 통털어 이르는 마을명이다. 동쪽의 형강(荊江)과 북쪽의 작천(鵲川)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금강(錦江)을 이루는데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장사배들이 드나드는 것이 마치 세거리를 이루는 것 같았다.

'시거리' 라고 부를 때도 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갈 수 있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양화리와 진의리를 통털어 이르는 마을 지명이다.

■ 동촌

세거리 동쪽 마을로 70여 호에 달하는 큰 마을이다.

■ 서촌

세거리 중간마을로 동촌의 서쪽마을이다. 40여호가 살고있다.

■ 정자동

세거리 서쪽마을로 현재 송모각이 있는 곳이다. 고려 때 전서공 임난수의 은거지이며 예전에 정자가 있던 곳이라 정자동이라 부른다. 30여호가 살고 있다.

■ 상촌(上村)

안세거리 뒤쪽인 원수봉 밑에 있는 마을로 '원암' 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을 가운데서도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그리 부른다.

■ 상여바위

전월산에 있는 바위이다. 이곳에 정착한 고려장군 임난수가 매일 이곳에 올라 고려조정을 생각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학(佳鶴)

안세거리 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가라지(강아지풀)가 많았으며 지형(地形)이 학(鶴)의 형국(形局)이라 해서 '가학이'라 부른다.

그 외에 아랫말, 하촌, 학천, 가학, 가라기라고도 부른다. 부안임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 학선대(鶴仙臺)

가라기 뒤에 있는 바위이다.

■ 골말

세거리 바깥편에 있는 마을이다. '골말' '구을촌(仇乙村)' '곡촌(谷村)' '바깥세거리' '외삼(外三)'이라고도 부른다.

상고시대에는 청류부곡(淸流部曲)이 있었다.

■ 용천(龍泉)

전월산 정상부에 있는 우물로 용천(龍泉) 또는 영천(靈泉)이라 부른다.

여기 우물은 산 정상에 있으나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줄지 않으며 가뭄일 때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온다고 전해진다.

옛날에 한 이무기가 금강(錦江)에서 백년을 지내고 산으로 굴을 파고 올라와서 전월산(轉月山)에서 백년을 지낸 다음 이 용천을 통해서 승천(昇天)하여 용(龍)이 되었다 하는데, 보통 이무기는 삼백년을 물 속에 있어야 용이 되어 승천한다고 하지만, 200년 만에 승천하였다고 전한다.

여기에서 명주실에 돌을 매달아 넣으면 그 명주실이 금강으로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 원수산

남면 양화리, 진의리에 있는 산이다. 동민의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군사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왜군들이 마침 쳐들어와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끝내 우리 군사들은 적에게 산을 빼앗겼다. 그때 죽은 시체로 피바다를 이루어 골짜기가 생겼고 왜군에게 원한을 갚지 못하였다 하여 원수산이라고 부른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고려시대 몽고 합단적이 쳐들어 왔을 때 아군이 적군을 물리친 것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 변형된 것 같다. 중턱에 산제당이 있다.

■ 절골

남면 양화 1리의 산에 있는 뒷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큰절이 있어서 그 절이 나날이 번창해 갔는데 어느 해부터 빈대가 생겨 극성을 부려 중들이 모두 달아나고 절을 불태워 버렸다. 옛날에 절이 있었던 자리라 하여 이 골짜기를 절골이라 부른다.

고려시대에 창건을 한 절은 전사한 병사들의 넋을 봉안하고 그 후손들이 자주 찾아 들며 불공을 드렸으므로 크게 번창했다.

■ 압각수

양화리에 있는 은행나무를 압각(鴨脚)이라고도 부른다.

이 고목(古木)은 지금으로부터 600여년 전에 심어진 나무로 고려충신 전서공 임난수(林蘭秀)가 고려가 망하자 불사이군지절(不事二君之節)로 이곳에 은거하면서 집 주변에 은행나무 2그루와 백자나무 1그루를 심은 것인데 백자나무는 일제시대에 고사(枯死)하고 은행나무 2 그루만 살아서 오늘에 전하고 있다.

■ 회화나무

양화리 북쪽에 있는 꽃나무를 임흥(林興)의 회화나무라고 말한다.

고려말 임난수 장군과 같이 고려의 충신으로 조선초기에 이곳에 은거하면서 나무를 심고 돌로 설단을 쌓았다. 처음에는 두 그루를 심었으나 한 그루는 40여 년 전에 고사하고 한 그루만 남아 있는데 수령이 580여년 된 고목이다.

■ 전월산의 버드나무

전월산 정상부에 있는 우물은 용천이라 부르는데 이 용천 옆에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이곳 나무가 강 건너 반곡리를 향하면 반곡리 마을 아낙들이 미치거나 바람이 난다. 그래서 반곡리 청년들은 양화리 사람들 몰래 전월산에 올라 버드나무 가지를 자른다. 양화리 사람들은 못 자르게 막는데 그 이유는 버드나무가 잘 자라야 마을에 재앙이 없이 풍년이 든다는 속설 때문이라고 한다.

■ 전월산(轉月山)

양화리 뒷산으로 산의 높이가 262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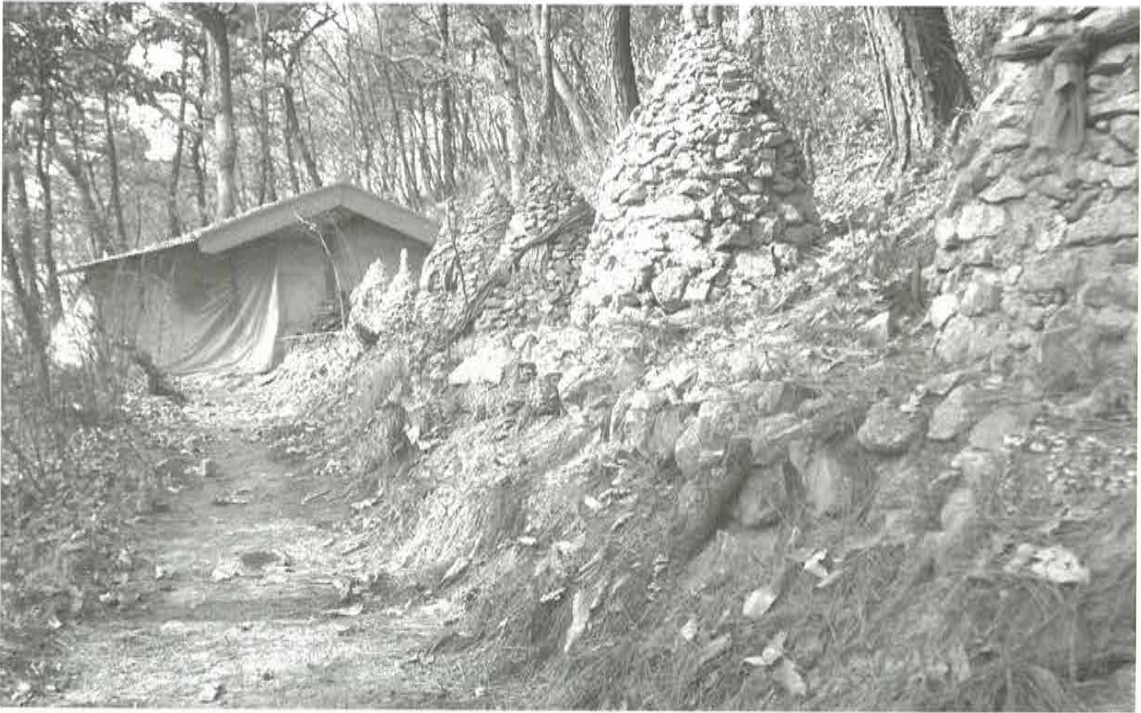
청류부곡(淸流部曲)이 있던 구을촌(仇乙村)앞이 되므로 '구름다리'라 하던 것인데 한자로 전월산(轉月山)이 되었다. 산 정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가물 때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영험이 있으며 우물가에 능수버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커서 반곡을 넘어다보면 그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하여 그 나무가 크기가 무섭게 반곡리 사람들이 밤을 나서 베어 버린다고 한다.

■ 장남 평야

양화리 앞 들판을 지칭하는데, 일제시대 이전에는 금강물이 흐르는 대로 놔 두어 비가 오면 모두 강으로 변하였고 평소는 갈대와 높이였다. 제방과 둑을 쌓으면서 넓은 들판이 만들어졌다.

■ 장군목 툼병

장남평야 내에 있었다. 20여년 전 경지정리하기 전까지 양화리 앞 들판에는 서너 군데의 툼병이 있었다. 제일 큰 것은 갈미 앞의 방죽이고 다음이 세거리 앞 장군목툼병이 있었다.



전월산 산제당

■ 쟁길내둑

가래기에서 시작하여 연세학교, 세거리 앞을 지나 금강으로 흐르는 냇가이다.

■ 창달음

전월산 남쪽의 지형이 절벽을 이루어 창달음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 당산골 도랑

송모각 옆으로 흐르는 도랑을 지칭한다. 당산에서 흐르는 물이 이곳으로 흐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 치수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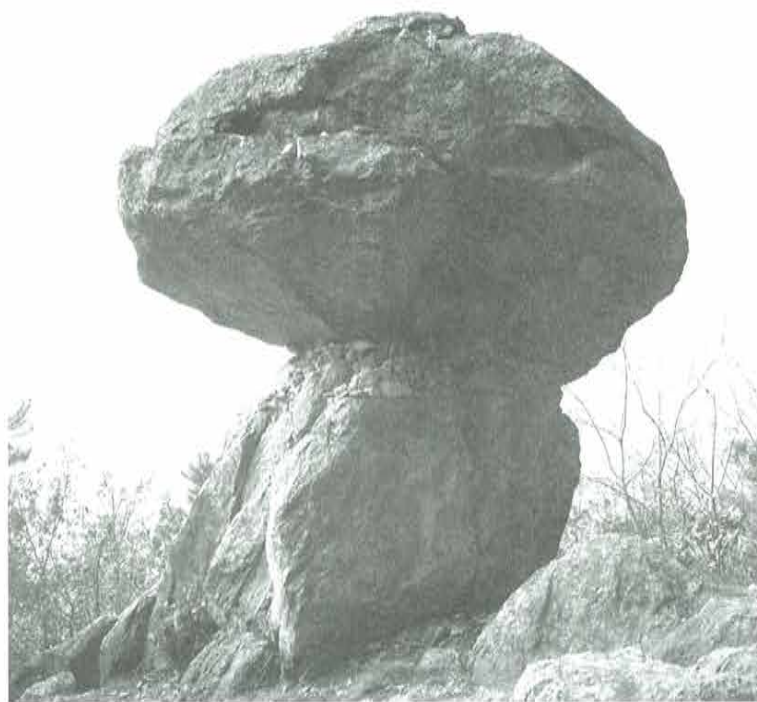
전월산 서쪽 골이다. 60여년 전에 어느 보살이 절을 창건하여 운영해 오다 보살이 죽고 난 후 절이 없어졌다.

■ 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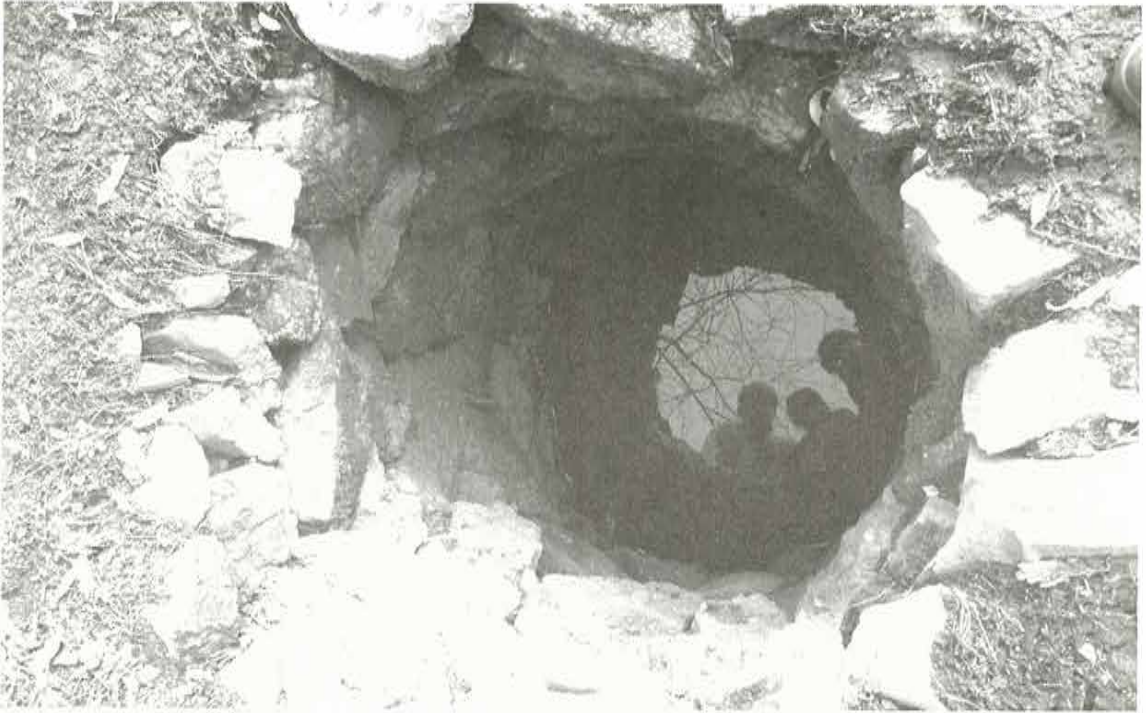
앵청이나루 쪽의 전월산 동쪽 골짜기로 예전에 큰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어느 시기인가 절에 빈대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사람의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국 빈 절이 되어 세월이 흐른 뒤에는 절터만 남아있게 되었다. 지금도 이곳 절터 주변의 돌을 들추면 그 곳에 빈대 죽은 흔적이 나오고 있으며 절터를 가리켜 큰 고랑이라 한다.



전월산에서 바라본 금강



머느리바위



전월산 용천



상려암



월산리 고인돌



열녀비(한산이씨)



열녀소

■ 열녀소(烈女沼)

양화리(陽化里) 월용곡 뒤편에 있었던 소(沼)를 열녀소(烈女沼)라 한다.

인조(仁祖) 병자호란 때 생원(生員) 임상(林尙)의 처(妻)인 한산이씨(韓山李氏)가 난리 속에 참살소(慘殺沼)한 곳이라 해서 열녀소(烈女沼)라 부른다.

■ 서광사(瑞光寺)

양화 3리에 위치한 사찰로 60여년 전에 창건하였다. 청주에 살던 보살이 이곳에 와 사찰을 건립하였으며 자식이 없어 양자를 찾다가 양자를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현재는 비어있다.

■ 도둑굴

전월산 북쪽의 골을 지칭한다. 산중턱에 굴이 하나 있으며 이 굴을 도둑굴이라 부른다. 예전에 도둑들이 마을로 내려와 물건을 훔쳐서 이곳 굴에 쌓아 두었다고 하며 도둑들이 골짜기에 자주 나타나다고 하여 이 고랑 전체를 도둑골이라 불렀으며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다.

■ 사당골

전월산 서쪽 중턱에는 예전에 산제당이 있어 그곳을 사당골이라 불렀다. 산제당은 8년 전 어느 정신이상자가 부순 후 복구하지 않았다. 이곳 산제당에서는 매년 동짓달에 제를 올리다 어느 해부터 정월 10일경에 제를 지냈다.

■ 서근수나루

세거리 앞의 나루로 강 건너 신촌리와 연결된 나루이다.

■ 큰샘

첫 번째가 서촌에 있는 우물로 마을 가운데 있다. 이곳 우물을 큰 샘이라 부르는 것은 다른 곳의 우물이 가뭄에 말라도 이곳의 우물은 마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 동촌우물

동촌에는 이만규씨 집 옆과, 임헌국씨 집 앞 두 군데에 우물이 있었는데 3년 전에 없었다.

■ 정자동우물

정자동 윤정환 씨 마당에 있으며 현재는 덮개를 만들어 덮어 놓았다.

■ 상려암(想麗岩)

고려말기 이곳에 은거하던 임난수 장군이 고려를 생각하며 시간만 나면 이곳 바위에 올라 고려 수도인 개성을 향하여 무릎 꿇고 묵상에 잠기곤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며느리바위(명지도토타리 바위)

전월산에 있는 바위로서 큰 바위 위에 더 큰 바위가 올라앉아서 도토타리와 비슷하여 며느리가 명주를 짜는 형상이라 한다.

■ 월룡(月龍)

전월산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㉞ 송담리(松潭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地域)이었다. 신라 경덕왕(景德王)때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 연산-문의 燕山-文義)의 영현(領縣)이 되기도 했었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公州郡) 삼기면(三岐面)인 지역으로서 마을이 소나무가 무성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마을 한 가운데에 못이 있었고 그 못 안에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우거진 소나무가 풍류여서 여기를 '송담(松潭)'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노은리' '나성리'의 일부(一部)를 병합하여 송담리(松潭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연못을 '방죽'이라 불렀으며 지금은 도랑으로 경지개량 되었다.

송담 1리

이 마을은 충청남도 농촌공원 개축을 위한 시범마을로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와 함께 '충남 문화마을'로 1999년 지정되었고 2002년 완공되었다.

■ 갈미(葛米)

'송담리(松潭里)'에서 으뜸 되는 마을이다. 마을 뒤에 묘한 산이 있으며, 고려말엽에 이 곳을 지나던 임포장군(林圃將軍)이 말하기를 '여기 지형(地形)은 갈만형(葛蔓形)이라 깊은 갈대밭이 장차 변해서 곡식을 생산하는 들이 될 것'이라 하여 갈미(葛米)라 부르게 되었다. '갈산(葛山)'이라고도 부르며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또 다른 설은, 산들이 칠푼쿨처럼 뻗어 있다해서 갈산(葛山)이라 부른다 한다.

소갈산(小葛山), 대갈산(大葛山) 등으로 부른다.

■ 큰 갈미(대갈산 大葛山)

갈미(葛米)의 큰 마을이다.

산세가 원수산을 기점으로 해서 칠푼쿨처럼 뻗었다 해서 갈산이라 부른다.

갈미(葛米)는 갈산(葛山)의 약자로, 원래는 '갈뿔'이었던 것이 갈미(葛尾), 다시 갈미(葛米)로 변형되었다.

■ 작은 갈미(소갈산 小葛山)

갈미(葛米)의 작은 마을이다.

■ 갈미방죽(갈산방축 葛山防築)

작은 갈미 앞에 있는 방죽이다.

■ 윗뜸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서당재라고도 부른다. 해방 직전까지 남아 있었던 마을이다.(1934년 향토지에 기재)

모정(耗亭)이 있었으며 여름에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글을 읽었다.

이 마을 뒷산에 장군묘가 있는데 '이북묘'라고 불렀으며 비석도 남아있다.

■ 아래뜸

14가구가 거주한다.

천석꾼 유원석이 있었다. 마을을 위해 덕을 많이 쌓았는데 1972년 기와집을 헐고 충북 옥천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마을에 공덕비가 있다.

■ 느티나무

송담리(松潭里) 소갈산동(小葛山洞) 뒷편에 있는 고목(古木)이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의 젊은 이들이 청운(靑雲)을 품고 글을 읽던 송월정(松月亭)의 밖에 심은 나무로 나뭇가지의 모양이 마치 꽃송이 모양과 같아 울창함과 화려(華麗)함을 자랑하는 나무다.

■ 속뜸

아래뜸 속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다.

■ 서낭당이

종촌 3리와 송담 1리 사이에 있는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음력 10월과 정월 보름에 갈떡을 올리면서 보름제를 지냈다.

■ 금강교(錦江橋)

금강으로 건너가는 다리로서 6·25때 파괴되어 나무로 놓았다가, 1958년 7월 장마에 유실되고, 그 후에 콘크리트로 놓았다.

■ 덕대골

21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정려



옛날 송월정터인 정자

1리와 2리의 경계에 있는 마을로 덕대(사람이 죽으면 나무에 걸었다가 장례를 지냈다고 함)를 하던 곳이다.

■ 효자정문(孝子旌門)

조선 고종때 효자 임명즙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려로, 순종 때 세웠다.

■ 임택수 공덕비

일제시대 말년과 6·25직전까지 마을 이장직을 맡았었다.

■ 송월정(松月亭)

원래는 모정(耗亭, 짚으로 엮은 정자)이었는데 몇 번 중수를 했다.

송월정 현판은 1970년대 초에 걸었는데 2001년 중수하면서 떼어 버렸다.

■ 들샘이

원래 밭이었는데 논으로 변경했다.

■ 구수(구유)논

말구유처럼 생긴 논으로, 고려 충렬왕 때(1290~1292년)몽고난 중 말먹이를 주던 논이었다.

■ 진동날

마을 뒤 능선을 말한다. 원수산과 성재산 줄기다.

■ 표석(標石)골

송담 2리의 1반으로,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 뒷산에 임씨(林氏)묘소의 표석이 서 있다 하여 '표석(標石)골'이라 부른다. 표석동(標石洞), 표석뜸이라 부를 때도 있다.

부안임씨(만호공 임난수 손자) 제실이 있다.

■ 윗뜸

송담 2리의 2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남면에서 제일 오래 된 송담교회가 있었는데 1970년대 초 종촌 3리로 이전하였다.

■ 골뜸

송담 2리의 3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고랑 저 있는 마을이다.

■ 썩말뜸

송담 2리의 4반으로, 1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썩말은 썩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래뜸과 썩말을 합친 곳이다.

■ 의병장 임대수 공적비

표석골 입구에 세워진 공적비이다. 일제의 침략과 맞서 싸운 의명장 임대수의 공적을 기린 비이다. 마을안쪽에는 생가가 있다.

■ 송담 뒷산

이사막골이라고도 하며, 능선고개를 말한다.

■ 서원재

표석골 남쪽의 산(고개)이다. 이곳을 넘으면 서원이 나온다.



의병장 임대수공적비



의병장 임대수생가

■ 북망산

서원재 뒤에 있는 산으로 마을 공동묘지가 있다.

■ 방죽산

방죽 옆에 있다. 지금은 방죽을 메워서 논으로 활용하고 있다.

■ 생마루

땅이 여물어서 생마루라 불렀다.

■ 뽕선뜰

섬두뽕뜰 이라고도 부르며, '언젠가는 제방뜰이 바뀐다(된다)' 는 이야기가 있다.

㉞ 보통리(湫通里)

보통용수(湫通用水)란 말로부터 연유(緣由)된 마을 이름이다. 냇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와 놀왕리, 연기리를 거쳐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 물이 꼭 여기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보물(寶物)과 같다고 표현(表現)했었다. 연기리로부터 보(湫)가 통(通)해 가므로, 보통(湫通)이라 불렀다.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연기현(燕岐縣)에 속했다가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군내면의 지역(地域)이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보통리(湫通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일제시대 때는 각 마을마다 '연성(燕城)부락' 이라고 불렀다.

'연기(燕岐)와 '연남(燕南) 초등학교' 의 연(燕)자는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큰뜸

보통 1리 1반으로, 22가구가 거주한다.

묘등(마을입구)에서 마을회관까지 이며 마을이 크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 새뜸

집이 드문드문(새) 있어서 새뜸이라고 불렀다.

■ 안산

마을 앞에서 보이는 산이다.

■ 헛수명

물이 헛 데로 빠졌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 비행장 자리이며, 비행장은 1970년대에 생겼고 현재 헬기훈련장으로 활용 중이다.

■ 보들이

보물(寶物)같은 물이 들어오는 논이다.

■ 묘등

마을 입구에 묘처럼 생긴 논이다.

■ 윗뜸

보통 1리 2반으로, 20가구가 거주한다.

위쪽에 있어서 윗뜸 이라 부른다.

■ 서낭당

1리와 2리의 경계에 위치하며, 돌무더기 형태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다.

■ 당산(堂山, 唐山)

백제 때 큰절이 있었던 곳이다. 백제 금불상 2개가 출토되었다.

1개는 일본으로 반출되려다가 되돌아와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이곳은 50여 년 전까지 연기군수 주관으로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었다.

■ 부처당골

절이 있었고 한편 세 고랑(세 갈래의 고랑)이라고도 불렀다.

■ 사공담

동면(東面)에 살던 사공들이 부치던 논이다.

■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다. 보통리(주막거리)에서 부강(芙江)을 거쳐 동면(東面)으로 갔다.

■ 큰샘

보통리 전 주민의 식수로 사용할 만큼 크고 중요한 샘이다.

현재도 샘에서는 물이 마르지 않고 나온다.

■ 저울고개

진주정(鄭)씨의 묘가 있는 곳으로, 옛날 정씨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머슴살이를 하다 어머니가 죽자, 가마니에 싸서 달밤에 이곳에 묘를 썼다.

이때, 여자가 낯선 남자에게 쫓겨오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산발을 시켜 묘 앞에서 울게 하여 위기

를 모면케 해 주었다.

목숨을 건진 여자와 정씨는 부부가 되어 그 후, 부자가 되었다.

손님이 많이 찾아오자, 여자의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어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이 집의 기운이 다 된 것을 느끼고 선녀가 그네를 타는 형국인 '묘 고개(穴)를 뚫으면 된다'고 말했다. 혈(穴)을 뚫을 때 하얀 피가 흘렀다고 하며 그 후, 정씨네는 망했다고 전한다.

■ 돌소매

돌아가서 소를 매던 곳이다.

■ 젓막

예전에 연기리가 큰 고을이었을 때 이 곳은 큰 장터였었다. 물건 중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것이 '새우젓' 이었다 하는데 그 새우젓을 싣고 배가 금강(錦江)따라 올라와선 여기에서 거래가 되었다. 새우젓이 쌓여진 고장이라 하여 '젓막' 이라 부른다.

■ 청인말

청나라 사람(淸人)들이 살던 곳으로, 깨진 기와가 많이 출토되었다.

■ 높은 집 산

청양박씨가 살던 높은 지대로 황새가 앉았던 큰 바위가 있었는데 45년 전 소실되었다.

■ 황새바위

높은집 산 뒤에 높이 10m가 되는 바위가 있다.

■ 석인봉(石人峰)

뒷산 봉우리 큰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다.

■ 동진나루

영규대사가 임진왜란 때 진(陣)을 치던 곳으로, 20여 년 전에 소실되었다.

■ 고마담

일본인의 소유인 토지로 1필지가 현재도 남아있다.

■ 주막거리밑 비(碑)

문화류(柳)씨 비석으로 위에 다리가 세워져 절반 이상 덮여져 있는 상태이다.

■ 보통(湫通)이

'жат띠' 재 너머에 있는 마을이다. 연기리로부터 보(湫)로 통해 본다 해서 '보통이'라 부른다 한다. 파평윤씨(坡平尹氏), 제주고씨(濟州高氏), 진주강씨(晉州姜氏)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두메에 선 큰 마을이다.

■ 잣띠

'성산' 북쪽 기슭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백자목(柏子木, 잣나무)이 있었다.

잣띠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유래된 듯 하다.

보통 2리를 통털어 잣띠, 백치(栢峙)라고 부른다. 경주이씨, 광산김씨(光山金氏)들이 많이 산다. 마을에서 보는 당산(塘山)이 마치 반월(半月)처럼 생겼다 하여 '월리(月里)'라고도 부른다. 여기에서 가까운 미호천(美湖川)은 1934년 일본인들이 제방을 막아서 미호천이라고 불렀다.

■ 잣디고개

잣띠 뒤에 있는 고개로서 잣띠에서 보통리로 가는 고개이다.

■ 월곡

보통 2리 1반으로, 동네가 반달같이 생겨서 붙여졌다.

■ 서낭당

1리와 2리 경계에 있었다.

■ 돌소메

아래에 받이 있어 돌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때 제방을 쌓기 위해 돌을 채취했던 곳으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다.

■ 당산(塘山)

토성(土城)이 남아 있다. 월산리 형제봉 장수와 보통리 당산 장수가 싸웠던 곳이라고 전해진다. 이 산은 거의 박씨네 것이라고 한다.

■ 내운사

보통 2리 2반에 있는 절로, 1970년대 초에 세워진 절이다.

■ 농협창고

양곡수매창고로 연기와 보통의 경계에 있으며 1974년에 세워졌다.

■ 지하 상수도

보통리 주민 식수로 관정 2개가 설치되었다.

1996년에 150m 깊이의 관정, 2002년에 250m 깊이의 관정을 설치했다.

■ 육군 방공학교

원래는 1970년에 국군통합병원으로 세워졌다가 병원이 1998년 대전으로 이전하고 2001년 육군방공학교로 설치되었다. 이곳은 땅이 차갑고 진 곳이다.

옛날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라 하여 '청진' 또는 '청질' 이라고 불렀는데 후에 육군방공학교가 세워지자, 주민들은 '지명은 거역할 수가 없다' 면서 지명(地名)의 절묘함에 놀랐다고 한다.

■ 쑥고개

내운사 앞 고개를 말한다.

■ 치암

보통 2리 3반 마을로, 2리 끝트머리에 있다.

어사 박문수 후손이 살다 떠난 후, 집을 허물고 묘를 썼다.

■ 연바대

풍만제지 앞 물둑병을 말한다. 물둑병은 강을 막아서 생긴 것으로 봉암 앞으로 강이 흘렀다. 1934년 제방을 쌓으므로 강이 갈라지고 미호천이 생겼다.

■ 4반 마을

강남빌라 7개동(56세대)과 대명빌라 2개동(16세대)이 있다. 10년 전에 들어섰다.

㊦ 방축리(方丑里)

'방축(方丑)'은 조선말엽 '도선'이란 도사(道師)가 이 곳을 지나다가 마을을 본 즉, 마을의 지형

(地形)이 방에 든 소같이 생겼다 하여 '방축골' '방축'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제(百濟)때는 두인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남면의 일부(一部)였었다. 서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방축리(方丑里)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에 속했다.

그전에는 '관대마을'이라 불렀다. 도선국사가 황우(黃牛)가 외양간에 갇혀 있는 형국이라 하여 '방축리'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방축이 있었으므로 방축이라고도 한다.

현재 '방축어린이집'이 있다.

방축리는 6·25사변 때 낙동강에 진격하는 아군과 인천 상륙한 연합군이 이곳에서 만나서 전투할 때, 인민군이 연합군에 폭격 당한 전쟁 물자를 다 버리고 도주하였던 곳으로 연기에서 금강까지 4km길이 군수물자로 포화상태였다고 한다.

이때, 인민군은 턱골 → 화통고개 → 충북 → 부강으로 도주했다.

■ 도램말

방축리 1반으로, 31호가 거주하고 있다.

도래마을이라고도 하고, 방축골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地形)이 황소의 도래(뚜레; 고삐의 일종)처럼 생겼다 하여 이 마을을 '도램말'이라 부른다. '근곡(根谷)'이라고도 부른다.

1979년 농촌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군내 처음 책정된 세 마을 중 한 마을이다.

이 마을 가옥 전체가 2호를 제외하고 신개축을 자력으로 이루었으며 자연환경에 어울리는 문화환경을 이루었다는 평이다.

■ 고삐바위

동네 앞에 바위가 6~7개가 고삐 모양으로 일렬로 있다. 그 중 1개는 새마을 사업때 유실됐다.

■ 달밭

달(月)처럼 생긴 밭이다.

■ 구수(구유)배미

현재는 도로로 유실됐다.

■ 정문말

방축리 2반으로, 16호가 거주하고 있다.

통피라고도 부르며, 방축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 성씨(成氏), 장씨(張氏), 이열녀정문(二烈女旌門)이 있다해서 '정문말'이라 부른다.

현재 옥천전씨가 많이 산다.

■ 용모재

열녀문 뒤에 있는 고개이다.

■ 통뫼

제재소 자리를 지칭하며 도램말 들어오는 입구로 갈운리로 편입되었다.

■ 양지말(원방축)

방축리 3반으로, 22호가 거주하고 있다.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로, 양지바른 곳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대추나무골

몇 백년 된 대추나무가 있었으나, 오래 전 벼락을 맞아 지금은 없다.

■ 원장골

선전벼슬(어진(御前))에서 춤을 추던 사람(하던 사람이 살던 동네로 말을 타고 가다 그를 보면, 말에서 내려가야만 했을 정도로 유세가 대단했으며 부자동네였다.

■ 장군수

샘이 있으며 8장군이 나왔다고 하며 지금도 남아있다.

■ 음지말

방축리 4반으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음지에 있는 동네이다.

■ 솔모랭이산(뒗산)

4반과 6반 마을 사이에 있는 산이다.

■ 덕골

방축리 5반으로, 15호가 거주하고 있다.

'방축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고종황제의 스승이었던 한림학사 임공(任公)이 낙향(落鄕)하여 처음에 살던 곳이라 '덕동(德洞)' '덕골'이라 부른다.

옛날에 창원황씨(昌原黃氏)가 많이 살았다. 유덕군자가 많이 사는 마을이라 하였다.

■ 은행나무

덕동(德洞)에 있는 나무다. 이 곳 출신(出身)인 임엽(林葉)이 20여세에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의 벼슬까지 올랐고 머리가 비상하여 의(義)에 두드러진 사람이었는데 병자호란(丙子胡亂)때 죽산(竹山)싸움에서 용감하게도 오랑캐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여 단신분투 하였으나, 역부족(力不足)으로 전사(戰死)하였다. 오랑캐들이 용장(勇將)인 그의 시체(屍體)를 유달리 끌어내서 불태워 버린 것을 봐도 그의 용맹을 알 수 있다.

그 후 후손이 전지(戰地)까지 찾아가 불탄 시체(屍體)의 재를 한 주먹 가지고 와서 이 곳에 초혼(招魂)하고 차례(茶禮)를 지냈는데, 매년(每年) 병자년이면 이 은행나무의 나뭇잎이 불개(不開)한다고 전한다. 수령이 410여 년이 되는 은행나무다.



은행나무

■ 논천리(論天里)

논이 천 다랑이 있는 동네이다.

샷갓으로 덮으면 한 다랑이가 안 보일 정도로 논 다랑이가 작게 나누어져 있다.

부안임씨 통정대부 임하해(林河海)공의 재실이 있다.

■ 원정골

큰 소나무와 서낭당이 있었다. 원정저수지는 현재도 있다.

옛날에는 한양을 가려면 원정골→화통고개→진의리→한양으로 가는 옛 길이었다.
일제시대 때 '청광사'란 절이 있었으나, 새마을 운동 때 소실되었다.

■ 덕성서원

임헌회(林憲晦)외에 6인을 모신 서원이다.
음력 3월 초여드렛날 시제를 지낸다.



덕성서원

■ 황우산

3·1만세운동 때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 성재산

토성(土城) 1.2km가 있다. 진의리, 방축리가 병합되어 있는 산으로 장군바위가 있다.

■ 부처산

토성(土城)이 있고 진의리 끝에 있다.
절(천광사)이 있었으나, 5공화국 때 철거되었다.

■ 원수산



송덕사



덕성서원

이산 서쪽 기슭에 부안임씨 통정대부 임하해(林河海)공의 묘소가 있다.
형제봉, 질마산, 문필봉이라고도 부른다.

■ 만남의 장

4차선 국도변에 있는 방축휴게소로 2002년에 임재상 씨가 건립하였다.

■ 임익철(林益喆) 송덕비

부락주민들이 세운 비로 국도 1호선 방축리 도로가에 있다.

■ 왕덕(王德)골

방축리 6반으로, 21호가 거주하고 있다.
인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 솔모랭이

4반과 인접한 동네로 소나무가 많은 모랭이다.

■ 오가터

오(吳)씨가 많이 살았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곳이다.

■ 산조천

임씨네 제실이 있었으며 산지기가 살던 곳이다.

■ 오산(鰲山)

'턱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 뒷산의 모양이 마치 자라처럼 생겼다 하여 오산(鰲山)이라 부른다.

■ 화통(化通)고개

'방축리'에서 '진의로'로 연락(連絡)하는 고개를 '화통(化通)고개'라 부른다. 병자호란 때 명나라의 장수가 여기를 지나다가 본 즉, 여기에서 장차 유능한 명장이 나타나서 명나라를 괴롭힐 것 같아서 고개를 단칼로 잘라 통하게 하였다 해서 '화통고개'라 부른다.

㉟ 놀왕리(訥旺里)

'놀왕리' 군자(君子)라는 옛말에서 유래(由來)된 지역(地域)으로 '군자림(君子林)?'이라고 부르던 지역이기도 하다. 백제(百濟)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통일후(新羅統一後) 경덕왕(景德王)때 연기현이라 하여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었다가 고려현종때 청주(淸州)에 속하

기도 했었다.

놀왕산(訥旺山)아래 위치(位置)하므로 '느랑이'라 불렀던 곳이다. 본래(本來) 연기군 남면(南面)의 일부(一部)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놀왕리(訥旺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왕바위

'청룡'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가 있다하여 그 바위를 '왕바위'라 부르며 여기 마을도 그 바위 따라 '왕바위'라 부른다. '왕암(旺岩)'이라고도 부른다.

■ 원땃골

'놀왕리'에 있는 마을이다. 영조(英祖) 4년(1728년)때 신천영(申天永)이 난(亂)을 일으켰을 때 연기의 원님이 이곳에서 피난하였다. '원곡(元谷)'이라고도 부르며 강진이씨(李氏)들이 많이 산다. 큰느랑이(元旺)라고도 불렀다.

■ 새터말

'느랑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 생겼다 하여 '새터말'이라 부른다. 또한 '하눌(下訥)'이라고도 부른다.

■ 문암(文岩)

'새터말'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에서 마주보는 왕자봉(王子峯)이 이 마을에서 바라보면 왕자(王子)가 스승 앞에서 글을 배우는 형상(形象)이라 하여 '문암(文岩)'이라 부르며, 또한 '무남골'이라고도 부른다. 장수황씨(黃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정석골(鄭), 또는 진석골은 정도전의 후예가 살고 있다고 한다.

■ 느랑이고개

'느랑이' 동쪽에 있는 고개를 '느랑이' 고개라 부른다. 조치원에서 대전(大田)과 공주(公州)로 통하는 고개인데, 고려 충렬왕 17년(1291년)에 한희유(韓希愈), 김흔(金?)등이 원(元)나라 장수 설도간(薛?干), 나만알대왕(那蠻?大王)과 함께 '원수봉'과 정좌산(正左山)에 웅거하였다가 크게 침입하는 거란군사들을 맞아 정좌산(正左山) 아래에서 싸워 이기고 이 고개에서 또 크게 이겨 공주(公州) 고마나루까지 추격하여 섬멸하였는데, 적의 시체가 30여리에 널려 있었다. '의랑티(儀浪峙)'라고도 부르는 고려 때의 격전지이다.

■ 뒷재

뒷재를 끊으면 마을에 재앙이 온다고 하여 새 길을 낼 때도 비껴서 냈다고 한다.

■ 마동(馬洞)

눌왕리(訥旺里)에 있는 마을이다. 한말(韓末)에 말을 기르던 동리(洞里)라 하여 '마동(馬洞)'이라 부른다. '마골'이라고도 부른다. 죽산안씨(安氏)들이 많이 산다.

■ 신촌(新村)

새로 생긴 마을이다. 그 전에는 구옥말(?屋)이라 불렀다.
14가구가 거주한다.

■ 송정(松亭)

청룡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청룡(靑龍)

느랑이 서쪽에 있는 마을로 수산리의 청룡 쪽이 된다.
지세가 용틀임 하는 형국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땅값이 제일 비쌌다. 송마와 청룡을 합쳐 마골이라고도 한다.
능선을 가운데 두고 송마 1, 2반, 청룡 1, 2반으로 나눈다.

■ 왕자봉

막골, 무남골(아랫말), 서면 등 3개 지역이 합쳐진 봉우리이다.

■ 외왕

원래 '느랑이' 였다가 '온느랑이'와 '반느랑이'로 마을이 나누어지면서 일제시대 때 '외왕'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 송마

예전에 '마골'이었던 곳으로 일제시대 때 쇼마(송마)라고 불렀는데 소나무가 있어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 작은골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다. 거북이날에 묘를 쓰면 아들을 낳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실제 이 마을의 안화임 씨는 딸 셋을 낳고 시아버지 묘를 작은골에 쓰고 난 뒤 아들 형제를 두었다.

■ 연수산(燕水山)

국사봉 줄기로 능선이 경사가 저 나무를 심어 마을의 우환을 막았다.(큰 줄기가 끊어진 능선, 손의 엄지가 잘라진 형국으로 이 마을에는 장자(長子)는 잘 되지 않고 차자(次子)가 잘 살게 된다고 전한다.

■ 안산

원뫼골과 내왕리의 경계이다.

■ 큰골

외왕 앞의 골을 큰골이라 한다.

㉘ 나성리(羅城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의 지역(地域)이었다.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때 연기(燕岐)로 고쳐서 연산군(燕山郡)의 영현(領縣)이 되었다가, 고려 현종때 청주(淸州)에 속했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이 있었던 연기리(燕岐里)와 가까이 있었고, 백제시대 웅진성을 방어하는 성(城)이 있다해서, 나성(羅城), 나리재라 부르다가 서기 1913년에는 공주군 요당면에 속했고,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 구역(區域)을 병합하여 나성리(羅城里)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남면(南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옛날에는 나루재라 불렀는데 그 후, 성(城)이 있어 나성(羅城)이라 불렀다고 한다.

독락정(獨樂亭)위에 있는 성이 토성(土城)이어서 나리재와 토성을 합쳐 '나성'이라고 불렀다. 수로가 발달했고 나루터에서 나리재로 변형되었다고 본다.

■ 기호서사(岐湖書士)터

나성(羅城)있는 전(前) 기호서사(岐湖書社)의 터로서, 서하(西河) 임춘(林春), 전서(典書) 임난수(林蘭秀), 부사(府使) 임목(林穆), 위의장군(威毅將軍) 임흥(林興) 등 삼대(三代)의 네 위를 배양하였던 곳이다.

고종(高宗)5년(1868)에 헐리고 현재 임씨가묘(林氏家廟)가 되었다.

■ 나성(羅城)나루

나성(羅城)앞 금강(錦江)에 있는 나루터로, 나성(羅城)에서 금남면 대평리(大平里)로 건너가는 나루터를 '나성나루터'라 부른다. 나성리에 있는 나루터라 해서 나성나루라 부른다.

나성진(羅城津)이라고도 한다.

■ 독락정(獨樂亭)

나성(羅城)기슭에 있는 정자(亭子)를 독락정이라 부른다. 망망한 들 가운데 있는 나성(羅城)을 등지고 낙락장송이 우거졌으며, 앞에는 맑은 금강 물이 유유히 흐르고 그 옆에는 흰모래가 퍼져 있어서 그 경치가 썩 아름답다.

조선 초에 양양부사(襄陽府使) 임목(林穆)이 그 아버지 임난수(林蘭秀)의 유언으로 이 곳에 독락정을 짓고 한가히 남은 해를 보냈으며 경제(敬齊) 남수문(南秀文)이 글을 짓고 사가정(四佳亭) 서



독락정

거정(徐居正)이 시(詩)를 지어 찬양한 정자(亭子)다.

6·25사변과 1·4후퇴 때 독락정과 사당이 폐허가 되어 1953년 독락정 기동공사와 1990년 연기군 군비로 지방 중수공사를 하였다.

사당은 1980년대 중수하고 재실도 신축했다.

■ 돌부처

독락정(獨樂亭) 근처에 있는 석불이다. 예전에 임장군(林將軍)이란 분이 서역(西域)에서 옮긴 석불(石佛)이다. 6·25때 괴뢰군들이 이 부처에 대고 총을 쏘서 석불이 조금 손상되었다.

■ 나리재

나성리에 있는 토성(土城)을 '나리재'라 부르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나리재'라 부른다. 나성(羅城)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들을 지나 금강(錦江)가에 있는 높이 45m 되는 외딴 산에 토성(土城)을 쌓았는데, 백제 때엔 농성(農城)이었다.



돌부처

여기 성(城)안에 임씨가묘(林氏家廟)가 있고 기슭에 독락정(獨樂亭)이 있다.
8·15해방 전까지 하루 1회 배를 타고 건너 다녔다.
해방 후 다리를 놓아서 나리제는 없어졌다. 조치원에서 지프차가 다니기도 했다.

■ 참샘골

나성리에 있는 찬샘이 있는 마을을 '참샘골'이라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前)부터 산계곡에 자연수(自然水)가 흘러나와 오고가는 사람들이 웅달샘을 파놓은 것이 처음이었다 하는데 물이 계절(季節)에 관계없이 차고 피부병에도 약효가 있다 하여 많은 사람이 찾는 샘이라 여기엔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살며 '약수터'로 통한다.

예전에는 용궁제(龍宮祭)를 지냈었다.

고려말엽의 기록(記錄)을 보면, 공주(公州) 고을에서도 몸에 병이 생기면 나성(羅城)의 찬샘을 찾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때는 유명하였던 약수터였다.

물이 얼마나 깊은가 보려고 살구씨에 명주실을 감아 참샘에 던져 보았더니, 공주 창벽(장기 부엉 데미산)까지 실꼬리가 갔다고 한다.

참샘에는 예전에는 고기 반, 물 반이었으며 '중택이'라는 물고기가 살았었다.

아이들(대전사람)이 고기를 잡아 끓였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고기는 간 데 없고 물만 있었다. 그 뒤로 '도깨비샘'이라고도 불렀다.

주민 송씨의 어머니가 이 참샘을 위하고 이 물을 마시고 자식을 낳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 금강교(錦江橋)

나성 남쪽 금강에 있는 긴 다리이다.

■ 옥안들

나성 주위에 있는 넓은 들을 지칭한다.

■ 옥안뚝(옥안제방)

옥안들에 있는 큰 뚝이다. 나성 쪽에서 보면 우측에 있어 옥안뚝이라고 부른다.

■ 안동네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로, 40호가 거주하는 곳이다.

■ 나성(羅城)

말굽처럼 생겼으며, 말굽동네라 부르기도 했다.

■ 강당골

독락정이 있는 동네로, 14호가 거주한다.



백제토성

■ 구터

원래 마을이 있던 동네로, 20호가 거주한다.

■ 참샘골

참샘이 있는 마을이며, 10호가 거주한다.

■ 다간마루

다각각마루, 이곳은 물이 귀하고 지대가 높아 곡식이 안됐다.

■ 사당

예전에 중이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후, 절은 소실되었고 그 자리에 사당을 지었다.
현재 절 주춧돌이 남아 있다.

■ 미륵불

원래 사당자리에 2기의 미륵불이 있었는데 1기는 금남면에, 1기는 나성에 남아 있다.
예전에 전서공 임난수가 양 겨드랑이에 미륵불을 끼고 금강을 건너다 신발 한쪽이 물에 떠 내려갔다. 그래서 미륵 하나는 강 건너 금남면 뚝방 건너(장터) 병막 부근에 있다.

제방을 쌓고 1946년에 홍수가 나서 뚝이 넘치자, 대평리 장터자리(논답)을 개간하면서 미륵불이 묻혔다.

■ 참샘고개

참샘이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 송원리로 갔다.

■ 구마니고개

안동네에서 뒤뜰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제방이 터져 물이 넘으면 나성은 '그만이다' 라고 어느 보살이 작명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용이 금강을 막았기 때문에 나성에 장마가 지면 물이 넘친다고 믿고 있다.

㉘ 고정리(高亭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고려 현종 때부터 공주군에 속했었다.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 이었다가 말엽에는 연기군 남면의 지역(地域)으로서 '높은 정이' '고정(高亭)'이라 불렀는데, 서기(西紀) 1914년에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고정리(高亭里)라 하고 연기군 남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향교(鄕校)말

'향교말' '아랫말' 이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학문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어서 많은 인재(人才)를 배출함으로 '향교말'이라 부른다.

■ 국사봉(國土峰)

고정리 뒤에 있는 산이다. 고려말엽에 어지러운 국운(國運)을 바로 잡기 위해 당시 3정승(三政承)이 국론(國論)을 협의(協議)한 산이라 하여 국사봉(國土峰)이라 했다.

이 산을 섬기면 그 섬기는 집에서 훌륭한 자손(子孫)을 둔다하여 여기 마을사람들은 1년에 한번 씩 산제(山祭)를 지내며 국사사(國土師)를 모신다.

(현지조사)

궁골 뒤 국사봉 아래 8명당 터가 있다고 한다. 둔덕산이라고도 불렀다.

봉화를 올렸던 산이다.

■ 은고개(銀高介)

조선말엽에 광정승(郭政丞)이 이 곳에 선친(先親)의 묘(墓)를 마련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그 때 따라오던 스님이 말하기를 지금 광정승이 끼고 있는 은가락지를 부처님께 시주하면 자손대대(子孫代代)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누릴 것이라 하여 그 은가락지를 스님께 시주를 하고 선친(先親)의 묘(墓)를 여기에 썼더니, 그 후 자손(子孫)이 후하게 영화를 누렸다 하는데, 그래서 이 고개를 '은

(銀)고개' '시주고개' 라 부른다.

또 다른 설은, 은(銀)이 나왔기 때문에 은고개라 한다.

일제시대 때 산을 끊어서 도로가 났다.

■ 감목정(柑木亭)

'중리'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부터 다른 곳에 비해서 유난히도 감나무가 많고 여기 감나무에서 따는 감이 크고 맛이 좋아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감나무골' '감목정(柑木亭)' 이라 부른다.

■ 범지기(호준, 虎?)

51호가 거주하며, 범지기, 감나무재, 큰두렁, 대비실, 부처골을 통틀어 호준(虎?)이라고 부른다.

'높은 정이'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뒷산 모양이 범이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국(形局)이라 한다. 예전에 범이 산 속에 있는 마을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므로 포수(砲手)들이 몰려 들어와 선 여기에서 여장을 하고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 하는데 그래서 범을 지키는 곳 '범지기' 또는 호준(虎?)이라 부른다. 호랑이때 들이 몰려와서 사람을 해친 것은 산신(山神)을 잘못 모셨다 하여 먼저 산신(山神)을 모시고 호랑이 사냥을 하자, 호랑이는 모두 도망쳤다 한다.

눌왕산과 범지기산이 접해 있는 이곳에서는 150년 전부터 산제(山祭)를 지내오고 있다.

■ 중새터

42호가 거주하며, 종전(種田), 월성(月城), 중사터(중새터), 작은 독골을 통틀어 중새터라고 부른다.

■ 월성(月城)

'반월터' 라고도 하며 마을 형태가 반달 같은 지형이다.

'높은 정이'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 여기는 달과 연유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이다.

옛날 단란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겐 자식이 없었다. 자식을 하나 얻는 것이 소원이어서 항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스님이 한사람 찾아와서 시주를 원하기에 시주를 듬뿍하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묻자, 달이 밝게 비치는 밤에 달이 뜰 때부터 달이 질 때까지 기도를 드리라 해서 하루는 달 밝은 밤에 기도를 드려 소원을 성취했다 해서 월성(月城)이라 부르게 되었다.

■ 송옥(松玉)

동산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중리(中里)

고정리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51호가 거주한다.

장승배기, 가락골, 궁골, 뜰이, 황새울을 통틀어 중리라고 부른다.

■ 장승배기

나무 장승이 있었던 곳이다. 3기의 장승이 있었으나, 해방 후 소실되었다.

■ 궁(宮)골

국사봉 바로 아래 정자가 있던 마을이다.

임씨 5대조가 몹시 빈궁하였다. 선친이 죽어 묘를 쓸 때, 한 스님이 “당대 발복을 원하느냐? 만대 영화를 원하느냐”고 묻자, 가난한 살림에 싫증 나 당대 발복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대에 300석을 거두어 부자가 되었으나, 자손은 빈궁했다 한다.

지형은 좁아도 명당터라고 한다. 선대로부터 이곳에 묘를 쓴 곽씨(郭氏)는 4대가 벼슬을 하였는데 판서(判書)가 세 사람, 왕사부(王師父)가 한 사람이 나왔다 한다.

■ 뜰이기

두막골이라고도 한다.

■ 종자원(種子院)

땅이 비옥하여 농산물 씨(種子)로 썼던 곳이다.

이선구(4·19 전(前) 연기군수)의 비(碑)에도 종자원 이라고 쓰여 있다.

종전(種田)이라고도 부른다.

■ 지경재

공주군과 연기군의 경계가 되는 고개이다.

■ 황새울

산의 지형이 황새가 나는 형국이라 황새울이라 부른다.

■ 매봉재

월성 앞쪽에 있는 산으로, 공주와 연기의 경계이다.

■ 소람봉

월성 뒤쪽의 산으로, 국사봉 줄기이다.

■ 작은 독골

소도곡(小道谷)이라고도 한다.

■ 큰 독골

공주 장기 쪽에 있는 계곡이다.

■ 높은 정이

고정 2리의 1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높은 곳에 정자(亭子)가 있어서 불려진 이름이다.

어서각(御書閣)이 있는 마을이다.



어서각



■ 원고정(元高亭)

높은정이의 원 마을이다.

■ 사두(蛇頭)

뱀 머리 형국의 마을이다.

뱀이 개구리를 쫓고 있는데 황새가 뱀 꼬리를 찍어 뱀 허리는 끊어지고 뱀 머리만 남았다.

어느 날, 중이 앞으로 이 자리에는 우환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한다.

7, 8년 전 산을 없애고 터를 닦았는데 그 후 마을의 젊은이 5, 6명이 죽었다.

주민들은 산을 없애서 우환이 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전한다.

■ 어서각(御書閣)

높은정이에 있으며 이성계(태조), 정조, 태종 3왕의 친필이 모셔져 있다하여 어서각이라 했다.

■ 황새바위

사두(蛇頭)뒤에 있는 산이다.

■ 송옥(松玉)

고정 2리 2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소로골이라고도 한다.(소의 배에 해당)

소로골에는 옷밭, 가운데밭, 음지밭이 있다.

■ 동산(東山)

‘높은 정이’ 동쪽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동쪽에 마을이 있으면서 해가 뜰 때 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뜨는 해의 모습은 장관을 이룬다 하여 ‘동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 세시풍속

40여년 전에는 백중날(음력7월 보름)에 ‘호미씻이’를 해 왔으나, 현재는 전승되지 않고 있다.

■ 소로골

고정 2리 3반으로, 14호가 거주한다.

아래말을 말한다. 수령 500여년 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소송(訴訟)에 걸린 적이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 가자골(가재골)

가재를 잡던 곳이다.

■ 멩에독

재택이들이라고도 하며 들이 약간 도톰하게 올라왔다.

■ 소학동(巢鶴洞)

‘높은 정이’ 남서쪽 산 속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소학(巢鶴)이란 학자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여기로부터 많은 인재(人才)가 배출되었다 하는데 그 학자와 연유한 마을이라 해서 ‘소학당’을 약(略)해서 ‘소학’이라고 부르다가 변해서 ‘소지(小地)’라 부르기도 한다.

본래는 공주군 장기면의 지역(地域)이었으나, 1914년에 연기군 남면 고정리로 편입(編入)되었다. 왕슬밭이 있었으며 학이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소야’라고도 한다. 병풍바위 앞에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중이 절을 태우고 떠났다고 한다.

■ 돌절골

석사곡(石寺谷)이라고도 하며 병풍바위 있는 곳이다.

㉨ 갈운리(葛雲里)

백제 때는 두잉지현(豆仍只縣)에 속했으며 신라 때는 연기현으로 연산현(燕山縣)의 영현(領縣)이었다.

고려 현종 때는 청주(淸州)에 속했다가, 조선 태종(太宗)때 연기현(燕岐縣)이었다.

조선말엽에는 연기군 남면(南面)에 속하였으며 산이 칠푼쿨처럼 엉키어 얼기설기 서려있고 여기에 서 물이 귀해 구름을 봐도 물을 보는 것처럼 반가워해야 할 지역이라 하여 갈운(葛雲)이라 하였다.

■ 윗갈운이

‘갈운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연기읍에서 5리(里)가 되는데 여기에는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갈운리’ 위쪽에 있다하여 ‘윗갈운리’라 부르며 ‘갈운리’ 아래에 있는 마을을 ‘아랫갈운리’라 부른다.

■ 골말

감나뭇골 건너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 새고개

갈운에서 연기리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이다.

■ 양달말

금사 양달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말이라고도 한다.

갈운 1리

■ 오류동

1반을 통틀어 오류동이라고 불렀다. 16호가 거주한다.

■ 음지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자연사(自然死)했다.

■ 은고개

고정리와 갈운리 경계의 고개로, 예전에 목장승이 있었다.

■ 방죽

예전에 이곳에 방죽이 있었다.

■ 모정터

개밭터 뒷산에 모정(茅亭)이 있었는데 6·25 때 없어졌다. 이 모정은 마을 서당(書堂)으로도 사용되었다. 일제시대 때 이 모정에서 임정철 씨가 서당 훈장을 하였다.

■ 원갈운(原葛雲)

2, 3반으로 30호가 거주한다.

원래 갈운리 마을이었던 곳이다. '윗갈운' 과 '아랫갈운' 으로 나눈다.

■ 남궁산

남궁 선조의 묘가 있는 산이다.

■ 수망리(水望里)

4반으로 17호가 거주한다.

수망재, 수명재라고도 하며, 갈운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같은 2리

■ 금사(金砂)

같은 2리를 통털어 금사라고도 부른다. 27호가 거주한다.

‘원수봉’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새울’ ‘사’ 라고도 부른다. 고려말 김씨(金氏) 한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산세(山勢)를 본 즉, 산에 금줄기가 뻗었다 하여 이 곳 지명(地名)을 금사(金砂)라 지었다. 문사(文士) 임낙용(林樂龍)의 호(號)도 금사(金砂)라 한다.

■ 금사역(金沙驛)

금사(金砂) 서쪽 길가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시대 때 ‘금사역’ 이 있었다 하여 그때부터 금사역(金砂驛)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다.

■ 금사교(金沙橋)

금사 앞에 있는 다리로서 1962년에 놓았다.

■ 둥근나무거리

‘금사역’ 앞에 있는 큰길에 늙은 느티나무가 있다 하는데, 예전에는 역졸들이 말을 매놓고 쉬어 가던 곳으로 알려진 거리다. 둥근나무거리라고도 한다.

■ 감나무골

금사 입구에 있는 마을로서 감나무가 많다.

■ 양달말

금사 양달쪽에 있는 마을로, 양지말이라고도 한다.

■ 청룡날

지형이 높은 곳(穴)에 있는 마을이다.

■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는데 6·25때 화재로 소실되었다. 파발마를 교체해 주던 객사(客舍)가 있었는데 관가에서 운영했다. 이곳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1992년 자연사(自然死)했다. 이 나무를 유성의 조각장이 사간 후 죽었다고 전한다. 또 나뭇가지가 초가집을 하자 담에 구렁이가 나와서 주인이 죽었다. 그 후 주인은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나갔다. 동네 청년 몇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져 1994년 새로 식수하였다.

■ 비(碑돌)거리

미륵이 있었던 동네이다.

■ 매봉재

1리와 2리 경계의 산이다.

■ 원삿골(원사(原沙)골)

2반으로 25호가 거주한다.

‘원수봉’ 북쪽에 있는 마을을 ‘원삿골’ 이라 부른다. 예전에 고을 원님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원삿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원삿골’ 이라 부르며, 또한 ‘원곡(原谷)’ 이라고도 부른다.

비가 오면 산에서 모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원사골이라고 불렀다.

남면에서 제일 먼저 사람이 살기 시작했던 곳이며 바위에 원시그림이 있다.

■ 원곡(元谷)

원삿골, 원삿골이라고도 하며, 원수봉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 봉오골(봉목골)

현 기도원 위쪽에 있는 마을로 ‘봉목동’ 이라고도 부른다.

■ 손모랭이

솔밭 모퉁이를 돌아가면 소나무가 많은 동네이다.

■ 원수산(元帥山)

갈운리와 진의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산의 높이가 233m가 되는데 봉우리가 둘로 되어 있다. 형제봉, 또는 부모산이라고도 부른다.

고려 충렬왕 때 거란군사와 크게 싸웠던 자리다.

연기대첩 후 몽고군이 퇴각하면서 ‘원수와 같은 산이다’ 라고 해서 ‘원수산’ 이라 했다고도 한다. 전설따라 삼천리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 원수산성(元帥山城)

원수산 산정(山頂) 남쪽에 있는 산성(山城)을 원수산성(元帥山城)이라 부른다. 고려 충렬왕 17년에 ‘거란’ 의 내침(來侵)때 원장(元將) 설도간과 고려의 장군 한희유, 김흔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이

서면 정좌산(正左山)부터 적을 추적(追跡)하여 원수산성에 유진(留陣)하면서 적을 전멸시킨 유서 깊은 산성이다.

■ 원사골 뒷산

기차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는 돌에 오줌 눈 자국, 사람과 말 발자국과 사람이 앉았던 자국 등이 지금도 남아있다. 2개의 토굴이 있는데 주민들은 고려장 흔적이라고 말한다.

■ 치알봉

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옛날 어느 부부(夫婦)가 자손(子孫)을 두지 못하여 자손 두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이 찾아와서 말 한대로 치알을 치고 백일간(百日間) 기도를 하였은 즉, 옥동자(玉童子)를 얻었으므로 기뻐하였다.

그 후, 그 아들은 커서 과거에 급제하여 권세가 대단하였다 하는데 그 후부터는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면 권세가 불길처럼 뻗는다 하여 '치열봉(熾熱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1리에서는 치알봉, 2리에서는 매봉재라고 불렀다.

매봉재의 매는 매방아(연자방아)를 말한다.

■ 미륵불

400여년 된 것으로 추측한다. '음지말 할머니 미륵'과 '양지말 할아범 미륵'이 마을입구에 서 있다. 6·25 때부터 '미륵계'를 해왔으며 논일을 해서 쌀을 걷어 정월 열나흘에 해마다 정성껏 미령님제를 지내는데 재앙을 막고 풍년농사와 주민이 평탄대로 한다는 믿음으로 주민 전원에게 소지를 올리며 소원성취하기를 빌어 오고 있다. 그 덕인지 오늘날까지 마을은 무탈하게 지내고 있으며 6·25동란 때 마을의 젊은이 6~7명이 참전했을 때, 모두 살아서 돌아왔다. 주민들은 미륵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제를 올리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며, 제관들은 살생을 하지 말며 비린내 나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부정에 관한 모든 일을 삼가야 한다.

■ 음지말

3반으로 20가구가 거주한다.

울목고개에 있으며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태워버렸다. 그 나무를 종촌 옹기점에 팔았는데 후에 그 옹기점은 망했다. 종촌에는 지금도 옹기가마터가 남아있다.

■ 절터

절에 빈대가 많아 절을 태워 없앴다.

■ 올목고개

3리 넘어가는 고개로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옛날에는 한양으로 올라가려면 이 고개를 넘어가야만 했던 옛길(舊道路)이다.

■ 황우산

방축산 경계에 있으며 산세가 황소같이 생겼다고 한다. 봉우리는 '황재'라고 불렀다. 이 산에는 금광(금굴)이 있어 왜정 때 금을 많이 캐으나 후에 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은 이유는 원수산에서 전쟁을 하여 사람과 말이 죽어 피를 흘려 금(金)이 죽었다고 한다.

같은 3리

3리 전체를 창촌(倉村)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관대'라고 불렀다.

양화, 진의, 방축, 놀왕, 양지원까지 옛길이 나 있었다.

■ 개발터(상촌 上村)

같은 남쪽에 있는 마을로서 앞산의 모양이 복호형(伏虎形)이고, 이 마을은 '엎드린 개발'과 같다 한다.

같은 3리 1반으로, 9호가 거주한다.

■ 표석골

옛날에 표석이 있었던 마을이다.

■ 통피

산이 불록하고 봉우리가 홀로 되었다고 해서 붙여졌다. 현재 제재소 자리다.

■ 새나무터

방축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 큰도덕골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 작은 도덕골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 해지계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즉 남향을 하고 있는 산이다.

■ 황우산

황소가 앉아있는 형국의 산이다.

이산에는 부안 임씨 전서공(임난수)의 아들이자 공민왕의 사위인 사직공의 묘와 비석이 있다. 비문은 1970년에 썼고 비석을 옮길 때 소로 끌어다 세웠다.

■ 자지턱골

3반으로 8호가 거주한다.

창말 아래쪽에 있으며, 뒷산을 지칭한다.

자지동(紫芝洞)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 근처엔 자지(紫芝)란 약초가 있어서 약초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자지턱골'이라 부른다.

■ 뒤봉골

밭처럼 생긴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마매장

소나무 숲이 우거졌었다. 1947, 8년경에 집을 짓느라 소나무를 많이 베어서 지금은 없어졌다. 말(馬)을 매던 마을의 중심이 되던 곳으로 현 마을회관 자리이다.

■ 창촌(倉村)

4반으로 13호가 거주한다.

예전에 사창(社倉)이 있었고, 마전답(馬田畓)과 말을 가두어 두던 창고(倉庫)가 있었다. 그래서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창촌(倉村) 또는 창말이라 부른다.

■ 덕대골

덕대(시신을 나무에 매달아 두던 나무)가 있던 곳이다.

상제(喪祭)는 나무 아래서 초막(草幕)을 짓고 1년 또는 3년 상을 치렀다.

■ 오가나무골

옛날 기와집이 있던 곳으로 지금도 깨진 기왓장이 나오며 예전엔 디딜방아도 있었다.

■ 모정(茅亭)날

띠로 만든 정자가 있던 마을이다.

■ 살가지군청

살팽이가 많았으며 들어가면 깊숙한 숲이 있는데 얼마나 울창한지 하늘만 보였다고 한다.

■ 샘

정월 열나흘날 떡과 청주를 갖다놓고 용왕제를 지냈다. 현재 샘터는 남아 있다.

■ 세시풍속

터주단지 - 장독대에 놓아둔 터주대감을 모신 단지이다.

연반계 - 주민 45가구가 참여한 계로 가입비는 쌀 3가마였다. 왜정 때부터 시작했으며 돈은 동네 애사(哀事) 때 주로 썼다. 현재 계장(契長)에 전영식 씨, 총무에 임영묵 씨가 맡고 있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금남면



5. 금남면(錦南面)

㉮ 용포리(龍浦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양아리면에 속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연기군에 속하여 금강의 남쪽에 있는 곳이라 금남면이라 했다.

용포리는 계룡산의 용(龍)자와 금강포구의 포(浦)자로 이루어져 금남면에 속하였고, 1946년 큰 장마로 인하여 대평리(大平里)가 강으로 변하자 그 주민들이 이곳 용포리로 옮겨오는 동시에 시장도 함께 옮겨져서 그대로 대평장(大平場)이란 시장이 서고, 금남면의 행정 중심마을이다.

■ 쑥티

금남지서에서 동쪽마을을 '쑥티' 라고 한다.

오랜 옛날 이곳에 살던 사람이 왕명을 어겼다하여 마을을 모두 불태워 버렸는데 그 불탄 자리에 이상하게도 쑥이 나오기 시작하여 쑥밭을 이루었다 한다. 쑥이 많은 곳이라 하여 '쑥티' 라고 부른다. 쑥에(艾)자를 써서 에티라고도 한다.

■ 탑산

예전에 탑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쑥티에서 남쪽마을을 지칭한다.

■ 성재

쑥티의 동쪽 산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 성이 있었는데 토성과 석축이 혼합하여 조성되었다. 성재 안에는 강기호 씨가 자리 잡아 살고 있으며, 집을 지을 때 그곳 성재에서 나온 돌을 이용하여 집을 지었다.

■ 중광산

성재 뒤편에 있는 높은 산을 지칭한다.

산 정상부에 고려시대의 사찰인 중광사라는 절이 있다. 중광산 밑은 발산리이다.

■ 탑골재

탑산에서 성재로 넘어가는 고개를 탑골재라 부른다.

■ 팽목정

용포 1리에서 발산으로 돌아가는 길머리에 팽나무 정자가 있었다. 어느 여름 수해 때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나무가 매우 커서 껍질을 눈에 물대는 수로로 사용했다. 수령이 몇 백년 됐다 한다.

■ 발림봉

발산 뒤에 있는 봉우리를 지칭한다. 정상에서 용포가 다 보이며, 발산리에 속해 있다.

■ 서낭당이

발산에서 용포리로 넘어오는 고개에 대추나무가 있고 돌로 탑을 쌓은 서낭당이 있었다. 정월 보름날이면 이곳에서 제를 올리고 소원성취를 빌었다. 이곳에 양수장이 들어섰으며 성재 너머에 위치하지만 현재는 없다.

■ 쑥고개

금남지서와 금남병원이 있는 곳에 예전에 대추나무 성황당이 있었다. 현재는 없다.

■ 등구나무

금남 감리교회 앞에 있는 나무로 100여 년 됐다. 76년 전에 장남순(현 97세)씨가 21세(1927년)에 심었다. 장남순 씨가 금천리에서 이사 온 어느날 군(마을사람 모두 나와 일을 하는)에 와 등구나무를 심자고 제의하여 이암리에서 오래된 나무를 가져와 심었다. 현재 용포리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 산정

현 대평감리교회 뒤편에 예전에는 높은 산이 있었다. 그곳에 고개가 있었는데 그 고개를 산정이라 했다.

■ 구령목

현 대평감리교회와 버스 정류장 사이를 구령목이라 한다. 아홉 마리의 용이 있는 형국의 명당을 지칭하며 좁은 길목에 사람이 많이 다닌다는 뜻도 있다.

■ 이암리

용포 3리 삼거리 중심지에 큰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를 잉어바위라 하는데 예전에 금강이 이곳으로 흘러서 가동 앞으로 해서 성덕으로 흘러 내려갈 때 이곳 바위에는 잉어가 많이 살았다. 바위의 생김새 또한 잉어처럼 생겼지만 워낙 많은 잉어를 이 바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 바위를 잉어바위라 한다. 현재 금남면 장터마을이다.

■ 뒷골

이암리 동쪽에서 신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뒷골이라 한다. 마을 뒤편이라 해서 뒷골이다.

■ 꼬초골

뒷골에서 동남쪽으로 신촌가는 골을 꽃절골 즉, 꼬초골이라 한다. 이곳 너머에 '꽃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여수바위

잉어바위 위에 있다. 바위옆에 굴이 있다. 이 굴에서 불을 피우면 발산의 바리미 굴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다. 여우가 산다고 하여 여수바위이다.

■ 강당산

용포리에서 서쪽 산을 가리킨다. 강씨들의 강당(제실)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가동

처음에는 소명에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인데 이것을 아름답다는 뜻으로 바꾸어서 부르게 됐다. 또한 참나무가 많아서 참나무가 자(字)를 썼다고도 한다. 200여년 전에는 한 채의 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은 집이 들어섰다.

■ 삼거리

용포리에서 대전방면, 조치원방면, 신탄진방면 등 세 갈래 길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밭가래

가동에서 발산 방향으로 펼쳐진 들이다.

예전에는 밭이었는데 일제시대때 수리시설 정비로 논이 되었다.

■ 새들

성덕가는 냇물가에 위치한 들이다.

■ 동산절

옛날 고려시대에 동산절이란 절이 있었고 절터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현재 두진아파트 지은 옆자락에 있는 들을 동산절이라 한다.

■ 대평리(太平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었다. 1910년 감성(柑城)에 있는 시장을 이곳으로 옮기어 대평장이라 했고 1914년에 이웃 '삼거리' '하거리' '고사동' 을 병합하여 대평리라 했다.

1946년 큰 장마로 동네 360호가 모두 유실되어 강으로 변하고 그 이재민이 거의 용포리로 옮기는 동시에 시장도 그 쪽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새로 지은 집 10여호가 있고 대평리는 폐리(廢里)가 되어 행정 구역상 용포리로 편입되었다. 현재는 구대평리라 부른다.

(지적상에는 대평리로 존재)

■ 대평리 물난리

매년 겪는 물난리지만 1946년 6월에 많은 양(800mm)의 비가 내렸다. 금강제방이 위험수위까지 강물이 불자, 금남 소방대원들은 경보 사이렌을 울리며 집집마다 돌면서 모두 피신하기를 권했다. 제방을 통하여 용포리, 이암리와 강당산으로 사람들이 피하자 둑이 터져 마을과 대평들이 삼시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대평리 사람들은 강당산에 올라가 가재도구와 집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 앵칭이나루

석삼리 앞에 있는 나루를 이야기한다.

■ 대평리나루

대평리와 독락정을 잇는 나루이다.

■ 한림정나루

영곡리 앞 한림정에 있는 나루이다.

■ 불티나루

청벽에 있는 나루이다.

■ 마라구나루

탁금정에 있는 나루로 한림정 밑에 있다.

■ 비석거리

일제시대 일본사람 조모회의 가족이 새운 비석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본인 신사역합을 했다.

■ 병막

현재 금강댐 양수장 부근이다.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격리 수용했던 곳이다.

■ 함뱅이

금강댐에서 용수천과 만나는 굽은 곳의 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일제시대에 이곳에서 무우, 배추 등을 많이 재배했는데 특히 황참외를 많이 재배했다. 황참외는 길이가 길고 빈 지게에 엮고 다닐 정도로 크기가 컸는데 한 개를 깎아서 10여명이 먹었다 한다. 달고 맛이 좋았으며 그 후에 시오리가 재배되었다. 시오리는 장아찌용이다.

■ 장터말랭이

현재 금강둑에서 반곡가는 쪽으로 양수장 있는 곳을 예전에 '병말'이라 불렀고, 그 옆을 장터말랭이라 불렀다.

■ 삼돌

현재 신촌에서 용포리 앞으로 흘러 용수천으로 들어가는 냇가를 '삼돌'이라 부른다. 용포리 앞을 삼돌이라 부르고 가동 앞을 '소래'라고 부른다.

■ 구룡말(九龍)

용포리 버스정류소가 있는 곳을 구룡배주형(九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고 하는데 아홉 마리의 용이 웅크리고 앉아 있어 행운이 깃든 지대라는 곳이다. 아홉 마리 용이 웅크리고 앉아있어 '구룡말'이라 하고 구룡리, 평말, 구룡, 구령말 이라고도 부른다.

㊸ 발산리(鉢山里)

조선초엽 태종(太宗)에 의한 태자(太子)의 난(亂)때 신천강씨인 신덕왕후 강씨(康氏)의 일족이 화를 입게 되어 이곳으로 피난하여 숨어 살았는데 그후 송시열(宋時烈) 등 많은 학자들의 탄원에 의해 관원(官員)의 등용(登用)이 허락되었다. 그때 영조조(英祖朝)의 후손인 강씨부자(康氏父子)가 거듭 대과(大科)에 급제하는 경사가 있어 뒷산을 '중광사(重光寺)'란 절을 세우게 하였다 한다. 중광사를 세운 산의 산세(山勢)가 마치 주발을 엮어 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 발(鉢)'과 같은 산이 있다 해서 '발산리(鉢山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점말

마을 남서쪽으로 감성과의 경계 부분을 일컫는다. 산속에 인가가 한 채 있어서 '점말' 또는 '점촌(点村)'이라 부른다.

■ 바리미

발산리의 옛이름이다. 마을서편의 산이 주발을 엮어놓은 형국이라 하여 '바리미' 또는 '발산(鉢山)'이라 부른다 한다. 가운데 있는 마을을 '가운데 바리미'라고 부른다.

■ 발림봉

발림봉을 중심으로 발림봉 바로 앞마을을 '하발', 그 앞마을을 '중발', 그 앞을 '상발'이라 부르고 있다.

■ 아랫뜸(하발)

마을아래 (남쪽)에 위치해 있다 하여 '아래뜸'이라 부른다.

■ **혀여골(하여골)**

마을 동쪽 하얀 바위가 있는 골짜기를 일컫는다.

■ **중광산(重光山)**

마을뒤(동쪽)에 있는 산으로 신천강씨 중시조인 강진경이 이 동네에 처음으로 살았는데 강진경의 증손과 고손이 문과 급제를 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다. 즉 '거듭경사가 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동광사지**

고려시대 사찰로, 마을 동쪽에 있는 절터이다.

■ **해골**

폭포처럼 되어 있는 곳으로 10미터 되는 곳에서 물이 낙차하며 평상시에는 조금씩 흐르다가 비가오면 폭포처럼 물이 쏟아진다.

■ **박성뜰**

마을 입구 우측에 있는 밭으로 박씨 소유의 땅이라고 해서 박성뜰이라고 한다.

■ **효자각**

신천강씨 강협의 효자문이다.

■ **연못**

마을 입구쪽 소나무 근처에 있으며 옛날 연못을 없앤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서 여자들이 죽어 해방 후 다시 복원했다.

■ **웃샘**

뒷골의 동산절 쪽에 있으며 바위에서 물이 나왔는데 물이 차가워서 웃샘으로 사용했다.

⊗ **감성리(柑城里)**

조선 말엽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산(山)이 마치 성(城)처럼 둘러싸여 있고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다. 감나무가 마치 성을 쌓은 것처럼 빙 둘러 쌓였다고 해서 감성(柑城)이라 불렀으며 백제때에 이곳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었다.

현재 산에 소나무가 울창하여 백로 수 천마리가 늘 안식하고 있으며, 별천지를 이루고 있다. 자연보호 지역이다.

■ 감성장터

1910년 전(前)까지 장이 크게 섰던 지역이다.

'장대리' 라고도 불렀으며 대평리가 생기기 이전에는 금남에서 제일 컸던 장터이다.

일본사람이 들어와 대평리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감성에 서던 2일, 7일장이 대평리로 서서히 이전하면서 이제는 장터였던 터만 남았다.

■ 은행나무골

현재 감성국교 뒤쪽을 은행나무골이라 부른다.

감성리에 처음 나타난 왜가리가 이 은행나무에 앉아 서식하다 뒷산 소나무로 자리를 옮겼다.

■ 백로서식처

백로가 날아들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 부터이다. 처음에는 현 감성국교 뒤편의 은행나무에 왜가리가 등지를 틀기 시작하더니, 그 후 수백 마리의 백로가 따라와 소나무에 안식처를 잡았다. 백로가 많이 날아들면 풍년(豊年)이요, 백로가 오지 않으면 흉년(凶年)이 온다는 말이 전한다.

■ 주막거리

장터 내에 주막이 있던 곳을 주막거리라고 한다.

■ 이참판(李參判)

한산이씨가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으며 조선시대 이참판이 살았던 집이 그대로 전한다. 이 참판의 아들 이석규 또한 한학을 동네사람들에게 가르쳤으며 이참판은 1921년에 작고 했고 아들 이석규 또한 1932년에 작고했다. 천안군수를 역임했다.

■ 아랫말

현 감성국교 뒤편의 마을을 아랫말이라 하는데 금남국교가 생기기 이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

■ 가운데 뜰

감성리의 가운데 마을을 지칭하며 감성리에서는 제일 먼저 생긴 마을이다. 이곳에 이참판 생가가 있다.

■ 웃말

축산리 가는 쪽으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 연정

현 마을회관 앞에 큰 느티나무가 몇 그루 서 있고 그 나무 밑에 연못이 두 개 있었다. 그곳에 연꽃이 많이 피었고 연못 옆에 정가가 있어 풍경이 아름다웠다. 그래서 연정이라 불렀다. 그러다 작

은 연못이 먼저 메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어 1984년 나머지 연못도 메꿔졌다. 1994년에 옛 정자의 모습을 복원하였다.

■ 수리산

산 꼭대기가 독수리 부리처럼 뽕족하다 하여 수리산이라 한다.

■ 고도실

감성리 뒷산 너머의 고랑이다.

■ 가재산

수리산 우측으로 있는 산이다.

■ 계룡천

마을 앞을 흐르는 내이다.

■ 거칠목

이곳이 인가가 없어 이곳에 강도가 많아 거친 곳이라 하여 거칠목이라 한다.

■ 수렁배미

마을 앞의 논을 말하며 이곳에 수렁이 많아 수렁배미이다.

■ 절터골

마을 앞의 산고랑이며 옛날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터골이라 한다.

■ 서당

마을회관 자리에 있었는데 일제시대때 없어졌다.

㉞ 두만리(斗滿里)

조선 말엽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산동' 과 공주군 반포면의 '용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두만리(斗滿里)' 라 했다.

두만리라 한 것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대(地帶)라 해서 옛날엔 두메안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 원두만

두만리의 원마을이다. 옛날에 이곳에 부락이 생길 때 처음 생겼고 두만리의 산골 마을에선 가장

처음 있었던 마을이라 해서 '원두만' 이라 부른다. 제주고씨(濟州高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두만리는 부자가 많이 산다는 뜻으로 두만(斗滿)이라 쓰며 두뢰(산골)안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었는데 일제시대 두만(斗滿)으로 와전하여 표기했다 한다.

■ 두만이골

두만 1리 남쪽에 위치한다. '원두만' 이라고도 한다.

■ 중미

'장터거리' 라고도 하는데, 두만과 감성 경계에 있는 들이다.

■ 언고개

두만 1리 남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고개로, 두만리에서 용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통외산

두만 1리 동남쪽 1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산세가 둥글게 뭉쳐 있다하여 '통외' 로 이름지어졌다.

■ 안산

동네 바로앞(동북쪽)에 있는 산으로 마을 앞에 있다하여 '앞산' 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안산' 이 됐다.

■ 연못

동네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샘물이 흘러서 연못을 이루었다. 현재는 연못을 메워서 집 두 채를 지었다고 한다.

■ 느티나무

두만 1리 앞 국도변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으나 6·25사변 때 미군들이 이곳에 폭탄을 잔뜩 쌓아 놓아서 폭격 당했다 한다.

둘레가 일곱 아름 반이나 되는 큰 나무라고 한다.

■ 남한이들

두만 1리 서쪽의 군부대 쪽에 있는 들판으로 '마지막 끝나는 들' 이란 뜻이다.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상수구멍(수구구멍)이었다.

■ 마리굴들

두만 1리 서쪽에 있는 들로써 '물이 마른다' 는 뜻이다

■ 구렛들

마을 서쪽에 있는 들로써 '물이 마르지 않고 흔하다' 라는 뜻이다.

■ 번개배미

두만 1리 서쪽에 있는 논으로 '무지개가 섰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통수배미

마을앞(서쪽)에 있는 논으로 '통소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쌍바위

바위가 두 개 있어서 쌍바위라 하였으며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바위를 위하던 사람도 있다.

■ 새마장

마을 뒷동산으로 이곳이 넓어서 예전에 아이들이 놀던 곳이다.

■ 서당

고도사 라는 분이 가르치셨고 지금은 없어졌다.

■ 성황당

통외산에 있었는데 1980~1990년도 사이에 길이 나면서 없어졌다.

■ 산동(山洞)

원래 마을위쪽에 있는 외딴 골짜기란 뜻의 '상곡(上谷), 위골' 이었는데, 구전되다 보니 '산동(山洞)' 으로 와전된 것이다.

■ 너먼골

'월곡(越谷)' 이라 하여 '산너머 멀리에 있는 골짜기' 란 뜻이다. 두만 2리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 오얏골

두만 2리 남쪽으로 대전시와 경계되는 곳이다. '죄진 골짜기' 란 뜻에서 유래되었다.

■ 천곡(泉谷)

두만 2리 남쪽 너먼골 밑이다.

이곳에 샘이 있어서 샘골(泉谷)이라 부른다.

■ 수리산

'산이 독수리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산 정상에서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기도 했으며 이곳에는 샘도 있다.

■ 와룡산(臥龍山)

용이 누워있는 형국의 산으로 마을앞(서쪽)에 위치해 있다. 용담리에 있는 용기공장 자리가 용머리에 해당된다.

■ 노루바위

오얏골에 있는 평평한 바위로 여러 명이 앉아 놀던 바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 삼남대로

마을 앞에 있는 길로 전의에서 유천(대전에 있음)에 이르는 100여리 직로였다. 구한말까지는 이 길을 통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삼도가 통하던 길이다. 삼남의 원님들이 이·취임 행차하던 길이다.

■ 작은 거친목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로서 예전에 고을 원님이 지나다가 거쳐 가는 곳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며, 또 행상인들이 도둑을 만날 정도로 거칠고 험한 곳이란 뜻을 갖기도 한다.

■ 거친목이야기

감성리와 두만리의 경계에 있는 논이다.

작은 거친목과 큰 거친목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걸쳐져(이어져) 있다. 거친목 고개 너머에 천수담이란 논이 있었는데 삼남의 원님이 이곳을 지나(거쳐) 이·취임해오면 임금님은 그 논에 모를 심었느냐고 물어 보았다. 모를 심었으면 그 해에 풍년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들었다. 즉, 천수담으로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었다.

㉞ 용담리(龍潭里)

조선말엽에 공주군 반포면(公州郡 反浦面)으로 변경되었다. 용(龍)이 하늘로 올라간 큰 연못이 있다하여 '비룡소(飛龍沼)'라 하였고 일제시대에 '용담(龍潭)'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비룡소(飛龍沼)

옛날에 맹사성이 이곳에 와서 낚시질을 하다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고 '비룡소'라 지었다 한다.

■ 역태

용담리 마을 앞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북쪽 마을을 역태라 한다.

■ 새말

용담리 마을 앞 국도 1호선을 중심으로 서쪽 마을을 새말이라 한다. 새로 마을이 생겼다하여 '새터말' 혹은 '신대리(新垔)'라 한다. 예전에는 이곳에 역마가 있었다.

■ 한옥골

용담 1리 동쪽마을을 한옥골이라 한다. 예전에는 이곳 마을의 규모가 상당히 컸으며 고을원님까지 살았다.

■ 가자골

마을 북쪽 받기슭에는 마을 입구라는 표시로 백산(白山)이라 쓰인 1m50cm 크기의 돌이 세워져 있는데 한옥골에도 이와 같은 바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가자골에만 남아 있다.

■ 우산봉

용담리 남쪽의 높은 산으로 행정구역상 공주군 반포면에 속한다. 산의 정상에는 무너진 성터의 흔적으로 돌이 흩어져 있다. 이곳을 성재라고 부른다. 공주에서는 송곡리 산성이라 하고, 연기에서는 용담리 산성, 유성에서는 안성산성이라고도 부른다.

■ 성재

옛날 성재 근처에 사이가 좋지 않은 남매가 살았다. 남매는 자랄수록 경쟁심만 더해가게 되던 어느 날 그 경쟁심의 발동으로 내기를 하게 된다. 내기의 내용은 누이는 성재에 성을 쌓는 것이고 오빠는 한양에 올라가 검은 소를 끌고 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기에서 진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엄청난 내기였다. 누이는 재빨리 성재 주의의 돌을 모아 높고 튼튼한 성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또한 오빠도 한양에 올라가 온갖 갖은 일을 도맡아 하여 열심히 일해서 검은 소를 장만하여 용담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남매의 내기를 말리다, 보다 못한 부모는 차라리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가 내기에 이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수시로 딸이 쌓고 있는 성과, 소를 끌러간 아들이 오는 한양 쪽을 바라보곤 하였다. 그런데 딸은 얼마나 힘이 센지 큰 바위를 번쩍번쩍 들어 옮기어 성을 거의 완성시켜 나가는데 한양으로 소 끌러간 아들은 보이지 않고 하여 어머니는 점점 애가 타기 시작했다. 그래서 딸의 성 쌓는 일을 지체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펄펄 끓는 팔죽을 쑤어 성을 쌓고 있는 딸에게로 가져갔다. 딸은 이제 두 서너개의 돌만 옮겨 놓으면 성이 완성되므로 마침 시장하던 차에 잠시 쉴 겸하여 어머니가 가져 온 팔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기 시작했다.

그 때였다. 오빠가 검은 소를 끌고 성재에 들어서며 이겼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딸은 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내기에 진 것을 알고 어머니를 원망하며 그 자리에서 자결하였다 한다.

■ 문바위

성재 밑에 있는 큰 바위로 공주군 반포면에서 금남면 용담리로 들어오거나 용담리에서 반포면으로 지날 때면 으레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대문을 들어서고 나가는 듯 하다 하여 문바위라 부른다.

■ 남아실뜰

용담리 남쪽에 위치하며 연기군과 대덕군 경계지역에 있는 다리에서부터 새말 방앗간까지의 1만 200평 정도의 들을 남아실 뜰이라 부른다.

■ 옹기점

마을 북쪽에 위치하며 5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주위에 옹기를 만들기에 적당한 질 좋은 점토가 많이 나온다. 주원규씨(작고)가 운영하던 것을 주학규씨(현 74세)가 40여년 전에 인수하여 옹기를 생산하다가 92년말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이곳의 가마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산등성이를 타고 설치되었으며 장작을 지퍼서 만든다.

옹기점 서쪽으로 예전에 포도청이 있었다 한다.

■ 언고개

가자골에서 두만 1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언고개라고 하는데 그 고개에 성황당이 있다.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이 돌을 하나 씩 얹어놓고 가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진다.

■ 장고개

용담리에서 남쪽으로 1번국도를 돌아가면 용담 1리로 넘어오는 고개가 있는데 이곳을 장고개라 한다.

■ 생기터

옹기점 뒤에 있는 산을 생기터라고 한다.

■ 역마

조선시대에는 용담에서 서쪽으로 반포가는 길이 큰 길이었다. 이곳에서 조선시대 통신시설인 역마가 있었으며 현재의 국도 1호는 작은 길이었다.

■ 다랑수

용담리에서 대평리쪽으로 돌아가는 길 앞을 다랑수라 했고 용이 승천했다는 큰 연못이 있었다.

■ 연못

일제시대때 마을회관 마당에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없어졌다.

■ 용기마을

이곳에 가마가 두 개 있고 예전에는 30가구정도 사는 마을이었고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점토만 팔고 있다.

■ 우곡천

마을 앞의 흐르는 내이다.

■ 수평뜰

마을 앞 도로 건너에 있는 들이다.

■ 둥구나무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있다. 한 나무는 200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 용바위

마을 뒷산의 뾰족한 바위로 지금은 돌이 부서져서 작아졌다.

■ 자성사

예전부터 건물이 있었는데 2001년부터 스님이 들어와서 절로 바뀌었다.

■ 보드막재

한옥골 가는 길이 있는 재를 보드막재라 한다.

■ 청정지역

이곳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축사가 없고 청정하다.

그리고 이 마을이 청국장의 원조로 청국장을 빚어서 판다.

■ 산성제

1998년도부터 지내기 시작한 이 제는 유성구, 공주시, 연기군이 돌아가면서 매년 3월 1일 제를 지낸다.

■나마실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나마실이라고 한다.

■ 평촌

마을이 평평하다 해서 평촌이다.

■ 역태

이곳에 역이 있었는데 과거보러 가는 도중 쉬었으며 말을 갈아타고 갔다고 전해진다. 역이 있어서 역태이다.

㉨ 황용리(黃龍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의 명당이 있다해서 풍수설(風水說)에 따라 '동고지' '동그지' 또는 '황용(黃龍)' 이라 불렀다 한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때 연소동·서북리·원각리·대지리를 병합하여 황용리(黃龍里)라고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원황용

동네뒷산(마을서쪽)이 용처럼 굽이굽이 내려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리가 원황용이고 2리가 황용이다.

■ 녀미

황용 1리 중에서 1반에 해당하는 곳을 예전에는 '녀미' 라고 불렀다.

■ 동구지

황용 1리 중에서 2반을 '동구지' 라 한다. 2반은 마을 북서쪽 농협 있는 곳이다.

■ 큰골

동네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매우 크다라는 뜻에서 '큰골' 이라 하였다. 장마가 지면 골이 커서 물이 많이 내려온다.

■ 쪽지박골

동네 북쪽 큰골 등 너머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이 좁다는 뜻이다.

■ 어덕미

마을 남쪽에 있는 들이다. 전하는 말로는 어덕미들 옆에 큰 동구나마가 있어 거기에 어린아이 시체를 매달아 짐승(새)등이 먹게 하였다. 옛날에는 돌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 죽은 아이의 병이, 새가 쪼아먹고 멀리 날아가면 없어진다고 믿었으며 이것을 '덕대' 라 했다.

■ 비뿔배기

마을 서쪽에 있다. 예전에 성황당과 큰 소나무가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돌을 올려놓았다고 한다.

■ 중미산

마을 앞(남쪽)쪽에 있는 작은 산으로 기왓장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예전에는 기왓장을 주워다가 부수어서 낫그릇을 닦는데 사용하였다.

■ 팽나무

농첩 뒤쪽에 500여년 된 팽나무가 있는데, 1년 농사를 점 지어준다고 믿었다. 봄에 나무줄기가 한꺼번에 확 피면 풍년이고, 그렇지 않고 부분부분 피면 흉년이라 한다.

■ 어덕네 툼병

어덕네 둥구나무 있는 곳에 예전에 툼병이 있었는데 물고기는 많았으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도깨비가 물고기를 잡아가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삼성천(三省川)

동네 앞을 흐르는 작은 천으로 예전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한 곳에서 합쳐진다.

■ 방축골

동고지의 동남쪽에 위치하며 방축 있는 골하당이어서 이렇게 칭한다.
금 광산이 일제시대에 많았다. 6·25이후 간첩의 은거지가 될 것을 염려하여 다 메웠다.

■ 무정골

황용 1리 남서쪽에 위치한다.

■ 삼박골

황용 1리 동남쪽, 영대리 위쪽에 위치한다.

■ 초정골

마을 동쪽 초정약수가 나오는 곳이다.

■ 닭미

황용 2리 서편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산의 모양이 닭 같다하여 '닭미' 라고 부른다. 또한 '서복' 이라고도 부르는데 부락 서산이 고행(鼓形)이어서 고(鼓)자를 복(卜)자로 해서 서복(西卜)이라 부른다.

■ 용미

황용리에 있는 마을 뒷산이 용(龍)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 하여 '용미'라 불렀다. '낙미'라 부르던 때도 있었다.

■ 큰골

동고지 옆에 있는 큰 골짜기를 '큰골'이라 부른다. 옛날 어떤 풍수가가 이 산 골짜기에 명당의 큰골이 여기에 있다해서 '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항각골

큰골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의 지형이 마치 항아리 그릇모양이라 해서 '항각동(尙角洞)'이라 부르다가 다시 '항아리골'이라 부르기도 했고, 변해서 '항각골'이라 했다.

현재 4가구가 살고 있다.

■ 돼지동

서북에서 남쪽에 있는 자연부락으로 '돼지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샘이 있다.

■ 절골

마을 남쪽에 절이 있는 곳이다. 현재 '만수사'라는 사찰이 있다.

■ 개구리

마을 북쪽으로 산의 형세가 개 주둥이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2가구가 살고 있다.

■ 사장재

마을 동북쪽에 있다.

현재 2가구가 살고 있다.

■ 제비족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뱀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뱀처럼 길쭉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방채골

마을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옛날에 금을 캐던 구덩이가 있었는데 현재 구덩이는 메워진 상태이다.

■ 고래실

마을에서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잠뱅이

마을 남쪽 고래실 옆 고랑이다.

■ 참나무배미

마을의 동쪽을 가리킨다.

■ 덕정미

마을에서 서남쪽에 있다.

■ 서북

현 황용 2리 마을을 가리킨다.

■ 날망고개

담미에서 서북으로 넘어오는 고개를 말한다.

■ 개안고래

동네에서 동쪽에 있다. 작은 들판이란 뜻이다.

■ 날근터

마을 동북간에 위치한다.

■ 말랑고개

서북의 북쪽에 위치한 고개로, 고개를 넘으면 당리가 나온다.

■ 구렁고개

서북의 동쪽에 있는 고개로, 서당리로 넘어간다.

㉞ 영대리(永垓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에 속했었다.

동네가 10리가 넘도록 길다고 하여 영대(永垓)라고 불렀으며 길이 빛날 터라하여 영대리(永垓里)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연기군 금남면에 속했다.

■ 둔대(屯垓)

양둔대는 영대국교에서 남쪽으로 오르면 두 갈래 길이 있다. 두 길에서 밤절쪽이 음지라 하여 음둔대라 하고, 그 건너편 마을이 양둔대라고 한다.

고려때 거란의 군사들이 침입하여, 진을 쳤던 곳이다. 군사들이 진을 쳤던 자리라하여 '둔대(屯垓)'라 부르며 '우려울'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 우려울

영대리에서 가장 큰 마을에 영대초등학교가 있다. 마을 옆의 시냇물이 여울진 소리를 내면서 흐른다하여 '우려울'이라 부른다. '명탄' '명촌'이라고도 부르는데 전에 공주군 명탄면의 소재지였기 때문이다.

■ 기와굴명

영대 2리에서 남쪽 산을 지칭하며 옛날에 이 곳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한다.

■ 검배

검배 위쪽에 바위가 여러 개 있는데 모두 검은 색이다. 바위가 검다 해서 '검바위'라 부르며 검은 바위 아래에 마을이 있다 하여 '검배' '검암'이라고도 부른다.

■ 삼박골

옛날부터 삼을 많이 심었다하여 처음엔 '삼밭골'이라 부르다가 '삼마곡' '신대'라고 바꿔 부르다가 '삼박골'이라 고정되었다.

■ 계량리

삼박골 위에 있는 마을로, 이 곳에서 계자(芥子)가 많이 나왔다하여 '계량리'라 불렀는데 '지렁이' '계렁이'라고도 부른다.

■ 서당골

삼박골과 계량리 중간지점을 이야기한다. 예전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 정상에 집을 짓고 그 곳에서 학동들을 가르쳤으며 현재에는 민가가 없다. 동녘의, 2리 마을회관의 서북쪽에 있다.

■ 원뱀이

영대초등학교에서 남서쪽으로 오르면 계량리 위쪽을 '원뱀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민가 가한 채 있었는데 현재는 없다.

■ 서태

1리의 자연부락으로 양둔대 동남간에 위치하며, 8호가 살고있다.
음둔대를 지칭한다. 서쪽에 있는 둔대라 '서태'라 한다.

■ 이경억묘

원래는 경기도에 있었다. 1914년 이곳으로 이장해 왔다. 예전에는 묘의 앞에 마을 사람 모두가 놀이를 할 정도로 큰 정자나무가 있었다. 그 정자나무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마을이 기와집으로 꼭 차게 보였고, 동네에서 소 잡는 광경을 이곳 정자에서 보고 내려가면 못 찾을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경억의 묘를 쓰기위해 정자나무를 베었는데 난데없이 베인 나무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 놀랐다고 한다. 그 후 이상하게 이곳 마을 사람들이 한집 한집 떠나기 시작하더니 현재는 몇 집 안 남았다.

이경억의 묘를 경기도에서 이곳으로 옮겨올 때 기차로 옮겨왔는데 부강역에서 내려 배에 실고 나루를 건너 이곳으로 운반 하기까지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묘자리를 잡고서 묘석이나 집의 기둥, 기와 등을 기차에 실고 부강으로 내려오는데 왜군 순사가 경계를 붙일 정도로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묘석을 산으로 옮길 때에는 동원된 사람들에게 지휘자가 회초리를 휘두르면서 험하게 다루었다 한다. 이경억이 살던 집 또한 뜰에서 같이 실고 왔는데 그의 후손인 이상열이 낭비가 심하여 논밭을 하나하나 팔더니 결국 물려 내려오던 지봉의 기와마저 옆 동네에 팔아 김석인 씨 가옥에는 이경억이 살던 집에서 뜰어온 기와를 올렸다.

묘를 이장하기 전에 서울지관과 시골지관이 묘자리를 잡으러 다녔다. 시골지관은 현 묘자리 위에다 잡았고 서울지관은 현위치를 잡았다. 묘를 쓰고 묘에서 주위를 둘러 보이는 곳까지 이경억 후손의 땅이 되었다. 이경억은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냈다.

■ 버드나무

서천 앞에 있는 나무로 수령이 400~500여년 되었다.

■ 팽나무

삼박골앞과 둔대앞에 있다. 수령이 오래 되었다.

■ 금병산

밤절 있는 산을 지칭한다.

■ 유대장

이정승(이경억)묘가 영대리로 들어온 후 유대장 묘도 이곳으로 이장해 왔다. 현재 마을 서북쪽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군절도사를 지냈다. 충청도 수군절도사 때에 반역에 몰려 처형을 당했는데 처형 후 역적이 아닌 것이 밝혀져 이곳에 묘를 쓰도록 허락을 받았으며 당시 머리만 같다가 묘를 썼다. 묘를 쓰고 동네 가운데 흐르는 냇가를 경계로 동쪽은 이경억 후손이, 서쪽은 유대장 후손이 차지하게 되었다.

■ 서대산

황용리 뒤쪽의 산으로 금병산 줄기이다. 마을에서 서쪽에 있는 산이다.

■ 쌀바위

삼박골에서 계량이 위에 있는 바위를 지칭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먹을것이 없어 자식들이 굶고있는 것을 보다 못해 음식을 구하려고 집을 나섰다. 동네에 가서 구걸을 했으나 그해는 흉년이 들어 동네사람 모두 형편이 어려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만 겨울이 깊을수록 인색할 수 밖에 없었다. 눈은 발 아래까지 푹푹 빠지고 아이들 갖다줄 음식은 구하지 못하여 허탈함에 집을 향하는데 며칠을 못 먹어 허기진데다 동네를 다녔으니 기운이 없어 눈에 그만 고꾸라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꿈속에서 하얀 수염이 펴려있는 할아버지가 나타나 그에게 정신차리라 하더니 따라오라 하여 할아버지를 따라갔다. 조금 가던 노인은 바위를 가리키고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러한 꿈을 꾸고 정신을 차린 후, 노인이 가르쳐준 바위를 찾아가 살펴보니 바위밑에 쌀이 한 포대 쯤 나와 있었다. 얼른 주워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밥을 지어 주고는 다음날 또 그곳에 가보니 어제 나왔던 만큼의 쌀이 나왔다. 그 날부터 일정한 양의 쌀이 계속 나와서 가족들은 굶주린 날이 없었다. 어느날 부인이 쌀을 가지러 그 곳에 가보니 매일 나오던 만큼의 쌀이 나왔다. 그 날은 집에 손님도 왔고 해서 쌀 나오는 곳을 파면 쌀이 더욱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준비한 꼬챙이로 그 곳에 대고 찌르니 갑자기 빨간 피가 주르르 흘렀다. 그 후에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

■ 명석바위

서천에서 삼박골 오르는 길목에 있다. 명석을 깔아놓은 것처럼 넓게 바위가 되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쇠죽이뜰

영대초교 앞을 이야기한다. 들판에서 소와 같이 일하다 이곳에서 소죽을 먹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버드레 뜰

쇠죽이 뜰 앞에 있는 뜰을 이야기한다. 뜰가에 버드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만동

영대에서 대박가는 길목이다. 전해오는 말에는 집들이 많이 들어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청룡안

영대초교에서 남쪽으로 오르면 가장 끝에 위치한 마을이다. 마을 형국이 풍수에서 청룡자리이며 청룡이 누운 형국이라 한다. 여섯 채의 민가가 있다.

■ 백정이고개

청룡안에서 서쪽 산 가운데 고개를 지칭한다. 옛날에는 이 길이 큰 길이었다. 이 고개만 넘으면 금천리 금강대도이다. 예전에 감성리에 장이 크게 섰을 때 이 고개를 넘어서 장보러 다녔으며 산적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가 약탈을 해 감으로 백명이 모여서 넘어가야 안심이 된다하여 백정이 고개라 하였다. 늘 바람이 세게 불어와 '바람재' 라고도 한다.

■ 달갈봉

청룡안에서 동쪽산을 지칭한다. 이 산을 넘으면 밤절이다. 산의 형태가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밤 절

음달둔디 안쪽 금병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 또 산에 밤나무가 무성하나 열매가 열지 않다가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하여 공주로 갈 때 이곳에서 묵었는데 당시 탕기만큼 큰 밤이 열어 진상했더니 인조가 맛있게 먹고 밤절이라 하사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 절이름은 청림사(靑林寺)였다.

1리의 자연부락으로 5집이 살고 있다. 이곳에 옛 고적비와 부도가 있다. 이 부도를 어떤 사람들이 훔쳐가다가 걸려서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한다.

홍살문에 돌로 된 구멍이 2개 있는데 거기에서 구멍을 통해 보이는 지역은 다 밤절의 소유였다 한다.

■ 고추나무골

2리 마을회관 서쪽을 말한다.

■ 미주울

2리 마을회관의 동쪽을 말한다.

■ 상춘

2리 마을회관의 남쪽을 말한다.

■ 복골

상춘 너머, 2리 마을회관 남쪽이다.

■ 기와울명

1리 마을회관 서쪽, 고추나뭇골 옆이다.

㉟ 달전리(達田里)

조선시대 많은 풍류객(風流客)들이 쉬어갔던 곳이다. 산막(山幕)이 많았었다 한다.

마을 앞산이 반달같이 생겼다하여 '달밭' 또는 '월전(月田)' 이라 하였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전리(達田里)' 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鳴灘面)의 지역이었다.

■ 12달전

달전리의 마을이 12개마을로 형성됐다는 뜻이다. 12달전은 원달전, 닭재, 성동, 지루고개, 원당이, 홍개터골, 망골, 신기, 광중터, 안산, 옷골, 삼넙어를 말한다.

■ 닭 재

마을회관 있는 곳을 지칭한다. 마을 뒷산이 마치 닭이 알을 품고있는 형국(금계포란)의 명당자리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성동

달밭 위쪽에 있는 마을을 성동(聖洞)이라 부른다. 예전에 성대감이 이 곳에서 살았는데 성인(聖人)처럼 성품이 고와서 성동이라 불렀다. '승동' 이라고도 한다.

■ 지루고개

영대에서 달전리 넘어오는 고개를 지루고개라 한다. 고개가 길어서 가기가 지루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개 오른쪽에 서너 채의 민가가 있다.

■ 원당이

마을에서 남쪽 가장 끝에 있는 마을이다.

창녕성씨 제당이 있으며 종산묘가 있다. 이 제당에서 남서쪽에 민가가 하나 있는데 이곳에 원씨라는 큰부자가 살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 앞 바위에는 성씨들이 거처를 정했다는 내용의 문귀가 새겨진 바위가 서 있다. 현재 마을 이장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큰 절이 있었다하여 이곳을 '절골' 이라고도 한다.

■ 홍개터골

절골(원당이) 너머에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서너집이 살았는데 현재는 민가가 한 채 남아있다. 예전에 홍부자가 살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홍가봉' 이라고도 부른다.

■ 망골

달전리에서 동남쪽에 위치한다. 원당이 못 미쳐서 있고, 명종 때의 학자 동주성제원(東州成梯

元)의 묘소가 있다. 현재 민가 네 채가 있다. 원달전에서 바라보면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원달전에 '망묘대' 라고 쓰여 있는 바위가 있다.

■ 신기

원달전 동쪽에 새로된 마을을 '새터말' 이라 한다. 본래 조선때부터 회덕군 구즉면(九則面)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금남면 달전리에 편입되었다. '새터말' '신달전' 이라고도 부른다.

현재 민가가 아홉 채 있다.

■ 광중터

원달전에서 동남쪽 네 채의 민가가 있는 곳이다. 예전에 이 곳에서 묘를 쓰기 위해 구덩이를 팠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산

원달전에서 동남쪽으로 맞은편에 있는 마을이다. 다섯 채의 민가가 있다. 원달전 안에 있는 산이란 뜻이다.

■ 옷골

원달전 북쪽에 위치하며 예전에는 서너 채의 민가가 있었는데 현재는 빈집 한 채 만이 남아있다.

■ 삼넘어

성동과 원당이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원당이 입구에서 우측에 네 채의 민가가 있는 곳이다. 성동의 샘 있는 곳을 넘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골

삼넘어에서 남쪽으로 들판 건너의 외딴집을 방아골이라 하는데 예전에 그곳에 방아가 있었다.

■ 이나주

광중터에서 남쪽으로 들어가면 구즉과 경계지역에 있다. 현재 외딴집 한 채가 있다.

조선시대 이씨(李氏)라는 사람이 나주벼슬을 하였다. 이씨(李氏)의 성(姓)과 그의 벼슬을 따서 '이나주' 라 부른다.

■ 옥정봉(玉井峯)

원달전 뒤에 있는 산을 옥정봉(玉井峯)이라 한다. 옥정봉 밑에 '병산사' 가 있고 병산사 앞에 있는 우물을 옥정(玉井)이라 한다. 병산사는 구한말 성기운 선생님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다.

■ 장승백이

원달전에서 동쪽 들판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 장승이 서 있어 장승제도 올렸는데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사업전개로 미신타파때 없었다.

■ 소정(小井)이

원당이 가기 전 들판을 이야기한다. 예전에 이곳에 작은 웅달샘이 있었다.

■ 봉사샘

원당이에 있는 샘으로 예전에 눈봉사가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니 눈이 나아 앞을 보았기 때문에 봉사샘이라 부른다.

■ 밤망골

닭재 앞에 있는 들판을 이야기한다. 예전부터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망골

밤망골 남쪽에 있는 들판을 이야기한다.

■ 오룽개골

홍개터골로 오르는 우측에 있다. 오르막길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숙바위

이나주 윗편에 있는 바위라 숙바위이다.

■ 어정골

마을 남쪽을 말하는데 집터가 있다.

㉨ 대박리(大朴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鳴灘面)에 속해 있었다가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박리(大朴里)라고 하여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이 곳 산의 모양이 함박꽃과 같다하여 '함박금이' 즉, 큰 마을이란 뜻에서 '대박'이라 부르다가 '대박리(大朴里)'라 부르게 되었다.

■ 초정골

'초정골' '초정장터' '신촌'이라고도 부른다. 마을의 북쪽에 있으며 새로 형성된 마을이다. 초정이 있어 음력 8월이 되면 물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섰다고 한다.

■ 초정약터

'초정골' 냇가에 있는 새 우물을 초정약수터라 부른다. 물맛이 싸아하고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하여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이 많다.

■ 사기점골

'함박금이' 뒷골짜기를 '사기점골' 이라 부른다. 그릇 굽기에 적당한 흙이 많이 나와서 많은 그릇을 구어 냈는데 여기서 산출되는 그릇은 널리 알려졌다고 한다.

이곳을 서낭대이라고도 부른다. 1998년도에 기도원이 들어와 있다.

■ 꽃산

마을 뒷산을 지칭한다. 좌측은 꽃산, 우측은 삼방들이라 부르는데 이 산을 대박산 혹은 함박산이라 한다.

■ 신질바위

마을에서 광덕사로 오르다보면 중턱에 삼방들 쪽으로 큰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길이가 길어 신질바위라 불리운다.

■ 잇말

마을에서 남동쪽인 유성쪽으로 있는 마을을 가리킨다.

■ 아랫말

현재 대박리를 가리킨다.

■ 유고베이

동네에서 북쪽으로 초정리 못 미쳐 들판을 이야기한다.

■ 구렁대이

동네 앞을 일컬어 구룡(九龍), 아홉 마리의 용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형국이란 뜻으로 명당이다.

■ 진뜰

구렁대이 못 미처에 있는 뜰을 이야기한다.

■ 내께

구렁대이에서 신탄진쪽의 들을 이야기한다.

■ 오리뜰

내께 위에 있으며 신탄진쪽이다.

■ 영모재

경주김씨 사당이다. 생천공파 종중제실로 뒷골에 있다.

■ 쓰레바위

신질바위 아래에 말바위, 탕건바위, 장군바위, 가마바위 등이 있다.

■ 도깨비터

마을 남쪽에 교회가 있다. 그 교회 자리에 도깨비가 많이 살았다하여 도깨비터라고 부른다.

예전에 이 마을에 도깨비 들린 사람이 많았다. 도깨비를 떼어 내려고 굿을 많이 하였으며 나온 사람도 많았다. 도깨비 들린 사람은 이런 증세를 보인다. 산, 들로 돌아다니며 그 사람을 붙잡아서 꼭 매달아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60여년 전에 이용기씨가 그곳 집에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도깨비 들려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고 산으로 들로 쓰다녔다. 하는 수 없이 아이는 큰 어머니가 말아 길렀지만 어머니에게 도깨비 쫓을 굿을 하여 낮게 할 돈이 없었다. 동네회의를 열어 마을 주민들이 성심성의껏 모금하기로 결정지어 굿을 하기 시작했다. 삼일 굿이 끝나자 도깨비 증상을 보였던 어머니가 깨끗이 나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옷말로 이사하여 살았으며 도깨비터는 교회를 지어 터를 누르니 현재는 도깨비 걸린 사람이 없다.

■ 절골

마을에서 광덕사로 오르다보면 산중턱에 오래 묵은 소나무가 있다. 그 주변이 밭처럼 되어있는데 이 곳을 절골이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절이 있었다하고 이곳 주위에서 기와편과 도자기편이 출토되고 있다.

■ 도장골

만동이라고도 불렀는데 많은 이가 집을 짓고 살았다하여 만인동이라고 한다.

■ 피꼬리봉

피꼬리봉에 주석 광산이 있었는데 미군통신 부대가 피꼬리봉으로 들어서려 했는데 주석으로 인한 잡음관계로 이곳에 부대가 들어오지 못했다.

■ 치마바위

초정골에 있는데 바위 두 개가 엮어져 있다.

■ 버드렛들

구렁덩이 앞 들을 말한다.

■ 손바닥 바위

삼방돌 밑에 넓직한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사람 손바닥 같은 모양으로 파여져 있다.

㉞ 박산리(朴山里)

뒷산에 박참판(朴參判)의 묘소(墓所)가 있어서 박산(朴山)이라 불리워왔고 또한 산모양이 작약과 같이 생겼다하여 '작약골'이라 불렀었다. 1914년 행정 개편에 따라 회덕군 구즉면의 '신동리' 일부를 병합하여 '박산리(朴山里)'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장동

현 박산리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을 장동이라 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살다가 지금의 박산리로 한 집 이사오더니 현재는 장동에 인가가 없고 박산리에 현 마을이 형성되어 번창했다.

■ 작약동

예전에 이 곳을 공주군 탄천면 작약동이라 했다. 작약은 함박꽃을 지칭하는 말로 마을 뒷산의 형국이 함박꽃이 필려고 몽우리진 형국에서 나온 말이다.

■ 고래뜰

마을앞의 들판을 지칭한다.

■ 박산

밀양박씨인 박판서의 묘가 이곳에 있었다. 박판서의 묘를 산에 써서 박산이라 했다고 하기도 하고, 함박꽃처럼 생겨서 박산이라 했다는 말이 전한다. 박판서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현재에는 없다.

■ 샷갯쟁이 골목

마을에서 남서쪽에 있는 달전리 가는쪽을 지칭한다. 모습이 샷갯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사가리

샷갯쟁이 옆을 지칭한다.

■ 부엉골

고래뜰에서 북쪽의 골을 지칭한다. 모습이 부엉이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 독작골

부엉골 옆에 있다. 독작(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안양굴명

독작골에서 북쪽으로 옆에 있는 곳이다. 예전에 부강으로 배 타러 넘어가는 길목이다.

■ 삼박골

마을에서 동쪽을 지칭한다. 산에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불백골

산박골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면 바위에 큰 굴이 있는데 그 굴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았었다. 구렁이가 살기전에 호랑이가 살았다하여 호랑이골이라 했다.

■ 절터

불백골 밑을 지칭한다. 예전에 이곳에 큰절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에도 절의 담을 돌로 쌓았던 흔적이 그대로 있다.

■ 천자봉

피꼬리봉에서 금강쪽으로 있는 봉우리를 천자봉이라 한다. 모습이 위엄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군봉

천자봉의 북쪽에 있다. 예전에 장군이 이곳에서 지휘를 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신성봉

장군봉에서 북쪽으로 부용리에 있는 봉우리이다.

■ 소문산성

박산 동남쪽 대덕군 신동리 뒷산이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쌓았고 토성위에 석축을 했다. 당시 싸움을 할 때 연개소문이 활보다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고 한다. 산성안에 깊이가 백자가 넘는 깊은 우물이 있는데 현재는 메워져 한 길도 안된다. 어른들 말로는 명주 한 꾸러미가 다 들어갔다 했다.

■ 사가리산

박산에서 남쪽의 앞산을 이야기한다.

■ 팽나무

현재 마을 한가운데 있으며 수령이 400여년 됐다.

■ 나븐들바위

반반한 바위가 나븐들고개 양쪽에 있었다. 이 바위는 이여송이 산맥을 둘러 동네의 혈을 누르기 위해 세웠는데 1985년도쯤에 신작로가 나면서 사라졌다.

■ 옷샘

탕고래(초정골)에 박산리샘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 안태

안서방네가 살았으나, 지금은 논이다.

■ 영떠지기

마을 동남쪽 안태 너머를 말한다.

■ 중량골

마을 동쪽 삼박골 옆을 말한다.

■ 색시골

절터 너머를 말한다.

■ 윗사거리, 아랫사거리

사거리산에 있는 골을 말한다.

■ 달해동굴

사거리산 밑에 위치한다.

■ 탑제

마을입구 참나무 밑과 마을 동남간에 2개가 있었는데 정월 14일 저녁에 제를 올렸다.

㉞ 축산리(丑山里)

조선말엽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하였다가 이곳엔 '추리산'이 있으므로 한자(漢字)로 옮겨 '추산'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축산'이 되고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축산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축산리

예전에는 독수리 축자를 써서 '축산'이라 하다가, 일제시대부터 소축자를 써서 오늘에 이르고 있

다. 수리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 구령말(九龍)

축산 건너 구석에 있는 마을이다. 구룡정주형(九龍淨珠形)의 명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아홉 마리의 용이 승천하는 형국이다.

■ 바깥봉천

축산리에서 금천리 금강대도 입구 남쪽 산중턱에 있는 마을이다. 법성암과 용바위가 있다.

■ 안봉천

바깥 봉천에서 동쪽으로 골을 따라가면 대광사 못 미처에 서너 채의 민가가 있다. 이곳을 안봉천이라 한다. 황새미 아래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해서 봉천(鳳川)이라 했다.

■ 용수불

축산에서 금강대로 쪽으로 방앗간이 있고 일곱 채의 민가가 있는 곳을 지칭한다.

■ 느실

축산입구 정자에서 북쪽 마을을 지칭한다. 처음에는 판들이라 했다가 늘실에서 느실로 변하였다. 여우형의 명당자리가 있어 여실이라고도 했다.

■ 용꼬리

송장날이라고도 한다. 이곳의 여우가 송장을 파먹는 형국이라 한다. 현재 느티나무 정자가 있는 곳이다.

■ 구석골

축산리에서 서쪽 마을을 가리킨다. 송림사가 있는 곳이다.

■ 서당골

예전에 남쪽 수리산 밑에 서당이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기와 편이 출토된다.

■ 벼락제

수리산 밑에 위치하며 와우형의 묘자리가 있다.

■ 신선바위

안봉천 금병산 대광사 내에 있는 바위이다. 대광사 주지가 7여년 간에 걸쳐 미륵부처를 조성하였으며 아래에 있는 바위를 지칭한다.

■ 책바위

하봉천에 있는 바위이다.

■ 복치혈 명당

축산리 뒷산 매봉재 건너편을 지칭한다.

■ 느티나무 정자

마을입구에 서 있는 정자이다. 그 곳에 돌을 세우고 글을 써 놓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좌측으로는 소나무가 사계절 푸르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곳에서 쉬어간다.'

■ 장판

배말뚝 자리이며 옛날에 공놀이를 하던 곳이다.

■ 삼실

고도실, 느실, 지죽실을 3실이라 한다.

■ 송장날

축산리 정자까지 내려오는 산자락으로 장메와 7매가 있다.

■ 황새봉

정자 앞에 보이는 산 이름이다.

■ 등림정

지금 정자 맞은편에 등나무가 있었는데 넝쿨이 엉키면 동네가 좋지않다 하여 없애고 비석만 남아있다.

■ 용봉정

축산리의 정자로 구룡과 봉천을 합해서 지은 이름이고 1995년도에 지었다.

■ 느실

박씨들이 살던곳이라 하여 박촌이라고도 하며, 이곳이 판판해서 판곡이라고도 한다.

■ 절터편돈

수리산에 있으며 옛날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터편돈이다.

■ 령말앞 고개

이 고개로 상여가 넘어가면 축산리 마을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상여를 못 넘어가게 하여 두만리 사람들과 싸움이 나서 소송까지 한 일이 있다.

■ 옷나무골 고개

영치리와 축산리의 경계로 옷나무가 많아서 옷나무골 고개라 하였고 이 고개를 넘어 대평리로 갔으며 이곳에 서낭당도 있었다.

■ 가재뜰

마을 내 건너에 있는 들로 가재형 밑에 있는 들이라 하여 가재뜰이라 하였다.
이 가재형에 신씨네 묘가 있는데 가재가 새끼를 낳으면 어미가 죽는다고 하여 신씨네 사람들이 장수를 하지 못했다 한다.

㉞ 금천리(金川里)

조선 말엽에는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다가 서기 1914년에 청사동·학봉리를 병합하여 '금천리(金川里)'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 지대는 소가 누운 형국(形局)의 명당이라 하여 옛날엔 소내, 우계(牛系)라 부르던 곳인데 변하여 '쇠내' '금천(金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 소내

금천리의 옛 이름이다.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의 명당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 금천 2리 중방 부근에서 일제시대 때 금을 캐다고 하여 '소내가' '쇠내' '금천(金川)'으로 지명이 바뀌었다.

■ 암소

금강대도 안 남쪽이 원금천인데 이곳의 형국이 암소와 같다. 암소의 심장이 금강대도 3대 도조 집무실(사택) 부분이며, 집무실에서 남쪽 산 위에 빨바위가 있고 '질마재' 고개가 있다.

■ 황소

금강대도에서 서쪽산의 형태가 황소의 형국이다. 금천리 앞을 흐르는 냇가 건너에 있으며 소코 바위가 있다.

■ 금병산

금천리 남쪽에서 남서쪽까지 뻗어있는 산을 금병산이라 하는데 금으로 만든 병풍이 쳐져있는 형국이다. 금병산 앞산을 고깔봉이라 하기도 하고 소가 끄는 극징이라 하기도 한다. 금병산은 씨레

를 상징한다. 대전이 한발이며 큰발을 소가 극징이로 같고 씨레질 한다는 형국이다.

■ 꼬갈봉

금병산 앞에 뾰족한 산이 꼬갈처럼 생겼다 하여 꼬갈봉이라 하고, 일명 '극징이' 라고도 한다. 금강대도가 이 곳에 터를 잡기 이전에는 '메봉재' 라고 불렀다.

■ 쇠꼴

금강대도에서 북쪽 방향의 꼴을 이야기한다. 소가 먹는 풀이 그곳에 많다는 뜻이다. 금계포란(닭이 알을 품는 형국)의 명당자리가 있다 한다.

■ 백중재

금강대도에서 동북방향의 산을 지칭한다. 소를 잡는 백정이 서 있는 형국이다. 금강대도가 들어 오기 전에는 '백령재' 라 불렀는데 그것은 그곳이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백명이 모여야 무사히 넘어 간다는 뜻이다.

■ 성인봉

금강대도에서 남쪽을 가리킨다. 성인군자들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 현인동

금강대도 본원의 자리를 지칭한다. '황세미' 라 부르기도 하며 학이 교미하는 형국이라 한다. 금강대도 뒷산의 형국이 학의 등허리이며 학의 머리가 북쪽으로 뻗어있다. 또한 학이 이곳에 앉으려 다 말고 감성리로 날아가 앉았다는 말이 있으며, 황세미·학봉을 합해서 '황학동' 이라한다.

■ 대현동

원금천은 대성동이고 현 금강대도 본원은 대현동이라 한다.
원금천은 큰 성인이 살고 대현동은 어진 사람이 사는 곳이란 뜻이다.

■ 송아지 바위

원금천리에 있는 금강대도 도주 사택의 동쪽에 대형 비석이 있고 그 앞의 우물에서 물이 나오며 그 앞에 송아지 형국의 바위가 젖을 먹는 형국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우복동' 이라하여 몇 채의 민가가 있었는데 금강대도의 대형 비를 세우면서 이주하였다.

원래는 앞의 향나무에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이곳으로 나오게 했다.

■ 옥화촌

원금천리를 지칭하며 옥이 빛난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금화산

금화산은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산이다. 용화세계란 계룡산의 용(龍)자를 따고 금화산의 “화(華)”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이것은 미륵부처님이 오는 세계를 일컫는다.

■ 용수샘

금천 1리에서 영치가는 길가에 뜰이 하나 있는데 그 뜰안에 샘이 두 개 있다. 큰 용수샘과 작은 용수샘이라 하고 큰 용수샘은 깊이가 끝이 없다 한다. 용이 승천한 곳이라 하여 용수샘이라 한다

■ 선유암

금강대도 동쪽의 흐르는 물에 큰 바위가 있는데 예전에 신선이 내려와 놀던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선유암’이란 글이 새겨져 있다.

■ 계란봉

봉우리가 계란처럼 생겨서 계란봉이라 한다.

■ 목탁봉

목탁처럼 생겨서 목탁봉이라 한다.

■ 수양산

해가 뜨면 제일먼저 해가 비춘다 해서 수양산이라고 한다.

■ 새꼬바위

수양산 밑의 바위로 소의 꼬처럼 생겼다 해서 새꼬바위이며, 이 바위는 옛날에 쌀이 나오던 바위라고 한다. 손님이 방문하면 사람 수 만큼의 쌀이 바위에서 나오고 평상시에는 식구 수만큼 쌀이 나왔다 한다.

■ 소뿔바위

금화산에 있는 바위이다.

■ 치알봉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며 산의 형태가 치알을 쳐놓은 것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천 2리를 먹을 것이 많은 마을이라 한다. 그것은 치알봉처럼 치알을 쳐 놓은 속에는 음식이 많이 차려진다는 이야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 야상골

동네 남쪽 매봉재 밑에 있으며 야상골(也)이라 한다. 그것은 형국이 이제야(也)자처럼 생겨져 붙여진 이름이다.

■ 무너미골

금병산에 있는 고개이름이다. 그 곳을 넘으면 기계창이 나온다. 기계창으로 넘어가는 물흐수가 문혀있다.

■ 증방리

예전부터 금을 캔 곳이며 90년도 초까지 이 곳에서 금을 캐다고 한다.

■ 쇠말바위

작은 쇠말바위, 큰 쇠말바위가 있는데 그곳에 쇠를 놓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하여 예전부터 쇠조각을 갖다 놓았다 한다.

■ 청절

금천 2리 마을 북쪽을 가리킨다. 예전에 이 곳에 청사(靑寺)라는 절이 있었다 한다. 현재는 절이 없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무내미골

마을 안쪽으로 무내미라는 마을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증뱅이

뫼산고개 너머 5가구 정도 사는곳을 말한다.

■ 광대뜰

마을 안쪽 논을 말한다.

■ 김정정굴

화골산에 있는 조그마한 굴로 옛날 난리가 났을때 김씨하고 정씨가 이곳으로 피난왔다가 같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김정정굴이라고 한다.

■ 소반바위

증골에 있는 바위이다.

■ 새말바위

증골에 있는 바위로 옛날 이곳에 엽전같은 쇠붙이가 많이 있었다.

㉟ 영치리(永峙里)

조선말엽까지 공주군 양야리면에 속했었다.

영재라는 고개가 있으므로 '영재' 또는 '영티' 라 부르다가 '영치리(永峙里)' 가 되었는데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괴목(槐木)

영치리 내동에 있는 괴목이다. 수명(樹命)이 500년으로 추정되는 이 나무는 나무에 상처를 입으면 몇날 며칠을 우는 소리를 낸다한다.

조선말엽에 한 번 벼락이 떨어져서 나뭇가지가 잘라졌는데 나무에서 우는 소리가 나므로 마을 사람들이 그 가지를 바로 받쳐주웠더니 나뭇가지가 살아났으며 우는 소리가 끊겼다 한다.

■ 부처골

영치리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절이 있었다하여 '부처골' 이라 부른다. '불곡(佛谷)' 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5층석탑이 있다.

■ 사양골

부처골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 양야리면이었으나 명탄면과 횡사지점(橫斜地點)에 있었으므로 사양(斜陽)이라 불렀다 한다. '사양' '사양골' 이라 불렀으며 일제시대에는 '사양(砂陽)' 이라고도 불렀다.

■ 안골

영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막바지로 깊숙이 들어가 있다 해서 '안골' '와룡동' 이라 부른다. 여기에 와룡배주형(臥龍弄珠形)의 명당이 있다 한다.

■ 와룡동

안골에서 동쪽으로 서너 채의 민가가 있는데 그 곳 뒷산이 용이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와룡동' 이라 한다.

■ 고시미재

와룡동 뒷산을 고시미재라 부른다. 장군바위가 있다.

■ 영웅봉

와룡동 동남쪽의 산으로 노적바위가 있다. 봉화자리가 있어 그곳을 파보면 검은 숯이 나온다.

■ 가나거리

와룡동 입구의 고개를 가나거리라고 한다,

■ 굴바위

와룡동 앞에 큰 바위가 있다. 예전에 큰 굴이 있었다고 하고 그 밑에 약물바위가 있다.

■ 약물바위

옛날에 어느 앓은뱅이가 어렵게 그곳까지 와서 물을 몇 모금 마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약물바위라고 한다.

■ 안내

안골 앞으로 흐르는 내를 지칭한다.

■ 탑골

3층 석탑이 있는 주위를 지칭한다. 이곳에 오래된 기와편이 많이 출토된다.

■ 뒷골

탑골에서 안골쪽으로 있는 골을 지칭한다.

■ 백중재

셋골 뒷편 높은 고개를 ‘백중재’라 하는데 이곳을 넘으면 영대리의 청용안이다. 옛날부터 이곳이 험악하기 때문에 백명이 모여 고개를 넘어야 안심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부처댕이

마을에서 북쪽에 있는 고개를 지칭하며 이곳을 넘으면 남곡리가 나온다.

■ 바람골

부처댕이에서 동쪽의 골을 지칭한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뒤에 깊어지는 것을 바랭이라고 한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목탁봉

마을에서 북쪽에 있는 작은 봉우리이다. 이곳의 모양이 목탁처럼 생겨서 목탁묘, 목탁봉이라한다.

■ 사양리

마을에서 서남쪽 마을로 비탈진 양지 바른곳에 15호 정도의 빈가가 있는 곳을 생이라고도 부른다.

■ 섬바래

금천리에서 사양리쪽의 산을 문필봉이라 하는데 산의 모양이 붓의 끝처럼 뾰족하게 생겼으며 동네가 문필봉의 영향을 받아 바보가 없고 똑똑한 사람이 많이 난다 한다.

■ 치마바위

마을 앞 백중재 중턱에 있는 바위를 지칭한다. 바위형태가 여자 치마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 납작골

마을입구인 섬바래 위에 있다. 골이 납작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잿논

마을에서 앞 동쪽 샛골 입구에 있는 들판을 지칭한다.

■ 안티골

고시매재 밑을 안티골이라 한다.

■ 꿩논

금천리에서 마을쪽으로 오다 마을 들어서기 전에 우측의 논을 '구억(龜億)논', '꿩논', '구렁논'이라 한다.

■ 용수샘

금천리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개울가에 예전에 못이 두 개 있었는데 그 위를 큰 용수샘,아래를 작은 용수샘이라 하고 이곳에 용의 발자국이 있었다 한다.

못이 깊어서 동네아이들이 여름이면 물놀이 하던 곳이다.

■ 사양

생이라고도 불렀으며 일제시대 때 사양이라 바뀌었다.

■ 지섯골

사양에서 좌측에 있는 골이다.

■ 옷나무골

쪽자골 너머의 골이며 옷나무가 많아서 옷나무골이라 한다.

■ 부처댕이

이곳에 절이 있어서 부처댕이라 한다.

■ 우중골

이곳에 중들이 많이 살았었다하여 우중골이다.

■ 기우제

영웅봉에 가서 제물을 차려놓고 제를 지냈으며, 여자들은 내에서 키로 물을 까불렀다.

■ 수새논

신작로 밑에 있는 논이며 이 논에 물이 많다고 하여 수새논이다.

■ 영재샘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샘으로 이 샘에서 용왕치기 하던 사람도 있다.

■ 백토

평논 위에서 1949년도쯤 백토가 나와 백토를 파다가 질이 좋지 않아 그만두었다.

㉘ 남곡리(南谷里)

원래는 길 옆에 집이 띄엄띄엄 있어서 도독동(道獨洞)이라고 불렸으며 길가에 외롭게 산다는 뜻이다. 물이 남쪽 골짜기에서 흘러오므로 남곡(南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公州郡 鳴灘面)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에 백정 3, 4호가 살았는데 그들을 가르켜 '남산백정'이라 불렀었다.

■ 아래뜸

남곡 들어오는 입구를 지칭하며 현재 열다섯 채의 민가가 있다.
마을회관 동남간에 있는 마을이다.

■ 강변마을

마을 가운데 흐르는 개울을 중심으로 양쪽 민가가 약 열 채 정도가 있다. 개울이 강처럼 많은 물이 흘렀으며 강변가의 마을이란 뜻이다.
마을회관에서 개울을 따라서 왼쪽 다리까지이다.

■ 양야리

동네 남쪽을 가리킨다. 현재 열여섯 채의 민가가 있다. 예전에 마을 입구에 양야리면의 면사무소가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명탄면이라 했다.

■ 못중골

못중골이라 하기 전에는 수락동이라 했는데 그 이유는 물이 떨어지는 폭포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중들이 살았다하여 못중골로 변화였다.

■ 지암재

동네에서 남쪽으로 산을 넘으면 서너 채의 민가가 있는데 그곳을 '지암티' '지암재'라 부른다. 2003년도 현재 1가구가 살고 있다.

■ 양지뜸

동네에서 북쪽 마을을 가리킨다. 민가가 다섯 채 있는데 양지바른 곳에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서대산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을 지칭한다. 금남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이 산을 중심으로 남곡, 황룡, 금천, 영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 안산

마을에서 서쪽에 있는 산을 지칭한다.

■ 고수미재

동네에서 서남쪽을 가리키며 이곳을 넘으면 신촌과 영티리가 나온다. 주위에 와골, 부처당, 바람골이 있고 고수미재를 회심재라고도 한다. 와골에는 웅기 굽던 가마터가 있다.

■ 회심재

고수미재의 옛 이름이다.

■ 매미터골

고수미재 밑에 있는 산이름이다.

'아마터골' '매미터골'이라 부른다. 고개를 넘으면 호탄, 신촌이 나온다.

■ 도덕골

마을입구(황룡에서 들어오는 곳)를 지칭한다.

■ 산정말

도덕골에서 서북쪽에 있는 골이다. 민가가 한 채 있다. 산봉우리에 정자가 있어서 그 아래 마을을 산정말이라 부른다.

■ 재뱅이

돌당에서 남쪽을 지칭하며 예전에 이곳에서 웅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다.

■ 광대고개

용골에서 남쪽의 골을 말하며 이곳을 넘으면 호탄리가 나온다.

■ 호렬재

광대고개의 남쪽에 있다.

■ 우와골

수락동 뒤에 있으며 산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처댕이

개상골 옆에 있다. 주위에 절과 연관된 지명이 많다. 부처댕이를 넘어가면 불곡(영티리)이 나온다.

■ 바랑골

부처댕이 옆에 있다. 이곳을 넘으면 불곡이 나온다.

■ 묵카지

바랑골 옆에 있다. 도덕골과 산수골 옆에 있으며 종이에 먹으로 그린 그림과 연관 있어서 예전에는 '묵화지' 라고 부르다가 변하여 '묵카지' 라 부른다.

■ 원뱀이

묵카지 옆에 있으며 이곳을 넘으면 영대 1리 계량리가 나온다.

■ 불선골

동네에서 남쪽을 이야기한다.

■ 피난골

동네에서 남쪽에 있으며 6·25때 그곳으로 피난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큰골

동네에서 가장 큰 동네를 이야기한다. 부안임씨(扶安林氏)들이 많이 산다.

■ 갯골

양야리 위에 있다. 옆을 신내동골이라 한다.

■ 채독박재

동네 동쪽산 중턱에 밭이 있는 곳 근방을 지칭한다.

■ 청룡골

동네 왼쪽을 지칭한다. 풍수지리상 청룡자리이다.

임씨네 9대조 할아버지(임우길 씨)의 묘에서 보았을 때 좌측에 있다.

■ 고깔바위

동네의 서쪽에 있으며 바위가 고깔모양이다.

㉨ 부용리(芙蓉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초오개동' 과 '봉기리' 일부를 병합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의 연화정수형(蓮花淨水形)의 명당(名堂)이 있는 부용봉(芙蓉峰)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부용봉(芙蓉峰)



금락정

연화정수형(蓮花淨水形)의 명당(名堂)이 있고 해발 222m의 산이다.

부용리 마을 뒤에 있는 산으로서 연꽃이 물에 뜬 형국의 명당이라 해서 명산(名山)으로 꼽힌다. 부용봉 주위에 묘를 쓸 때는 비석이라든지 석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연꽃의 형국인 부용봉이 가라 앉는다하여 전해오는 풍습이다.

■ 초오개(草五介)

부용리의 옛 이름이다. 이곳은 산이 깊어서 약초가 많이 난다. 특히 다섯 가지 약초가 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오개

부용 1리의 옛 이름이다. 부강과 부용리를 잇는 나무를 새오개나무라고 하는데,

■ 허무니고개

봉기리에서 부용 1리로 들어오는 곳을 지칭한다. 옛날 파리를 쫓던 대감이 이곳에 와서 놓치자, 자신의 행동이 허무하다면서 한탄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참새골

참대골이라고도 하며 부용리 앞 높은 산을 지칭한다. 현재 봉정암이 위치하며 암자가 생기기 이전에는 황해도에서 피신하여 온 강택희 훈장이 학동을 가르쳤던 서당이다. 또한 강택희 훈장 아들 또한 글씨를 잘 썼다. 현재 사찰 뒤에 묘가 있다.

■ 초정고개

부용 1리에서 서쪽산에 있는 고개이다. 이곳을 넘으면 초정약수터가 있다.

■ 물방아골

부용리 남쪽 봉잠산 뒤쪽에 위치한다. 예전에 이곳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 구레

부용 1리 앞의 들판을 지칭한다.

■ 장군봉

부용 1리에서 남쪽으로 가장 높은 산을 지칭한다. 산 정상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를 장군봉이라 한다.

■ 새오개나무

1950년대에 부강쪽에서 거주하던 김중철 씨가 사공을 가장 오래했다. 또한 역대 사공중 제일 잘

했다. 이어 오씨 성을 가진 이가 부용리 쪽에 거주하면서 사공을 했으며 마지막 사공은 임씨 성을 가진 이다.

이곳 부용에서 대전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매일 새벽 이곳 나루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가 건너오곤 했는데 1990년 어느날 아침일찍 배를 몰고 건너다 자욱한 안개속에서 배가 뒤집혔다. 사공과 학생은 모두 죽고 그 후에는 나루에 배가 다니지 않았다.

■ 색시골

절골 가는 곳 옆에 있는골로 여자들이 놀던 곳이라 하여 색시골이라 불렀으며 이곳에 물이 흐르는데 이곳에서 용왕치기를 한다.

■ 중성골

절골 옆에 있는 골로 중들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이라 하여 중성골이라 한다.

■ 천자봉

장군봉 위에 있는 봉우리로 장군위에 천자가 있다하여 장군봉 위에 있어 천자봉이라 한다.

■ 고갈바위

금강변에 있던 바위로 이 바위가 물에 잠기면 물이 들어온 거고, 물 위에 나오면 물이 빠진 것이라 한다. 수위를 조절하던 바위이다.

■ 가마바위

참새골에 있는 바위로 가마처럼 생겨서 가마바위라 하며 시집가려면 이 바위 위에 있으라는 말도 있다.

■ 말바위

참새골에 있는 바위로 말처럼 생겼다.

■ 용맹이나루

부용 2리 앞의 나루를 용맹이나루라고 불렀다. 누런 소가 강을 건너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빙이

부용 2리를 빙이라 한다.

■ 간모바위

망심이 밤나무 밭에 있는 바위로 강을 둘러싼 바위라 하여 간모바위이다.

■ 배루개

금락정이 있는곳을 배루개라 한다.

■ 빙이나루터

부강에 장 보러 다닐 때 이용했고 이곳에 소금배도 들어왔다.

■ 질마산

임금님이 말을 타고 내려왔다 하여 질마산이라고 한다.

■ 장승제

음력 정월 14일에 어두울 때 제를 지낸다.

■ 장승백이

마을 초입에 장승이 있는 곳을 장승백이라 한다.



장승백이 장승

㉞ 석교리(石橋里)

옛날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다하여 '돌다리'라 하였는데 변하여 '석교리(石橋里)'라 하였다. 백제(百濟)때는 소비포현(所比浦縣)에 속했으며 고려때는 공주목에 속해 있다가 조선 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 지역이었다.

현재는 금남면 석교리라고 부른다.

■ 신촌(新村)

돌다리 앞에 새로 생긴 마을이다. '새말'이라고도 부른다.

■ 돌다리

신촌 뒤에 있는 마을이다. 석교(石橋)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돌로 놓은 다리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는 큰 콘크리트 다리가 없었고 강을 건너기 위해 아낙네들이 합심해서 돌로 징검다리를 놓고 다녔다. 그래서 돌다리라 하였다.

■ 큰굴

괴화산 중턱에 있는 굴이다.

굴안이 약 10평 정도 되는데 굴 끝이 금강(錦江)으로 닿는다. 또는 석삼 까지 뚫려있어 연기를 피우면 그곳에서(석삼) 나온다는 말이 있다.

■ 삼성천(三省川)

괴화산과 앞산 사이에 삼성천이 흐르고 있다. 돌다리는 삼성천을 건너가는 다리로 옛날에 '돌로 만든 다리'가 있다하여 부락이름이 석교리(石橋里)가 되었다.

■ 괴화산(傀華山)

마을 뒤편(서남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형국 때문에 무당이 많이 배출된다. 산중턱에 매년 산제를 지내는 제당이 있다.

■ 세개의 탑

옛날 스님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동네를 살펴보니 마을사람들에게 이 동네는 탑을 쌓아야 인물도 나오고 잘 될거라 이야기를 해 그때 동네 곳곳에 3개의 돌탑을 쌓아 놓았으며 음력 정월 보름날 탑제를 지낸다. 탑제는 마을 대표인 이장님이 과일과 떡을 놓고 제를 지내며 마을주민 개개인의 소지도 올린다. 탑제를 지낸 후 풍장도 치고 마을잔치를 한다.



괴화산 산제당



석교리 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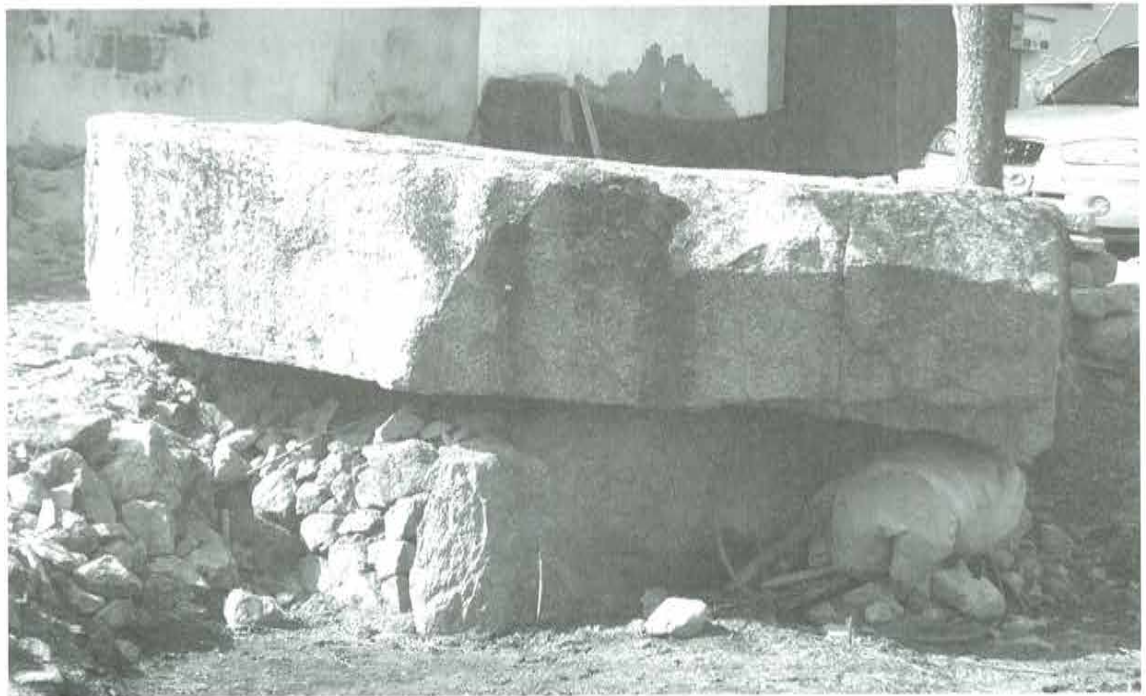
석교리 중탑



석교리 하탑

■ 고인돌

마을에 2개의 고인돌이 있다. 남방식 고인돌이며 성혈이 있다. 고인돌은 땅속에 묻혀 있으며 위의 돌 끝부분만 보인다.



고인돌

■ 성황당고개

대평리로 가는 고개로 이곳에 성황당이 있으며 개복숭아 나무가 있고 돌무더기가 있으며 이곳 고개가 높아 올라가는데 힘이 들어 고개를 깎아 많이 낮추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성황당이 많이 훼손되었다. 그렇지만 현재도 그곳을 지나면서 돌도 놓고 성황당으로 사용한다.

■ 가세바위

금단골에 있는 바위로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떠밀려 왔는데 현재 생긴 형태가 가위처럼 생겨서 가세바위라 한다.

■ 셋바탕이

찬물내기 옆으로, 이곳에는 독이 두개가 있는데 독과 독 사이를 셋바탕이라고 부른다. 도로가 나면서 독을 하나로 만들었다.

■ 열녀비

창송심씨 열녀비로 남편이 죽고 혼자 열심히 살았다해서 세운 비이다.

■ 옷샘

반곡가는 길에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로 차가워서 옷이 오르면 이곳에서 씻었기 때문에 옷샘이라 부른다.

㊸ 봉기리(鳳起里)

조선말엽에는 공주목 명탄면의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반곡리 일부를 병합하여 '봉기리'라 하고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이 지역은 뒷산에 비봉귀소형(飛鳳歸巢形)의 명당(名當)이 있다하여 풍수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며 또한 여기에 연유해서 지명을 봉기(鳳起)라 부르기도 하였고 앞에 새여울이 있으므로 새여울이라 불렀으며 변하여 '사려울'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제시대에는 공주군 명탄면 전탄리였다가 금남면으로 편입되면서 '봉기리'라 하였고 '전탄리'라는 지명은 여울이 있어 물살이 화살같이 빠르다는 뜻에서 유래되었다. 봉기리는 계룡산 가장 끝에 있는 맥(하맥)으로 지관들이 봉황귀소형 명당터가 있다하나 아직 찾지 못했다. 봉기리는 지세가 앞산은 높고 뒷산은 낮아서 자손들이 이곳을 나가야 잘산다는 말이 있다.

■ 새말

마을 남쪽에 있는 길 건너 부락을 일컫는다. 일제시대에는 봉기리 부락을 '원봉'이라 하고, 새말은 '시봉'이라 하였다.



봉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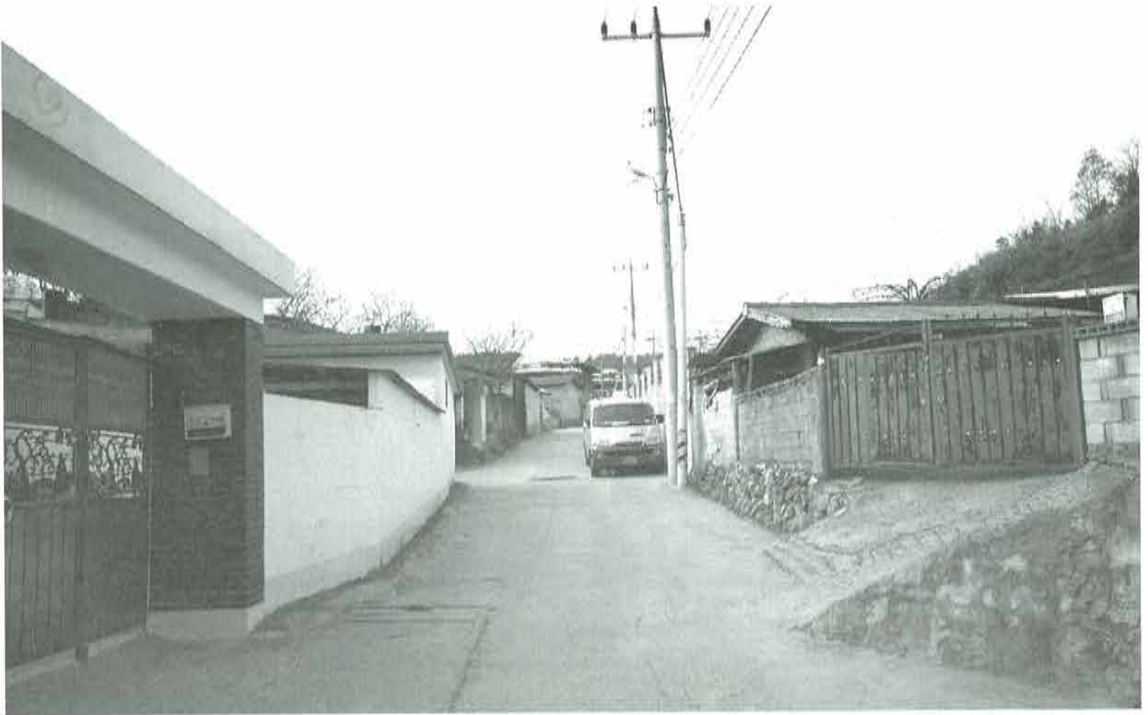
봉기리



봉기리 마을회관



봉기리



봉기리



봉기리

■ 이성골

마을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성재 아래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성(城)재에서 유래 된 듯 하다.

■ 용실(龍實)

마을 동쪽에 용실봉(龍實峰)이 있고 용실봉 아래를 용실이라 한다.

■ 허무니고개

구례 위에 있는 고개로 부용과 봉기리의 경계이다.



허무니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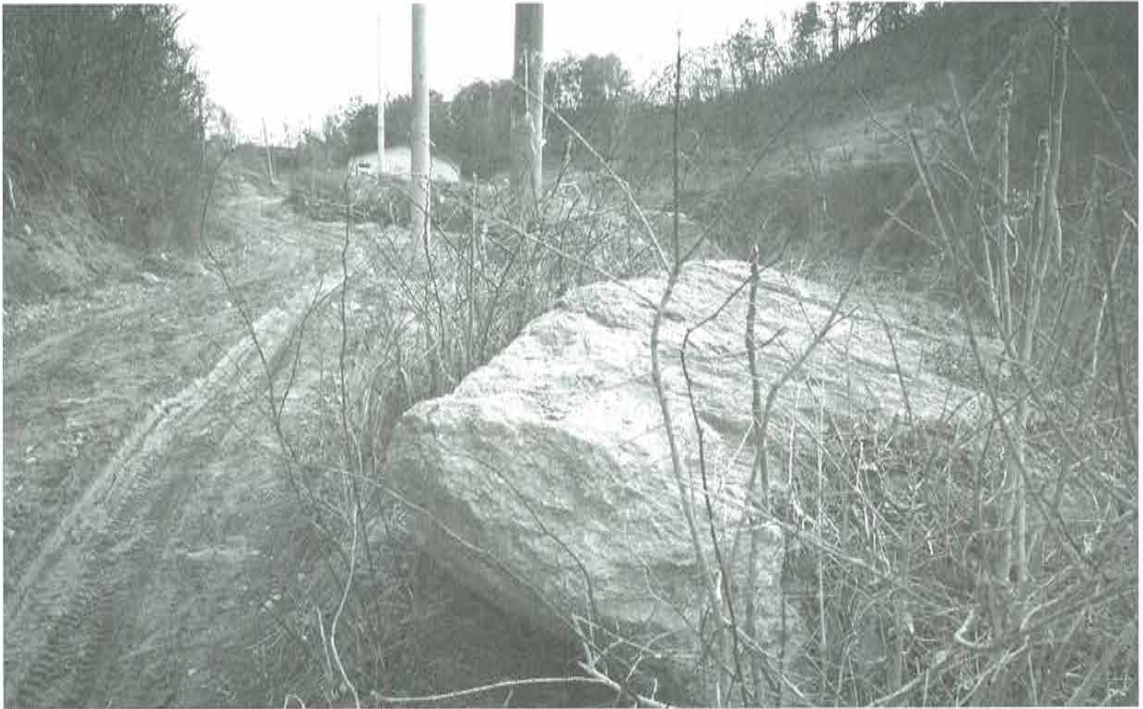
■ 옷밭

안동김씨 증시조 묘가 있는 곳으로 마을 남쪽에 위치한다. 원래 '꽃밭' 이라 했는데 구전되다보니 '옷밭' 으로 변화였다.

■ 옷밭고개

금석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예전에는 이곳에서도 사람이 살았었다 한다.

■ 말미티



봉기리 고인돌

마을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산의 끝부분이란 뜻으로 쓰였다.

■ 배내

마을 서쪽으로 예전에는 금강물이 이곳까지 들어와서 배(돛대)가 보였다 한다.

■ 방죽(芳竹)골

마을 북쪽으로 대나무가 있는 골짜기이다.

■ 사장(射場)터

마을 북쪽 부락으로 들어오는 고개로 성재 밑이다. 6·25사변 때 여울을 건너 군대가 들어와 치열한 격전을 하였다. 연기군에서는 최고의 격전지로 많은 사상자가 났었다 한다.

현재 한일레미콘이 있는 곳이다.

■ 꼬부랑재

날등이 꼬부랑 꼬부랑(꼬불꼬불)하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마을 북쪽에 있으며 6·25때 격전지였다.

■ 성재

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 석성(石城)이 있는 곳이다. '대덕사' 위쪽에 위치해 있다.

■ 괴화산

마을 서쪽에 있는 산으로 '산제당' 이 있다.

■ 시루봉(치구봉(致鳩峰))

마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시루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누령재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이다.

■ 용실봉(龍實峰)

마을 동쪽에 있는 산이다.

■ 성재굴 바위

바위에 굴이 있어서 '굴바위' 라 불리는데 굴에 불을 지피면 양야리에서 연기가 나온다 한다. 또 예부터 바위 쪼개진 곳에 돌을 던져서 그 속에 들어가 돌이 밑으로 주루룩 굴러 내려오면 아들을 낳는다 한다.

■ 선바위

굴 바위 앞에 바라보는 바위를 지칭한다.

■ 삼목(三木)

마을 북쪽에 세 그루의 나무가 일직선으로 서 있다. 맨 꼭대기에는 느티나무가 있다. 나무둘레 9.5m, 수고 10m 되는 커다란 나무이다. 중간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둘레가 다섯 아람이나 된다. 맨 아래에는 회나무가 있다. 둘레가 두 아람이다.

■ 고인돌

봉기리에 3개의 고인돌이 있으며 1개는 1리 마을 뒷산너머에 있으며, 2개는 마을좌측 산길 끝자락에 있다.

꼬부랑재에 있는 고인돌 2개는 바위를 세우면 합강리 처녀들이 미쳐서 이곳으로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 성재

뒷산으로 성이 있어 성재라 하며 산에 올라가면 그 흔적으로 돌무더기들이 곳곳에 있다.

■ 성재굴

성재산에 있는 굴로 6·25때 이곳으로 피난을 와 숨어살았다. 굴이 매우 깊어 이곳에서 불을

피우면 석삼리 까지 연기가 났다.

■ 말말에

마을 냇가 있는 부근으로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가면 내가 있어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다해서 말말에 라고 한 것 같다.

■ 비봉정

2002년도에 공사가 들어간 정자로 돈이 없어 짓다 말았는데 올해 돈이 생겨서 완성시켰다. 비봉정 이라 이름지은 것은 봉기리의 유래와 연관지어 지었다.

■ 그이배 나루터

봉기리에서 부강으로 나가는 나룻터로 옛날에 있었다.

■ 섬

봉기리에는 2개의 섬이 있었는데 각각 윗섬, 아랫섬 이라 했으며 섬 1개는 군청에서 땅을 사들여 흙과 자갈을 부어 없어졌으며 현재 1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육지와 연결되었다가 비가 오면 섬이 된다. 그리고 이 섬의 주소는 봉기리 1번지이며 일제시대때 대평리 물난리가 났을때 떠내려가 처음 위치와는 틀리다.

■ 성황당

그이배 넘어가는 곳에 2개가 있고 복숭아나무가 있다.

㉨ 반곡리(盤谷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남면의 전월산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다. 지형이 소반과 같으므로 '반곡(盤谷)' 이라 불러 왔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반곡리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반봉포란형(班鳳抱卵形)의 명당(名當)이 있다.

■ 괴화산(槐花山)

금남면 반곡리, 석삼리, 장재리, 석교리 경계에 있는 산을 괴화산 이라 부른다. 산의 높이가 200m되는데, 꼭대기에 느티나무가 있다.

이 산에 괘등형(掛燈形)의 명당이 있어서 삼거리에서 바라보면 환하게 불이 켜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다.



반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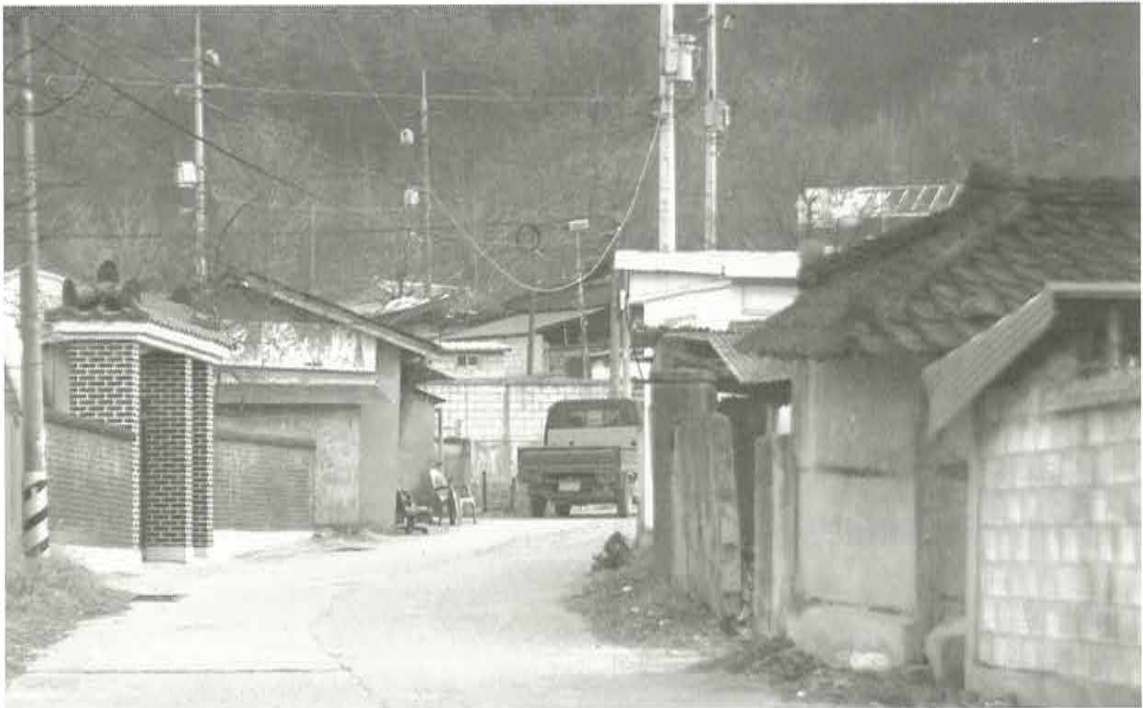
정려



교회



정자



반곡리

■ 재개뜸

반곡리 입구를 지칭한다.

■ 부처골

반곡리에서 석삼리로 넘어가는 골을 부처골이라 하는데 예전에 그 곳에 목 없는 부처가 발 가장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공주국립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 처음에 부처의 목이 붙어 있었는데 어느날인가 목이 부러졌다. 부러진 부처목을 발에다 몰래 묻으면 집안이 잘된다하여 누군가 주워다가 발에 묻었다 한다.

■ 돈적골

부처골 밑을 이야기한다.

■ 탐골

부처골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골을 지칭한다.

■ 고야산

마을에서 남쪽 산을 지칭한다. 산을 중심으로 뺨 둘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마을을 고이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야산 앞에 부처골, 돈적골, 탐골 등이 있다.

■ 납작동

마을에서 동쪽 산을 지칭한다.

■ 엉떠리끼

마을에서 뚝 떨어져 있다는 뜻으로 금강 쪽 골을 지칭한다.

■ 내깨

구레라고도 하며 마을에서 금강 쪽 들판을 이야기한다. 거머리가 많은 논이다.

■ 여수베

내깨 옆에 있는 들판을 이야기한다. 아주 좋은 논이란 뜻이다.

■ 부묘골

부처골 위에 있다. 명당이라 하여 묘를 많이 썼다.

■ 반곡리

납작동이라고도 한다. 금반형의 명당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마을입구를 장승백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장승을 깎아 세워놓고 장승제를 올렸었다.

■ 뒤메뜸

마을에서 서쪽으로 금호중학교 가는 길목을 이야기한다.

■ 뒤뜸

마을 동쪽을 가리킨다. 괴등산, 고야산이라 하고 괴동산은 불을 밝힌다는 뜻이다.

■ 골마뜸

고야산에서 내려온 골이란 뜻이다.

■ 안산뜸

마을에서 석교리로 넘어가는 곳을 지칭한다.

■ 와우형

소가 누워있는 형국의 명당으로 불목동 옆에, 마을의 서쪽에 있다.

■ 어덕동

약산골 위의 산을 말한다. 개화산 끝줄기 라서 어덕동 이라 부른다.

■ 돈저골

물이 마르지 않고 일년 내내 물이 나와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돈을 많이 번다고 돈저골 이라고 하며 옛날 이곳에 사는 사람이 친구와 장기를 두는데 동네사람이 와서 자네 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빨리 가보라고 하니 집에 불이 나도 우리 논은 못 태울 거라 했다는 얘기가 있다.

■ 약산골

마을 좌측으로 난 골짜기로 이곳에 샘이 있었는데 바위 밑에서 물이 났기 때문에 물이 매우 차가웠다고 하며 이 물이 옷이 올랐을 때 씻으면 낡는다고 해서 옷 샘으로 사용했으며 병을 낫게 해준다는 뜻으로 약산골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㉞ 석삼리(石三里)

공주군 명탄면의 지역으로서 오랫동안 선비들이 많이 머무르다 간 곳이기도 하다. 이곳엔 돌로 만든 장승이 있어 석삼동(石三洞)으로 부르다가 석삼리(石三里)가 되었다 한다. 연기군 금남면에 속해있다.



석삼리



석삼1리

석삼1리

■ 원석삼(元石三)

석삼의 원 마을을 '원석삼' 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 해서 '원석삼' 이라 부른다.

■ 안골

돌삼골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쪽에 있다하여 '안골' '내동(內洞)' 이라 부른다. 파평윤씨(坡平尹氏)들이 많이 산다.

■ 돌삼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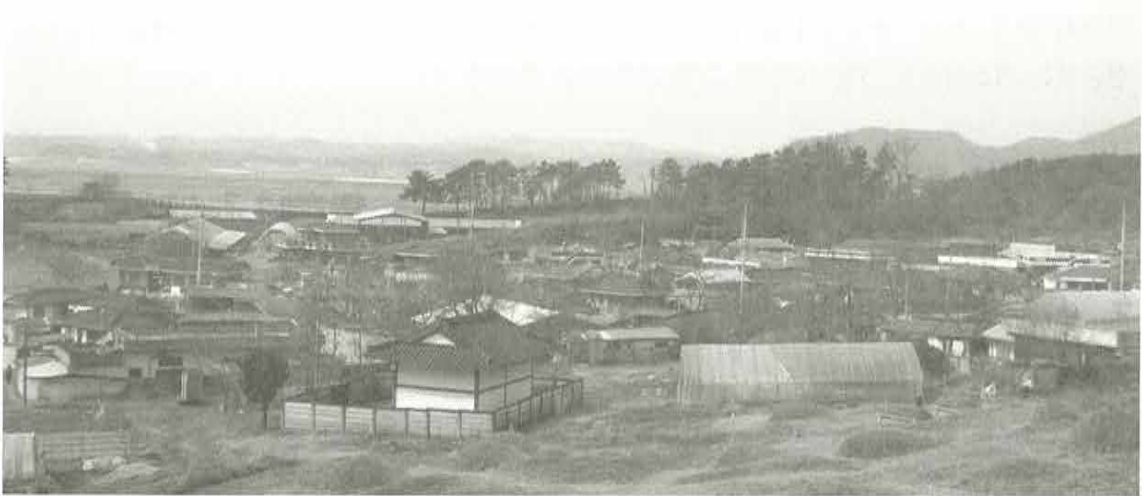
안골 밖에 있는 마을이다.

돌로 만든 장승이 셋 있다하여 '돌삼골' '석삼(石三)' 이라 부른다. 광산김씨(光山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돌장승은 각각 다르다. 서쪽의 것은 흰 바위, 남쪽의 장승은 수리바위, 뒷산에 있는 장승은 말 바위라 부른다.

■ 안골

석삼 1리를 '안골' 이라 하는데 동네가 안쪽으로 들어 앉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돌산골



석삼리

마을 남쪽에 있는 석삼 2리를 돌삼골(석삼리)이라 한다.

■ 오려울고개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고개로 이곳 산 준령이 허하면(낮으면) 동네가 폐가망신 한다하여 준령을 높이 쌓기도 하고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 참나무쟁이 고개

석삼 1리에서 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마을남쪽에 위치함) 예전에 이곳에 참나무가 많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어려울 들

오려울 고개 너머에 있는 들이다. 마을 서북쪽에 있다.

■ 가장개들

옛날에는 가장개들 가장자리에 버드나무가 죽 있어서 여기에 시체를 채봉하여??가장재??를 하였다 한다. 즉 '가장재'는 '가장개'로 구전된 것이다. 마을 서쪽에 있는 들이다.

■ 흔바위들

마을 서남향에 있는 들로서 모래밭이라 물이 쉽게 빠져 잘 메마른다 한다. '흔'은 희다, 허영다는 뜻이다.

■ 버드나무

약 150년 전에 한산노인(부인이 한산사람이다)이 많은 버드나무를 심었다한다. 이곳은 금강이 있어서 군산, 논산, 강경에서 올라온 소금배가 많았는데 그때 버드나무를 베어서 배를 만들었다. 현존하는 버드나무는 마을 내에 한 그루(고목)있을 뿐이다.

■ 집채바위

마을 동쪽 고야산에 있는 바위에 갓을 씌웠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밑에서 비를 피했다 한다. '바위가 집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6·25사변 때에는 이 바위 있는 곳으로 피난 오기도 했다.

■ 친구실샘

마을 남쪽에 있었던 샘인데 물이 매우 좋아서 석삼 1, 2리 사람들이 모두 이 물을 마셨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 흔바위

흔바위는 석삼리 앞쪽의 논을 지칭하는 말로 옛날에는 물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어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지 못했는데 그때 이곳이 벼를 심지 않아 허한 벌판이다 해서 흔바위 라고 불렀다.

■ 돌장승

1리와 2리 마을 입구에 세 개의 길쭉한 바위가 있었고 그 위에 가로로 돌을 각각 올려놓았는데 이 바위를 장승바위라고 했다.

그런데 위에 올려놓은 바위 때문에 2리에서는 처녀가 집을 나가고 동네가 좋지 않다고 해서 2리에서 밤에 몰래 돌을 내려놓으면 1리에서 다시 쌓고 또 내려놓으면 다시 쌓고 해서 이 마을 농지정리 할 때 2리에서 바위를 몰래 물어버렸다.

■ 홍골

옛날 이곳에 홍판사 라는 벼슬을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분은 자기 눈에 보이는 지역 모두를 자기 소유로 했으며 그래서 그 골짜기를 자기것 이라고 하고 이름을 홍골이라 했다.

■ 진골

골이 길다고 해서 진골이라고 한다.

■ 혼배산

마을 앞산을 말한다.

■ 서당골

고야산 산제당 밑으로 서당골 이라 한다. 이 자리가 명당자리라고 해서 타지 사람이 땅을 사서 묘를 쓰려고 했지만 마을에서 이 자리는 명당자리라 이 자리에다 묘를 쓰면 동네가 좋지 않다고 반대해서 산을 그냥 놀리고 있다.

■ 집채바위

산제당 바로 위에 있는 바위로 바위가 매우 커서 집채바위이며 6·25때 이곳에 피난을 왔으며 바위 밑에 조그만 굴처럼 되어있는 부분에 숨어서 살았다.

■ 찬물내기

산제당 밑의 샘으로 바위에서 항상 차가운 물이 나와 찬물내기라고 했다.

■ 오를넘어고개

마을 뒤의 반곡 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높아야 마을에 인물이 나고 잘 된다고 해서 옛날에는 자꾸 높이다 보니 넘어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하며 요즘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고 힘들어서 점점 낮아졌다.

■ 혼배

마을 앞 논을 지칭한다.

■ 고야산

각 부락마다 산을 고였다고 해서 고야산 이라 하며 1리 2리 마을 뒤쪽으로 위치하고 있다.

㉞ 장재리(長在里)

조선말엽에는 공주군 양야리면 지역으로서 뒷산에 장절(長寺)이 있어서 '장재골' 또는 '장재'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산리와 석삼동 일부를 병합해서 장재리라 하고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장재리

동네가 길쭉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 마을은 장수하는 마을이다.

■ 장절

마을의 남쪽 산을 지칭하며 예전에 큰절이 있어서 장사곡(長寺谷)이라고도 했다.
현재는 산으로 되어 있으며 터만 전한다.

■ 사리골

장절의 서쪽을 지칭하며 마을에서 서남쪽에 위치한다. 예전에 절이 있었고 현재에도 오래된 기와편이 발견된다.

■ 부처골

사리골에 있는 샘이다. 현재 마을 사람들이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다. 40여 호가 먹고 있으며 예전에 절에서 먹던 우물이다. 예전에 샘 앞에 40cm의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 위에 석불이 모셔져 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들어와서 석불과 돌을 가져갔다.

■ 옷 샘

동네의 서쪽에 있는 샘이다. 현재에도 물이 있다. 예전부터 이곳 우물에 피부병 환자들이 와서 물을 먹고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 특히 옷오른 사람과 땀띠난 사람에게는 더욱 효험이 있다고 전한다.

■ 창말랑

마을 내 방앗간 뒤편 산을 이야기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조선말엽에 이곳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곡식 창고가 있었는데 세금으로 거둬들이던 곡식을 넣어두었던 곳이다. 현재는 흥판서의 묘가 있다. 1980년에는 흥판서의 묘 막이 있었다.

■ 동구바위

마을 중심지에 있는 큰 바위를 지칭한다. 형체가 거북이처럼 생겨져 붙여진 이름이다.

■ 비석거리

현재 방앗간 옆 도로를 지칭한다. 1980년에 이곳에 고인돌과 심 관찰사 송덕비가 있었다. 고인돌은 공주대학교 안승주 총장이 실어다 공주대학 내에 보관하고 있고 비석은 질재 고개 너머 도로 좌측에 세워 놓았다. 이곳에 비석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탑거리

현 마을 방앗간 앞 정자나무 있는 곳에 예전에 할머니 탑, 할아버지 탑이라는 돌탑 2개가 세워져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마을길을 넓힐 때 없애 버렸다.

예전에 이곳에다 탑 제를 지냈는데 음력 1월 3일 새벽에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와 제를 지냈다. 당시 제를 지낼 때는 목욕재계하고 불순한 언사도 삼가고 행동에 많은 규제를 주어 마을사람들이 단합이 잘되고 예의범절에 밝았다. 그런데 그 탑이 없어진 후부터는 '상경하에(上敬下愛)'가 잘 안

되며 마을 주민단합이 잘 안되고 있다.

■ 배나무정

마을에서 금호중학교 쪽으로 길 건너에 외딴 집이 있는데 현재는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 일제시대 때 현재의 금강 독을 쌓았는데 그 독을 쌓기 전에 금강이 이곳을 지나 용포리, 이암리와 가동, 성덕으로 흘렀다. 그 당시 이곳에 배를 묶어 놓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안터

현 금호중학교를 안터라 한다. 그곳의 형국이 기러기와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안씨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하여 안터라 했다.

■ 홍골

마을에서 북쪽 창말랑 건너편의 산을 홍골이라 한다. 예전에 남양홍씨들이 이곳에 묘를 크게 써서 붙여진 이름이다.

■ 쌍바위

마을에서 동남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산에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이것을 쌍바위 라고 한다.

■ 새따름 나무

장절 내에 있는 나무로 활엽수이다.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약용으로 쓴다고 꺾어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이 나무를 삼켜서 단술(식혜)을 먹으면 속병이 낫는다하여 멀리서도 이 나무를 베러왔다. 큰 나무는 공주대학 총장을 지낸 박재규 씨 집을 짓는데 기둥으로 썼다.

■ 시우 나무

탈 길이 탐 옆에 있던 나무로 활엽수이다. 시우 라는 열매가 열려 그 열매로 기름을 짰다. 도로 건설 관계로 베어 없어졌다.

■ 금산

일제시대부터 이곳 마을을 금산이라 했는데 그것은 마을 북쪽(뒤)산에 광산김씨들이 이곳에다 종묘를 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고야산, 괴당산이라고도 한다.

■ 총송모랭이

마을의 서쪽으로 고야산 끝나는 부분에 소나무가 총총히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선암이

선암(仙岩)이라 하고 마을에서 고야산 밑에 다섯 채의 민가 있는 곳을 선암 이라 한다. 마을 뒷

산 바위 있는 곳이다.

■ 질제고개

마을의 동쪽으로 석삼, 황용으로 가는 고개이다. 고개 너머에 심관찰사 비가 있으며 장재리 마을 입구에 있던 것을 도로공사 중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이다.

■ 황용고개

마을에서 남쪽으로 황용 2리 가는 고개이다.

■ 남곡고개

황용 고개에서 서쪽으로 민가 한 채가 있는 곳을 지칭하는데 예전에 이곳을 넘어야만 남곡으로 갈 수 있었다. 현재는 황룡고개로 교통이 편리하도록 포장되어있어 이곳의 길을 이용하지 않는다.

㉞ 호탄리(湖灘里)

조선말엽까지 공주군 이었다. 마을 앞의 금강이 여울져 흐르므로 호여울이라 했고 조선시대 창고가 있어 '동창'이라 부르기도 하다가 1914년 행정 개편 때 호탄리(湖灘里)라 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호탄리

호(壺)자를 쓰는 것은 마을입구의 형태가 병의 목처럼 생겨서 붙여진 이름이다. 탄(灘)자는 예전에 금강이 마을입구로 흘렀는데 여울져 흘렀다하여 '호여울' '호탄'이 되었다 한다.

■ 동창(東倉)

마을에 사창이 있다해서 사창(社倉)이라 불렀다 한다. 대평리의 동쪽에 있는 창고라 하여 동창이라 불렀으며 일제시대에는 이곳 사창을 정리하여 임시 면사무소로 쓰기도 했다.

■ 호여울

예전부터 이곳의 지명을 '호여울' '우래울'이라 했다. 고려 충렬왕 17년 몽고합단이 연기 정좌산으로 쳐 내려왔을 때 삼 장군(한희유, 김훈, 인후)에게 패하여 공주로 도망갔는데 다시 몽고로 가려고 강을 건너기 위해 얕은 곳을 찾는 도중 이곳이 여울져 흐르므로 건너 양화리 부근으로 가다가 원수산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삼 장군에 패하여 섬멸되었다.

■ 동초골

마을의 서쪽에 민가 세 채 있는 곳을 가리킨다.

■ 안터

현재 금호중학교 있는 곳을 안터 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처음 안씨들이 정착하여 살았다하여 안터 라고 한다.

■ 용머리 골

동네에서 동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한다. 용머리의 형국이라 지어진 이름이다.

■ 두루봉재

마을에서 서쪽으로 높은 산을 지칭한다.

■ 서낭고개

마을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고개를 넘어가면 남곡리 이다.

■ 가래골

마을에서 남서쪽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가래골 이라 한다.

■ 할아버지 탑

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둘이다. 그중 우측의 큰길가에 돌탑이 세워져 있고 이것을 할아버지 탑이라 한다.

■ 할머니 탑

좌측 입구에 돌탑이 있는데 그곳을 할머니 탑이라 한다.

■ 서근서

호탄리에서 금강 쪽으로 정면 들판을 서근서라 한다.

■ 혼바위

호탄리에서 금강 쪽으로 우측에 있는 들판을 이야기한다.

■ 구레

호탄리에서 금강 쪽으로 좌측에 있는 들판을 이야기한다.

■ 정문거리

마을회관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곳으로 예전에 정문이 있어서 정문거리라 한다.

㉞ 신촌리(新村里)

옛날부터 마을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조선시대부터 마을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한 지역이었다. 옛날은 이곳에 꽃이 많이 피는 지대였고 꽃절 이라 불리 우는 절이 있었다. 새로 마을이 생긴 구역 이라 하여 신촌(新村)이라 하였다.

■ 꽃절골

화사(花寺)라 한다. 마을에서 동남쪽 가장 깊은 골에 있다. 예전에 꽃이 많은 절이 있다하여 꽃 절 이라 부르다가 절에 빈대가 너무 많아 절을 비우고 현재에는 절터만 남아 있으며 주위에 기와 편이 발견된다.

■ 서당골

꽃절골 위쪽을 서당골 이라 하는데 예전에 그곳에서 한학을 가르치던 서당이 있었다 한다. 현재 는 산이다.

■ 삼절

중광사(발산), 동산절(용포), 꽃절(신촌) 세 절을 가리켜 삼절이라 부른다.

■ 비학산

현 마을 동쪽 높은 산을 지칭한다. 학이 나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남근석

마을에서 동남쪽 옷말 동네 앞에 고양이 바위가 있었다. 고양이 바위 옆에 촛대바위 2개가 있었는데 이것이 남근석이다. 현재에는 고양이 바위와 촛대바위(남근석) 모두 없어졌다.

■ 매화낙지

현 금남초교 자리를 지칭하며 이곳이 매화처럼 낮에는 환하게 피었다가 밤에는 지는 형국이라 한다.

■ 비단천금

현 마을 동쪽 금호중학교로 가는 공동묘지를 지칭한다. 비단천금이란 죽은 사람을 많이 묻어 억 금이 묻힌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사당날

꽃절골 마을 내에 두 부락을 잇는 고개의 날을 지칭한다. 죽은 살이란 뜻이며 송장날 이라 한다. 멍멍 바위가 있다.

■ 명명 바위

마을 동남쪽에 화암사(花岩寺) 앞에 있는 큰 바위를 명명바위라 한다. 반석 위에 큰 바위가 집의 처마같이 나와있는데 수 백명이 비를 피할 수 있다. '폭암' 이라 한다.

■ 정자나무

마을에서 동남쪽 꼬초골에 있으며 수령이 500여 년 됐다.

■ 비학산뜰

비학산에서 신촌 가운데로 흐른다.

■ 고소골

마을 동남쪽의 옷말 바로 아래 마을이다.

■ 작은말

금남초교 옆의 마을이며 고소골 아래에 있다.

■ 큰말

금남초교에서 남쪽의 큰 마을을 지칭한다.

■ 수명 안

금남초교에서 북쪽에 있는 들판으로 예전에 수명이 있던 곳이다.

■ 병목 안

마을에서 금호중학교 쪽으로 공동묘지 뒤쪽을 가리킨다. 병의 목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명당자리

금남초교 앞 금강가 에서 반곡 쪽을 '서군수' 라 부르는데 이곳이 명당이다. 금남초교 앞 들판에서 장터 가는 곳을 '장텃말' 이라 하는데 이곳도 명당이다.

금강과 용수천이 만나는 뚝 안을 '누에머리' 라 부르는데 이곳도 명당이며 이 세 곳을 가리켜서 삼명당 이라 한다.

■ 독장골

마을에서 북동쪽인 호탄리 앞을 지칭한다. 이곳의 논에 수령이 있는데 돌로 수령을 메우기 위해 쌓았다는데서 유래한다.

■ 고인들

금남초교 남쪽 뒷산에 있다.

고인돌(지석묘) 앞에는 노성호 씨 할머니 묘소가 있다.

■ 비학산

신촌리 뒤에 있는 산을 비학산 이라 부른다. 산의 모양이 학이 날아오르는 형국이라 하는데 여기에 명약(名藥)이 있다하여 지관(地官)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㉟ 도암리(道岩里)

조선말엽에는 반포면(反浦面)에 속했었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시 '도동' 과 '명암리' 두 마을을 합쳐서 '도암리' (道岩里)라 하여 1973년 7월 1일 대통령(大統領) 제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 독골

돌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명암리(鳴岩里)

바위에 구멍이 있어서 소리를 지르면 울려 나오는 바위 아래 마을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갈후리(거꾸리)

현 도암 2리의 서쪽에 네 채의 민가가 있는데 과거에 제헌국회의원 김명동이 살았었다. 갈후리는 뒤를 깨닫는다는 뜻이다.

■ 함박산

갈후리(거꾸리) 마을의 남쪽 산을 지칭한다. 산의 모양이 둥근 함박같이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매봉산

갈후리(거꾸리) 마을의 북쪽에 있는 산이다.

■ 할미골

'노고당' 이라고도 한다. 거꾸리 마을입구 매봉재 밑을 지칭한다.

■ 지령산

도암에서 남서쪽에 있는 산으로 가장 높다. 큰골이라고도 하며 산줄기가 길다는 뜻이다.

■ 서당골

안독골의 서쪽에 있는 골을 이야기한다. 예전에 이곳에 정자가 있었고 그 정자를??모정??이라 불렀다. 그곳에서 한문을 수학했으며 60여 년 전에 없어졌다. 금남국교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배우던 학생들이 금남국교로 입학했다.

■ 유괴산

도암 2리에서 북쪽 용수천 변에 있는 산으로 계룡산의 맨 끝 부분이라고 한다. 이 산에 '덕암리'란 절이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당시 암자철거령에 의해 현재는 산 밑 마을로 옮겼다.

■ 고갈바위

거꾸리 앞에 있는 바위가 마치 고갈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독골뜰

도암리 앞에 있는 뜰을 지칭하며 예전에는 밭 자리라 부르기도 했고 동네 앞을 지나는 내가 있어 보를 막고 건너다녔다 하여 보 건너라고 부른다.

■ 절터골

유괴산 내에 예전에 큰절이 있었다. 절에 빈대가 많아서 불태워 없앴다. '덕암사' 옆에 있었고 옷샘이 있다.

■ 옷샘

유괴산 절터골에 있는 샘으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피부병 환자나 옷 오른 사람이 이 물을 떠서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

현재 동네 서 너 집이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 용바위

도암리 2리 이장 댁 앞에 길게 펼쳐진 바위로 용의 형상을 닮았다하여 용바위라 한다.

■ 쇠꼬재

도암 1리 바깥독골에서 국실(국곡리)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이야기한다.

①이곳의 형국이 소의 머리 모양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②또한 쇠를 캐내는 광산이 있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쇠를 캐던 굴이 현재도 있다.

■ 가장골

도암 1리에서 남쪽의 골을 가장골이라 부른다. 쇠꼬재 밑에 있으며 가재가 많다.

■ **보도막재**

도암 1리에서 서쪽으로 제실 오르는 재를 말한다

■ **돌마루**

도암리와 국곡리의 경계지역이며 '조막소'라 부르기도 한다. 이곳의 수심이 깊었다.

■ **사거리주막**

도암 1리 앞뜰 냇가에 주막이 있었는데 현재는 빈집만 남아 있다. 동네 사람들이 도암뜰에서 일하다가 이곳에 와 막걸리를 마셨다.

일제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있었다.

■ **뱀발 논**

2리 마을 북쪽을 말한다.

■ **밭지키들**

2리 동쪽으로 밭이었으나 지금은 논이 되었다.

■ **유계뜰**

마을 정북 쪽으로 유괴산 밑자락에 있다.

■ **돌마루뜰**

마을 동쪽 밭 텃밭 넘어가는 골에 위치하며 사당이 있는 쪽으로 돌아간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명목 바위**

하천 뒷산에 있으며 문 모양으로 금이 가 있다.

■ **거북바위**

양천재 옆에 있었는데 2002년에 어떤 이가 자신의 집 진입로를 내면서 없애버렸다.

그 후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15명 정도 된다고 한다.

㉞ **성덕리(聖德里)**

조선 말엽에는 공주군 반포면(反浦面)에 속해 있다가 1914년에 행정 개편 때 '성덕리(聖德里)'라 부르게 되었다. 이곳은 옛날부터 덕을 쌓아서 많은 사람을 깨우치게 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14년 7월 1일(?) 대통령 제6542호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속하게 되었다.

■ 동호리(東湖里)

마을에서 동쪽에 있는 산이 소머리형국이라 '두우봉' 이라 부르는데 두우봉 밑에 예전에 큰 호수가 있었다 한다. 이 호수를 지칭하여 동쪽에 있는 호수, 즉 동호리(東湖里)라 한다.

■ 옷말

마을의 위쪽에 있다하여 옷말 이라 부른다.

■ 아랫말

마을 아래쪽에 위치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옷말과 아랫말 사람들이 편을 갈라 강다리(줄다리기)를 하며 동네의 화목을 꾀하였다 한다.

■ 성덕(聖德)

동호리 부근의 마을을 성덕이라 부르는데 옛날부터 덕을 쌓아서 남을 깨우치는 사람이 살며 그 덕을 이곳까지 번지게 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라 하여 성덕이라 부르며 마을 앞의 들판을 '성덕들' 이라고 부르며 덕을 쌓는 사람들이 먹는 곡식을 키우는 들이라 그렇게 되었다.

■ 갈마

마을 서쪽에 위치하며 말이 금강을 향해 물을 먹고 있는 형태라 하여 갈마(馬)라고 하였는데 그곳의 고개를 가마고개라고 한다.

■ 갈마샘

갈마산 기슭에 있는 우물을 예전에는 마을주민 모두가 먹었다. 기미년에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에도 이 물은 마르지 않아 인근 부락민이 이 물을 퍼다 먹었다.

현재에도 자가수도 시설을 하여 15가구가 이 물을 먹고 있다.

■ 집너머

두우봉에 있는 고개를 집너머라 부른다. 고개가 집을 넘어가듯 집터는 낮고 고개는 높아서 붙여진 이름이며 현재는 자동차가 다닐 정도의 넓은 길이 되었다.

■ 청룡(靑龍)재

마을입구 우측에 있는 산을 청룡산 이라 하고 그곳에 있는 재를 청룡재라 부른다. 마을에서 바라보면 풍수지리상 좌청룡의 자리라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찬샘고개

마을 학교(성덕초교) 앞으로 지나는 고개를 찬샘고개라 한다. 고개 너머에 찬샘이 있는데 물이

차고 마르지 않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찬샘에는 100여 년 된 향나무가 있고 찬샘고개는 성덕 1리와 성덕 2리 영곡리를 잇는 곳이다.

■ 도깨비툼병

성덕리 마을에서 한양궁 가는 쪽으로 성덕선원 입구에 있는 툼병을 가리킨다. 옛날에는 이곳에 도깨비가 많아 밤이면 도깨비불이 많이 모였다 한다.

■ 수박산

도깨비 툼병에서 서쪽으로 약500m 떨어진 곳에 있다. 산의 형태가 수박을 얹어놓은 형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현재 쌀겨로 식용유를 만드는 '성덕산업'이 자리잡고 있다. 수박산은 절반이 성덕 1리이고 절반은 영곡리에 속한다.

■ 황연뜰

두우봉 밑에 있는 뜰을 화연뜰이라 하는데 호수가 있는 곳에 연꽃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선바위

갈마샘 위에 있는 바위이다. 예전에 선비가 갈마샘에 발을 담그고 이 바위에 앉아 글을 읽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일명 선비바위라고도 한다.

■ 열녀정문

도깨비 툼병에서 성덕선원 입구에 세워진 정문이다. 열녀 화순최씨 최장하의 아내 열녀문으로 얼마 전까지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에는 없고 정문자리에 묘가 하나 있다.

■ 대장간

참새고개에 대장간이 있었다가 1944년에 없어졌다. 당시 김영순 씨가 운영했고 1954년에 작고하였다.

■ 위령비

1978년 7월 20일 장마로 인해 다니던 다리가 물 속에 잠기고 성덕리 마을 앞까지 물이 찼다. 금강과 용수천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이 계속 불어 등교를 하려던 학생들은 작은 고깃배를 타고 건너야 했다. 나룻배에 남학생 두 명과 여학생 열네 명이 탔고 선주는 배에 발동기를 걸었다. 성덕리 마을을 떠나 제방에 거의 다다르는 순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제방에 배를 대기 위해 발동기를 끄는 순간 학생들은 소나기를 피하려고 배에서 먼저 내리려고 우르르 한쪽으로 쏠렸다. 그러자 그만 배가 한쪽으로 쏠린 곳으로 뒤집혀 모두가 물에 빠졌다. 당시 뱃사공과 학생 1명만이 살아났고 15명이 모두 익사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곳에 다리를 놓도록 지시하였고, 현재 용수천의 성

덕교이다.

그런데 살아난 남학생은 대학에 다니다가 1990년 대전 용두동 시외버스 승차장 주변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 이로 인해 교통편의 시설이 없어 위험하고 불편을 느끼던 이 승차장 주변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가설되게 되었다.

■ 장뜰

아랫장 뜰과 윗장 뜰이 있는데 윗장 뜰은 마을동쪽 다리(성덕교) 밑에 있는 논을 말한다.

■ 뱃사공바위

한삼골이 배의 형국으로 성덕 2리 마을 가운데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우뚝 솟은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뱃사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없다.

■ 장판봉

마을 동쪽에 있는 넓은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에서 놀이를 했다.

■ 한삼이

삼베가 많이 났다고 해서 한삼이 이며, 배의 형국이다.

■ 밤재(배덕)

대평둑이 생기기 이전에 성덕교 건너서 비석(용수천희생학생위령비)있는 쪽으로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다.

■ 유각산

밤재 뒷산을 말하며, 산의 모양이 소뿔의 형국이다.

■ 장판

이 주변이 배의 형국인데 그 중 돛대에 해당된다.
(돛대처럼 생긴 봉을 말하는데 아래뜸에 있다.)

■ 망골(채봉골)

애장터 이며, 죽은 사람을 내버리는 곳이라 하여 망골 이라고 한다.
아이들이 죽으면 이곳 나무에 매달아서 쪼아 먹게 해 병이 멀리 가라고 기원했다.

■ 뒷골(후각 後角)

성덕 뒤쪽, 도암과의 경계이다. 마을 서남쪽이며 옛 상여집이 있었다.
뒤 후(後), 뿔 각(角)을 써서 후각이라 하며 마을 뒤쪽이라 해서 뒷골이다.

마을 서남쪽을 말하며 도암과 성덕과의 경계이다.

■ 동착골

마을 동쪽이며 샘이 있다.

동천(東泉)을 써서 동천골이 발음이 변해 동착골이 되었다.

동쪽에 샘이 있다해서 동착골 이다.

■ 독골재

마을 동남쪽으로 도암과의 경계이다.

■ 영골재

성덕에서 영곡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해서 영골재이다.

■ 참샘골

물이 차다하여 참샘골 이며 마을 서북쪽이다.

■ 안삼골

아내삼골 이라고도 하며 모시를 많이 갈았다하여 안삼골 이다.

■ 거쿠리재(가쿠리재)

마을남쪽으로 도암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너리석

성덕 들어오는 입구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로길에 있었으며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길을 내다가 없어졌다. 바위가 넓다하여 너리석이다.

㉞ 영곡리(靈谷里)

조선말엽엔 공주군 반포면에 속하였다. 이 곳 지형이 산신령(호랑이)이 앉아 있는 형국이라 하여 '영곡(靈谷)' 이라 지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영곡리' 가 되었다가 1972년 7월 1일 대통령에 의하여 연기군 금남면에 편입되었다. 마을의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이 서 있다.

■ 참샘

현재 노인회관 앞에 있는 샘으로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차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윤산

윤씨들이 집거 했던 곳으로 윤 대장, 윤 선달이라 불리는 사람 묘소가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학이 나와 함강리 쪽으로 날아갔다고 한다.

■ 진동날

산의 길이가 꼭 칼처럼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소천

회병골 아랫마을이다. 산의 모습이 소의 모양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거쿠리

큰 거쿠리는 도암리에 있고 마을회관에서 남서쪽으로 돌아가면 몇 채의 집이 있으며, 그 곳을 지칭한다.

■ 회병골

군사를 소집하여 싸움터에 나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이가 앉아있는 형국이다.

예전에 돌림병이 많이 돌아 병이 든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도 한다.

■ 상다리

영곡 1리에는 동구나무가 네 개 있었다. 그것을 일컬어 일명 '상다리' 라고 하는 데 그 이유는 영국리가 금남에서 지대가 가장 높고 높은 지대에 수령이 몇 백년 되는 동구나무가 네 개가 있어 상을 놓은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국을 보고 예전에 이곳으로 부자들이 많이 몰락하여 결국은 빈털터리로 마을을 뜨곤 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부러진 상다리에 은행나무를 심었다.

■ 버드레 골

일명 '유천동' 이라 하는데 영곡 1리 마을회관에서 동남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서너 채의 민가가 있다. 이곳은 버드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육자 바위

성덕교의 남쪽에 있는 바위로 예전엔 이곳의 물깊이가 6자나 되었다 한다. 또한 금강이 이곳에 까지 닿아 이 소에서부터 육지의 시작이란 뜻도 있다.

여섯 개의 큰 바위로 이루어졌다.

■ 둔절 뜰

소천에서 금강 쪽으로 펼쳐진 들판을 이야기한다.

■ 통수 바위

예전에 이곳 바위에 선비가 앉아 통소를 구슬프게 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학 바위도 있다.

■ 서당골

버드레골 뒤 편을 지칭한다. 병자호란 때 피신 온 신한림 학사가 그곳에 거처하면서 마을사람들을 가르쳤다.

■ 피화당

어느 날 마을 청년이 마을회관 동쪽에 있는 둥구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 나무 속에 ??피화당??이란 글귀가 한글로 써 있었다고 한다.

■ 방아다리

참샘에서 금강 쪽으로 위치한 세 채의 민가를 방아다리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방앗간이 있었다.

■ 호양리

참샘에서 남쪽으로 두 채의 민가가 있는데 이 곳을 호양리라 한다. 예전에 이곳에 주막이 있어서 주막거리라 부르기도 했다.

■ 호양리

방아다리, 찬샘골 못 미쳐서 북쪽을 말한다.

■ 거쿠리

마을 동남간으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
지질학자가 거북이 형상이라며 붙여준 이름이라 전해지며 묘를 썼다.

■ 수저바위(육자바위)

황골에 위치하며, 넓어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놀기도 하며 일명 팽가리 바위라고도 불린다.

■ 통수바위

마을 동남쪽 산밑으로 버드레골 밑에 있는 바위이다. 예전에 그 산이 신씨네 종산 이었는데, 신씨네 자손 하나가 거기서 통소를 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방아다리

디딜방아가 하나 있었는데 6·25사변 나기 전에 없어졌다.

■ 주막

호양리에 있었으며 오래된 것이었는데 6·25사변 전, 디딜방아보다는 몇 년 늦게 사라졌다.

■ 찬샘고개

영곡과 성덕의 경계에 있는 샘이다. 물이 차서 피부병 환자가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한다.

■ 진밭

마을 남쪽 황골 부근을 말한다. 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하도 길어서 부부가 밭을 매다가 부인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도 있다.

■ 서규밭

세모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진밭 조금 못 미쳐 위치한다.

■ 수살제

정월 14일날 샘 고사가 끝나고, 해가 떨어지면 마을의 오래된 나무에 제를 지낸다. 지금도 지내고 있으며 깨끗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다.

■ 초당

마을남쪽 산날맹이에 있었으며 한글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일제시대부터 있었으나 해방 후 사라졌다.

■ 아랫말

영덕 2리 초입에 있는 마을로 아래쪽이라 해서 아랫말이다.

■ 둔전뜰

마을 동쪽을 말하는데 고랑이 아주 길다.

■ 갈미골

마을 동쪽 고랑을 말한다.

■ 진동날

길게 내려왔다 하여 진동날 이며, 제방공사 한다고 산을 푹 잘랐다.

■ 산골

마을 남쪽 산 속 깊이 골이 있다해서 산골이다.

■ 서낭당

마을 서쪽으로 서낭나무가 있다. 1980년대에 용암사 라는 절이 근처에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나면서 산자락을 잘라 물이 나오지 않아 이전했다.

■ 치곡 바위

조그마한 바위인데 정월 보름이 되면 달맞이 하러 치곡 바위에 올랐다.

바위에 올라가 달을 보면서 불을 흔들었는데 지금은 달맞이 하는 사람도 없고 산불 방지를 위해 이곳에 올라가지 않는다.

■ 서낭당고개

마을에서 서낭당 지나 도암 넘어가는 고개이다.

■ 한림정고개

한림정에 있는 고개로 넘어가면 공주가 나온다.

■ 수박산

산이 수박처럼 둥그렇게 생겼는데 세립현미가 들어서면서 까뭇개고 집을 지었다.

흙 안에 크고 동그란 청석이 나왔는데 그 돌을 쪼개다가 포기하고 그대로 집을 지었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전의면



6. 전의면(全義面)

조선시대인 1414년에는 연기현과 전의현이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라 했다가 1416년에 각각 환원하여 다시 전의현이 되었다. 1895년(고종 32년)에는 전의군이 되어 7개 면을 관할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기군에 흡수되어 현재는 연기군 전의면이 되었다.

전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암사이다. 비암사는 연기군 전의면에 있는 사찰이지만, 백제권에서는 유일하게 백제왕들에게 제를 지내는 사찰로 나라에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사찰이다.

전의면에는 산마다 산성이 쌓여져 있다. 운주산성(雲住山城)이라 부르는 산성은 원이름이 고산산성(高山山城)이다. 전의의 형국이 솔 모양으로 생겼는데, 증산·고산·운주산이 솔의 받처럼 전의를 받치고 있다. 증산은 전의의 북쪽에 있고 고산은 전의 동쪽에 있으며 지금의 운주산을 가리킨다. 원래의 운주산은 전의 남쪽 이성, 금이성, 비암사가 있는 산을 지칭하며 이성은 전의 이씨 시조인 이도(李棹)가 이곳에 살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운주산성

⊗ 읍내리

읍내리는 전의면의 중심마을로 1895년 전의군이 신설 될 때 읍내면 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전의군이 연기군에 편입되어 전의면이 되었으며 장터, 북동네, 서동네, 남동네, 덕현을 병합하여 읍내리라 정하고 전의면에 편입하였다.

전의면의 중심으로 행정, 금융, 치안, 교육 등 각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부



윤주산성



비암사



읍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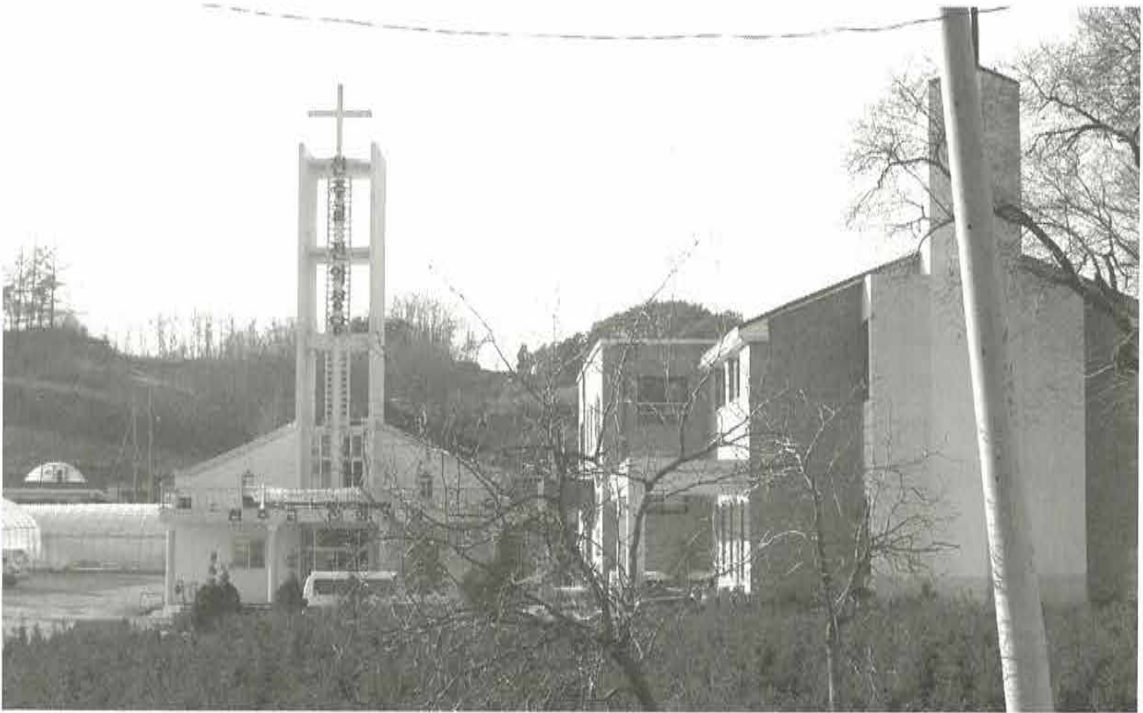
전의면사무소



관덕정



읍내리



읍내리 천주교회



읍내리 장승

선 철도와 1번 국도가 마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이다.

■ 이도사 집

옛날 전의군의 토호로 금부도사를 지냈으며 전의군 곳곳에 땅이 많이 있었고 집도 중앙지(북부)에 크게 위치하고 있었으나 그 아들 이진사대에 와서 조금씩 몰락하여 현재는 모두 떠나버렸다.

■ 객사터

전의초등학교 자리가 객사터이다. 조선세조 10년(1464) 2월 30일에 왕이 속리산 구경하고 온양 온천으로 가는 길에 여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갔으며, 인조 2년 이괄의 난 때 인조가 공주 쌍수정으로 잠시 피난 갔다가 이괄의 난이 평정되매 한양으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자고 갔다는 객사이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드나드는 많은 군인들이 묵고 가는 곳으로 유명하였다.

■ 사직단

마을 평안과 풍년을 기약하기 위하여 춘추 중월(仲月) 상술일(上戌日)에 제사를 드리는 풍습에 따라 제사를 지내던 제단이다. 사직단은 옛날에 전의현 동헌 서쪽 지금의 읍내리 남쪽산 중턱에 있었고 최근까지 기우제를 지냈었다.

■ 장승백이

복숭나무 밑에 옛날에는 나무로 장승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는 콘크리트로 장승을 만들어 세웠으며 제사는 10여년 전부터 중지하였다.

■ 99칸 구옥

전의현 청사 서북쪽에 99칸 짜리 구옥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신대옹이 살다가 전의초등학교 관사로 사용했으며 1994년도에 헐어 현재는 밭으로 변하였다.

■ 향교

동교리 교동에서 현재의 향교자리로 이동하여 왔다.

■ 북암천

노곡, 신정, 관정에서 내려오는 냇물로 북쪽 마을을 지나 조천천으로 들어가는 시냇물을 말한다.

■ 서다리내

고동리에서 내서, 서동네를 내려와 조천천에 들어가는 시냇물이다.

■ 조천천

앞내 라고도 하며 금사리, 영당리, 원성리를 지나 전동으로 흐른다.

■ 덕고개(덕현)

읍내리에서 유천리로 넘어가는 고개를 덕고개 또는 덕현이라 부른다. 여기에서 조천과 충세천으로 나누어진다. 덕고개비가 건립되었다.

■ 황골

시루성 동쪽 밑에 있는 마을로 옛날에는 이곳에 황골절이 있었다.

■ 이적골

일제시대 돌림병에 든 사람을 격리 수용하는 병막이가 있었다.

■ 금지마을

전의중학교 뒤에 있는 마을로 1978년 취락구조 개선 작업으로 마을이 이루어졌으며 이규창씨 제의로 금지마을이라 명명하였다.

■ 북바위

북부에 있는 바위를 '북바위' 라고 부른다. 바위는 평평한 큰 바위이고 그 옆에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하며, 옛날 전의현 원님이 이 고을을 떠날 때는 여기에서 전송하였다 하여 전송암이라고도 한다. 북부 냇가에 있다 하여 북바위라고 부르며 일명 북숲바위라고도 하였다 한다. 현재는 새마을 사업으로 바위의 모습이 사라졌다.

㉟ 동교리(東校里)

옛날 이곳에 향교가 있었다 하여 동쪽마을과 구교동의 이름을 따서 동촌리(東村里)라 부르다가 동교리(東校里)가 되었다.

■ 매봉산

동네 북쪽의 산을 말한다.

■ 산수골

마을 동쪽 남양홍씨 묘 있는 곳을 말한다.

■ 북암천

마을 앞을 흐르는 시내를 말한다.

■ 산수골 서당

현재 조성현 씨 집이 옛날 서당이였다. 6·25 동안 전까지 유흥조 옹이 가르쳤는데 30여명의 학생이 배웠다.

■ 성황당

마을 북쪽 비듬나무 있는 곳에 옛날 돌무더기가 있어 정월 14일날 제사를 지냈는데 도로 확장시 없어졌다.

■ 동교리

동쪽에 있는 마을이고, 예전에 향교가 있었다하여 동교리라고 한다.
동교 1리 동촌, 동교 2리 도랏말, 하교동, 동교 3리 상교동, 동교 4리 교동의 4개 리로 나뉘어져 있다.

■ 외딴말

따로 떨어져서 외딴말 이라고 하며 이곳에 향교가 있었다.

■ 느리게

수명구니, 짐너머, 윗말이라고도 부르며, 가장 위에 있는 마을로 뒤의 산이 편편하다고 해서 느리게라고 한다.
스명구니는 물이 나오는 구멍이라는 뜻이다.

■ 샘골

교동의 중심이 되는 마을로 이곳에 공동 샘이 있는데 물이 많이 나와서 밤이면 물이 넘쳤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다른 동네에서 이곳까지 와 물을 길어다가 썼다. 현재는 샘은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 신사

일본신사로 억지로 신사참배를 시켰다. 그런데 해방 후 신사가 없어지고 그 옆에 신사제물을 보관하던 창고에 사람이 방을 들여 살았는데 밤마다 솔뚜껑이 솔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등 귀신이 장난한다 하여 이곳에서 살지 못했다고 한다.

■ 성황당

상교동 꼭대기와 동촌에 각각 있었으며 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었다. 정월 보름에는 고사도 지냈다. 동촌에 있는 성황당은 성호아파트 올라가는 부근에 있었으며 비름나무가 있었다. 매월 1일과 15일 한달에 두 번 물을 떠다놓고 고사를 지냈다.

■ 산수골

남양홍씨묘 있는 고랑을 말하는데 이곳에 일제시대 때 정구장이 있었는데 해방 후 없어졌다.

■ 홍락선

이 마을에서 아주 부자였는데 묘는 아주 초라하다. 말년에 점점 망해갔다고 한다.

■ 금전구덩이

일제시대 때 도랏말에는 금을 캐던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묵히면서 물이 고여 연못처럼 되었고 후에 땅주인이 메웠다고 한다.(1990년경)

■ 장군바위(벼락바위)

동촌 남양홍씨묘 앞에 있는 바위로 벼락바위라고 하는 분도 계셨는데 유래는 모른다.

■ 장고개

상교동에서 동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옛날 시장에 장보러 갈 때 이곳으로 가면 빨랐기 때문에 이곳으로 많이 다녔다.

■ 우렁골

옛날 이곳은 논이었는데 논이 가장 끝자리였으며 이곳은 습하고 풀이 많아 우렁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우렁골 이라고 한다. 현재는 백로가 많이 날아와서 백로 서식지가 되었다.

■ 두진매

우렁골에서 더 들어가면 두진매로 예전에 2집이 살았다고 해서 두진매라고 한다.

■ 원모산

두진매에서 더 들어가면 전동에는 모산이 있고 도랏말에는 원모산이 있다. 안보산이 변해서 원모산이 되었다. 여기서 모산이란 묘산 일수도 있다고 한다. 예전에 이곳은 용기전이 있었으며 현재는 취락구조개선 사업으로 20호 정도 살고 있다.

■ 비석거리

상교동 가기 전에 삼거리에 병조판서를 지낸 홍락선 이라는 분의 비가 있는데 비석 앞의 삼거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 학교산

마을 동남쪽의 산이며 옛날 일인(日人)재산으로 해방 후 학교재산에 편입되었다가 개인에게 불하하였다. 일명 신사당 산이라고도 한다.

■ 매봉산

학교산과 이어져 있는 산으로 정상은 평평하여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로 사용하고 있고, 옛날에는 달맞이와 매사냥도 하였다.

■ 신사당 산

일제시대 신사(神祠)가 있어 일인이 관리하였고 그 밑에는 제관이 옷을 갈아입는 막사가 있었다.

■ 두집매

옛날 국도가 개통 전에는 무수골을 지나 전동 대자로 넘어가는 고개길이 있었고 우렁끝에 떡집 할머니 집이 있어 오가는 사람이 쉬어 갔다고 하며 두 집이 살았다 한다.

■ 바탕재 고개

동교리 주유소에서 무수골(전동면)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무수골에서 짐을 지고 와서 한바탕 쉬고 간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원수골

옛날에는 애장(어린이 무덤)이 많다고 하며, 지금은 개간하여 밭으로 변하고 있다.

■ 부엉이 바위

동촌과 경계선에 있었고 밤에는 부엉이가 이 바위에 와서 울었다 하는데 아파트 건축시 땅에 묻었다.

■ 상직말

상교동이라고도 하며 동교 4리이다. 원래 산이 높다 하여 상정말이라 불리었는데 발음상 변한 것이다. 이 마을이 삼태기 형국이라 하며 그래서인지 생활이 어렵지는 않다고 한다.

■ 황우장이 고개

동네 동남쪽에 있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황우장이 살았다 한다.

■ 앞고개

마을 동쪽에 있으며 고개를 넘으면 미곡리 학당이 나온다.

■ 상교동

교동마을 위에 있어서 상교동 이라 한다.

■ 향교터

교동 동북쪽 이함경 목묘 앞에 향교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깨어진 기와조각이 흙 속에서 나온다.

■ 샘골

동네 가운데 샘이 있었는데 물이 분출하듯 양이 많았으며 지금도 있으나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구교동

향교가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뺑소니

마을 북쪽(현 씨프렉스 공장)에 있는 산으로 옛날 밤나무가 많아 주인 몰래 밤을 따먹다 들켜 뺑소니치는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느리재

동네 동쪽고개를 가리키며 이곳을 넘으면 수명구니가 나오는데 대청댐 물이 이곳 수명구니를 넘어 갔다.

■ 호랑이 바위

교동에서 느리재 가는 150m 전방에 있는 바위이며 옛날 이선술 이란 사람이 이곳을 지나다가 호랑이를 잡았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서정리(西亭里)

조선시대 1895년에 군을 신설할 때 전의군의 대서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서'와 '관정동'의 이름을 따서 서정리라 하고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 내서(천서)

마을 서쪽에 내가 흐르는데 서부천이라 하고 서쪽의 냇가라 하여 천서라고 하며 동력, 곤말, 감바위 등이 있다.

■ 성재

일명 '시루성' 또는 '증산성'이라 하며 마을동쪽에 있다.

■ 감바위

마을 남쪽에 있는 골이다. 검은 들이라 하는데 그 밑의 들을 감바위들이라 한다.

■ 엄나무골

서정리 제일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어 있는 골이다.

■ 입석

홍직 충신문 앞 바위백이에 세워져 있는 바위가 있다. 누워져 있던 것을 얼마 전에 세웠는데 그와 비슷한 바위가 마을 북동쪽 증산아래에도 누워져 있다.

■ 고등고개

서정리에서 천안 가는 고개로 소로길을 2001년도에 포장을 했다.

천안에서 소를 판 다음, 지름길인 소로길로 오면 도둑들이 지키고 있다가 소 판 돈을 빼앗았다.

■ 동녘

조그마한 골로 마을 동쪽에 위치하며, 예전에는 동네가 있었지만 2003년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다.

■ 곰말

마을 북쪽에 위치하며, 예전에는 외판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논이다.

홍수래가 태어난 곳으로 전해진다.

■ 독고개

마을 동쪽 고개를 말하는데 독고개를 넘으면 황골이 나온다.

■ 단지골

새울 막바지에 있으며 조그만 골짜기이다.

■ 절

황골고개에 조그만 암자식으로 된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 바위백이

비석이 있다해서 바위백이이다.

■ 덕고개

내서에서 양안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관정골

비룡천 아래가 되는데 처음엔 '감실' 또는 '강실' 이라 하다가 마을 앞에 느티나무가 여러주 서 있으므로 감정골 또는 관정골로 변하여 부른다.

■ 시루성

마을 남쪽에 있는 산으로 고려시대의 전장터이다.

■ 비룡재

서정리와 유천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높이가 249m이고 봉우리가 뽀족하여 비룡산천형(飛龍山天形)의 명당이 있는 산으로 옛날에는 중계소가 설치되었다가 개인에게 불하하여 현재는 도서 연수원이 들어있다. 옛날 박정희 전대통령이 헬리콥터로 이곳에 온 적이 있어 용이 올라간 것을 박 전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한다.

■ 거지울

마을에서 서쪽의 골이다. 현재 골프장이 들어섰는데 골이 길어서 거지가 이곳에 왔다가 골은 깊고 집이 보이지 않아 울고 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십리고랑이라고도 부른다.

■ 관정골

관정골 건너 산중턱에 있는 마을로 '산음말' 이라고도 한다. 산음말은 평전말만 칭하는 것이다.

■ 쿵재골

쿵쿵재 넘어가는 고개이다.

■ 여수바위

평전말 뒤 서쪽의 산 정상에 있는 큰 바위이다.

■ 옷샘

쿵재골 밑에 있는 샘으로 물이 차서 피부병이 치료되고 마을 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다.

■ 평전말

일명 산음부락이라 한다. 산으로 둘러싸여 음지가 많아 산음(山陰)이라 부른다.

■ 장군바위

산음마을 뒤쪽에 있는 큰바위이다.

■ 서낭당이

마을 서쪽 거지울 가는 곳에 서낭당이 있었다. 신목(神木)아래 돌무더기가 있고 지엄나무가 있

었으나 골프장이 오면서 1990년도에 없어졌다.

■ 고속골

마을 남쪽에 있으며 신성준 씨가 사는 곳이다.

옛날에는 이곳에서 사람이 살기도 했으나, 다들 떠났다.

이유는 이곳이 조랭이터라서 부자가 돼도 얼마 못 가 망한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 서낭골

고속골 맞은편에 있으며 밭에서 그릇 깨진 것이 많이 나온다.

■ 사냥골

옛날에 양성이씨 성을 가진 학자가 있었는데 총을 잘 쏘아서 사냥꾼이 되었다. 그 학자의 별명을 따서 사냥골이라 한다.

■ 고속골

옛날에 고속골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조랭이터라 잘 살던 사람들이 망해서 평전말로 이사왔다고 한다.

■ 암방골

관장골과 평전말 사이에 있는 골이다.

■ 소리재고개

일본인들이 서정리에 인물이 많이 났다하여 쇠뿔을 박았는데,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하고 있다.

㉘ 원성리(元省里)

조선말기인 1895년에 전의군이 신설되어 원성리는 전의군 대서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원당과 삼성당의 이름을 따서 원성리라 하고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원성리는 풍수(風水)로 보아 용의 형국을 한 대나무(竹)의 뿌리처럼 생겼다 하는데 청룡(靑龍)의 모양으로 마디가 고르게 되어 있어 대뿌리(竹根)라 하여 끈기 있는 선비의 안식처로 통하는 지역이다.

■ 효열문(孝烈門)

대뿌리 앞에 있는 정문으로 조백련(趙百連)의 아내 열녀 경주김씨와 효자 조명빈(趙命彬), 조수빈(趙秀彬)의 정문을 한데 모아 세 칸을 세우고 효열문이라 한다.

■ 고성(古城)

마을뒷산이 성을 둘러싸은 것 같다하여 고성산 이라 부른다.

■ 노루목

뒤산의 모양이 노루처럼 생겼다하여

■ 대뿌리

원성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청룡꼬리가 대나무의 뿌리처럼 마디지고 길게 뻗어 있다 하여 '대허리', '죽근(竹根)' 이라고도 한다.

■ 원당

삼성당 위쪽에 있는 마을로 파평 윤씨 들이 많이 살았다. 옛날엔 제당이었던 곳이라 원당이라 부르며 현재는 군부대가 들어와 마을이 없어졌다.

■ 삼성당

옛날 어느 스님이 바랭이를 짚어지고 이곳을 지나가다가 이 곳의 형국을 보고 세 번 보고 갔다하여 삼성당이라 부르고 양택(良宅)으로는 좋은 지형으로 인정하고 있다.

■ 양안이 고개

대뿌리 동네 위에서 양안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가루고개

양안이 가는 고개는 옛날 소서면에서 한양으로 올라가는 가장 큰길이었다.

■ 되토울

마을 서쪽에 위치하며 넘어 가면 유천리가 나온다.

■ 뽕나무다리

원당에서 유천리로 넘어 가는 고개로 매우 넘기가 힘든 고개이다.

■ 이성산

1919년 3월 1일 이성산과 금이산 정상에서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다 한다.(주민 구전)

■ 한덕산

원당리 옆에 있고 영당리 쪽인 서쪽 산을 말한다.

■ 옥거리 들

옛 면사무소 앞의 들을 말하고 구한국시대에 이곳에 감옥이 있었다 한다.

■ 메랑산골

삼성부락에서 고성부락으로 가는 뒷산을 말한다.

■ 밤나무골

대뿌리 뒤 현 면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대허리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숲을 이룬 곳으로 선정비와 공덕비가 있다.

■ 신보종

6·25때 포탄껍질로 만든 종으로 동네모임이 있을 때나 마을의 급한 일을 알릴 때 사용하는 종이며, 죽근에 있다.

■ 밤나무골

고성과 대뿌리 사이의 골짜기를 말하며 이곳에 밤나무가 많아서 밤나무골이라고 한다.

■ 가로고개

묘 자리를 쓰는 명당자리를 보면 묘가 정면으로 보이게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묘가 가로로 보여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가로로 묘를 써야 되는 자리라서 가로고개라고 한다. 군부대 올라가는 길 우측 길을 가리킨다.

㉨ **신흥리(新興里)**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에는 대서면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사사리', '생송리'를 병합하여 송사리로 하였다가 1929년 새롭게 흥하는 지역이라 하여 신흥리라 고쳐 부르고 전의면에 편성되었다.

■ 사사

모래 많은 마을이라 하여 사토(沙土)라고 부르며 신흥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너명골

사사 서남쪽의 골로서 민가가 한 채 살고 있다.

■ 장수바위

너명골에 있는 바위로 이성산과 금이성에서 장수들이 바위를 가지고 공놀이를 하다가 던진 것이 이곳에 내려앉아서 바위로 변한 것을 장수바위라 말한다.

■ 도리내

원성리에서 사사로 넘어오는 냇가를 말한다.

■ 향나무

마을입구에 있으며 그 옆에 우물이 있다. 순천이씨가 이곳에 낙향하여 심었다고 하며, 우물은 마을 공동으로 썼으나 현재는 자가 우물 관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일제시대 일본인이 이 향나무를 캐가려 하자 나무가 울어서 옮기지 못했다고 한다.

■ 물레방아

사사에도 물레방아가 있었으며 1970년대 없어졌다.

■ 생송

옛날 큰 소나무가 하나 유창하게 서 있었다 하여 생송이라 불렀다.

■ 매봉

마을서쪽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하고 그 밑에 복치형(뿔이 엮드려있는 형국)의 명당자리가 있다 한다.

■ 이성산

마을 앞 내 건너 산 정상에 돌로 쌓은 산성이 있는데 전의이씨의 시조인 이도(李悼)가 살아서 이성산성이라 부른다. 옛날에는 생송 마을과 이성산 정상 간에 긴 줄을 매달아 놓고 서로 당기어 의사소통을 했다 한다.

■ 돌비

느티나무 옆 정자 앞에 돌비가 있으며, 비에는 '안동김씨 김공선생 백세 불망비'라 기록되어 있다.

■ 절골

마을 동쪽 넘어 원성리에 있으며 옛날에는 불당골이라 불렀고 이 절의 우물이 유명하였다.

■ 보모리

사사에 있는 고랑으로, 작은 보모리, 큰 보모리라는 고랑이 있다.

■ 돌부처

생송 마을 초입에 있는 돌로 음력 10월이면 동네사람들이 떡을 해놓고 소원을 빌었다.

■ 서낭당

절골고개에 있었으며 벚나무와 돌무더기였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사방공사를 한다며 헐었다.

㉘ 유천리(柳川里)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 대서면 지역이었다. 버드나무가 냇가에 많이 서 있어 오류(五柳)라 하였고 물이 귀한 탓으로 오행설(五行說)에 의하여 유천리라 하였으며, 1914년에 각 리를 정리할 때 '오류동'과 '다운천리'의 이름을 따서 유천리라 하였다.

유천 1리는 오류골(외오류)과 양안리로 구성되었다.

■ 이도묘(李悼墓)

전의이씨 시조의 묘이며 양안이 마을남동쪽에 있고 복호형(伏虎形)의 명당이라 하며 그 앞 철길 옆에 개바위가 있고 마을건너에는 창날이 있으나, 현재는 민석아파트 공사 시 상당부분 없어졌다.



이도묘



이도신도비



개바위

■ 전의이씨 영사제

이태사묘 북쪽 양안리에 1996년도 6월 23일 준공식을 가졌고 총 3100평에 사업비 15억을 들여 위패를 모신 경원사(景遠祠)에는 내사문, 승의당, 운서제, 예동제, 일월당, 홍살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오류골

상오류, 중오류, 외오류로 나누는데 현재 상오류·중오류는 군 탄약창이 들어서면서 모두 떠나갔으므로 1991년에 마을이 없어졌다.

■ 상봉

오류골 서쪽에 있는 산으로 가장 높은 산이고 정상 근방에는 절터가 있는데 절은 없어지고 깨어진 기와장이 나온다.

■ 하가울

오류골 동쪽에 있는 골로 옛날에는 하씨들이 살았으며 개울 건너에 있다.

■ 병어리골

마을 남쪽 개울건너에 있고 병어리가 경작을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상오류골

일명 안오류골이라 하였고 7가구가 살았는데 탄약 군부대가 설립되면서 마을이 없어졌다.

■ 별똥백이

상오류에서 가장 높은 지대이고 별을 제일먼저 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매나무 다리

상오류 마을 남쪽에 있는 묘자리를 말하며 '매화낙지'의 명당자리를 찾다가 붙여진 이름이다.

■ 열두담불

돌무더기가 열 두개 있었고 이곳에 금으로 만든 담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전해왔다.

■ 개바위

일제시에 철로 개설할 때, 복선 공사할 때, 1991년 군부대가 들어올 때 이 개바위를 없애기로 설계하였는데 전의이씨들의 강력한 항의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 덕고개

일명 돛고개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묘안

양안에서 철도건너 앞마을인데 전의이씨 영사제가 있다.

■ 비석거리

철도 건너 국도변에 비석이 있는 곳이다.

■ 오류골

이 마을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아서 오류골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버드나무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이곳에 꽂아놓았는데 이것이 버드나무가 되어 살아났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 병어리골

옛날에 이곳에 병어리가 살았다고 하여 병어리골 이다.

■ 오류정

마을회관 앞의 정자로 1999년도에 지어졌다. 이곳의 정자나무는 느티나무로 100년 정도 되었다.

■ 오이샘

해가울에 있는 샘으로 돌 사이에서 물이 나온다. 자신의 점을 보거나 합격유무 같은 것을 알아 보려 할 때 이 샘의 돌에 돌을 놓고 돌리면 돌이 붙으며, 돌이 붙으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돌이 붙지 않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뱀모랭이

뱀이 많다 하여 뱀모랭이 라고 하며, 이곳에 서낭이 있었다.

■ 양안

현 민석아파트 있는 마을로 전의이씨 제실이 있다.

■ 오이샘

해가울 쪽으로 오이샘이 있었는데 돌 사이에서 물이 나왔으며 이 돌 위에다 돌을 놓고 돌려 비비면 돌이 붙거나 떨어지는데 점이 많으면 붙고 틀리면 떨어지는, 점을 볼 때 사용했다.

■ 샘목

회관 뒤쪽으로 옛날 이곳에 절이 있었으며, 그래서 이곳에서는 기와장이 많이 나온다.

■ 어천

개울에 대추나무가 있고 여러 작은 냇가 마을 앞에서 넓어졌다 하여 어천이라 부른다.

■ 노루죽은골

동네에서 동쪽으로 가장 긴 골로 현재는 골프장이 들어섰다.

■ 중방 바위골

노루죽은골 밑에 있으며 큰바위가 문지방처럼 가로 막혀 넘어가야 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범바골

음침하여 옛날에 범이 나왔다는 곳이다.

■ 국수봉골

봉우리가 높아 풍세까지 보이며 국수봉까지 골프장이 되었다.

■ 논골

비룡대 말랭이로 논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논골 밑→재피골 밑→봉예골 밑→다리쟁이골 밑→너털골 밑→증산골 밑→세방골이 있다.

■ 대골

동네 동쪽 골인데 골프장이 매수하였지만 개발은 하지 않았다.

■ 판득이죽은 골

판득이가 죽은골 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서침골

마을 동북쪽에 있으며 서씨의 묘가 있다.

서침골 밑→밭골 밑→맹정골 밑→옥가자골 밑→범박골 밑→뛰악골 밑→좁사리골 밑→발다리 잡골이 있다.

■ 참나무새 목

천년 묵은 과목을 8·15 해방 후 비바람에 가지가 찢어졌으며 1960년도에 다른 가지가 베어졌다. 지금도 가끔 정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 지내잡이

옛날에 마을 주변의 돌 밑에서 지네를 잡았고 천안·평택 등지에서도 잡으러 왔다.

■ 모시(점화)

일제시대 이곳 마을을 모시 재배단지로 정하고 강제로 재배하도록 하였으나 타산이 맞지 않아 중단하였다.

■ 다운천

뒷산이 병풍처럼 둘러있고 '그지울' 남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에서 흐르는 작은 시내가 마을 앞으로 흘러와서 꺾이어 서쪽으로 흘러가는 위쪽에 있으며 옛날에는 다운사 라는 절의 이름을 빌어 다운리라고 하였다가 다운내라 부르게 되었으며 절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 황새뒷골

옛날 황새가 내려와 앉았다는 전설이 있다.

■ 증산골

다운사가 있었던 곳으로 샘이 있는데 옛날에 보물과 유기그릇이 있다고 하여 물건을 꺼내려고 물을 품으면 천둥번개 때문에 중지하였다고 하며 때로는 고려자기 조각이 나오기도 한다고 전한다.

■ 남산짜

마을 위쪽에 있는 곳이다.

■ 증산골 고개

평전말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저수지

일제시대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만 있고 물을 저수해 놓았다가 농사철에 활용한다.

■ 부처당처

옛날 절이 있다가 헐리고 부처만 다섯이 서 있었는데 1901년 경부선 철도가 생길 때 일인(日人)들이 그 부처를 가져갔다 한다.

■ 거지울

옛날에 거지가 고랑이 깊어 계속 들어갔는데 끝까지 가 보니 마을이 없어 울고 나왔다 하여 거지울이다.

■ 백장골

백장자가 살았다하여 백장골 이라 하는데 이곳에서 기왓장도 나오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 이곳에 금단지가 묻혀 있다는 소문이 있다.

■ 형제바위골

바위가 산꼭대기에 3개가 있어 삼형제 바위라 하는데 이 바위가 있는 골이라 하여 형제 바위골이다.

■ 벼락바위

서라니 라는 곳에 있는 바위로 벼락을 맞아서 돌이 갈라졌다하여 벼락바위이다.

■ 숲거리

지금 어천에 돼지막 있는 곳을 숲거리라 하며, 예전에 이곳에 오리나무가 죽 서있었다.

■ 큰논에, 작은논에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이 큰 논이고, 좌측이 작은 논이다.

큰 논에는 산이 우거져 해가 일찍 떨어진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다 해 떨어져서 집에 오면 일찍 온다 하여 웃는 해라 하고, 작은 논에는 평지여서 해가 늦게 진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일하다가 해 떨어져 집에 가면 이미 캄캄해졌다 하여 우는 해라 한다.

■ 백장골

회관 가기 전의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백장사가 살았다 해서 백장골 이라고 하며 이곳의 땅을 파면 기와장도 나오고 또 이곳에는 금단지도 묻혀 있을 것이라는 말도 있다.

■ 굴골

백장골 위 들어가는 입구에 석굴이 있어 굴골이다.

■ 형제바위골

굴골 위로 산꼭대기에 바위 3개가 있는데 형제바위라고 하며 그 골짜기를 형제바위골 이라고 한다.

■ 설안

낙양사 가는 중간 우측으로 벼락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 돌이 갈라졌다.

■ 습거리

돼지막 있는 곳으로 옛날 이곳에 아름드리나무가 죽 늘어서 있었는데 그래서 습거리라 하며 이곳 땅을 파면 나무 잘린 뿌리가 많다.

■ 웃는해

큰논에 우측으로 산이 높고 우거져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일을 빨리 끝내서 웃는 해 라고 한다.

■ 우는해

작은논에 좌측으로 터가 넓고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는 해 라고 한다.

㉟ 관정리(觀亭里)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 북면의 소재지로 유동에 면사무소가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의군이 전의, 전동면으로 분리될 때 관정리는 전의면에 속하게 되었다.

면 소재지에서 북쪽으로 2~4km로 길게 뻗어있고 북동쪽으로는 성남면과 수신면을 큰산으로 경계를 이루고 북서쪽 신설된 소정면과 접하였으며 남서쪽은 읍내리, 서정리로 경계하였고 마을 중앙부를 경부고속전철이 관통하고 있다.

관정리는 1리가 유동, 양곡이고 2리는 취촌, 사관정(하대부)이며, 3리는 상대부, 중대부 등으로 3개리 6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었다.

■ 유동

느리골이라 하고 옛날에 느릅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나 현재 마을 입구 장성 세운 곳에 느티나무 괴목이 서 있는 곳으로 보아 느티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 양곡

군량골 이라 하고 옛날 대부항이 있을 때 시루성에 군사가 주둔하였고 여기에 군량을 저장했었다. 시루성 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며 여기에서 땅을 파다가 수 백년된 진창미(陳倉米)가 나왔으므로 군사들의 양식을 저장하였던 마을이라 하여 군량골 이라 부른다.

■ 북면사무소

1897~1914년 면소재지였다. 그 이전에는 객사로 사용했던 건물이다. 전의군이 생기고, 전의군 북면사무소로 사용하다 현재는 가정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의면 관정리 508번지이다.

■ 계룡산

일명 '형제봉, 쌍필봉' 이라 하는데 마을 북쪽에 있고 봉우리가 2개이며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되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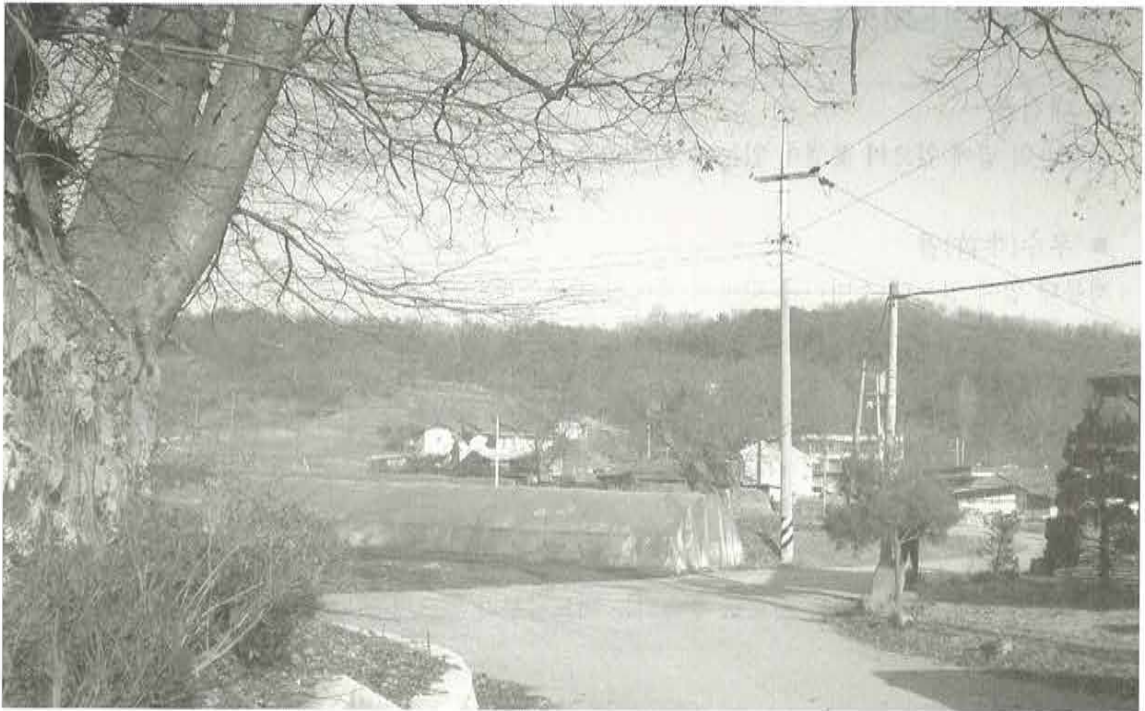
■ 뇌암산(벼락재)



증산성



관정리장승



관정리 유동



관정리 유동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벼락바위가 있고 이곳을 넘으면 취촌이다.

■ 대첩골

벼락바위 밑에 있으며 옷샘이 있는데 옷이 오른 사람이나 피부병 환자에게 효험이 있다.

■ 우수(牛首)골

계룡대 밑에 있는데 소머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장승백이

서방 장승백이는 마을입구 괴목(느티나무)이 있으며 1년 1회(음력 정월14일) 장승제를 지내고, 동방 장승백이는 마을 동쪽 참나무 있는 곳에 장승을 세운다.

■ 버드나무

마을 입구에 천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버드나무가 있으며 옛날엔 그 밑에 대장간이 있었다.

■ 숲거리

느릿골 앞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숲은 유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숲을 만들어서 마을에 평온이 왔으며 유동에서 장승제를 지낼 때 사물놀이 패들이 이곳에 와서 풍장을 크게 쳐서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면 그 나무를 베어서 장승을 만드는데 썼다 한다. 현재 숲거리는 모두 파괴되었고 이곳으로 고속 전철이 지나고 있다.

■ 세보

마을 입구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곳으로 물줄기가 세 군데에서 흘러나와 보를 형성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시루성

군량골 앞의 높은 산이다.

■ 사관정(四觀亭)

조선시대 효종 때 학자 이상이 정자를 짓고 관산(觀山), 관농(觀農), 관수(觀水), 관어(觀魚)하였기 때문에 사관정이라 한다. 또 다른 기록에는 북쪽의 관불산 동쪽의 고산, 남쪽의 운주산, 서쪽은 증산이 보인다고 하여 사관정이라 했으며, 처음에는 마을입구에 세웠는데 도로 확장으로 인하여 현재의 장소로 옮겼다. 대들보에 을미년(1902)에 세웠다고 쓰여 있다.

■ 삼현사(三賢祠)

효종 때의 학자 이상이 사망하자 신후윤(愼後尹)이 향의(鄉議)로 뇌암사를 창건하였다.

■ 벼락바위

유동과 사관정 경계 산등성이에 있는 바위로 큰 집채 만한 바위 한 가운데가 벼락을 맞아서 갈라졌다 한다.

■ 뇌암서원(雷岩書院)

벼락바위 아래 사관정 뒤에 있는 서원이다. 조선 영조때 세워졌으나 고종 5년(1868)에 헐리고 터만 전한다.

■ 삼현바위

옛날에 삼현사 터에 있던 바위로 뇌암서원에서 글을 읽던 유생들이 바위에 삼현동(三賢洞)이란 글씨를 새겼다 하는데 지금도 그 글씨대로 삼현바위라 부른다.

■ 작은터골

뇌암사 원 자리를 말한다.

■ 취촌

일명 대추리라고도 하는데 취금현(醉琴軒) 박팽년의 호를 따서 취촌이라 했다.

■ 부엉바위

동네 북쪽산 아래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부엉바위라 하고 이곳에서 부엉이가 울면 동네에 화재가 난다고 한다.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면 호랑이가 부엉바위에 올라가 제 지내는 집을 밝게 비춰주었다.

제가 끝나면 호랑이가 사라졌다고 전해진다.

■ 문헌비

마을 앞 입구의 논에 단종 복위운동을 하다 실패하자 대역 모반죄로 삼족을 멸할 때 박팽년 선조의 비석을 꺼서 이곳에 묻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김남의 옹의 논이다.

■ 목묘

월조봉 중턱에 목묘가 있고 묘석이 있는데 묘판 상판이 없으므로 누구의 묘인가 알 수 없다.

■ 월조산

마을 북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는 큰절이 있었다 하나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 초정(椒井)

탐고개에 있는 우물이며 천안 성남면과 경계지역이다. 이 물은 세종 26년(1444)에 세종이 한글을 연구하다가 피로에 겹쳐 안질이 생기자 그 안질을 고치기 위하여 그 해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청주 초정에 머물렀었다. 그 때 청주 초정 보다 더 좋은 곳을 물색하다가 4월 15일 병조판서의 제청에 의하여 전의 초정을 추천하고 6월 1일 내섬사윤(內贍寺尹) 금침(金浸)의 답사보고에 의하여 가을에 이곳에 행궁(行宮)을 짓고 명년에 거동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 윤7월 22일에 안질이 있는 이내은(李內隱)과 김을생(金乙生)을 이곳에 보내어 치료를 시험해 보고 그 이튿날 또 전종포서렴(前宗布署令) 장택(張澤)과 신태(信打)를 보내어 치료하게 하였으며, 가을 전의에 행궁을 지으려다 민폐를 생각하여 그만두고 같은 27년(1445) 2월까지 1년 동안 전의 초정 물을 병에 넣어 서울에 가져가서 바르고 마셔서 나았다 한다.

■ 냉정(冷井)

상대부 말미고개 밑에 있는 우물이다. 물이 차고 약수가 된다 하는데 위장병과 피부병에 특효이다. 현재는 생수공장이 생겨서 옛날처럼 마음대로 물을 마시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전의면에 한 군데, 성남면에 6군데 약수가 있다.

■ 태후고개

천안 성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우측에 관정약수가 있고 이 고개를 탐고개, 말미고개라고도 한다.

■ 여수바위

마을(상대부) 동남쪽 외딴집 옆에 있다.

■ 세저리고개

관정리에서 고동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말미고개

관정리 대부리에서 성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중대부

순천박씨 박팽년의 집안이 벼슬을 하며 살았다 하여 중대부라 하였고 박팽년의 조부 박안생의 호를 따서 한석정이란 정자가 있었다고 하나 현재 그 정자는 없어지고 터에서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 한봉



왕의물축제



왕의물축제



왕의물축제



왕의물인 전의초수

중대부 동쪽에 있는 봉우리로 그 남쪽은 노곡리이다. 산 중턱에 산제를 지내던 신목의 참나무가 있다.

■ 서낭당 고개

동네 북쪽 상대부와 성남면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옛날에는 이곳에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정월보름이 되면 떡시루를 해 놓고 지성을 드렸다. 마을길을 넓히면서 돌무더기가 없어졌다.

■ 박골

사육신인 박팽년의 조상과 박씨들이 살던 마을이라 하여 박골 또는 박동이라 한다.

■ 탐고개

마을에서 동북쪽에 있는 고개이고 이곳을 넘어가면 성남면과 수신면이며 옛날에는 이곳에 탐이 있었다는데 현재는 없다. 노곡리에서 병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작은탐고개

순천이씨 공원묘지 위에 있는 고개이다.

■ 호고개

마을 북쪽에 있는 고개로 넘으면 성남면이다. 고개가 험하고 옛날에는 무서워 혼자는 넘기가 어렵다 한다.

■ 느티나무

마을 동쪽 언덕에 있는 나무로 천년정도 됐다고 하며, 수년 전 동네 어린이들이 불장난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일주일동안 탔다고 하고, 그 후 돌을 채웠으며 다행히 나무는 죽지 않았다.

■ 사장들

중대부 앞 들판을 말하며 옛날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유림들이 무술을 닦던 곳으로 왜란 때 많은 의병들이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곳이다. 화살을 날리던 들이란 뜻에서 사장(射場)들이라 부른다. 약선원 이라는 김치공장이 들어서 있다.

■ 오동정

마을 동쪽에 있는 들이다. 탐고개 밑에 위치한다.

■ 참새골

마을입구 서쪽 상대부 쪽의 골이다. 상대부에서는 두루봉이라 부른다.

■ 옷골

마을북쪽에 있는 골이다.

능골고개 밑에 위치하며, 물이 깨끗하고 좋아서 목욕을 했다.

■ 약선김치

전의 관정리 약수로 담은 김치가 맛이 좋아 전국 각지에서 널리 활용하였고, 일본까지 수출하였으며 윤석규 씨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㉘ 신정리(新井里)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 북면지역이었다.

1914년 '신대'와 '갈정'의 명칭을 따서 신정리라 하고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면소재지에서 북동쪽으로 2km에 위치하고 마을에서 북동쪽으로는 노곡리와 관정리에 접해 있고 남서쪽으로는 읍내리와 동교리를 경계하고 있으며, 마을전체가 주로 산간지방에 둘러 싸여 있다.

■ 가을정처(加乙井處)

가을정처(加乙井處)란 관청이 있었는데 정확한 위치는 확인할 수 없고 옛날에 이 관청이 북문에 있어 이곳을 북문고개라 부르며 가나물의 북쪽에 있다고 했다. 실제로 북문고개가 신정 1리인 갈정(가나물)에서 관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므로 갈정 안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여기연(女妓淵)

전의현에서 동북쪽에 있다. 노계(蘆溪)밑의 기암절벽에 연못의 물이 거울같이 맑으며 화창한 봄날에는 바위사이에 핀 꽃이 물위에 드리우고 서늘한 가을의 절기에는 비단같이 바위에 병풍을 두르고 있어서 이 절경을 이루다 기록할 수 없었다고 하며 옛날 한 기녀(妓女)가 살고 있었는데 원한을 품고 물에 빠져 죽음으로써 기연이라 불렀다 한다.

■ 인동장씨 열녀문

본관이 파평인 윤신규의 처이며 누대에 열녀를 낸 가문의 출생으로 모범 된 숙녀의 덕을 갖추어서 일찍부터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군자로서 공경하였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갑자기 중병에 걸려 죽음을 대신해 달라고 하늘에 빌고 소원을 청해 보았으나 살릴 방법이 없어 천명이니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전날 밤에 먼저 자결하였다 한다.

列女 仁同張氏尹信圭妻夫炳從容結頂先絕命旌閭

갈정에서 동북쪽 큰길가에 열녀문이 있었으나 20여년 전에 건물이 남아 쓰러진 후 복구하지 않아 없어지고 지금 그 근방으로 고속전철이 지나고 있다.

■ 가나물

가나물은 마을 가운데 있는 우물에 칠팀쿨이 감겨있다 하여 갈정이라 부르며 신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 매봉재

동네 북쪽에 있는 산으로 산제를 지내는 곳에서 서쪽에 위치한다.

■ 연지(蓮池)

마을 고성태 웅 자택 앞에 연못이 있었고 버드나무 등이 있어 운치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 북문고개

옛날엔 가을정처란 관청이 있을 때 북문이 있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관정리가 나온다.

■ 물레방아

널바위 근처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없어졌다.

6·25때 읍내방앗간이 없어지는 바람에 임시로 만들어 사용했다가 1960년대 초에 없어졌다.

■ 한우물

가나물의 동남쪽 개울 건너에 있는 작은 마을이며, 큰 샘물이 차고 맛이 좋아 약수로도 사용한다 하여 한우물 이라고 부른다.

■ 음달말

운주산 밑 음지쪽에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음한곡 이라 부른다.

■ 강산

강씨들 산이라 붙여진 이름으로 음달말 동남쪽에 있다.

■ 다마니

조선 중엽때 정참판이 살았던 곳으로 음달말과 양달말 경계지역에 있다.

■ 동구나무

마을 가운데에 수 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데 6·25사변 때 북괴군이 이곳에 주둔하자 아군이 집중공격을 하여 집 두 채와 느티나무가 불타고 주민 2명이 죽었다.

■ 벼락바위

마을 강산 정상에 있는 바위로 큰 바위가 벼락을 맞고 갈라져 있다.

■ 수명구니

장고개 넘어 가나물 검은들 쪽이다. 옛날에는 이곳을 수명구니라 불러 풍수가 들이 물구멍이라 했는데 1989년 대청댐 물을 이곳으로 넘기게 되어 옛 지명이 맞았다고 한다.

■ 안골

응달말 남쪽으로 예전엔 인가가 살았으나 지금은 밭이다. 지금도 밭 가운데에서 기와조각이 나오곤 한다.

■ 장고개

3·1운동때 장고개에서 봉화를 놓아서 성남 쪽과 연락을 취했다.

■ 용촌골

응달말 입구로 마을 동남간이다. 동네 바로 옆인데도 골이 아주 험하다.

■ 둔대

벼락바위 너머이다.

■ 횃가마지

큰 웅덩이 같이 가마터가 있다. 거기를 파보면 회가 나온다.
너더리 산에서 개간해서 만든 조그마한 논이 너덕너덕 붙어있다.

■ 더덕굴

운주산 상봉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땅이 움푹 패여 있다.

■ 뱀바위

응달말 바로 밑에 있는 바위로 깨버린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 양달말 방화수

동네 연자방아 자리에 둥구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연못이 있다. 이는 동네가 물이 귀해서 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파놓은 것이다.

■ 양달말

양한곡은 신정 2리의 중심마을이고 옛날에 이곳 마을에 큰절이 있어 많은 스님들이 기거했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쌍바위

양달말 앞 눈에 큰 바위를 쌍바위라 하고 이곳에서 정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고 한다.

■ 호랑이굴 편던

운주산 중턱에 있고 바위 밑에 굴이 있어서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 곳 앞에 편편한 넓은 곳이다.

■ 황새모랭이

양달말 입구 버스 타는 곳으로 종성골, 노곡리를 갈 수 있다.

산의 모양이 황새 같은데 동네가 황새머리이다.

■ 쌍류정

양달말에서 남쪽으로 운주산 밑에 개울가 큰바위 앞에 편편한 곳이 있는데 150년 전에 평택 임 참판이 이곳에 정자를 지었고 그 이름을 쌍류정이라 하였으며, 큰 바위 밑에서 두 줄기 흐르는 물을 양수(남자), 음수(여자)라 부르고 이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기도하면 자식을 얻는다고 하였다. 바위에 3산2수(三山二水)라 쓰여있다.

괴팍한 한 사람이 양수의 돌을 깨버려서 현재 그 모양이 변하였다.

■ 종성골

신정 2리 중심마을인 양달말에서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종성골, 큰골로 구성되어 있다.

■ 양달말

절이 있었는데 그 절 이름을 따서 한여불이라 했으며, 일제시대 때는 양한골이라 했다.

■ 둔태

마을 동남쪽으로 넘어가면 쌍노장(청류벽)이 나온다.

■ 돌몽댕이

큰골 위를 말한다.

■ 황새모랭이

동네가 황새머리라 하여 입구를 황새모랭이라 한다.

■ 싱이

마을 남쪽 나무가 별로 없는 산으로, 고속전철이 나면서 산을 깎아서 낮아졌다.

■ 원당골

1997~1998년 사이 고속전철이 나면서 사라졌다.

■ 강당모퉁이

도리채라고도 하며 마을 남쪽 모퉁이를 말한다.

■ 헛가마재

옛날에 회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다.

■ 재룡재

운주산 밑을 말한다.

■ 북문편던

성에 문이 있는데 북쪽 문 있는 곳에 있다하여 북문편던이다.

㉘ 노곡리(老谷里)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 북면에 속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노곡, 중노곡, 하노곡을 병합하여 노곡리라 하고, 하노곡을 1, 2반, 상노곡을 3반으로 구성하여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 상노곡(上老谷)

노곡리 맨 위쪽에 있는 마을로 골말 되남이, 논말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노곡리 3반에 해당된다.

■ 골말

상노곡의 서쪽 운주산 밑에 있는 마을로 밀양박씨가 살고 있으며 옛날에는 덕수이씨가 살다 이사갔다 한다.

■ 되남이

논말에서 전동면 도남리로 넘어가는 동쪽마을로 5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 되넘이고개

논말에서 되남이를 거쳐 도남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험하고 힘들다 하여 되남이, 때놈(왜놈)이 넘어온다 해서 되남이 고개라 한다.

■ 버드골

되넘이 고개 중간에 있는 골을 말하며, 버드나무가 많다하여 류곡(柳谷)이라고도 한다. 버들골에서 좀 더 깊은 골을 안버들골 이라 한다.

■ 논말

상노곡에서 가장 큰 마을로 14호가 살고 있다.

■ 절터

골말에서 서남쪽 운주산 중턱에 집터가 남아 있고 우물이 하나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그 밑에 절이 있었는데 화재로 인하여 이곳으로 이사왔으며 신라 때 자주사란 절이 있었다.

■ 까채

골말에서 서남쪽 운주산 정상을 향한 곳이다.

■ 중노곡(中老谷)

상노곡 밑에 있으며 현재 빈집 한 채와 해진목장이 있는 곳이다. 30여년 전에는 서 너채의 농가가 있었는데 모두 헐어버리고 최해진(38)씨가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주막거리

농장 동쪽 발에 30여년 전 서 너채의 집이 있을 때 이곳을 주막거리라 불렀으며, 주막이 있었다. 이 주막은 6·25 지나고 몇 해 후 사라졌다.

■ 상장뫼

통뫼 앞에 있는 산이다. 마을 남쪽에 임참판네 묘가 있다

■ 개동산

중노곡 북동쪽에 있는 산이다.

묘가 있는데 그 위치가 개의 형국이라 하여 개동산 이라 한다.

■ 하노곡(下老谷)

일명 안터골이라 부르며 노곡리 맨 아래 마을이다. 27호의 가장 큰 마을로 방앗간(옛날), 교회가 있다.

■ 성황당

마을 입구에 몇 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속이 비어 어린이들이 들어가 놀았다. 이곳에서 매년 정초에 동네 사람들이 성황제를 지냈는데 해방 후 어린이들이 나무속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나무는 태워 없어지고 성황당은 1972년 도로 확장시 없어졌다.

■ 안터골 방앗간

해방 전에 연자방아가 세 군데 있었는데(서랑골, 윗말, 마을중심) 해방 후 발동기가 나오면서 없어지고 1960년대에 서울 최춘하 씨가 신형 방앗간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1980년대에 중지되었다.

■ 쌍바위

관정리와 노곡리 경계에 있으며 바위가 쌍으로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어르목 고개

안터골에서 성남면 봉양리(한저루)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령 빙현(氷峴)이라 하며 옛날엔 진천소로 통하는 매우 험한 길이다.

■ 탑고개

관정리에서 하노곡을 거쳐 성남면 신덕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쇠도독골

안터골 한봉 안쪽에 있는 골이며 옛날에는 도독이 많아서 혼자 넘지 못한 고개라고 한다.

■ 소도독골

소를 매여 놓았던 곳인데 이곳에서 소를 많이 흠쳐가서 소도독이 많았다 하여 소도독골 또는 쇠도독골이다.

■ 즘천뜰

즘이 있었다 하여 즘천뜰이며, 마을앞 개울 건너 남쪽에 위치한다.

■ 벌논

하노곡에서 상노곡 올라가는 쪽 논이다.

■ 장구배미

마을남쪽의 논으로 장구처럼 생겼다 하여 장구배미 이다.

■ 왕배미

상노곡 쪽의 논인데 동네에서 논이 제일 크다하여 왕배미 이다.

■ 당골

마을남쪽 신정리 넘어가는 고개로 일제시대 때 인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편하게 넘어 다니려고 산 능선 혈을 잘랐다고 한다. 3일 동안 이곳에서 피가 흘렀었다고 전해진다.

㉟ 영당리(靈堂里)

조선말엽에 전의군 소서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영성리·당리·상만곡리·하만곡리를 병합하여 영성(靈城)과 당리(堂里)의 이름을 따서 영당리(靈堂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에 전의면 영당리로 편입되었다.

영당리는 당마루, 영성뜰, 마느실인데 마느실은 1991년 군 탄약창 창설시 군부대에 매입되어 없어졌다.

■ 당마루

49호 중 진주정씨가 23호이며, 홍, 이, 김씨가 살고 있다.

■ 영성뜰

23호 중 김해김씨가 5호, 장, 지씨 등이 사는데 김해김씨는 약 1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정착하였다.

■ 마느실

60여호 정도 살았으나 군부대 창설로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 오헌재(梧軒齋)

정씨 신도비 뒤에는 오헌재의 제실이 건립되었다.

■ 입석과 성황당

마을 남쪽 마느실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돌로 된 것이며 매년 정월 보름날 성황제를 지낸다.

■ 진주정씨 재실

마느실에 재가가 있었는데 부대가 들어가서 이주하게되자 1993년 이곳으로 옮겨서 새말에 지었다.

■ 영성뜰

옛날 영성군이란 벼슬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살았다. 이곳 마을이 영당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다.

■ 호정골

마느실 한덕산 밑에 있는 산골로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50년 전까지 미륵부처가 있었다.

■ 6실

마느실(영당리), 가느실(양곡리), 앞실(양곡리), 부거실(달전리), 사구실(금사리), 옥가실(신방리), 골이 깊어 피난처로 적당한 지역이었다.

■ 영성들

작성산 까치성 서쪽 밑에 있는 큰 들이고, 김해김씨들이 살고 있다.

■ 압실고개

압실에서 천원군 광덕면 원덕리와 공주군 정안면 사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옛날에는 도적들이 들끓어서 이 고개를 넘어 갈 때 집단적으로 넘어갔다 한다.

■ 마느실

당마루 서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말미산 위에 있다하여 말위실이 변하여 마느실이라 부르게 되었고 6·25사변당시 한 여인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면서 마늘을 재배하여 대성공을 거두어 주민들도 같이 재배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지로 유명하여져서 마늘실 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1991년도 군부대(탄약창)가 들어오면서 60여 가구의 마느실 마을이 철거되어 도시로 이사를 하였고, 한 집만(정인순)이 남아 있으며 마늘실 마을 입구에 탑을 세워 마을 주민들의 석별의 정을 남겨놓았다.

■ 당마루

영성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며, 마을에 산제당이 있다해서 당마루 당리라 부르고, 진주정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㉞ 신방리(辛芳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소서면 지역이었다.

마을 주변에 크고 넓은 바위가 많아 그 모습이 아름답다하여 신방(莘芳)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존지리, 양방이동, 음방이동, 신암리, 마산리, 도산리를 병합하여 '신방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에 다시 전의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아랫말

신방 1리 마을입구이다.

■ 윗말

아랫말 위에 있는 마을이다.

■ 음달말

윗말 맞은편에 있으며 음지가 되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신암골

음달말 너머에 있으며 아름다운 바위가 많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다.(꽃다울신, 바위암)

■ 이성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고려시대 전의이씨(시조: 이도)가 살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작성

일명 까치성이라고 하며 이성 남쪽에 있고 옛날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 한다.

■ 금성

작성산 옆에 있다.

■ 마산

개울 건너 부대입구의 산이며 말의 형태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 등잔골

마을 남쪽의 산으로 등잔같이 생겼으며 괴등혈의 묘가 있다.

■ 옥가실

대전카톨릭대학이 있는 곳이며 대학이 들어와 배워야 왕이 된다고 하여 옛날 풍수가들이 말한 대로 카톨릭대학이 들어왔다고 한다.

■ 벼락바위

음달말 옆에 큰 바위를 말하며 옛날에 벼락을 맞아 바위 한쪽이 영당리 마을에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다.

■ 괴등혈의 묘

옛날 이곳에 묘를 썼는데 위 아래로 조성했다. 이곳을 괴등혈 산소로 등잔 밑이 어두운 곳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매봉재

음달말 뒷산을 말하며 매의 형국에 있는 정상은 핑이 알을 품는 형국으로 자손이 이곳을 찾

으면 죽는다고 하여 자손이 오지 않는다 한다.

■ 부처골

신암골 뒷골이며 옛날에 이곳에 절이 있었는데 목 없는 돌부처가 있어 그것을 영당리로 옮겨갔다 한다.

■ 향나무

수 백년 묵은 향나무가 마을 앞 샘 옆에 있는데 물이 많고 맛이 좋았으나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다.

■ 돌광

옛날 곡식이나 살림을 보관하는 곳으로 돌이 많아 가두어 둔 곳을 말한다. 금이산성을 쌓을 때 이곳 돌을 이용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 돈지(頓地)

'오야꼬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돈대 위에 있으므로 '돈대' '돈디리' 라 하던 것이 변하여 돈지, 돈지리 라 한다.

■ 향지리(項地里)

지도를 만들 때 돈(頓)자를 그릇되게 적어서 향지리 라 한다.

■ 방이동(芳耳洞)

'돈지'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지형(地形)이 방(房)같이 아늑하다 하여 '방이동(芳耳洞)' 이라 부른다. 또한 '방뿔골' 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작성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남서편에 위치한 마을로 지금은 50여호가 살고 있지만 조선 인조(仁祖)때에 이용한 이라는 선비가 이괄(李适)의 난(亂)에 가담하였다가 이 곳에 몸을 피해서 양지바른 편에 터를 잡아 토담집을 짓고 앞을 살펴본 즉,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동산이고, 멀리는 꾸불꾸불 흐르는 산이 있어 이 토담집이 꼭 방과 같다 하여 '방골' 이라 부르게 하였다 하는데, 그 후 변하여 '방이동(芳耳洞)' 으로 부른다.

■ 음달말

'방앗골'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다. 햇빛이 들어도 음달이 많은 마을이라 해서 '음달말' 이라 부른다. 음방(陰芳), 음방이동(陰房耳洞)이라고도 한다.

■ 오야꼬지

신방리에서 큰 마을이다. 산줄기가 냇가로 뻗었는데 옛날 기와집이 있었고 오야가 많이 나온다 하여 '윗고지' 라고도 부른다. 일제(日帝)때 오얏고시란 사람이 산을 개간하여 목장(牧場)을 만들

었으나 동양척식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뺏기게 되자 황병에 걸려 병사하였다 하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빌어 '오얏고지'라 부르게 하고 현재까지 전해온다 한다. 옛고지, 도산, 도산리라고도 부른다.

■ 신암골

적성산(赤城山)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뱅이곡의 우측에 산기슭을 타고 비스듬이 위치한 '음달말' 남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변두리가 크고 넓은 바위가 뿔이 깔려 있어서 또한 바위가 수려하다 하여 '신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바위가 흔적도 없고 그 잔재로 잔돌만이 산중턱에 군데군데 놓여있다.

'신암동'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나무마을

■ 이태사 유허비(李太師遺墟碑)

이성산에 있는 고려 태사 이도(李棹)의 유허의 사적을 적은 비로서 이도가 이곳에 살면서 집을 남북 두 곳에 두어, 여름에는 서늘한 남쪽 집에, 겨울에는 온화한 북쪽 집에 거처하였다.

■ 이성산(李城山)

전동면 송성리, 신방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돌로 쌓았는데, 고려 때 이도(李棹)가 살았다 하며 이도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 작성산(鵲城山)

까치성, 영성이라고도 하며, 이성산 위에 있는 산으로 예전 난리에 이 부근 사람들이 이 곳으로 피난하였는데, 적병들이 바라다보매 마침 까치가 많이 짓고 있으므로 사람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하고, 그대로 갔으므로 이곳에 피난한 사람들은 온전하였다 한다.

■ 병목안

까치산 안쪽으로 승지골이 있고 안쪽으로 병목안이 있는데 지형이 병목처럼 오목하게 생겨서 병목안이다.

■ 풀무골

옛까지 옆에 대장간이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군무기를 만들었다. 1900년대 경에 사라졌다.

■ 황새울

마을 동쪽 고개를 넘으면 황새울이 나오며, 고개 밑에는 옷샘이 있는데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 차고 맛이 좋아 피부병에 특효라 하여 찾는 이가 많다.

■ 도산

옛날 벽돌 굽는 공장이 있어 도자기를 생산하였고 빨간기와 굽는 곳은 마을 남쪽에 있었다.

㉘ 양곡리(陽谷里)

1895년에 전의군이 신설되고 양곡리는 전의군 소서면의 지역이었다.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한다고 하여 양지(陽地)라 불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에 양곡리·상세곡리·하세곡리·양지리를 병합하여 양지와 양곡의 이름을 따서 양곡리라 하여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 다시 전의면에 편입되었다.

■ 성불사

가느실에 있으며 42년 전에 세워졌다.

■ 모종

옛날에 글을 가르쳤던 곳이다. 현재 건물은 세 번째 지어진 건물로 70여년 전에 지었고 여름에 만 글을 가르쳤으며, 겨울에는 모종 옆에 따로 글방이 있어서 서당 선생님이 어린이를 가르쳤다가 달성초등학교가 개교되면서 서당문을 닫았다. 일제말엽이었으며 이홍열 씨 아버님이 훈장이었다.

■ 금성산



전의묘목축제



전의묘목축제



전의묘목축제

마을 동쪽의 산으로 돌로 쌓은 산성이며,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 사기장골

마을 동쪽 논에서 도자기편과 가마 벽이 발견된다. 안동김씨 종답이 있다.

■ 통두란골

금성산 밑에 있는 통두란 중국 사람의 묘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묘가 집채만하여 도별꾼이 파다가 못 파고 포기하였다 한다. 솔티와 경계지역이다.

■ 성황제

마을입구 참나무 고목에 30여년 전까지 성황제를 지냈다. 음력 10월중 택일하여 동네사람 모두 참여하였다 한다.

■ 절터골

부처골 위에 있으며 옛날에는 절이 있었는데 빈대가 많아 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있다. 일설에 의하면 이곳 절을 옮겨 비암사를 지었다는 말도 있다.

■ 제당

압실, 부거실, 아랫말, 윗말에 제당이 있었다.

■ 어분바위

성재 오르는 산 중턱에 있는데 다락골 박선달 집에서 그 바위가 보여서 바위를 없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벼락이 쳐서 없애지 못했다.

■ 비암골

옛날 비암사 가는 곳을 말한다. 부거실 넘어가는 곳이다.

■ 세곡(細谷)

‘양지말’ 북동쪽 가는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골짜기가 가늘고 그 곳에 마을이 있다 해서 세곡(細谷), 세동(細洞), 가느실 이라 부른다.

또한 ‘세곡’ 아래 마을을 ‘하세곡(下細谷)’, 세곡 위 마을을 ‘상세곡(上細谷)’ 이라 부른다.

■ 주막(酒幕)뜸

양곡리에 있는 마을이다. 양곡리 길가에 있는 마을로 주막이 있어서 ‘주막뜸’ 이라 불렀다.

■ 칠천(漆泉)

양곡리에 있는 약수(藥水)터를 ‘칠천(漆泉)’ 이라 부른다. 이 곳 약수(藥水)는 피부병에 좋고 특히 옷 올린데 효력이 많다 하여 칠천(漆泉)이라 부른다.

■ 양지(陽地)

양곡리에 있는 마을이다. 양곡리(陽谷里)에서 으뜸 되는 마을인데 양지바른 곳에 있다 하여 ‘양지말’ 이라 부른다 한다. 안동김씨(安東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또한 양지말 위쪽에 있는 마을을 ‘위양지말’ 이라 부르는데 ‘양장리’ 가 아니라 양지리 위쪽에 있다 하여 ‘위양지말’ 이라 부른다.

■ 위 양지말(양장리)

양지말 위쪽에 있는 마을로 지도를 만들 때 그릇되게 적어 양장리라 한다.

■ 봉두미(鳳頭尾)

‘가느실’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봉두산’ 아래에 위치하는데, 마을 뒷산의 모양이 봉(鳳)의 머리 모양이기 때문에 ‘봉두미(鳳頭尾)’ 라 부른다.

■ 박산

마을 안쪽 깊숙이 위치한 산으로 박씨네 산이라 해서 박산이다.

■ 잣배기

안동김씨 효자문 있는 부근의 밭으로 효자정문이 세워져 있다.

■ 어문바위

박산 꼭대기의 바위로 거북이모양이기도 하고, 두꺼비모양이기도 한 바위2개가 포개어져 있다.

■ 소산골

현재 이 골짜기에 절을 짓는데 절이 아니고 납골당이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반대시위도 하고 군청에 진정서도 제출하고, 마을 입구 쪽으로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지만 산 쪽으로 길을 내서 절을 짓는 공사를 강행했다. 군청에서는 절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며 현재 건평500평으로 3층 건물이 들어섰다. 아직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 양지정

마을 중간에 있는 정자이다. 옛날 이곳은 모종으로 서당 같은 곳이었다. 건물이 남아서 올해 군청에서 새로 정자를 지었다. 서당이었을 때 이한석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다.

■ 모종

이한석 훈장님이 계시던 서당으로 여름에는 정자에서 글을 배웠는데, 이를 삼역정 이라 하였다. 그런데 남아서 2003년 양지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지었다.

■ 점말백자 가마터

점말에 있는 백자가마터로 도자기편과 가마벽이 출토되었다.

■ 절터

위압실 뒷 고랑에 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 압실

오리가 살아서 이곳이 오리집이라는 뜻으로 오리압(鴨)자를 써서 압실이라 한다.

■ 열두봉

위압실에서 남서쪽에 있는 봉우리가 12개라 하여 열두봉이라 한다.

■ 국사봉

위압실에서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봉화를 올렸다고 하며 천안시 원덕면과의 경계이다.

■ 매창작골

위압실 남서쪽이 골이며 임진왜란 때 중국 이여송이 조선의 인명혈을 끊기 위하여 이곳의 골을 열 십자로 끊으니 물이 흘러 골이 생겼다 한다.

■ 왕실단지

옛날 조왕신단지를 이곳에 모아 놓고 제사를 지냈다.

■ 병사골

아래압실 남쪽의 산인데 병사의 벼슬을 지낸 김호산소가 있다.

■ 곤양골

곤양공의 벼슬을 지낸 김혁의 묘가 있다.

■ 배미실

윗압실 뒷산으로 산꼭대기에 아주 옛날 이곳에 물이 있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기에 논이 있어 논배미라 부르던 것이 배미실이다.

■ 중날산

마을 올라가는 길 우측으로 있는 산으로 중간에 있다는 뜻의 중날산이고, 이 산은 이 마을 안동 김씨 종산이다.

■ 왕신단지

처녀가 죽으면 왕신 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그것이 있다하여 왕신단지이다.

■ 산제당골

아주 옛날에 산제를 지내던 골짜기로 그곳에는 오래된 고목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

㉞ 달전리(達田里)

조선 말기인 1895년 전의군이 신설될 때 전의군 소서면으로 높은 지대에 위치하여 다락과 같으므로 '다락골' 또는 '달전'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이웃마을을 병합할 때 달전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 전의면 달전리라 하였다.

■ 부영골

윗다락골 서쪽의 골을 말한다. 부영골 내에는 살갓이골, 서방진골, 백토제(사기 만드는 가마가 있으며 흰흙이 나온다), 구메방골, 돛동골, 질녁골, 만령골, 피난골, 좌학골, 짚레방골, 씩은터골

등이 있다.

■ 승적골

아래 다락골과 경계에 있다. 작은 승적골은 그 아래에 있으며 옛날 선비들이 한학을 배웠던 서당이 있었다.

■ 단지점고개

고개가 곡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농지정리 할 때에 경운기 다니라고 고개를 깎아 낮추었다.

■ 까치나무 편던

마을 서쪽으로 이곳을 부엉골 이라 한다. 이 산을 개간할 때 사기그릇이 많이 나왔으며 도자기를 구웠던 가마터가 지금도 남아있다. 명당이라 전한다.

■ 망건바위

탕건바위라고도 하며 아래 다락골 불당골에 있다. 바위 모양이 탕건처럼 생겼다.

■ 수청골

마을 앞을 지나는 냇가로 맑은 물이 내려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누곡

옛날 전쟁 때 피난간 곳이다.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 윗다락골

윗다락골의 마을은 학교법인 배화학원(육영수여사 출신교)소유의 땅이 대부분이고 신흥리, 신방리, 일부가 배화학원 소유의 땅이라 한다. 민씨라는 부자가 이곳의 토지를 모두 소유하였는데 워낙 돈이 많아서 이곳의 땅을 배화학원에 기증하였다..

■ 호랑이 콧등뱅이

산이 호랑이 콧등처럼 둥글게 생겼다 하여 이렇게 부른다.

■ 금성동

양달말, 음달말, 병청, 방아뜸이 있는데 병촌(병청)은 금성동 입구를 말하며, 또 이곳은 군 부대의 식량창고가 있었다. 양달말은 금성동에서 가장 큰 마을이고 음달말은 양달말 개울건너에 있으며 방아뜸은 가장 높은 지대를 말한다.

■ 뱀골(비암골)

부거실에서 비암사 가는 길을 말하며 이곳에 백자가마터가 있다. 옛날에는 남자가 큰 구렁이와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

■ 삼형제 바위

금성동 서남쪽 앞산 정상에 큰 바위 세 개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일명 선바위라고도 한다.

■ 섬배들

삼형제 바위 아래들을 말한다.

■ 수리번던

마을 남쪽 금성산 가는 고개이며 그 곳을 넘으면 수디라 불리우는 논이 나오는데 이곳에 고인돌이 있다. 윗수디에 고인돌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사라졌다.

■ 큰 고개

통뭇들 넘어가는 곳으로 이곳을 넘으면 조치원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 사기장골

사기그릇을 만들던 곳으로 음달말 남쪽 골을 말한다

■ 옷골

부거실 입구 첫 고랑을 말한다.

■ 수디골

선바위 너머 마을 남쪽으로 저수지가 있다.

■ 들재고개

마을 앞 남쪽 골을 말하며 옛날에 금사학교를 가려면 이곳을 넘어가야 한다.

㉮ 다방리(多方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소서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다락동·신리·사방동을 병합하여 '다락'과 '사방'의 이름을 따서 다방리라 하고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 다시 전의면에 속하게 되었다.

■ 비암사(碑岩寺)

지금으로부터 1300여년 전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극락보전도 고려중엽에 창건한 것 같으며, 극락보전 앞에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화강암제 석탑과 우측 전면으로는 주지가 거처하는 료거(寮居)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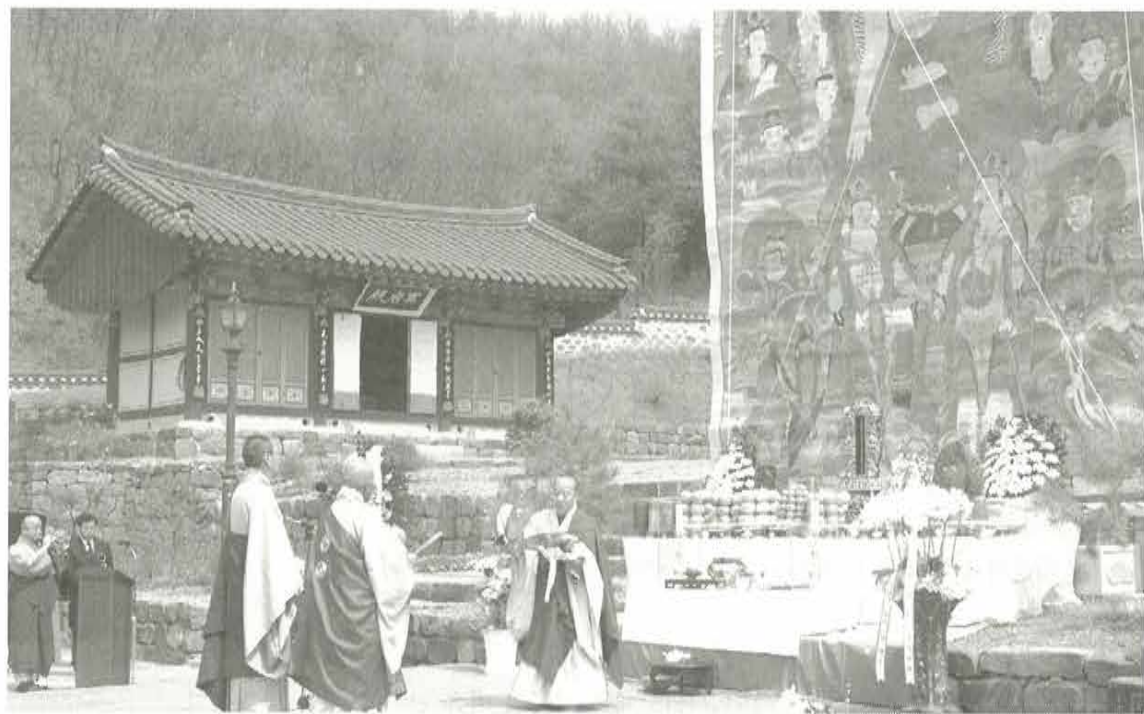
비암사



백제대제



비암사 백제대제



비암사 백제대제

■ 수디봉

마을 북쪽에 있으며 비암사를 싸고 있는 산의 뒤쪽에 수직으로 되어있어 지칭한 말이다.

■ 연봉산

마을 남쪽에 있으며 주변의 여러 봉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붙여진 말이다.

■ 국수봉

마을 서쪽에 있으며 공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뾰족한 봉우리가 솟아 있다.

■ 임성산

마을 동쪽에 있으며 서면 쌍류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 원적골

밀양박씨들의 산으로, 맑고 깨끗한 샘이 있는데 수질이 좋고 수량이 많아서 옛날 원님이 자주 와서 물을 마셨다고 하며 피부병에 좋으나, 현재는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강달이골

마을 서남쪽에 있으며, 내를 건너간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접티골

마을 서북쪽에 있으며 옛날 도자기 가마가 있다하며, 지금도 깨어진 조각들이 많이 나온다.

■ 체봉골

옛날 사람이 죽으면 체봉을 해 놓았다고 하여 지칭한 말이다.

■ 비암골

비암사가 밑에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임성고개

사방골에서 서면으로 넘어가는 큰 고개이며 포장이 되었다.

■ 굴바위

마을 뒤 산봉에 있고 매년 1월 15일(음력)제를 지내고 마을 안녕을 비는 바위이다.

■ 느티나무

비암사에 있으며 1천년 이상 된 괴목이다.

■ 유골

제주고씨의 묘를 이장할 때 시체의 염습한 옷이 썩지 않고 있어 단국대학에서 가져다가 자료실에 전시하였다.

■ 갑박골

전의면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해발 300m) 기온의 차가 심하고 사방으로 산이 둘러싸여 있는 오지마을이었으나, 1970년 초부터 새마을운동의 힘을 얻어 문화수준이 향상된 마을이다.

■ 국사봉

마을 북쪽에 있으며 연봉산 동남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 골량골

마을 서북쪽에 있고 우물이 있는 데다 담수 할 수 있는 작은 저수지가 있다.

■ 토기정골

골량골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 장군바위

마을 동남쪽 연봉산 끝 논 가운데 있으며 비암사에서 장군 한사람이 여자를 옆에 끼고 바위를 밟고 가서 그 자취가 남았다 한다. 296번지 답에 위치한다.

■ 수랑(水浪)골

물수(水), 물결랑(浪)으로 많은 물이 난다.

다락골 남동쪽 골짜기에 새로운 마을이다. 깊게 파인 골이란 뜻이고, 앞에 수령논이 많고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는데 옛날에는 농사용, 식수로 사용하고도 남았다고 하며 물이 많고 시원한 마을이라 하여 수랑골 또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리(新里)라고도 부른다.

■ 권령골

마을 동남쪽에 있다. 골령골 이라고도 한다.

■ 학날

마을 동남쪽에 있으며 학이 날라서 연봉산으로 올라갔다 한다.

■ 학은날

학처럼 생겼다하여 학은날이다.

■ 다락골

동네에 둥구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겁게 놀았다해서 다락골 이라 불렀다.

■ 피난골

수랑골을 피난골 이라고도 했었는데 6·25때 서울, 전의, 조치원 등 기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피난 왔던 곳이라 하여 피난골 이라고 했으며, 전쟁 후에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다 한다.

■ 토끼똥골

연봉산 자락으로 내려오다 폭 꺼진 골을 말하는데 토끼가 많았다하여 토끼똥골 이라 한다.

㉘ 금사리(金沙里)

조선 말엽엔 전의군 소서면 지역이었다. 지금의 저수지 부근에 금광(金鑛)이 있어서 금이 많이 나오므로 이 지역에 있는 금성산의 위사기소와 아래사기소의 사(沙)자를 따서 금사리라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때 전동면에 편입되었다가 1987년 1월 1일 금사리는 전의면의 관할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 사기소리

사기소에서 공주군 의당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사기소리, 사기소 고개라 부른다. 옛날엔 이곳에서 굽는 사기그릇이 유명하였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이 사기소리에 바닷가에서 가져오는 소금과 새우젓과 교환하는 일이 있어서 많은 짐 장사들이 넘나들던 고개이다.

■ 아래사기소

사기소 아래편에 있는 마을이다. 주막뜸, 주막촌, 하사기소라고도 부르는데 옛날에 사기 그릇을 둘러싼 상인들과 일꾼들이 찾았던 주막이 있었던 곳이다. 사기소 아래에 있고 주막이 있었다 하여 하래사기소, 주막뜸 이라 부른다.

■ 사기소 (沙器所)

금사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고려 때부터 조선시대까지 사기소를 두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사기소 자리에는 가마자리가 있고 사기조각이 나온다. 그릇을 굽던 자리에 마을이 있었다 하여 사기소라 부른다.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금사리

■ 장승거리

장승이 있는 곳은 마을입구 도자기마을 비석이 있는 곳과 터골 입구와 참샘골이며, 매년 정월보름날 여기서 장승제를 지냈는데 장승을 깎아 세우고 축관, 제관, 공양주를 가리고 음식물을 차려 놓으며, 장승거리-참샘골-터골의 순으로 제를 지냈었는데 현재는 중지하였다.

윗말북쪽의 골로 옛날에 이곳에 역적이 숨어살았었다 한다.

■ 절터골

마을서쪽에 옛날 절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저수지 위에 기와편과 절터가 남아 있다.

■ 백죽재

이곳에서 백토가 많이 나왔으며 백자를 만들었던 가마터가 있고 가마벽과 도자기편이 무수히 쌓여 있다. 절터골 밑을 말한다.

■ 국사봉

마을 서쪽 높은 산으로 공주의 정안면, 천안의 광덕면, 연기의 금사리와 3군 경계지역 이다.

■ 구매방골

저수지 위의 골이며 작은 구매방골에 옛날에 금을 캐던 광산골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적으로 메워졌다.

■ 동초골

마을 서쪽 바로 아래를 지칭한다.

■ 상가마을

동초골 밑에 있으며 도자기편이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 도자기 굽던 가마터로 추측된다.

■ 황무대이

마을 남서쪽이며 이곳을 넘어가면 공주군 정안면이 나온다. 일명 노고당 이라 하고 분청사기, 백자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다.

■ 말레낭골

마을 남쪽 공주 넘어가는 길옆에 있다. 교회 뒤쪽 다락동 못 가서 있다.

■ 방아다리

학교 위 공주 가는 길의 좌측을 말한다.

■ 청샘

마을 서쪽 장승과 단풍나무가 있는 곳으로 물이 좋은 샘이었는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점쟁이묘

마을 북쪽 오리낭골에 있으며 도공의 묘이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전동면



7. 전동면(全東面)

조선시대에 연기(燕岐)와 합하여 전기현(全岐縣)이 되었을 때 그 영역이었고 또한 태종 16년(1416년)에는 다시 전의현에 속했다. 대대로 선비들이 문혀 사는 지역이었으며, 조선 말 고종 32년(1895년) 전의군(全義郡)의 동쪽 지역에 속했다가 서기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전의 동쪽에 위치(位置)한다 해서 전동(全東)이라 하여 연기군에 편입되었다.

㉸ 청송리(靑松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地域)인데, 이 곳에 예전부터 세 그루의 노송(老松)이 이곳 사람들의 신앙(信仰) 대상(對象)으로 모셨으므로 '청송(靑松)'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청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쇠성

전동면과 서면(西面) 경계에 있는 산이다. 곧 까치성 위에 있는 산성인데 높이가 383m이며 둘로 쌓은 성(城)이 견고하여 철옹성과 같다 한다.

단단한 산성(山城)이라 하여 '쇠성'이라 부른다.

■ 배일

운주산 남쪽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학자 권주(權柱)가 임진왜란 때 의병 300명, 군량(軍糧) 450가마를 가지고 금산(錦山) 싸움에 이르렀다가 별세(別世)하였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일본(日本)을 배척하는 의미(意味)에서 배일(排日)이라 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다 한다.

뒷산이 높고 골이 아늑하므로 '배일'을 '이곡(梨谷)'이라 하였는데 정조(正祖)때 학자 권복(權復)이 살면서 호(號)를 이일(梨逸)이라 고쳤다.

'이곡(梨谷)' 즉, 배나무가 많은 골이라 하여 그렇게 부른다.

권복은 일본을 배(梨)로 비유하여 일본을 멀리한다는 뜻으로 이일(梨逸)이라 하였다.

■ 이일동천비(梨逸洞天碑)

'아래배일' 입구에 있는 비(碑)를 이일동천비(梨逸洞天碑)라 부른다.

정조(正祖)때 학자 권복(權復)의 호(號)를 이일(梨逸)이라 하고 마을 앞에 비(碑)를 세웠다. 그 뜻은 「일본을 멀리하는 마을」이다.

■ 삼송정(三松亭)

'배일'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여기엔 소나무 정자가 세 그루 있다 해서 '삼송정(三松亭)'이라 부른다.

■ 대재

‘아래배일’ 서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서쪽에 큰 고개가 있다해서 큰 재라는 뜻에서 대재, 대터 라고 부르며 또한 ‘대자’ 라고도 부른다.

■ 도청(都靑)

‘삼송정’ 남동쪽에 있는 큰 마을이다. 전의이씨(全義李氏)와 거창(居昌)신씨가 살면서 서로 의종계 모이는 도회청을 두었으므로 도청(都廳)이라 하였는데 일제 때 쉬운 글자를 취하여 도청(都靑)으로 변했다.

■ 강당터

아랫배일 청룡 쪽에 있는 강당 터를 지칭한다.

■ 벼루모퉁이

도청이 동쪽에 있는 모퉁이로서 산이 벼랑으로 되어 있다.

■ 벼루젓들

도청이 앞에 있는 들로서 벼루모퉁이가 있다.

■ 솟골

도청이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솟가마가 있었다.

■ 안배일(내이일 內梨逸)

배일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아랫배일(외이일 外梨逸)

배일 아래, 곧 바깥쪽에 있는 마을이다.

■ 청당(靑堂)골

안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 점골

깊은골 좌측에 있는 고랑이다. 그릇을 구었던 곳이라 하여 점골이라 한다. 이곳에서 토기가 나온다.

■ 도둑골

골이 깊어서 이곳에 도둑들이 많이 살았다 하여 도둑골 이라고 한다.

■ 뒤박골

뒤박처럼 둥그렇게 생겼다 하여 뒤박골 이라 한다.

■ 순넘어

이곳은 숨가쁘게 넘어간다 하여 순넘어 라고 한다.

■ 부처지골

부처가 있었던 곳으로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부처지골 이라 하며 이곳에 옛 절터가 있다.

■ 화털구덩이

은골, 승지골 순으로 골이 있다.

■ 모종

서당처럼 글을 배우는 곳으로 도청에 있었다 하며 1950년(50년 전)쯤 없어졌다.

■ 섭장골

자연부락중의 하나이다.

■ 새뜸

새가 떨어져 있다하여 새뜸이라 부른다.

■ 보도막

서당골과 안말 사이에 있다.

■ 박산

너덕골 옆에 있는 산으로 박씨네 산이라 하여 박산이라 불렀고 지금도 박씨네 산이라고 한다

■ 공산

박산 옆의 산을 공산이라 하는데 공동산 이라 하여 공산이라고 부른다.

■ 산제당

박산 옆에 있는 산으로 산제를 지내는 산이라 하여 산제당 이라 하였다.

■ 너덕골

보도막과 안말 사이의 골로 예전에는 덕대골 이었는데 발음상 너덕골로 변하여 불린다.

■ 안골

서당골 뒤쪽의 골이다.

■ 고장골

운주산에서 제일 깊은 고랑이다.

■ 망날골

회관 뒤쪽에 있는 고랑으로 옛날에 낭군과 이별을 하고서 여자가 이곳에서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다렸다 하여 망날골 이라고 한다.

■ 개미고개

이 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한다.

■ 대내미고개

십리고개라고도 하며 운주산 너머 목천으로 이어지는 고개이다.

■ 남문턱

공산 위의 운주산성의 남문이다.

■ 속개울

마을 앞에 흐르는 개울로 가운데로 내려갔다 하여 속개울 이라고 불린다.

■ 벼락바위

너덕골로 올라가면 바위가 있는데 벼락을 맞아서 반이 갈라져 있다하여 벼락바위라고 한다.

■ 황새바위

이 바위에 황새가 많이 앉아있다 하여 황새바위라 부른다고 하며, 송정 이라는 고개에 있다.

■ 병막바위

운주산에 있는 바위로 바위 3개가 있어 삼형제 바위라고도 부르며 옛날에 군인이 이곳에 막을 짓고 보초 서던 바위라 하여 병막바위 라고 한다.

■ 송정이고개

섭장골에서 자루백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등구나무

서당골에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1980년도쯤 고사했다.

㉞ 청람리(靑藍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남면(南面)의 지역이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동막리·상남포리·하남포리·청산리를 병합하여 '청산'과 '남포'의 이름을 따서 '청람리(靑藍里)'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청산(靑山)

'증미' 밑에 있는 마을이다. '증미'라 하던 것이 변하여 '청미' 또는 '청산(靑山)'이라고 부른다.

■ 버드나무말

'쪽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다 하여 '버드나무말'이라고 부른다. 이 마을엔 냇가뿐만이 아니라 버드나무가 많은 마을인데, '하남포(下藍浦)'라고도 부른다. 남포(藍浦) 아래편에 있는 골이고 '아래고개'라고도 부른다.

■ 아래고개

아래조개라고도 하며 쪽개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냇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

■ 위조개(상남포 上藍浦)

쪽개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 시루바위

'시루봉'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다. 큰 바위가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그 모양이 시루와 같다 하여 '시루바위'라 부르며 '중암'이라고도 부른다.

■ 시루봉(증미, 증봉 甌峯)

청람리 북쪽에 있는 산으로 높이가 142m가 되는데, 시루바위가 봉우리를 이루었다.

■ 동막(東幕)골

'버드나무말'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어려운 사람들이 처음 여기에 마을이 형성(形成)될 때 움막을 짓고 살던 것이 점점 큰 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동막, 또는 동막골이라고도 부른다.

■ 도리말

'큰말' 옆 산을 돌아가서 자리한 마을을 '도리말'이라 부른다.

산을 돌아서 마을이 있다 하여 '도리말' 이라 부른다 한다.

■ 개미기 고개

'청산'에서 전의면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개미기' 고개라고 부른다. 고개가 잘록하여 개미허리와 비슷하다 하여 '개미기' 고개라 부른다 한다. '의현(蟻峴)' 이라고도 부른다.

■ 개미굴

'개미기' 고개 남쪽에 있는 경부선(京釜線)철로의 굴이다. 길이가 2km가 되며 작은 굴이 잇대어 있는데 '개미기' 고개에 있다 해서 '개미굴' 이라 부른다.

■ 쪽개

'청미' 남쪽 내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앞 냇가에 쪽이 많이 있었다 하여 '쪽개' 라 부른다. '조개' '남포' 라고도 부른다.

■ 양지말

'버드나무말' 산등성이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산등성이에 있어 양지를 받는 마을이라 해서 '양지말' 이라 부른다.

■ 버드나무말

양지말 아래쪽에 있는데 버들이 많아서 버드나무말 이라 한다.

■ 동막골

청람리 중 제일 윗동네로 이곳에 경주김씨가 동막을 짓고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이라 하여 동막골 이라 한다.

■ 남포

쪽개 라고도 불리우며 큰말, 도라말, 양지말, 버드나무말이 이에 속하며 이곳이 옛날에 뿔이었다 하여 남포라 한다.

■ 둥글봉

연수봉 이라고도 불리 우는데 동막골 뒷산을 가리킨다. 이 산에는 큰 광산 1개와 작은 광산 1개가 있다.

■ 국사봉

남포에 있는 산으로 예전에 이곳에 봉화대가 있었다.

■ 서낭당골

동막골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곳에 서낭당이 있어서 서낭당골 이라 한다.

■ 절터골

꼬장산 밑의 골로 절이 있었다 하여 절터골 이라고 한다. 기와가 나오며, 예전에 빈대가 많아 이 절이 망했다고 한다.

■ 날근터

국사봉 밑에 있는 곳으로 집터자리가 있고, 기왓장들이 나온다.

■ 진골

남포 동쪽에 있는 골로 골이 길다 하여 진골이라고 한다.

■ 방축골

지금의 돼지막 있는 곳을 방축골 이라 부른다.

■ 말뜰

마른들 이라는 의미로 물이 귀하다고 하며 그래서 물이 말라 있다하여 말뜰 이라고 한다. 마을 들어와서 우측으로 보이는 논이다.

■ 서당골

국사봉 밑의 골로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

■ 평절미

동막골에서 저수지 가는 쪽의 밭이다.

■ 모이골

평절미 있는 곳의 밭으로 연수봉 가는 쪽에 있다.

■ 도깨비편돈

서낭당이 있는 곳을 도깨비편돈 이라 한다.

■ 흙도러

지금은 저수지에 잠긴 곳으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곳이라 하여 흙도러라 한다.

㉞ 송정리(松亭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조선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선비 한 사람이 만년(晩年)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솔밭부근(附近)에 정자(亭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여 송정(松亭)이라 불렀다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송동' 과 '사정' 그리고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정리라 하고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솔재

송정리에 있는 마을이다. 소나무가 있는 고개마을이라 해서 '솔재' 라 부른다.

■ 신대(新垔)

상소골 남서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마을이 새로이 생겼다 하여 새터, 신대(新垔)라 부른다.

■ 안터

연수봉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안터' 라고 부른다. 새터 안쪽에 위치하는데 내기(內基)라고도 부른다.

■ 사장골

'구리골'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때 사기점이 있었던 곳이다.

'사장동(沙場洞)' '사정리(沙亭里)' 라고도 부른다. '사장골' 안쪽에 있는 마을을 '안사장골' 이라 부르고 바깥 편에 있는 마을을 또한 '바깥사장골' 이라 부른다.

■ 상소골

'송정리' 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송곡리 '소골' 위쪽에 있다.

'상송동(上松洞)' '상송곡(上松谷)' 이라고도 부른다.

■ 절텃골

연수봉 아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예전에 연수암(延壽岩)이라는 절이 있었다 하여 '절텃골' 이라 부른다.

■ 연숫골

절텃골 옆에 있는 골짜기를 '연숫골' 이라 부른다. 송정리 동남쪽 계곡(溪谷) 절텃골에서 지금의 송곡천(松谷川)까지의 400여m의 골짜기를 말하는데 절텃골에 있던 연수봉(延壽峯)의 이름을 따서 '연숫골' 이라 부른다.

■ 연수봉(延壽峯)

상소골에 있는 산을 지칭한다.

■ 큰중소골

'상소골'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지금의 '농골' 마을보다 큰 마을로서 인가가 많았으나, 집터가 나쁘다 하여 지금의 '상소골' 또는 외지로 이주하고 권씨(權氏)의 산직집만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수호(數戶)가 살고 있고 옛날의 집터 자리가 남아 있을 뿐이라 '흔터골'이라고도 부른다. 대중송동(大中松洞), 대중송곡(大中松谷)이라고도 부르는데, '큰중소골'로 알려진 마을이었다.

■ 흔터골

전에는 중소골 보다 컸던 마을인데, 점점 쇠퇴하여 4~5호가 남았으므로 흔터골이라 한다.

■ 독송정(獨松亭)

'상소골' 앞 냇가에 있던 독송정의 터로, 지금은 예전의 독송정이 없어졌지만 숙종(肅宗)때 좌의정(左議政) 조사석(趙師錫)이 만년(晩年)에 그 선영(先塋)을 따라 이 곳에 은거하면서 정자를 짓고 소요하였다 하는데 그 정자(亭子)가 독송정(獨松亭)이라고 한다.

■ 동곡(銅谷)

'새터'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구리가 많이 나왔다 하여 동곡(銅谷), 동곡동(銅谷洞), 구리내, 구리골 이라고 부른다.

■ 송정리

소나무가 많고 400여년 된 정자가 있다하여 송정이라 했다. 근래에 송정에 정자가 없다하여 연기군수가 새로 정자를 지어주었다.

■ 소골골탕이

보덕 1리, 송곡 1, 2리, 송정 1, 2리를 통 털어서 소골골탕이 라고 한다.

■ 상소골

소골골탕이 꼭대기라 하여 상소골 이라 한다.

■ 솔재

상소골에서 솔재 넘어가는 고개를 솔지고개라 하는데 그 밑의 마을을 솔재라고 한다.

■ 행골

솔재고개 옆쪽인데 상소골 서북쪽의 골을 행골이라고 한다.

■ 들가운터

쟁미뜰 가운데에 집을 짓고 살았고 들 가운데에 집을 지었다 하여 들가운터 라고 한다.
1950년경에 집이 들어왔다.

■ 사정골

모래사(沙), 정자정(亭)자를 써서 사정동(沙亭洞)이라고 했는데 모래가 많은 곳에 정자가 있다하여 사정이라 했다.

■ 구리굴

정고개 있는 저수지 앞쪽의 마을을 말하는데 동곡 이라고도 하고, 예전에 구리가 많이 나왔다 해서 구리굴이라 했다.

■ 절텃골

절이 있었던 동네라 하여 절텃골이라 한다. 연삭골 고라당에 있다.

■ 연삭골

연산골 이라고 하는데 박팽년의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을 말한다.
사람이 사는 곳은 아닌데 지금 집 한 채를 짓고 있으며, 상소골 동북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 당골

송곡리와 송정리의 경계에 있는 골을 말한다.

■ 소탁골

마을회관 뒤쪽을 소탁골 이라 한다.

■ 아낙박골

상소골 동네의 구서기 마을로 동네 동쪽을 말한다.

■ 호룽골

털골 고라당에 있다.

■ 함장모퉁이

상소골로 나가는 모퉁이를 말한다.

■ 신도비강변

양주조씨 신도비 있는 곳을 신도비강변 이라고 한다.

■ 덕대골

아이들을 묻는 애장터가 있다하여 덕대골이라 한다.

■ 서담네

솔재 앞뜰 앞에 있는 내를 서담네라고 한다.

■ 미리산

송정 1리 정면에 보이는 산을 말한다.

■ 당이마

미리산 자락에 붙어있는 곳을 당이마 라고 한다.

■ 연수봉

송정 2리 안터 뒷산을 말하는데 예전에 바다가 되어 연꽃이 피었는데 그 꽃이 바위가 되었다 하여 연수봉이라 한다.

■ 판통리

숲진거리 밑에 동그랗게 떨어졌다 해서 판통리 라고 한다.

■ 옷샘

웃골과 북단골 사이에 있는 샘을 말한다.

물이 차고 작은 바위틈에서 물이 나왔는데 옷이 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낫는다 하여 옷샘이라 하였다.

■ 새터고개

상소골에서 새터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큰고개

송정 2리에 있는 정고개를 큰고개 라고 한다.

■ 송정리고개

안터에서 송정리, 청람리, 송정 3리로 갈 수 있는 고개를 말한다.

■ 연삭굴고개

연삭굴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다.

■ 장내미고개

연삭골 고라당에서 보덕 2리로 가는 고개를 말하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 헌터골

박만기 이장님 공덕비 옆쪽에 위치한다

■ 솔재

마을회관 서쪽을 말한다.

■ 상소골

마을회관 동쪽에 있으며 소골에서 제일 꼭대기라하여 상소골 이라 부른다.

■ 행골

솔재고개 옆, 서북쪽의 골이다. 현재 4가구가 살고 있다

■ 사정동

모래사(沙), 정자정(亭)자를 사용하며 모래사장에 정자가 있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새터 남쪽에 위치한다.

■ 조케고개

행골에서 청람리(조케)가는 고개이다.

■ 솔재고개(솔재너머)

숲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습징거리, 습징이라고도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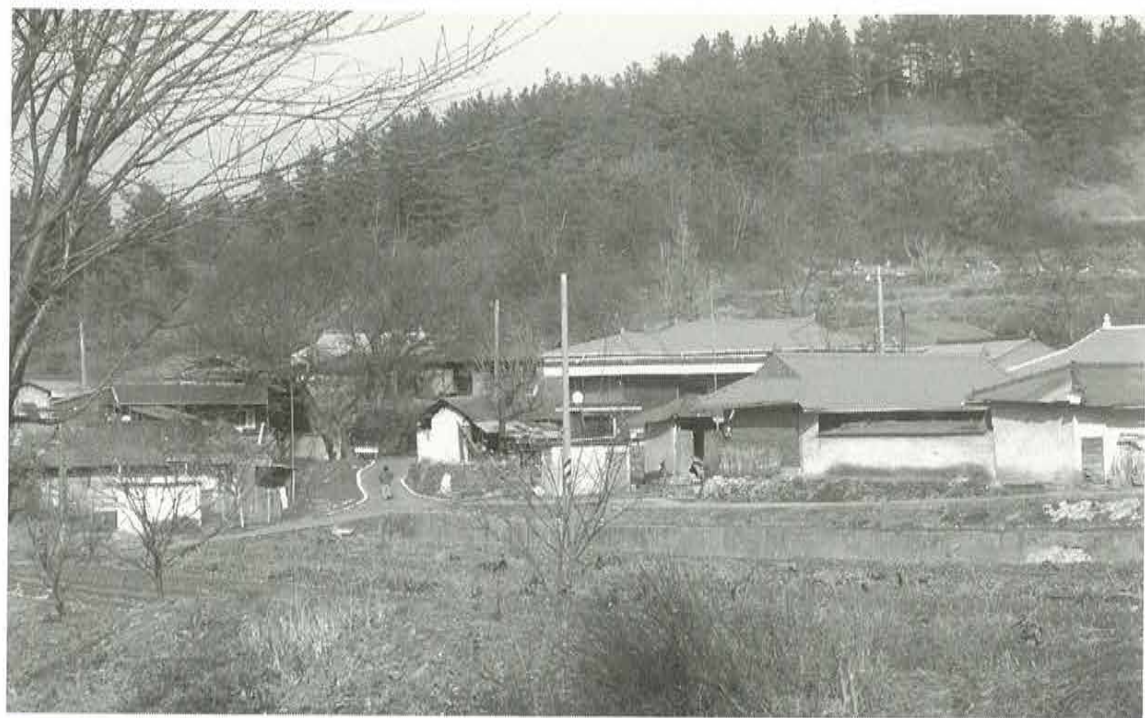
■ 정고개

저수지 옆의 고개로 송성 3리와 송정 2리의 경계이다.

㉨ 송성리(松城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원래가 백제 때부터 솔이 울창했고 또한 백제 멸망 후 부흥운동이 활발했던 송성(松城) '금성(金城)' 이 여기에 있어 여기를 '솔터' 와 '성곡' 의 이름을 따서 송성리(松城里)라 하여 이웃마을을 병합하고 연기군 전동면 송성리가 되었다.



송성3리



충정사



충정사



송성리



송성초등학교(현재 폐교되었다)



보호수

■ 요골

예전에 이 마을에 한 가구가 살 때 어느 해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자 그 곳에 요란스럽게 흐르는 물을 보고, 지나던 한 선비가 말하기를 요곡(물맬 요(?), 골 곡(谷))이라 말한 것이 그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요골'로 변하여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예산이씨(李氏)들이 집을 짓고 많이 살고 있다.

■ 주막뜸

예전 전의군(全義郡)당시 남면을 거쳐 서면으로 가는 길목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주막이 있어서 마을을 '주막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 무드리

젓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물이 흐르면 뱅글뱅글 돌아 때로는 강바닥

까지 보였다 하여 '물도래' '무도리'라 부르다가 '무드리'라 부르게 되었다.

물이 뱅글뱅글 돈다해서 수전(水田), 수전리(水田里), 수회(水回), 수회리(水回里)라고도 부른다.

■ 젓말

'작성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다. 산아래 마을이 있다 해서 처음은 '재말'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젓말'이라 부르게 되었고 '성곡(城谷)' '성곡리(城谷里)'라고도 부른다.

파주염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 솔티

'중말' 남서쪽에 있는 고개를 '솔티'라 하고 그 아래 마을도 솔티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솔티라 부른다. 솔티고개는 고개가 길고 험하여서 도둑이 많기로 유명하였다.

'솔티' 마을은 조선시대 때 사기소가 있었으며 김해김씨(金海金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솔티동'이라고도 부른다.

■ 작성산(鵲城山)

이성산(李城山)위에 있는 산이다. 예전 난리 때 이 근처 사람들이 이 곳으로 피난하였는데 오랑

캐들이 바라다 본 즉, 마침 까치가 많이 짓고 있으므로 사람이 없을 것이라 여기고 그대로 갔으므로 이 곳에 피난 온 사람들은 무사하였다.

까치가 많은 산성이라 하여 '작성산' 또는 '까치성'이라 부른다.

■ 이성(李城)

전동면 송성리(松城里) 이성산(李城山) 위에 있는 성을 이성(李城)이라 부른다.

성안에 여단(?檀)이 있고, 여조태사(麗朝太師) 이도(李棹)가 기거(起居)하였던 곳으로 남북(南北)으로 단(檀)을 일정식(一亭式) 쌓았으며, 겨울에는 남정(南亭)에 거주하고 여름에는 동정(冬亭)에 거주하였다.

■ 이성산(李城山)

전동면 송정리·신방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돌로 쌓았는데 고려 때 이도(李棹)가 살았다 하여 이도(李棹)의 유허비(遺墟碑)가 있다.

■ 중말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있는 마을이다. 일명 백의도사(白衣道師)로 알려진 학관 이정식(李定植) 차남(次男) 이완규(李完珪) 선생의 자손과 백의장(白衣長)하여 민족(民族)혼을 심은 마을로 널리 알려진 마을이다.

'무드리'와 '솔티' 중간에 마을이 있다 해서 '중말'이라 부른다.

■ 각골(각곡 角谷)

무드리 남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뿔처럼 생겼다 한다.

■ 통소리고개

통소리에 있는 고개로 육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며 이 고개로 가면 금이산에 올라갈 수 있다.

■ 바위봉

마을입구의 골로 바위가 많아서 바위봉이라고 불렀다

■ 참샘골

재피골 옆의 고랑을 말하며 차가운 샘이 이곳에 있었다 해서 참샘골이라고 부른다.

■ 개미고개

산이 개미허리처럼 생겼다 해서 개미고개이다.

■ 짐바골

새터말 앞 요골 뒤에 있는 골짜기로 박을 자르면 바가지가 되는데 바가지처럼 가운데가 움푹 들어 갔다해서 짐사골 이라고도 한다.

작은 뒤박골 : 각골 들어오는 곳의 좌측 고랑이다. 뒤박처럼생겼다 하여 뒤박골 라고 불렀다.

■ 서낭당

교장산 끝자락에 있는 것으로 돌무더기가 있다고 하며, 현재 무속인들이 와서 제를 지낸다. 또 근처에는 옛날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다.

■ 재일말

성재를 사용해서 재일말이라 하고, 이성이라는 성이 있었다. 지대가 높아 물이 부족해 농사가 잘 안되어서 부자가 없다.

■ 별말

개미고개별에 마을이 있었는데 옛날에 홍수가 나서 마을이 별말 쪽으로 떠밀려 와서 그렇게 된 것 같다.

■ 안산

재일말과 별말 사이에 있는 산으로 앞쪽에 있다는 뜻으로 안산이며, 김씨 종산이다.

■ 이성산

이 산에 이성이 있었다 하여 이성산 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성은 없고 돌무더기 같은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하며 이도라는 사람이 이 성의 성주였다.

■ 통매

재일말 안쪽으로 둥그스런 언덕이 있는데 둥구스름 하다고 해 통매이며 이곳에 묘가 있었다. 이 묘는 새마을사업으로 꽃밭을 만들려고 공동묘지로 이장했는데 꽃밭을 만들고 마을에 사고가 생겨 통매 옆 둥구나무에다가 제를 두 번 올렸었다.

제는 고사 지내는 형식으로 지냈다.

■ 거미덕골

이성산 밑의 골짜기이다.

■ 수박고개

육계리 사람들이 수박고개로 많이 넘어갔으며 현재 육계리는 전의지역에 속한다.

■ 대추나무골

이곳에 1958년도쯤 주막이 있어서 주막뜸 이라고도 부른다.

■ 금이산(성제)

큰말 뒤에 있는 산을 말하며 금이성이 있어 금이산 이라고 하며 성제라고도 한다.

■ 통미산

큰말 뒤에 우측으로 조그맣게 나 있는 산으로 모퉁이에 산이 있다 하여 통미산 이라고 하며 또 통미산 밑으로 물이 흐르는데 산을 돌아서 흐른다 하여 통미산 이라고도 한다. 산이 둥글게 되어 있어 통미산 이라고 부른다.

■ 토옥골

통미산 아래의 골 이름이다.

■ 소고리미

대추나무골 뒤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장사꾼이 소에 소금을 싣고 대추나무골 뒷산으로 올라갔는데 잠시 쉬어가려고 물가 있는데서 쉬는데 소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가에 갔는데 소금이 그만 물이 떨어져 소금을 잃고 소에게 물을 먹이니, 소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소가 죽었다고 해서 소고리미 라고 한다.

■ 엄줄

대추나무골 안쪽으로 나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칙냉쿨이 많이 자라서 마을까지 칙냉쿨이 내려왔다.

■ 뒤편산

성제 올라가는 산길로 큰말 뒤에 있는 산길이다. 뒤편에 있다해서 뒤편 산 이라고 한다.

■ 불당골

뒤편 산 좌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절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 작은뒷골

통소리 좌측에 있는 골로 뒤에 있는 골이라 하여 뒷골이라 부른다.

■ 큰뒷골

작은뒷골 옆에 있는 골이다.

■ 작은산막실

큰뒷골 옆으로 나 있는 골이다. 해송나무가 산막처럼 둘러싸여 있다하여 산막실 이라고 부른다.

■ 큰산막실

작은 산막실 옆에 있는 고랑이다.

■ 도독골

큰산막실 좌측의 골짜기를 가리키며 옛날 이곳에 도독이라는 벼슬을 한 사람이 살았다.

■ 바위봉

불당골 좌측으로 차례대로 바위봉, 진골, 재피골, 참새골 이라고 부른다. 산에 바위가 많아서 바위봉 이라고 한다.

■ 편돈

구살양달 근처에 있는 논으로 위쪽으로 평평한 곳이 있는데 평평한 곳 밑에 있어 편돈 이라고 한다. 평평한 곳을 풍적새라고 하며 연자방앗간이 있었는데 1950년경 사라졌다.

■ 구리골

송현원 옆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금을 캐던 굴이 있었다. 1980년경에 길이 생기면서 사라졌다. (1983년쯤까지도 금을 캐다고 한다.)

■ 엄줄

대추나무골 지나서 바로 안고랑이다. 칩이 많아서 이곳까지 내려오며, 지금도 칩이 많다.

■ 연동마루

양지원(송현원)가는 길에 있는 논과 밭으로 이곳에서 감자를 나누어 먹자고 하는 말이 같이먹고 영을 쌓자고 해서 연동마루라고 했다.

■ 치시미

연동마루 위에 있는 논과 밭으로 옛날에 동네사람들이 뜰어가도 남을 만큼 지나물이 많이 자랐다.

㉞ 송곡리(松谷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보평'안쪽 골짜기에 자리함으로 '속골'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소골' 또는 '송곡(松谷)'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송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가재골

송곡리(松谷里)에 있는 마을로, 가재가 골짜기에 많다해서 '가재골'이라 부른다.
모시터 동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다.

■ 꽃짜골

송곡리에 있는 마을로 꽃이 잘 어울려 피는 마을이라 해서 '꽃밭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꽃짜골'이라 부른다.

■ 소골

'보령' 안쪽 골짜기에 있으므로 속골, 즉, 산 속에 있는 마을로 '속골'이라 불렀는데, 변하여 소골이라 부른다.

송곡(松谷)이라고도 한다.

■ 모시터

'모시터'에서 조치원읍 둥이로 넘어가는 고개를 '모시터'라 부르고, 그 아래 마을을 '모시터'고개 아래에 있다 해서 역시 '모시터'라 부른다.

■ 병마산(兵馬山)

현재는 조치원의 신안리 조형아파트 옆으로 흐르는 조천 건너에 있는 산이다.
산 정상에 산성이 있으며, 예전에 이곳에서 군사를 조련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성재

'하소골' 동북쪽 송곡리 산26번지에 있는 낮은 토성(土城)이다. 토성이 아래 위 두 층으로 되어 있는데 삼한(三韓)때의 농성(農城)이다.

■ 중소골

'소골' 중앙에 있는 마을을 중소골이라고 부른다. 또한 '능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의 손(孫)인 예조판서 김남중(金南重)의 묘(墓)를 여기에 쓰게 되자 소곡(小谷)을 능곡(陵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능(陵)이 있는 곳이라 '능골'이라 부른다. 그 후 영의정, 병조판서 등 많은 고관들의 능(陵)을 썼다.

■ 하소골

하송곡(下松谷), 아래소골이라고도 하며, 소골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 옥자리터

'모시터' 동쪽에 '모시터'에서 300m거리에 '옥자리터'가 있다.

예전 삼한시대에 농성(農城)인 토성(土城)을 쌓을 때 부역자를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옥자리인데, 한 번은 애를 밴 여인을 가두어 두었더니 쌍둥이를 분만하여 그 때부터 옥자리를 옮겼다 한다. 지금은 일명 쌍둥이 자리라 하여 집을 짓지 않고 전답(田畓)으로 사용한다. '쌍둥이 자리'라고도 부른다. 송곡리 38번지에 있다.

■ 장산

모시터 뒤에 있는 산을 지칭한다.

■ 쌍둥이자리

옥(형무소, 교도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던 여자죄수가 쌍둥이를 낳은 자리라 하여 쌍둥이자리라 한다.

■ 개작골

가재가 많이 났다하여 개작골이라 하였으며 예전에 100여 호가 살았을 정도로 부자동네였으나, 그 가구는 거의 모두 장몰배기였다.

■ 황새바위

모시터 동쪽 끝에 황새처럼 생겼다 하여 황새바위라고 한다.

■ 굴바위

모시터 동남쪽에 위치한 바위로 예전에 짐승들이 월동했던 굴이라고 한다. 동물들이 많아서 연기를 피어 올려 동굴의 동물들을 잡았으며, 장산에 위치하고 있다.

■ 뽕샘

모시터 사람들이 먹던 샘으로 위에 있다하여 뽕샘이라 했는데, 샘이 아주 작지만 물이 깨끗하고 많이 나서 마을사람들이 아직도 펌프로 물을 끌어다 먹고 있다.

■ 적산

일본이 일제시대 때 소유했던 산을 정부산, 그러니까 적산이라 했다.

■ 신청산

황새바위가 있는 산으로 '한마음 효병원' 뒷산을 말한다.

■ 땡이고개

모시터에서는 봉산리를 땡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봉산리 가는 고개를 땡이고개라 한다.

■ 배남징이고개

봉산리를 개작골에서는 배남징이라 했는데, 개작골에서 봉산리 넘어가는 고개를 배남징이 넘어간다 하여 배남징이고개라 한다.

■ 쪽다리

좁은 다리를 말하는데 보건소 옆 모시터 들어가는 다리를 말한다.

■ 여우막골

부망골 옆 밑의 골을 여우막골 이라고 한다.

■ 담배밭골

모시터 남서쪽 마을로 예전에 담배를 많이 재배했다 하여 담배밭골 이라 한다.

■ 서낭당

봉산동 넘어가는 땡이고개에 서낭당이 있었다. 1992년에 신작로가 나면서 서낭당이 사라졌는데 그 뒤로 마을 어른들이 계속해서 아프고 죽어나가서, 서낭당이 사라진 것 때문이라 하여 그 자리에 다시 서낭당을 만들었다.

■ 능골

2리의 자연부락으로 조선시대 부마의 묘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질마봉

소질마 같이 생겨서 질마봉 이라고 불린다. 송곡리 북쪽에 위치한다.

■ 새텃굴

송곡 2리의 북쪽에 위치하며, 이 앞에 있는 논도 새태논 이라고 한다.

■ 삼배미

샘이 있던 곳에 있는 논이다.

■ 장나들이

새텃굴 가는 쪽으로 현재는 소막이 있는 작은 길이다. 이 길을 지나면 모시울과 석굴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 황새바위

마을동쪽 끝에 한마음효병원 있는 곳으로, 심청산에 있는 바위로서 황새모양이다.

■ 석굴고개

송곡리에서 조치원 신안리(석굴) 들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㉞ 석곡리(石谷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마을 앞에 '선돌'이 있으므로 '선돌배기' '돌꽃이'로 불리우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혁시 '석곡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선돌배기

선돌이 서 있었다 하여 '선돌배기' '돌꽃이' '석곡(石谷)'이라 부른다. 예전에 한 장수가 한 길이 넘는 돌을 지팡이로 짊고 다니다가, 지금의 109번지에 꽂아 놓았는데 그 돌을 선돌이라 부른다.

선돌이 병오년(丙午年) 장마에 넘어져 지금은 그 자취가 없어졌는데 선돌이 있던 마을은 '선돌배기'의 '하석곡'이며, 이 선돌을 주축으로 웃말은 '위선돌', 가운데는 '중석곡'이라 부른다. '중석곡'은 '온고비골'이라고도 부른다.

■ 가운데 돌꽃이

중석곡(中石谷), 중석리(中石里)라고도 하며, 돌꽃이 중앙에 있는 마을이다.

■ 위돌꽃이

상석곡(上石谷), 상석리(上石里)라고도 하며, 돌꽃이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 아래돌꽃이

하석곡(下石谷), 하석리(下石里)라고도 하며, 돌꽃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다.

■ 국사봉(國師峰)

'돌꽃이' 남서쪽에 있는 산을 '국사봉(國土峰)'이라 부른다.

높이가 267m되는 산인데, 산에 돌산과 청마가 있고 산제당(山祭堂)이 있다.

고려 때부터 산봉(山峰)에서 국사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이며 봉화대(烽火臺)가 있었다.

또한 서민(庶民)들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는 제단(祭壇)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돌단과 철마가 있고, 산제당이 있다.

■ 송학산(松鶴山)

국사봉 동쪽에 있는 산이다.

■ 석곡리

돌이 많다해서 석곡리이며, 돌꽃이 라고도 한다.
상소곡, 중소곡, 하소곡으로 나뉘어져 있다.

■ 상석곡

석곡리 제일 안쪽의 위쪽에 있는 마을로 안말 이라고도 한다.

■ 중석곡

중간에 있는 석곡리라 중석곡이라 하고,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라 돌음말 이라고도 한다.

■ 하석곡

아래쪽에 있어 하석곡이며 아랫말 이라고도 하고, 선돌배기 라고도 한다.

■ 사기점골

안말 안쪽의 골짜기로 사기를 구웠던 곳이라 사기점골이 되었고 이곳에 사기 굽던 흔적이 남아 있다.

■ 능안

사기점골 좌측으로 능안 이라고 한다.
능처럼 큰 묘가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구리개울

중소곡과 상소곡 사이의 논을 말하는데 농지정리 하기 전에 논이 구불구불 있다해서 구리이며, 논 사이사이로 개울이 있어 구리개울이라고 한다.

■ 옷샘

물이 아주 차가워 옷 오르면 이곳에서 씻으면 나았다고 하여 옷샘이라 하였다.

■ 연자방아돌

중소곡에 있는데 마을에 있던 것을 주워다 놓았다. 연자방앗간은 1970년대에 소실되었다.

■ 큰샘

안말 동네 중앙에 있는 샘으로 현재도 사용하며 각 마을마다 이런 큰 샘이 있었다.

■ 둥구나무

안말 입구(상석곡)에 있는 300년 된 느티나무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 유씨 열녀문

유씨(기계유씨)는 거창신씨 집안으로 시집을 와 살면서 동네사람들과 잘 지내며 성품이 어질고 총명하여 이웃과 가족에게 덕을 많이 베풀었다. 그렇지만 남편과 사별하자 가족을 모아놓고 모두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 이라고 얘기했고 뒤를 따르겠다고 했다.

후에 7일간 음식을 전폐하고 남편 뒤를 따랐다. 1727년에 정문이 세워졌다.

㉞ 보덕리(寶德里)

조선 태종(太宗)때에 전의현(全義縣)에 속했다가 다음에 전기현(全岐縣)에 속했으며 다시 전의현에 속했었다.

이 지역에는 넓은 들과 큰 보(寶)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된다 하여 '보덕(寶德)'이라 부르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보평(寶坪)의 '보(寶)'자와 덕소의 '덕(德)'자를 따서 보덕리라 하여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속하게 되었다.

■ 보평(寶坪)

보덕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붓들'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은 '붓들' 즉, 말해서 보(湫)가 있는 들이라는 뜻이 변해서 '붓들'이라 부른다.

앞들이 넓고 보(湫)가 있어서 농사(農事)가 잘 되어 붙여진 명칭(名稱)인데, 그래서 보물 같은 들이라 하여 '보평(寶坪)'이라 부른다.

■ 서당(書堂)골

보평 위쪽에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 서당이 있어서 서생(書生)들이 글 읽던 자리에 마을이 있다 해서 서당골이라 부른다.

■ 덕소(德沼)

'지프네' 위쪽에 있는 마을을 덕소(德沼)라 부른다. 예전에는 냇물이 흘러와서 고여 '덕소'라 부르고 선녀(仙女)들이 노는 신선지(神仙池)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모래가 쌓여서 소(沼)는 없어졌다. 깨끗한 물이 흐르고 고이는 소(沼)가 있다 해서 이 마을을 '덕소'라 부른다.

■ 절터골

연수봉 남동쪽에 300m정도의 계곡(溪谷)이 있는데 이 계곡을 '절터골'이라 부른다. 예전에 연수봉 기슭에 '연수사'란 절이 있었다.

■ 장군(將軍)바위

‘보평(寶坪)’ 북쪽 냇가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장군바위’ 라고 부른다.

또한 ‘장군암’ ‘석정(石亭)’ 이라고도 부르는데 큰 바위가 넓은 바위 위에 얹혀 있고 그 밑에 큰 냇가 흐르는데 명종 때 학자 박곤(朴坤)이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을 맞아 바위 위에서 이학(理學)을 담론하였던 바위라 한다.

■ 심천(深川)

‘보평(寶坪)’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깊은 냇가 있다 해서 ‘심천’이라 부른다. 또한 ‘지프내’라고도 부르는데, 처음은 ‘깊은 내’라 부르던 것이 변하여 ‘지프내’라 부르게 되었다.

심천(深川) 마을 앞을 흐르는 강물은 조천(鳥川)으로서 소(沼)가 있었다 한다. 여기는 깨끗한 물이 고여서 선녀(仙女)들이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 놀고 가는 곳이라 전해 내려왔는데, 지금은 소(沼)자리에 깊은 못은 없어졌으며 그냥 통칭 심천(深川)으로 부르고 있다.

■ 열녀문(烈女門)

서당골 앞에 있는, 김진창(金震敞)의 아내 나씨(羅氏)의 효열을 찬양한 정문이다.

■ 통미

통미 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 통미산

보평 남쪽에 외따로 있는 낮은 산이다.

■ 성재

남서쪽의 재를 말하는데 하소골 넘어가는 고개를 말하며 조선시대 토성이 있었다.

■ 서당골

성재에서 조금 올라가면 김서방네 서당이 있었다 하여 서당골이라 했다.

■ 솔밭

1리 회관 동남쪽을 솔밭이라고 하는데 솔밭 끝에 묘가 많이 있었다.

1980년대 초에 경지정리를 하며 묘를 파내어서 납골당에 모셨다고 한다.

■ 모래굴

장마로 인해 모래가 다 덮었다 하여 모래굴이라고 한다.

■ 황새바위

띠재산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 삐죽하게 생겨서 황새바위라고 한다.

■ 노적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전쟁시 벼를 쌓아서 노적처럼 보이게 하려고 돌렀다 해서 노적산이라 한다. 지금은 둥그렇다 하여 둥그락 산이라 한다.

■ 안터

덤소 너머 2리 마을회관 오는 길에 있는 마을을 안터 라고 한다.

■ 덤소

2리 마을회관 동쪽을 말하는데 보덕 2리 마을입구에 위치한다.
소가 드러누운 형국인 와우형이라 하여 덤소라 했다.

■ 국사봉

2리 마을회관 서쪽에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하는데 일제 때 측량기점이 있는 산이라고 한다. 그곳에 성과 봉화대가 있었다.

■ 칭벽미테

마을 들어오는 신작로 다리 밑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이시미(이무기)가 살아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고 했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

■ 북적골

이곳에다 절을 크게 지어야 한다 해서 그리 불렀는데 지리적으로 아래에서 쳐다보면 시신을 염해 놓은 것 같다해서 지성을 많이 들이거나 정성을 많이 들인 사람만이 살 수 있는 곳이었다.

■ 쌍복골

애장터 였는데 죽은 아이들은 입던 옷을 입히고, 7번 묶어서 1m정도 파서 여우가 훼손하지 못하도록 깊게 묻었다.

■ 작은절굴, 큰절굴

시커먼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다는 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절을 지어야 하는 터라 하여 크기에 따라 큰절굴, 작은절굴로 나뉘었다

■ 노맛골고개

저수지 위쪽, 마을 정 서쪽에 있는 고개인데, 이 고개를 넘어가면 청람리(도맛골)가 나온다.

■ 한응골

하늘만 보인다고 해서 한응골 이라 하는데 전쟁시에 피난하는 피난처였다.

■ 대추나무골

대추나무가 많았다고 해서 대추나무골 이라 한다.

■ 지린내미

청람리로 넘어가는 조그만 산길에 있다.

■ 큰말내미

숫을 굽던 가마 같은 것이 나왔다 하여 큰말내미 라고 한다.

■ 증골

증촌 이라고도 했는데 그곳에서 옹기를 굽던 증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증촌이라 했다. 지금도 옹기가 출토된다.

■ 솔모랭이

돌아간다 해서 솔모랭이 라고 한다. 솔모랭이에 소를 매면 소가 죽는다고 해서 소를 매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다.

■ 산소골

산신을 위하는 골이라 하여 산소골 이라 하는데, 그곳에는 바닥에 자갈이 많이 깔려 있다.

■ 부영이굴

장내미 있는 곳에 있다. 굴이 커서 6·25때 피난처 구실을 한 곳이다.

■ 금점굴

일제시대 때 금을 캐던 굴로, 송악산에 있으며 굴은 여러 개이다.
소화 7년(1932) ~ 소화 15년(1940)까지 금을 캐었다.

⊗ 미곡리(美谷里)

원래 이 지역은 계곡(溪谷)에 풍류(風流)가 있어서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미곡(美谷)'이란 시조(時調)와 학이 있듯이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곳으로 통칭(通稱)되어 왔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미곡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구역이었다.



백제의얼 상징탑

■ 운주산성(雲住山城)

전동면(全東面) 미곡리(美谷里)에 운주산정(雲住山頂)에 있는 산성을 운주산성 이라 부른다. 예전에 전성부사(全城府使)가 있을 때 목민(牧民)을 다스렸던 산성이다.

■ 안렴사유허비(按廉使遺墟碑)

'학당이' 앞에 있는 비(碑)를 '안렴사유허비' 라 부른다. 이 비(碑)는 안렴사(按廉使)였던 김휴의 사적을 기록한 유허비(遺墟碑)다.

■ 삼천암(三千岩)

'운주산' 중턱에 있는 바위를 삼천암(三千岩)이라 부른다. 바위 밑에 크고 깊은 굴이 있어서 목천(木川) 수신(修身)으로 통하였다 하는데 임진왜란때 이 바위에 3,000명이 피난하였다가 왜적이 여기를 지날 때 바위에 숨어있던 3,000명 가운데 어린 아이가 우는 바람에 여기에 숨어있는 것이 발각되어 모두 피살되었다.

■ 수구동(水口洞)

'미륵당이'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임진왜란때 이 곳에 피난하였던 수 백명이 왜적에게 피살되어 피가 내를 이루었으므로 피숫골 또는 피수동 이라 하였는데, 그 이름이 흉하여 '수구동(水口洞)'으로 고쳤다 한다.

■ 학당리(學堂里)

'미륵당이' 동북쪽 산 속에 있는 마을을 '학당리'라 부른다. 고려말엽 안렴사(按廉使) 김휴가 여기에 살면서 학당을 세우고 후진들을 양성한 마을이라 해서 학당리 또는 학당이 라 부른다.

■ 미륵당(彌勒堂)

미륵당이 모퉁이에 있는 미륵으로 남녀 두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높이 3척(尺) 5촌, 넓이 1척(尺) 8촌이 된다.

■ 새뜸

신동(新洞)이라고도 하며, 조일말 동북쪽에 새로 된 마을이다.

■ 조일말

제지곡(製紙谷), 지곡(紙谷)이라고도 하며, 미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제지소(製紙所)가 있었다.

■ 치마바위

삼천바위 아래에 있는 바위로 잔돌이 큰 바위를 이루었는데, 옛날 남매 장사가 있어서 서로 목숨을 걸고 언약하기를, 남동생은 목매기 송아지를 끌고 서울에 갔다 오기로 하고, 누이는 운주산에 성을 쌓기로 하였는데, 그 어머니가 보니 아들이 질 것이 분명하므로 그를 구하기 위해, 뜨거운 국밥을 딸에게 권하여 먹이는 동안에 그 아들이 돌아와, 그 딸이 깜짝 놀라 치마에 싼 돌을 산기슭에 쏟아 놓아서 바위가 되었다 한다.

■ 조일말

옛날 이 마을에 종이(창호지) 만들던 공장이 있어서 종이마을이란 뜻으로 조일말 이라고 한다.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이다.

■ 까치산

조일말에서 앞쪽으로 보이는 큰산이 까치산이다.

■ 무속골

수구동이라고도 하며 처음에는 피숫골 이라고 했는데 백제시대 때 이곳으로 적군이 쳐들어와 마을주민 3000명이 귀신바위 옆 삼천굴에 숨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아이가 울어 적군에게 모두 몰

살당해 피로 골짜기가 얼룩졌다고 피수골인데 이름이 흉하다고 무속골, 수구동으로 바꾸었다.

■ 치막골

수구동 마을 안쪽으로 좌측 끝 골짜기를 말하며 장수남매의 치마바위 때문에 그렇게 불리고 있다.

■ 큰골

수구동 우측 끝에 있는 골짜기로 방아골 이라고도 했으며 운주산 올라가는 고랑이며, 골이 크다 하여 큰골이라 한다.

■ 노적봉

학당이 앞에 있는 봉우리로 옛날에 이곳에 부자가 살았다.

■ 한녀불

뒷고개로 올라가면 운주산으로 나 있는 길을 말하며 해가 잘 들어서 양달이라 한다.

■ 향우정

앞고개 밑으로 난 지역을 말한다.

■ 곱들깡

학당이 마을 뒤 우측방면으로 옛날 이곳에서 곱들(무딘돌)이 많이 나왔다.

■ 대자루 골짜기

학당이 가는 골짜기이다.

■ 다만밭

무속골 안쪽으로 있는 밭으로 옛날 이곳에 집이 지어진 담이 있어서 그렇게 부른다.

■ 연거지 논다랭이

마을 안쪽으로 있는 논이다.

■ 열세마지기내글

연거지 논다랭이 부분으로 열 세마지기를 말한다.

■ 고랑밭

무속골 마을 뒤쪽으로 산중턱에 있는 밭이다.

■ 잔등밭

고랑밭 위의 산잔등이란 뜻의 잔등밭이 있다.

■ 바탕고개

무속골에서 전의로 넘어가는 고개로 쌍용주유소가 나온다.

■ 학당고개

학당에서 선전마을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치마바위

처막골에 있는 바위로 이곳에도 장수남매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 병풍바위

운주산에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모양의 바위이다.

■ 귀신바위

운주산 삼천굴 옆에 있는 바위로 3000명이 죽어 귀신이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㉟ 노장리(蘆長里)

조선말엽엔 전의군 동면(東面)의 지역이었다. 이 지역엔 갈대가 무성하여 '갈가리'라 불렸었고 임진왜란 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 곳에 살면서 갈대의 덕을 입어 무난히 그 왜란(倭亂)을 피한 후 마을을 그가 '노장(蘆長)'이라 하였다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 이웃마을을 병합하여 '노장리'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全東面)에 편입(編入)되었다.

■ 양지말

'중로장(中蘆長)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다. 양지바른 곳에 마을이 있다 하여 '양지말'이라 부른다. 양지촌(陽地村)이라고도 한다.

■ 이목동(梨木洞)

'원지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배나무골'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 배나무가 많았다 하여 이목동(梨木洞)이라 부른다. 경주김씨(慶州金氏)가 많이 살고 있다.

■ 죽엽리(竹葉里)

'원지기'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주접니'라고도 부르는데, 대나무골이라고 부른다. 예전에 대

나무가 무성했던 마을로 여기에서 나오는 대나무는 나라에서 군기를 만드는 재료로도 사용하여 상당히 아꼈던 대나무밭 이라 한다.

‘대나무밭’ 이 있다 해서 ‘죽엽리’ 라 부른다.

■ 원지기

‘상로장’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선조(宣祖)때 학자 권주(權柱)가 이 곳에서 임진왜란을 피하였다 한다. 원직(元直) 이라고도 부른다.

■ 노장(蘆長)

노장리(蘆長里)에 ‘하노장’ ‘중노장’ ‘상노장’ 의 세 마을이 있는데 모두가 갈대와 연유한 마을 명을 갖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학자인 권주(權柱)가 이 곳에 살면서 왜군(倭軍)이 쳐들어 왔을 때 갈대가 길게 늘어서 무사히 난(亂)을 피할 수 있었다 하여 갈대를 칭찬하기를 ‘노장(蘆長)’ 이라 하고 마을 이름도 ‘노장’ 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마을이 갈대숲 아래 위로 생기면서부터 위쪽은 ‘상노장(上蘆長)’ 또는 ‘상로정(上蘆汀)’, 아래는 ‘하노장(下蘆長)’, 가운데는 ‘중노장(中蘆長)’ 또는 ‘중로정(中蘆汀)’ 이라 부르게 되었다.

‘노장(蘆長)’ 을 ‘갈가리’ 라고도 부른다.

■ 노장천

노장리 앞을 흐르는 천이라 하여 노장천이라고 부른다.

개간 전에는 이 곳이 모두 갈대밭이었으며 노장천의 상류, 중류, 하류에 따라 상노장, 중노장, 하노장 이라고 부른다.

■ 양지말

해가 뜨면 질 때까지 비치고, 별이 잘 든다하여 양지말 이라 한다.

■ 동산적굴

중노장 북쪽마을로 동산 밑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동산적굴이라고 한다.

■ 만경산

중노장 정북 쪽의 산인데, 청원군과 연기군의 경계로 난리가 났을 적에 만 명이 서울을 향해서 만세를 불렀다 하여 만경산 이라고 부른다. 만경산에 가면 말 타고 훈련하던 성터가 지금도 있는데 나무속에 가려져 있다. (기마병 등의 훈련자리를 돌로 깔아 놓았다.)

■ 상노장

노장 3리를 말하며 원래는 상노장 내 건너편에 있었는데 물이 너무 자주 들어와 홍수가 나서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 큰사랑집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곳으로 안동권씨네 종손집이었다.

■ 서당골

상노장 북쪽에 있는 골을 말하며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하여 서당골 이라 한다.

■ 산막골

임진왜란때 안동권씨 13대 할아버지께서 산에 막을 치고 피난을 했다하여 산막골 이라고 한다.

■ 두티미골

원지기 옆 골을 말한다.

■ 동투정

자비정사 있는 곳을 동투정 이라고 한다.

■ 자비정사

2002년에 건립된 새로 생긴 절이다.

■ 원적사

전설이 깊은 절로 빈대가 많아서 스님이 빈대를 죽이려고 절을 모두 태웠다가 1940년대 초에 다시 원적사를 지었다.

■ 양물빼미

1. 예전에 아주 좋은 약수가 있어, 쌍가마(벼슬아치들이 타는 가마)를 타고 와서 이 물을 마셨다. 이 곳은 개인소유였는데 돌을 덮어서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2. 아주 좋은 약수가 있었는데 어떤 기운 센 장수가 양물빼미 옆을 지나다 돌에 맞았다고 한다. 화가 난 장수는 큰돌을 들어서 거기를 막아 놓았다고 한다. 그 후로 그 약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병풍바위 위쪽에 위치한다.

■ 병풍바위

병풍처럼 멋있게 펼쳐졌다 하여 병풍바위라고 한다.

■ 진설미

상소골 환영슈퍼 앞들을 진설미라고 한다.

■ **냘은터**

만두라 옆을 말하는데 상노장 사람들이 처음 살았던 냘은 곳이라 하여 냘은터 라고 한다.

■ **무시미**

지금의 가스공장이 있는 곳을 무시미라고 한다.

■ **벽시미**

가스공장 있는 무시미 밑을 말하는데 예전에 주막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 **마루뜰**

상노장 저수지 있는 쪽이며 죽엽리 가는 곳을 말한다.

■ **소시랑골**

쇠스랑처럼 생겼다 하여 소시랑골 이라 했는데 여기에 여우가 살아서 잡으려고 총을 쏘면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도술을 부리는 여우가 산다고 생각했다.

■ **헛가마**

원지기 가는 길 밑의 호두나무 있는 곳을 말한다.

■ **수령골**

수령이 많다하여 수령골 이라 했는데 헛가마와 원지기 중간에 위치한다.

■ **맨자마골**

골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맨자마 같다하여 맨자마골 이라고 한다.

■ **목뽕이**

골은 좁은데 나무가 많다하여 목뽕이 라고 한다.

■ **가마골**

까마골 이라고도 하는데 골이 까맣게 보인다하여 가마골 이라고 한다.

■ **작은 불당골, 큰 불당골**

불당이 있었다 해서 불당이라 했는데 가보면 절터처럼 양쪽에 암자가 있다.

■ **굴방아골**

안에 작은 굴이 하나 있다하여 굴방아굴 이라 했으며, 그 굴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살았다.

■ 원적굴

원적사 있는데 굴이 있다하여 원적굴 이라 한다.

원적사는 고려중엽 때의 절로 불타서 없어졌던 것을 6?25이후 지어졌다.

■ 꼭지마골

골 모양이 꼭지처럼 생겨서 꼭지마골 이라고 한다.

■ 작은가재골, 큰가재골

가재가 많이 났다하여 그리 부른다.

■ 감나무골

감나무가 많았다 하여 감나무골 이라 한다.

■ 개구리바위

백산 이라고도 하고, 그 산을 통미산 이라고도 하는데 산이 길어서 뱀혈 이라고 한다.

개구리바위가 뱀의 머리라 한다. 바위에 청색이 박혀 있는데 개구리 같다하여 뱀이 개구리를 물고있는 형국이라 한다.

■ 백산(통미산)

이목동 가는 길옆에 있는 산으로 주인이 백씨라서 백산으로 칭했다.

이목동 사람들은 이 산을 통미산 이라고도 불렀다.

■ 비바위

비가 오면 4, 5명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바위라 해서 비바위 라고 하며, 원적사 들어가는 입구에 있다.

■ 너러바위

개울 사이에 바위가 박혀 있는데 넓고 납작하다 하여 너러바위 라고 하며, 아이들이 즐타고 떡감으며 놀았던 바위이다.

■ 말바탕

마을동쪽 동림산 옆을 말하는데 말을 타고 그곳을 돌고 말을 묶어 놓았던 곳이라고 한다. 말바탕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파는데 신기하게도 물에 씻긴 돌과 빗살무늬 질그릇이 나왔다.

㉞ 봉대리(鳳臺里)

조선말엽에는 전의군(全義郡) 동면(東面)의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개혁때 고소상리(古所峯里)·서방동(西方洞)·대동(垔洞)등을 병합하여 서봉과 만경대의 이름을 따서 봉대리(鳳臺里)라 하고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編入)되었다.

■ 평말

봉대리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이 평평한 땅 위에 있다해서 평말 이라 부른다.

■ 텃골

‘고삿재’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사태말, 대동(垔洞) 이라고도 부르는데, 예전에는 사태가 많이 나온 마을이라 하여 ‘사태말’ 이라 불렀다.

■ 서봉동(棲鳳洞)

‘고삿재’ 서북쪽에 있는 마을을 서봉동(棲鳳洞)이라 부른다. 토형(土形)이 봉(鳳)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形局)이라 하는데, 예전에 鳳이 날아와서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서봉동(棲鳳洞)이라 부른다. 또한 ‘고삿재’ 서쪽에 마을이 자리하였다 하여 ‘서방(西方)골’ 이라고도 부른다.

■ 목우장(牧牛場)

서봉동(棲鳳洞) 북쪽 산기슭에 있는 터다. 산기슭에 약 3ha가량 되는 평지(平地)가 있는데 예전 조선중엽에 이 곳에서 목축(牧畜)을 많이 하였던 곳이라 하여 ‘목우장(木牛場)’ 으로 불리우고 있다. 지금은 잡목(雜木)이 무성하지만 예전에는 동물(動物)을 키웠던 자리라 하여 목우장 이라 부른다.

㉞ 심중리(深中里)

심중리(深中里)는 본래 청주군 서강외 일하면 지역으로 강외면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공북리(拱北里), 서는 연기군 전동면 노장리와 접하고 있다.

조선영조 후반 (1750-1776)에는 심천리(深川里)라 불렀으나, 정조13년(1785)경 한때 없어졌다가 헌종때(1895) 다시 부활되어 고종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1910년경 경술국치 직전 상심동(上深洞), 하심동(下深洞), 심남리(深南里), 심서리(深西里), 갈거리(葛巨里), 조광동(早光洞), 태고동(太古洞)으로 분리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상심동과 하심동의 각 일부를 상봉리(上鳳里)로 넘겨주고 미원동(彌院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심중리라 하여 강외면에 편입되었다가, 1995년 3월 1일부로 연기군 전동면에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자연부락으로는 갈거리(葛巨里), 불근덕(丹憲), 덕룡굴(德龍窟), 민테절, 사기소(砂器所), 소죽골, 중지프내(中深里), 지프내(深川)로 나뉘어진다.

■ 민태절

심중 2리 마을로 연기군 전동면과 청원군 동림리와와 경계지역이다.

예전에는 청원군 강외면 심중 2리였던 것을 1995년 3월 1일 연기군 전동면으로 편입되었으며 민태산 이란 이름은 마을 뒷산 동림산 중턱에 절이 있었는데 이 절의 이름이 민태절 이라 부른데서 연유했고, 절이 폐사 되면서 절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된 것 같다. 민태절 절터는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다.

돌축대를 쌓는 곳과 그곳에서 산 정상 쪽에 계단식 건물지가 보이고 동쪽으로 험준한 벽을 오르니 기와편이 무더기로 산재한 건물지가 있었다.

이 곳의 건물지는 모두 넓은 평지를 이용하여 지어졌다는 것보다 경사를 극복하려고 돌축대를 쌓았고 그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건물을 지은 듯 하다.

건물의 숫자는 5군데 건물지가 보이고 중심지 옆에 커다란 바위에는 고인돌에 나타나는 구멍(성혈)이 서 너개 뚫려 있었다.

■ 동림고개

민태절에서 옥산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칭한다. 이곳을 넘어가면 충청북도 옥산면 상동림 마을이 나온다.

■ 가마골

마을 뒤 동림산 밑을 지칭한다. 그릇편이 많이 출토되어 예전에 이곳에서 도자기를 구웠던 자리라고 전해 온다.

■ 농바위골

동림산 정상에 동림산성이 있는데 남쪽 봉우리 가는 길에 커다란 바위가 있고 이를 농바위라 부른다.

■ 접터

절터 아래에 그릇을 구웠던 곳을 지칭한다.

■ 성불원

민태절 아래에 있는 곳당이다.

■ 범바위

마을에서 서남쪽 높은 봉우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범바위라 부른다.

■ 약물내기

범바위 아래에 있으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한다. 가

몸에도 물이 끊이지 않았는데 양쪽 옆에 묘를 쓰는 바람에 그때부터 물이 나오지 않았다.

■ 동림산성

동림산성은 민태절 뒷산 동림산 정상에 위치한다. 이곳은 충북 청원군 강외면 지역이었던 것을 1995년 3월 1일자로 연기군에 편입되었다. 성안에는 헬기장과 편입기념비가 설치되어 있고 민묘가 서 너기 있다. 산성의 모양은 세 군데의 정상을 휘어 감아 돌로 쌓은 퇴폐식 석축 산성이었다. 북쪽과 서쪽은 급경사가 심하여 돌로 높이 쌓을 필요가 없었는지 약간의 석축과 흙으로 쌓아올린 흔적이 보이고 남쪽과 동쪽은 돌을 견고하게 쌓았는데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남서쪽의 높은 봉우리에는 누각을 지었을 건물지가 보이고 기념비, 헬기장 등에 건물지가 보이니 이들 시설을 하느라 유적 파괴가 심각했다.

석축의 방법은 축대를 쌓는 형식이었고 남쪽 봉우리 가기 전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 붉은덕

땅이 황토 흙이라 하여 붉은덕 이라고 한다.

■ 깊은내

깊은 냇가가 있어 깊은내 라고 한다. 냇가는 상심천, 하심천으로 부르며 깊은내가 상심천, 보덕리가 하심천이 된다.

■ 서당골

1반 마을뒤 우측으로 있는 골짜기로 서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흔적은 없다.

■ 밤나무골

1반 들어가는 길 좌측에 있는 산으로 밤나무가 많아서 그리 부른다.

■ 대추나무골

밤나무골 옆으로, 대추나무가 많아서 그리 부른다.

■ 북목골

1반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애장터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아이 우는 소리가 나서 무서운 골짜기라 사람 왕래가 드물다고 한다.

■ 술배

현재 마을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부자만 살았는데 도둑이 많이 들어 떠났다고 전해진다. 이곳 밭에서 기와장이 많이 나오고 샘이 있다.

■ 강칭골

2반에 있는 골짜기로 이 마을에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 강씨는 없다.

■ 너털봉

깊은내에서 앞에 있는 산을 너털봉 이라고 한다. 너털봉 아래로 흐르는 내가 넓은 바다와 같은 데 지관이 보기에는 이 봉이 넓은 바다 위에 떠있는 배의 형국이라 하여 너른 바다 가운데의 봉이라 하여 너털봉 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너털봉의 제일 꼭대기는 학봉 이라고 한다.

■ 뱀새울

3반 옆산으로 너털봉 옆의 좌측에 있는 골로 이곳에서 곱돌이 많이 나와서 이곳 돌을 부셔 벼루를 만들어 썼다고 한다.

■ 북절골

너털봉 옆 우측으로 나 있는 골로, 이 골 발 가운데에서 물이 나는데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부자가 되는데 이곳에 도깨비가 많고 운이 맞지 않아 사람들이 살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북절골에서 보면 너털봉이 염해놓은 송장 같다 하여 기가 센 땅이라, 이곳에 절을 지어 나쁜 기운을 눌러야 하므로 북쪽의 절골이라 하여 북절골 이라 했다.

■ 비석산

깊은내로 들어오는 길옆의 산이다. 이곳에 비석이 많다고 하여 비석산이라 한다. 이곳에서 3구의 미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곳에 습기가 많았다고 하며 소나무관의 굽기가 한 뼘 정도 되었다고 한다. 이 산이 동림산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철도를 놓으면서 끊어졌다.

■ 덩소뜰

깊은 내 뒷동산 넘어 논밭으로 소가 누워서 일하고 있는 형국이라 하는데,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

■ 덩소뜰

깊은 내 뒷동산 너머의 뜰이며, 와우형국이라 하여 덩소뜰 이라 불렀다.

■ 구레논

1반 마을입구의 논으로, 밀의 논을 하구레 라고 한다.

■ 술고개

술배 돌아가는 골목길의 고개이다.

■ 산수골고개

1반 동쪽으로 상봉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 미타절

제일 위쪽의 마을로 동림산 밑에 있는 마을이다. 이곳에 고려시대에 미타사 라는 절이 있어서 미타절 이라 불렀다.

■ 덕룡동

심중 2리 중간에 있는 마을로 앞산은 용의 형세이고 뒷산은 크고 웅장하다 하여 큰덕(德)자에 용용(龍)자를 써서 덕룡동(德龍洞)이라 한다.

■ 조광골

해가 제일먼저 뜨는 마을이라 하여 조광골 이라 한다.

■ 칼골

심중 2리 첫 동네로 신라시대 임경업 장군이 말을 타고 가다가 이곳에서 쉬려고 칼을 놓았다고 해서 칼골 이라고 한다.

■ 동림산

덕룡동에 있는 산으로 전의 동쪽에 있으며 나무가 수풀처럼 우거졌다고 해서 동림산이라 부른다. 산 정상에 동림산성이 있다.

■ 안산

덕룡동 안쪽 산으로 용의 형태이다.

■ 굽바골

치막골과 진골사이의 골짜기이다.

■ 사냥골

진골의 맞은편에 있는 골짜기로 골이 높아 매 사냥을 할 때 이곳에서 매를 관찰하였다 하여 사냥골 이라 한다.

■ 양달골

굽바골과 진골 사이에 있는 골로 양지바르다고 해서 양달골 이라고 한다.

■ 동산절골

동산사 라는 절이 있었던 골이라 하여 동산절골 이라고 한다.
이 골에서 기왓장이 나온다.

■ 양터골

조광골과 덕용동 사이의 논과 밭이며, 양지터라 하여 양터골 이라고 불리웠다.

■ 행상바위

행상처럼 생긴 바위로 아들 낳기를 기원하던 사람들은 이 바위에 돌을 던졌다고 한다. 아들이 있어야 행여를 매 준다는 것이 이유이고, 저수지 안에 있었다.

■ 치마바위

치마처럼 생겼던 바위로 저수지 안에 있었다.

■ 칼바위

칼날처럼 날카롭게 생긴 바위로 저수지 안에 있었다.

■ 용궁바위

자연적으로 가운데 구멍이 난 바위로 용왕제를 지내는 바위이다.

■ 산제바위

용궁바위 위로 있으며 산제를 지내는 바위이다.

■ 동산절고개

꽃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절 뒤쪽으로 있다.

■ 꽃말고개

옛날의 절터인데 덕암리로 가는 고개이다.

연기군의 지명유래

소청면



8. 소정면(小井面)

소정면은 연기군에서 가장 작은 면이다. 원래는 전의면 지역이었으나 1995년도에 소정면을 신설하여 연기군이 1읍 7개면이 되었다.

소정면하면 떠오르는 마을이 대곡리이다. 대곡리는 본래 천안지역이었다가 연기군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는 천안과 경계를 이루는 연기군의 북쪽 끝마을이다. 한절골, 대사동이라 불리는데 이곳 마을에는 수백년간 마을을 지켜온 장승이 있다. 대곡리 장승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장승으로 2002년에는 서울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앞뜰에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시연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다.

⊗ 고등리(高登里)

백제때부터 큰 골짜기여서 북방을 막는 산성(山城)이 있었던 지역(地域)이다. 높고 곧은 큰 골짜기가 있는 산성아래 부락(部落)이 생기면서부터 '곧은골' '고등(高登)' 이라 부르게 되었다.

예전에는 한양(漢陽)과 통하는 삼남대로(三南大路)가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고장이기도 하다. 본래(本來) 전의군(全義郡) 북면의 지역이었다 1914년에 전의면(全義面)에 편입(編入)되었다가, 1993년 소정면이 신설되어 소정면에 편입되었다.

■ 세거리

'안골' 북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앞에 동(東)·서(西)·북(北) 세 곳으로 가는 갈랫길이 있다 해서 '세거리'라 부른다.

'시거리' '삼기(三岐)' 라고도 부른다.

■ 문필봉(文筆峰)

예전부터 문인(文人) 명현(名賢)이 나올 곳이라 하여 산을 문필봉(文筆峰)이라 부른다.

'세거리' 동쪽에 뾰족하게 솟아있는 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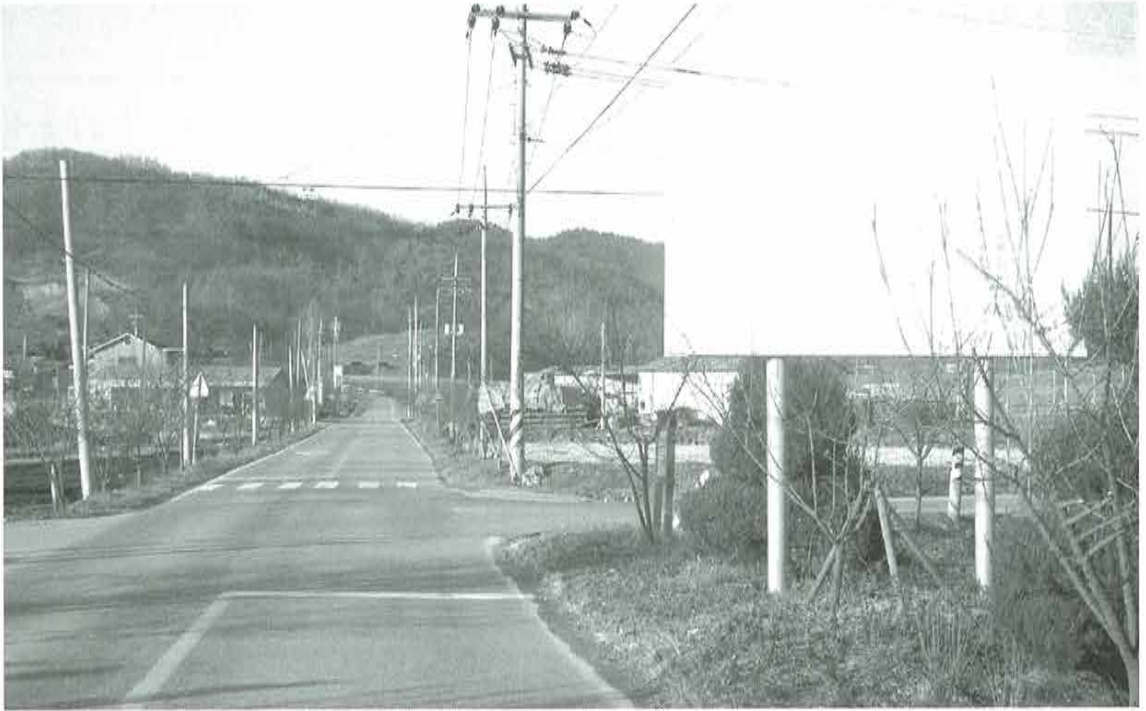
■ 고등이 고개

예전에는 삼남대로(三南大路)가 있어서 많은 행인(行人)이 넘어 다닌 고개다. 선비들이 흥얼거리는 시조가락에 들새가 잔잔하였다는 옛 시조의 일절에 등장할 만큼 유명한 고개다.

'고등이재' '고등현(高登峴)' 이라고도 부르며 고등리에서 대곡리로 넘어가는 고개다.

■ 고등이내

소정면(小井面) 고등리(高登里) 고려성(高麗城)에서 발원하여 '서정리'를 거쳐 전의(全義)읍내 앞에서 사기 소내와 합하여 '조천'이 되는 옷내를 '고등이내'라 한다. 고등리에서 발원한다 하여 '고등이내'라 한다.



세거리



세거리



삼기초등학교(현재 폐교되었다)



고등이 고개



아야목입구

■ 고려산성(高麗山城)

소정면 고등리(高登里) 고려산(高麗山)위에 있는 산성을 고려산성(高麗山城)이라고 부른다. 고려 때 쌓은 산성으로서 옛날 백성들이 한번 난리를 만나고 이 산성에 피난하였으나, 식수가 적어서 갈증이 심하여 목이 아픔으로 성(城) 아래에 '아야목'이라는 부락(部落)이 있어서 이 부락에서 목을 축였다는 설(說)이 있는 산성이다.

성(城)안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제단(祭壇)이 있었으며 연기팔경(燕岐八景)의 하나이다.

■ 내동(內洞)

고등이 안쪽에 있는 마을로서 안골이라고도 한다.

■ 아야목(我也目)

세거리 북쪽에 있는 마을로서 고려성 아래 마을이다. 고려 홍건적(洪巾賊)의 난리 때 고려성에서 피난하는데, 먹을 물이 떨어져 견딜 수가 없을 때 갑자기 비가 내려 급히 물을 먹자 목이 아파서, “아야 목아”하고 울면서 산에 내려와 살았다고 하여 아야목이라 한다.

■ 월조산(月照山)

고려성 위쪽에 있는 산으로 전의읍의 주봉(主峯)이 된다.

■ 새뜸

마을회관 남쪽으로 마을과 사이가 떨어져 새로 생겼다하여 새뜸이라 한다.

■ 동산너머

마을회관 남쪽으로 동네와 산을 넘어서 마을이 있다하여 동산너머라고 한다.

■ 불당골

1리 회관 북쪽을 말하는데 절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불당골이라 한다.

■ 말미골

마을남쪽 동산너머 뒤를 말미골이라고 한다.

■ 구름들이

마을 남서쪽을 가리키며, 물이 귀한 곳에서 물이 많이 나는데, 구름만 껴도 물이 흘러내린다 하여 구름들이라고 한다.

■ 재룡재

1리 마을 남서쪽을 재룡재라고 한다.

■ 강시골

1리 북서쪽에 있는 골을 강시골이라고 한다.

■ 야지팽

들 이름으로 마을 북서쪽 강시골 옆을 야지팽이라고 한다.

■ 중봉바위

1리 마을 북쪽에 있는 바위를 말하는데, 중들이 그곳에서 조그맣게 막을 지어놓고 살았다고 하여 중봉바위라고 한다.

■ 생출

1리 북쪽마을을 생출이라고 하는데 생출안에는 능안이라는 것이 있다. 능안은 왕릉을 쓸려고 하다가, 안 썼다고 하여 능안이라 한다.

■ 고등고개

1리 북동쪽에 있는 고개로, 과객들이 과거를 보러 많이 왕래하였다고 해서 고등고개라고 한다.

■ 진들

마을 북동쪽에 있는 들을 길다고 해서 진들이라고 한다.

■ 까치산

1리 마을 남쪽에 보이는 산을 까치산이라고 한다.

■ 외태골

일제시대에 장터가 있었다 하여 외태골이라 한다.

■ 내태골

외태골 내에 장터가 있던 곳을 내태골이라 한다.

■ 사박골

1리 마을 동남쪽에 있는 골을 사박골이라고 한다.

■ 큰골

고려성 밑을 말하는데, 골이 커서 피난민들이 여기에 숨었었다.

■ 군박골

감나무골 뒤를 군박골이라고 한다.

■ 고나무골

아야목 동쪽의 골을 고나무골이라고 한다.

■ 휘미기

큰골 옆 논을 휘미기라고 한다.

■ 벌평

평평하다 하여 벌평이라고 했는데 고속전철이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 미륵땅

미륵이 있다하여 미륵땅이라고 한다.

■ 평밭뜰

평평한 밭이라 해서 평밭뜰이라고 한다.

■ 한적굴고개

큰 절이 있었는데 대사동고개라고도 부른다.

■ 불당고개

절이 있었다하여 불당고개라고 한다.

■ 한티

불당골 밑을 한티라고 한다.

■ 뒷고랑

병풍바위가 있는 고랑을 말한다.

■ 매봉재

응봉재라고도 하는데 매가 나는 형국이라 해서 매봉재라고 한다.

■ 윗골

위에 있는 골이라 해서 윗골이라고 한다.

■ 비룡봉

용이 날아간다 해서 비룡봉이라고 하며, 비룡봉으로 올라가면 천안이 다 보인다.

■ 꽃잘말랭이

진달래꽃이 많이 피었다고 하여 꽃잘말랭이라고 한다.

■ 송이재

방송국이 생겼다고 해서 송이재라고 한다.

■ 앞뜰논

마을 앞 논이라 해서 앞뜰논이라고 한다.

■ 병풍바위

바위가 병풍처럼 뜰 옆으로 서 있다하여 병풍바위라고 하며, 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이 바위를 위했다.

㉨ 대곡리(大谷里)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보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의 돌칼과 돌화살촉이 출토(出土)되었으며 산의 모양으로 보아 혈거부락(穴居部落)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한다.

조선시대 때는 역리(驛里)부락으로 김제역(金提驛)이었다. 본래는 전의군 북면(北面)의 지역이었다. 북면(北面)의 '대사동' 과 '맹곡리' 의 이름을 따서 대곡리(大谷里)라 하여 전의면(全義面)에 편입(編入)되었다가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소정면에 편입되었다.

■ 역말

맹골 북쪽 큰 길가에 있는 마을을 역말 또는 역리(驛里)·김제역말·진계역말 이라 부른다. 본래(本來) 천안군(天安郡) 소동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 김제역(金提驛)이 있었던 마을이다. 또한 역말은 '학수동' 이라고도 부르는데, 산 모양이 학 모양 같고 그 가운데 내가 흘러 '학수동' 이라고도 부른다.

■ 한적골

대곡리(大谷里)에서 제일 큰 마을이다. '고둥이재' 밑이 되는데, 예전에 큰 절이 있었다 하여 '한적골' 이라 부른다. 3층 석탑이 있으며 '대사동(大寺洞)' 이라고도 부른다. 임진왜란 때는 중들의 피난처였다.

■ 맹골

'한적골' 북서쪽에 있는 마을 옛날에 맹씨(孟氏)가 살았다 하여 맹골, 맹곡(孟谷)이라 부른다.

■ 궁말

'역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앞뜰에 궁담(宮沓)이 많이 있었다 하여 궁말, 궁리(宮里)라 부른다.

■ 소정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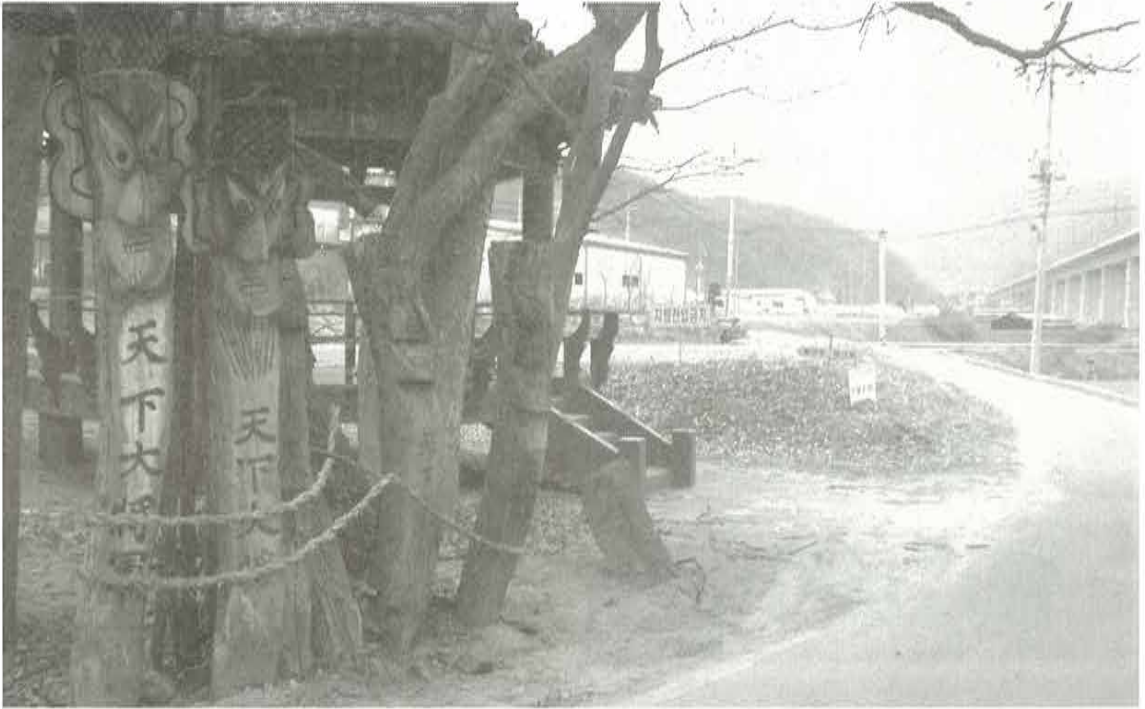
현재 도로 따라 있는 마을로 상가들이 들어 서 있으며 소정의 끝 부분이라는 뜻이다. 소정(蘇井)이라는 우물과 여러 주의 큰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고 한다.

■ 관터

옛날 관청이 있었던 터이다.

■ 삼거리

크게 세 갈래 길이 나있어 삼거리라고 하며 대전, 서울, 풍세(천안) 이렇게 세 군데 길이 나있다고 한다. 현재는 조그만 길이 하나생겨 정확히는 4거리라고 한다.



대곡리 장승



대곡리 장승



대곡리 삼층석탑



장승정

■ 황골

대곡 2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마을과 그 주변을 황골이라고 한다.

■ 학수동

대곡 3리는 학이 날아가 앉는 형상이기에 학수동이라고도 한다.

옛날 이곳이 말을 갈아타는 곳이어서 역말 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역말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조그맣게 있었는데 1979년에 자리가 좋지 않다고 현재의 위치인 학수동으로 옮겼다. 학수동은 천안과의 경계라 이곳에서 장도 열렸다.

■ 조랭이터(과부터)

2리와 연결된 길 있는 부근 안쪽 논밭이 있는 곳으로 이곳에다 집을 지으면 3년 동안은 잘되는데 3년 뒤에는 망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곳 지형 형세가 조랭이와(복조리) 비슷해 옛날 밥을 지을 때 쌀을 3번 정도 씻고 조랭이를 털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이유인지 남자들이 죽고 과부가 생기며 남편 없는 집은 금방 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부터라고도 한다.

■ 작은 안골(늦적골)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좌측으로 작은 골짜기란 뜻의 지역으로 옛날 이곳에 늦 공장이 있어서 늦적골이라 한다.

■ 큰 안골

작은 안골 우측 안쪽으로 큰 안쪽골짜기라는 뜻이다. 송장골에서 이곳을 바라보면 골짜기가 크다고 한다.

■ 공동묘지

마을 안쪽도로를 따라 700~800m 들어가면 일제시대 때 산을 모두 빼앗았기 때문에 한군데에 묘를 만들 수 있는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 바깥양달

공동묘지 너머 남쪽을 바라보고 양지바르다 해서 바깥양달이라고 한다.

■ 검은들

이곳은 땅에서 물이 항상 나와 아무리 가물어도 흉년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흉풍 없이 농사를 잘 짓는다 했고, 또 식물들이 잘 자라서 숲이 우거졌다 해서 검은 들이라고 한다.

■ 등잔골

김은들 뒤로 등잔고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등잔골이며 이곳에서도 지하수 나오는 곳이 있다.

■ 송장골

현 공동묘지 부근을 공동묘지 겸 송장골로 사용했다.

■ 고댕이골

큰 안골 가기 전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서낭댕이가 있어서 그렇게 불리며 느티나무가 있었고 그 옆으로 돌무더기가 있다.

■ 한절골, 한적골, 대사동

현재 마을입구에 장승이 있어 장승마을로 윤년이 드는 해에 장승을 세우며 장승제를 지낸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 우는데, 한절골은 골짜기가 많고 큰절이 있어서 그렇게 불린다. 또 한번 들어오면 막다른 곳이라 들어 왔던 길로 다시 나가야한다 해서 한절골이라고 한다. 1979년도에 민속보전마을로 지정되었다가 1982년쯤에 해제되었다.

한적골, 한절골 이라고도 하며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옛날에 대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승려가 만여 명을 헤아렸으며 유적지와 초석이 완연히 남았었다고 한다.

거대한 석탑이 4층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추녀에 들어가 비를 피할 만 하였다고 한다.

또 천수가 용출하였는데 물이 맑고 동온하정하여 척서정이라 이름 하였다고 한다.

위의 탑은 매몰된 듯 자취를 찾을 길이 없고 현재 마을 입구(수살)에 장승이 있어 윤년이 드는 해에 목장승을 새로 깎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내고 있다.

■ 구병산

마을 동쪽에 있는 산으로 능성구씨네 산이며 조상이 조선시대 때 병마절도사가 나와서 구병산이란 말도 있으며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려 태조 때 이곳이 격전지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작전계획을 세워 구병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다.

■ 국사봉(거꾸로봉)

유천리와 경계지역의 산으로 도선국사가 올랐기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말도 있다.

■ 고등재

고등리와 이 마을의 경계 산 고개로 소정리역을 가기 위하여 이곳으로 고등리 주민과 학생들이 많이 오고 갔으며 고개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 일명 바람 번들이라고도 한다.

■ 승절골(승적골)

한절골 좌측 안쪽의 남쪽방면으로 옛날에는 절과 승려들이 있었다고 해서 승절골이라 하며 몽고

군이 쳐들어왔을 때 몽고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여 승적골 이라고도 한다.

■ 절골

승절골 밑에 절이 있었다 해서 절골 이라 한다. 이 부근에서 토기가 나왔는데 유실되어 없고 현재는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

■ 가세마골

이곳에 절이 많았기에 승려 옷을 만들던 곳이라 해서 가세마골이라 한다.

■ 가사막골

옛날에 승의(옷)을 만들던 곳이며 산세가 가위와 같다고 한다.

■ 조당골

조사의 전당이 있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굿당이 자리 잡고 있다.

■ 대장골(대정골)

마을의 동쪽 큰 골짜기로 옛날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으며 동온하정(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 차가운 물)하여 옷이 오르거나 땀띠가 나면 이곳에서 목욕을 하면 치유가 되어 옷샘이라고도 했으며 물이 바닥에서 솟구쳐 용천수라고도 하였다.

■ 한작골(뱀당골)

마을 앞 양지바른 골짜기로 산의 형세가 뱀의 형상이며 산 정상 부근에 큰 바위에 뱀이 월동서식하는 굴이 있으며 한때는 백사가 서식하였다고 하며 땅꾼이 자주 찾아온다고 한다.

정경부인 창원황씨(조선시대 이조판서를 지낸) 친정아버지 황림의 산소가 있었다고 한다.

속설에 뱀의 형세에 석물을 하면 석물의 기운이 뱀을 눌러 죽이게 되면 그 후손들이 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자리에 석물을 한 후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생겨 묘지를 이장해 갔다. 그 석물은 지금도 산 아래 길에 묻혀있다.

■ 양지작골

수살 밖의 양지쪽 골짜기로 맹골로 넘어가는 소로길이 있으며 지금은 낙원농장이 잘 가꿔져 있다. 그리고 평양기생 이춘심 할머니와 머슴 현 영감(현구범)의 산소가 자리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 평양에서 기생으로 활동하다가 내려와 소정 삼거리에서 술집을 운영하며 생활하였고 말년에 재산을 정리하여 인근 마을 중 가장 인심이 좋은 대사동으로 들어와 토지 900여평을 기증하고 사후에 잔이나 부어 달라고 해서 지금도 마을에서 산소를 관리해 주고 한식 때 제사를 지내주고 있다.

■ 무턱거리

국도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곳으로 옛날에는 주막과 한약국도 있었으나, 6·25때 폭격으로 없어지고 논이 되었다.

■ 수살골

수살 안쪽의 골짜기로 옛날에는 애장이 많았었다.

■ 되넘이 고개(학교 고개)

소정초등학교 방향으로 학교 다닐 때 이 고개를 넘고 소정리 역에서 기차를 타러 넘어갔다가 되돌아 넘어 오기 때문에 되넘이 고개라 한다.

■ 일정골과 대원사(주지 박숙찬)

북당골(북당골) 반대편의 골짜기로 옛날 이곳에 정자가 있어서 일정골이며, 1975년에 대원사라는 절이 들어섰는데 그 시절에 무장공비가 많이 출몰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산 속에 절이 은신처가 될 수 있다고 절을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오게 해서 없어졌다.

■ 용곡(곰푸리)과 목방고개

산의 형세가 곰의 형국이라고 하며 마을 북쪽에 있고 학수동 방향으로 이어져 천안방면으로 이어진 고개이다. 옛날 천안 장에 걸어 다닐 때 이곳에서 가끔 도적이 쫓아오곤 했다고 한다.

■ 뒷골

마을 뒤쪽에 위치하며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뒷산에 정경부인 창원황씨 묘소가 있다.

■ 은적산(매봉재)

뒷골 위쪽에 있는 산으로 산세가 매와 같다고 하여 매봉재 라고도 하며 낙향하여 산아래 숨어 산 선비가 있었다고 한다.

■ 노적봉

마을 동쪽의 산으로 산모양이 노적가리를 쌓아 놓은 것 같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일제시대 때 일본인 소유였으나 현재는 국유림이다.

■ 북당골

대장골 위쪽의 골짜기로 옛날에 불당이 있어서 불당골이라 했고 변해서 북당골이 되었으며 지금도 불당터가 있다.

■ 하마석, 상마석

옛날에 정경부인 창원황씨 묘소를 모시고 당시에 큰아들이 영의정, 둘째아들이 연안도호부사 겸

해주 병마첨절제사, 셋째아들이 김제군수, 장손자가 경기감사를 지낸 후손들이 이곳까지 말을 타고 와서 산소까지는 걸어가서 성묘하고 갔다고 한다.

■ 장승정

마을 입구 장승이 있는 곳에 지어졌으며 1979년 민속마을로 지정되며 지었다가 퇴락하여 철거하고 1995년 9월 30일 새로 준공하였다.

☞ 운당리(雲堂里)

마을의 편안을 위해 자주 제사를 지내는 불당(佛堂)에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구름이 산처럼 밀려오는 곳이라 하여 운당리(雲堂里)라 부르게 되었다.

본래는 충북 청주군 덕평면의 지역이었으나, 고종 32년에 전의군에 편입(編入)되고 서기 1914년 운강과 당리의 이름을 따서 운당리(雲堂里)라 하여 전의면(全義面)에 편입되었다가 소정면이 신설되면서 소정면에 편입되었다.

■ 당말

부락의 안위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불당(佛堂)이 있다 하여 당말, 당리(堂里)라 부른다.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불당은 당재에 있으나 그 아래 마을이므로 '당말'이라 부른다.

■ 불당곡(佛堂谷)

운당리에서 가장 큰 마을이다. 예전에 불당이 있었다. 불당골, 부곡리(富谷里)라고도 부른다.

■ 양촌(楊村)

마을 앞에 버드나무가 많았다 하여 양촌(楊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불당골 북쪽에 있는 마을이며 양리(楊里)라고도 부른다.

■ 운강(雲崗)

구름이 항상 산처럼 하늘에 떠서 마을을 내려다본다 하여 '운강'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서 보는 구름은 운치가 있기로 유명하다.

불당골 위에 있는 마을이다.

■ 버들골

운당 2리 남동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 불당골

안동김씨 불곡과 사람들이 터를 잡았던 곳이라 하며, 불당골이라고 했다.

■ 장고밭

1970년대 경지정리 후에 사라졌는데 생김새가 장구처럼 가운데가 가늘다 해서 장고밭이라고 한다.

■ 당고랑

당 너머에서 풍세 가는 골을 말한다.

■ 상수리배미

당 너머 동남쪽에 있는 상수리처럼 생긴 논을 말한다.

■ 옥빼미

당 너머 동쪽 논을 말하는데 옛날에 죄수를 가두던 옥이 있었던 곳이라 하여 옥빼미라고 한다.

■ 탑마루

부처당골 밑에 있는 밭을 말한다.

■ 조랭이터

불당골 밑에 집터가 있는데 이 터를 조랭이터라고 한다.

쌀 씻는 조랭이를 말하는데, 그곳에 집을 지으면 부자가 된다고 하며 적당히 욕심을 부리고 적당히 부자가 되고 난 뒤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과욕을 부리면 망한다고 한다.

■ 작은 할미고개, 큰 할미고개

버들골에 고개가 있었는데 개미허리처럼 잘록하다 하여 할미고개라고 했다.

㉨ 소정리(小井里)

원래는 전의군(全義郡) 북면(北面)의 지역이다. 천원군 풍세면(豐歲面) '소정(蘇井)'이라 부르기도 하였었다. '소정(小亭)'이란 잘못된 해석이다. 마을 앞에 소나무가 정자(亭子)처럼 서 있으므로 '송정(松亭)'이라 부르던 것이 '소정(蘇井)'이 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개혁에 따라 이웃의 여러 마을을 통합하여 소정리(小井里)라 하고 전의면에 편입(編入)되었다가 소정면이 신설되어 소정면의 중심마을이다.

■ 광암(廣岩)

예전에는 '넉바위'라 불렀었다. 넓은 바위란 뜻에서 '넉바위'가 '넉바위'로 변해 부른다. 지름 5m가량 되는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 해서 '넉바위'라 부르다가 '광암(廣岩)'이라고도 부른다. 전

주이씨(全州李氏)가 많이 살고 있다.

'넉바위'에는 청룡과 백호(白虎)로 둘러져 있으며, 청룡 곁에 넓은 바위가 있어 대궐에서 여기를 지날 때 여기에서 쉬어갔다 한다.

■ 옷골

'넉바위' 남서쪽 오목한 곳에 있는 마을이다. '요곡(要谷)'이라고도 부른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힘이 든다 해서 '요곡'이라 부른다. 해주오씨(海州吳氏)들이 많이 살고 있다.

■ 내동(內洞)

내동은 소정리(小井里)에서 깊숙한 곳에 위치한다 하여 내동(內洞), 안골이라 부른다.

'옷골' 서남쪽 산 안쪽에 있는 마을이다. 회덕황씨(黃氏)가 30세대 살고 있다.

■ 벌말

소정리 북쪽 벌판에 있는 마을이다. 들에 마을이 형성(形成)되었다 해서 벌말, 평리(坪里)라고 부른다.

■ 소정리역

소정리에 있는 경부선 철도의 정거장으로 1901년에 설치되었다.

■ 벌말

소정 1리 서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청주에서 떠나려 왔다하여 청주벌말이라고도 불렀다. 도지도 청주에서 받아갔으며 물레방아가 하나 있었고, 6~7가구가 살았으나 1970년대쯤 경지정리하면서 사라지고 논이 되었다.

■ 고려산

마을 북쪽의 산으로 고려산성이 있어서 고려산 이라고 한다.

■ 넉바위(광암)

마을북쪽 청룡산 끝 부분에 넓적한 바위가 있는데 넉바위라고 부른다.

지금은 철길을 놓느라 천안과 조치원 사이의 산을 끊어서 바위가 보이는데 예전에는 바위가 없었고, 이곳에만 있었다. 나무가 우거지기 전에는 바위들이 바로 보였는데 박정희 시대의 조림사업으로 지금은 숲이 우거져 바위가 잘 보이지 않는다.

좌청룡 우백호의 마을이라고도 한다.

■ 청룡산과 숲 이야기

마을 북쪽에 있는 산을 청룡산, 청룡황 이라고 부른다. 청룡황이 짧다고 해서 청룡을 길게 하려

고 400여년 전부터 나무를 심어 인위적으로 숲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동네의 안녕을 빌고 북풍을 막아주므로 동네를 따뜻하게 해 주었다.

고목이 되어 나무가 죽으면 다시 심고하여 전주이씨가 이 숲을 조상처럼 아꼈다고 전해진다. 박정희 재임시 새마을사업 때 청년들이 이것을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자고 하였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승희(이승욱?)씨가 이 숲을 정부 보호림으로 지정하게 했다.

■ 백호날

마을 남쪽에 위치한 산으로 백호푸리라고도 한다.

■ 장골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골로, 길다하여 장골이라고 한다.

■ 청룡골

은행나무골 이라고도 한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1980년대에 거의 죽자 장수꾼에게 팔아서 베어갔다. 그런데 베어낸 그 자리에 다시 줄기가 나왔으나, 2003년에 발을 만드느라 다시 베어내서 뿌리까지 파냈다.

■ 구레뜰

신작로 넘어서 마을동쪽으로 보이는 산 앞의 뜰로, 가장 큰 뜰을 말한다.

■ 복교

마을넷가 근처를 말하며, 보를 친다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으며, 구레뜰도 그 보의 물로 농사를 지었다.

■ 복개천

마을 앞에 흐르는 내를 복개천이라고 한다.

■ 백호풀이샘

생수가 나던 유명한 샘으로 샘이 너무 작아서 청소가 필요 없었다는데 1990년대쯤 농지정리때 없어졌다.

■ 청룡환 옷샘

청룡환에 위치하며 물이 차기 때문에 옷이 오르면 거기에서 씻었으나 1990년대쯤 농지정리때 없어졌다.

■ 안샘

현존하는 썸으로 청룡환 부근에 있으며 오래 묵은 향나무가 썸 옆에 있다.

■ 서낭당

장골 막바지에 서낭나무가 있었는데 오고가며 서낭치기를 했다.

정월 대보름이면 개인적으로 시루떡이나 귀한 음식 등을 올리고 아낙들이 절을 하며 소원을 많이 빌었다. 원래 이 동네는 서낭나무 근처에는 돌이 많았다.

■ 이무기웅덩이

청룡환 앞에 내가 흘렀었는데 바위나드리 쪽(바위나 들 밑)으로 내가 치고 들어가서 웅덩이가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웅덩이는 소용돌이 쳤다. 이 속에 이무기가 산다고 생각했으며 소를 매 놓으면 사라졌다. (소를 매어놓으면 이무기가 채간다고 했다.) 이 웅덩이는 1930년대 자연적으로 메워졌다. (1930년대쯤에 토사축적과 하천의 직선화 공사로 메워졌다.)

■ 안골

아늑하다고 하여 안골이라 하고, 산이 뺨 둘러싸여서 산 안에 있다하여 내동이라고도 한다.

■ 매봉재

안골 남쪽의 산으로 매가 날아가는 형국이라 하여 매봉재라 한다.

■ 조텃골(조턱골)

노장골 너머에 위치한다. (안골 남쪽을 조터골이라 한다.)

■ 노장골

마을남쪽으로 노스님이 있었다 하여 노장골이라 한다.

■ 부엉밭골

조터골 너머에 있는 골을 말하며, 6·25때 피난지였다.

■ 당고랑

운당리(고당리) 넘어가는 소로길(소록길)고개가 있다하여 당고랑이라고 한다.

■ 샷갓골

안골 동쪽에 샷갓처럼 생겼다 하여 샷갓골이라고 한다.

■ 절골

안골 남쪽 매봉재 너머에 있다.

■ 큰골, 작은골

황새날골 뒤쪽으로(마을 서쪽) 골이 길고, 짧음에 따라 큰골, 작은골이라 부르며 큰골은 6·25때 피난지였다.

■ 황새날골

안골 서북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 옷골

안골 위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 비둘기골

마을 서북쪽에 있는 골을 말한다.

■ 장고개

마을 북쪽으로 장에 다니는 고개가 있었다 해서 장고개라고 한다.

■ 용단골(용당굴)

장고개 뒤, 용당굴 앞의 산이 볼록 튀어나온 것이 용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단골이라고 한다.

■ 투구봉

마을 서북간에 있으며, 투구처럼 생겼다하여 투구봉이라고 한다.

■ 양달말

안골 가운데로 별이 잘 들어서 양달말이라고 한다.

■ 음달말

마을남쪽 산 밑 별이 잘 안든다 하여 음달말이라고 한다.

■ 외판터

매봉재 밑에 위치하며 마을남쪽 노장골과 절골 사이이며, 집이 한 채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 서당

마을 동북쪽 용단골에 서당이 있었다.

■ 바위

옷샘 위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사람 서 너명이 들어갈 수 있다.

■ 버드나무

마을회관 옆에 1970년대 심은 느티나무가 있다.

■ 요골

주막이 있고, 장뜰뱅이들이 쉬어갔으며, 고개를 올라가기 길고 험난해서 요골에서 쉬어 갔다

■ 요목고개

여장수가 고랑을 뚫었다고 하여 요목고개라고 한다.

■ 안적골

마을동쪽 뒷동산 너머로 앉아서 들어간다 해서 안적골이라고 한다.

■ 여수물

여장수가 쉬어갔다 해서 여수물이라고 한다.

■ 통미산

마을 남쪽의 산으로 안골과 통하는 곳이라 해서 통미이다.

■ 마리태기

요골에서 안골로 넘어가는 고개로 말을 타고 지나간다 해서 그렇게 부른다.

편집후기



연기향토박물관장 **심영수**

태어난 고향은 어느곳이든 아름답다.

마을에 들어설때 따스함을 느끼고 마을 이름은 친누이를 부르듯 향기롭다.

연기군에는 아름다운 마을 이름이 많다.

소정면 에는 **아야목** - 전쟁시 갑자기 물을 마셔 목이 아팠기에 붙여진 이름.

남면의 **세거리** -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물자가 금강에서 만나는 곳.

금남의 **돌다리** - 고인돌이 많은 마을이므로 붙여진 이름.

조치원의 **아홉거리** - 아홉갈래의 길이 있는 거리.

전의 **다락골** - 높은지대에 있는 마을

전동의 **깊으내** - 절벽위에는 정자가 있고, 그 아래 냇가가 깊은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

동면의 **아미산** - 산의 모습이 눈썹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

서면의 **승적골** - 몽고족과 싸워이겨 승리한 곳이기에 붙여진 이름.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제침략기에 일본식 이름과 한자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두 마을이 병합하여 앞글자만 따서 부르거나 마을이 커지면 1,2,3구라는 숫자를 넣어 부르다 보니 이름의 아름다운 유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만든 연기군의 지명유래는 두가지 아쉬운점이 있다.

첫째는 책을 만드는 기간이 너무 짧고, 두번째는 조사된 내용이 모두 수록되지 못한점이 아쉽다.

지명유래가 멸종되기 전에 많이 기록해 놓는 것이 나의 임무 인것 같다.